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  
역사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간행사

지난 2008년 12월 5~6일 이틀간 동북아역사재단과 동아시아사연구포럼이 공동 개최하는 ‘동아시아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국제학술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지역에서 총 60명의 연구자들이 참가, 4개의 세션과 8개의 패널로 나뉘어 총 3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식교류의 역사를 확인하고, 역사에 대한 집단기억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역사 경험과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동아시아에 내재해 있는 역사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이런 주최 측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매우 빠빠한 일정 속에서도 진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동아시아사연구포럼은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2009년에는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세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연구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동아시아 역사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간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동아시아 역

사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이런 학술활동을 통해 역사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의 굳건한 기초를 닦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8년도 국제학술회의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표된 35편의 논문 중에 13편을 골라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동시에 출판합니다. 단행본 출간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옥고를 정성껏 손질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면에 제한이 있어 1권의 단행본으로 엮기에 적절한 13편의 글을 안배하다보니, 빼기에 아쉬운 훌륭한 원고를 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앞으로도 재단 자체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학계의 우수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다양한 결과물을 발간하고, 동아시아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려 합니다. 이 작은 결실이 부디 동아시아 역사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 재 정

## 제1부 해외정보와 지식의 유통

-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다나카 요코
  - 가와라반(목판인쇄물)에서 본 페리 내항이 에도의 서민들에게 미친 영향
  - 1. 머리말 - 이 글의 과제 13
  - 2. 가와라반이란? 13
  - 3. 페리 내항의 경위와 연구사 정리 16
  - 4. 흑선가와라반의 제작과 발행 19
  - 5. 흑선가와라반의 내용 분류 21
  - 6. 증기선도 25
  - 7. 미국 인물도 27
  - 8. 맺음말 34
  
- 한역양학서와 19세기의 일본의 출판문화 이쓰미미 도시푸미
  - 흡슨의 서적을 중심으로
  - 1. 머리말 37
  - 2. 흡슨 서적의 성립 38
  - 3. 한자문화권으로의 보급 42
  - 4. 일본으로의 보급 49

● 일본을 통한 근대기술 및 지식의 수용과 그 변용 허동현	
- 1876~1884년 사이의 견일(遣日)사절을 중심으로	
1. 머리말	61
2. 동도서기문자의 근대기술 수용론	64
3. 근대 지식과 기술수용을 통한 국민국가 수립론	71
4. 이와쿠라 사절단과의 비교를 통해 본 조사시찰단의 한계	78
5. 맺음말	85
● 근대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 양병이	
- 1898~1931년 기간을 중심으로	
1. 머리말	89
2. 근대 중국의 일본유학운동에서의 와세다대학의 위치	90
3. 『와세다대학 교우회원명부』에 반영된 와세다대학 중국 유학생의 기초 상황	93
4.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이 중국 근대화의 각 영역에서 공헌한 바	96
5. 와세다대학 중국 유학생이 낙후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	107
6. 몇 가지 생각할 거리	110

## 제2부 아시아주의의 연쇄

● ‘소일본주의’, ‘민간재계주의’, ‘대아시아주의’ 마쓰우라 마사타카	
- 근대 일본에서의 아시아주의의 세 가지 가능성	
1. 머리말	115
2. ‘소일본주의’ - ‘구외교’적인 미우라 테쓰타로에서 ‘신외교’적인 이시바시 단잔으로	118
3. ‘대일본주의’에서 ‘대아시아주의’로 - 우쓰노미야 다로와 마쓰이 이와네 · 대아세아협회	140
4. ‘민간재계주의’	162
5. 맺음말	173

● 유태경과 『아세아공론』 라경수	
- 동아시아 지식교류사의 새로운 발견	
1. 머리말	176
2. 지식인 유태경 : 인물과 활동	177
3. 잡지 『아세아공론』 : 동아시아 지식인의 교류공간	186
4. 『대동공론』이라는 잡지	199
5. 맺음말	202
● 다이쇼 시기 재경 타이완인 유학생과 아시아 지수평	
- 잡지 『아세아공론』을 단서로	
1. 머리말	203
2. 타이완인의 '내지일본' 유학	206
3. 전문부 정치경제과와 근대 타이완의 계몽운동	213
4. 『아세아공론』에 나타난 아시아 지식인의 대화	220
5. 맺음말	229

### 제3부 역사상의 상호인식과 역사기억

● 근세 일본의 조선 인식 미야자마 히로시	
- 임진왜란의 기억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33
2. 임진왜란에 관한 각종 기록	234
3. 도쿠가와막부와 다이묘가 편찬한 공적 기록	238
4. 아라이 하쿠세키의 인식	244
5. 메이지유신 이후의 전망	247
6. 현재의 문제	249

●	청말 중국의 ‘아시아’론에서 이어진 ‘역사기억’ 장칭	
	– ‘타자’인 일본과 조선을 함께 논함	
	1. ‘천하’ : ‘아시아’의 결핍	252
	2. 세계 구성 속의 ‘아시아’	258
	3. 일본에서 들어온 ‘동양사’	267
	4. ‘아시아로서의 중국’	274
	5. ‘타자’로서 일본과 조선	281
	6. 맺음말	296
●	안중근과 중국 왕위인저우	
	– 청위의 저서 『안중근』을 중심으로	
	1. 머리말	300
	2. 편찬자와 출판연도	304
	3. 주지와 주장	316
	4. 맺음말	331
●	중일전쟁 직후 식민지 조선인의 만주와 중국에 관한 인식 류시현	
	– 최남선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1. 머리말	333
	2. 중일전쟁과 식민지 조선인의 ‘국경’ 넘기	336
	3.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의 식민지 조선(인)의 위상 설정	345
	4. 만주와 중국 동북지역 거주 조선인의 활동에 관한 인식	354
	5. 맺음말	363
●	식민지 역사경험 속의 ‘개인기억’과 ‘집단기억’ 리첵지	
	– 전후 타이완 『역사기억의 구축과 변화』	
	1. 「해각칠호」가 불러일으킨 ‘기억’	365
	2. ‘피억압’의 ‘집단기억’에서 항일의 ‘역사기억’으로	370
	3. 전후 양산된 ‘집단기억’에서 다원 대립적 ‘역사기억’으로	377
	4. 맺음말 – 은유적인 식민지 ‘역사기억’	384

● 역사대화론 사이트 가즈하루

- 한·중·일 공통 역사교재 개발의 성과와 과제를 사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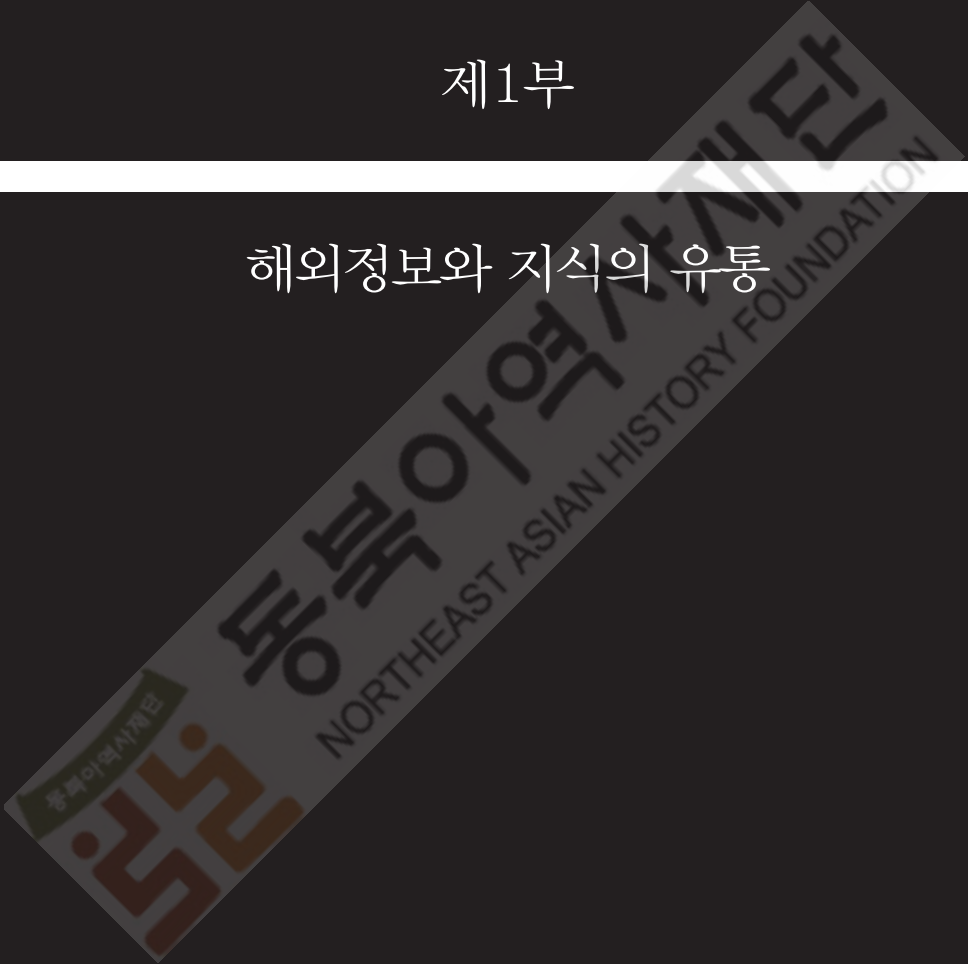
1. 머리말	386
2. 동아시아에서의 공통 역사교재 작성의 도달점과 과제	388
3.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역사대화	393
4. 공통 역사교재 작성에서 역사대화론으로	397
5. 맺음말	4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제1부

### 해외정보와 지식의 유통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 가와라반(목판인쇄물)에서 본 페리 내항이  
에도의 서민들에게 미친 영향

다나가 요코(田中葉子, 일본 도쿄대학)

## 1. 머리말 - 이 글의 과제

가에이<sup>[嘉永]</sup> 6년(1853)과 7년 두 차례에 걸쳐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동인도함대가 일본에 내항했다. 오늘날 ‘흑선(黑船) 내항’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건을 당시의 일본인, 특히 에도의 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19세기 중반의 일본 서민이 새로운 해외정보를 획득해 나간 사례로서 페리 내항에 즈음하여 발행된 가와라반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가와라반이란?

가와라반은 근세 초기에는 ‘스리모노<sup>[摺りもの]</sup>’, ‘요미우리<sup>[讀賣]</sup>’ 등으로 불렸는데,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 정보나 희귀한 사건 등, 주로 시사적인 내용을 기사로 실어 싼값에 판매한, 1장 또

는 2~3장을 한데 묶은 목판인쇄물이다.<sup>1</sup> 가와라반의 효시는 겐나(元和) 원년(1615) 오사카 여름 전투 때 발행된 「대판묘년지도(大坂卯年之圖)」라고 한다. 1680년대에 화재가 난 곳이나 자살사건을 다룬 가와라반이 많이 발행되었고, 이후 낙서나 니시키에(錦繪, 목판 우키요에)와 함께 도시부의 미디어로서 정착되어 갔다. 페리 내항 당시의 출판물에는 검열제도가 있었는데, 가와라반은 발행허가를 받지 않는 위법출판물로 빈번하게 금지령이 내렸다. 그러나 페리가 내항할 무렵에 이러한 위법출판에 대한 형벌은 주로 벌금형으로, 가와라반을 발행하는 측에는 발각되는 경우에도 벌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심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가와라반의 정의로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나카야마 에이노스케(中山榮之輔)가 지적한 다음의 네 가지이다.<sup>2</sup>

1. 뉴스성이 있어야 한다.
2. 측석에서 인쇄한 것이어야 한다.
3. 무단 출판이어야 한다.
4. 유료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세 번째에 중점을 두고, 허가를 받지 않은 목판인쇄물을 가와라반으로 간주하고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1 가와라반에 관한 연구는 小野秀雄(1960), 『かわらばん物語』(雄山閣)로 대표되듯이, 신문의 前史라는 위상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도시의 미디어로서 가와라반의 정보전달 형식이 주목을 받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는 정보사 연구의 소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같은 목판인쇄 미디어인 니시키에의 시사성이 지적되고 있어서, 가와라반이란 무엇인지가 재검토될 단계에 도달해 있다.

2 中山榮之輔(1974), 『江戸明治かわら選集』, 人文社.

가와라반의 사료적 특질로서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나카야마 정의의 4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상품이었다는 점이다. 가와라반에는 판매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의 각종 기록에서 ‘6문’, ‘8문’, ‘2장에 16문’ 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싼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기록에는 히라가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 도시부의 식자율을 감안하면 서민이 구매층으로 상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팔아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와라반의 제작자는 구매자인 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보이는지를 무시할 수 없다. 가와라반의 내용은 구매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들의 기호나 흥미,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라반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그 사건이 서민들에게 어떻게 인지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역사 사료로서 당시 서민들의 의식이나 정보의 형태를 생각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재료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목판인쇄물이었다는 점이다. 같은 내용이 복수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 그런 만큼 판매지역의 서민들에 대한 영향도 크고, 또 보다 많은 서민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는 나카야마 정의의 3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발행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허가를 받아 발행된 출판물에는 출판자·저자·발행연도가 명기되지만, 가와라반에는 이런 발행자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당시 시사적인 내용을 한 장에 인쇄하여 출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서민이 원하는 시사적인 정보는 그것이 지닌 익명성 때문에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역으로 말하자면, 가와라반으로 발행된 시사적인 내용은 당시 서민의 호기심이나 관심, 정보에 대한 욕구

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익명성이 가와라반에 의한 막부정치 비판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가와라반 지면에 발행자가 명기되지 않아도, 판매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발행자가 판명된다. 가와라반 발행자는 그 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당국의 대응을 살피가면서 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막부정치 비판은 가와라반보다 훨씬 익명성이 강한 육필 낙서에 나타난다.

이런 1장 혹은 몇 장으로 만들어진 민중의 읽을거리는 유럽에서는 15세기 말부터 17세기 후반에 걸쳐 독일의 플루크브라트(Plugbratt, 1428년의 플루크브라트가 가장 오랜 것이라고 한다), 영국의 브로드사이드(broadsaide) 등 각국에서 발행되었지만, 동아시아에서 그런 인쇄물이 발행된 것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중국 청조 말기에 신문 『신보(申報)』(영국 상인 메이저 형제가 1872년에 창간)에서 발간된 화보 『점석재화보(點石齋畫報)』는, 내용은 가와라반과 통하는 것이 있지만, 신문사가 발행한 정규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일본 근세의 가와라반보다 메이지기의 『금회신문(錦繪新聞)』과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3. 페리 내항의 경위와 연구사 정리

다음에 페리 내항의 경위에 대해 개관해 둔다.

동아시아에서의 군무(軍務), 특히 일본 원정을 위해 1852년 11월 24일 미국의 노포크(Norfolk)를 출항한 매튜 칼브레이스 페리 제독은 희망봉, 홍콩, 나하(那覇)를 경유하여 가에이 6년 6월 3일(1853. 7. 8. 이

하 날짜는 일본력으로 기술한다) 미국 동인도함대의 군함 4척을 이끌고 에도만의 입구에 위치하는 우라가[浦賀]<sup>3</sup>에 내항했다. 함대의 편성은 증기선 2척, 범선 2척이었다. 페리 함대가 에도 근해에 나타나자, 연안의 경비를 담당하던 4개 번(藩: 忍·川越·彦根·會津)과 우라가부교[浦賀奉行]는 즉시 막부에 보고하였고, 에도 사람들은 우라가와 에도 사이를 사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다음 날인 4일, 로주[老中] 등이 등성하여 토의를 벌인 끝에, 에도 시내에는 물가 양등과 소문의 금지 명령을 내리고, 배를 가진 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그것을 보러 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이국선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에도 서민들의 이목을 끈 이국선의 소문은 가와리반의 발행을 재촉하게 되었다. 내항 7일째인 6월 9일, 페리는 구리하마[久里浜]에서 필모어 대통령의 국서를 일본 측 대표[浦賀奉行 戸田氏榮·井戸弘道]에게 전달하고, 이듬해 봄에 재차 내항하겠다는 뜻을 전하고는 체재 9일 만인 6월 12일에 돌아갔다. 6월 22일에는 쇼군 이에요시[家慶]가 사망하지만, 막부는 이듬해의 내항에 대비하여 재빨리 행동을 취한다. 다이묘·막신(幕臣)에게 미국 대통령의 국서를 회람시키고 의견 자문을(6월 26일부터) 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다이묘뿐 아니라 에도의 조닌(町人)들에 이르기까지 약 800통의 건백서가 제출되었다. 또 쇼군이 거주하는 에도성에 가까운 에도만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11개의 포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8월부터 건설에 착수했다. 11월 14일에는 포대 축조에 맞춰 에도만 방위의 비중을 내해로 옮기고, 경비를 담당하는 번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3 에도에서 70km 남쪽에 위치하는 항구. 페리 함대 이전에도 미국 포경선 맨해튼호(1845), 미국 동인도함대 콜럼버스호·빈센스호(1846)가 내항하였다.

같은 동향은 에도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어 그때마다 가와라반에 올랐다. 이듬해 7년 1월 16일 페리가 우라가에 7척의 선박을 이끌고 다시 내항했다. 이때의 편성은 증기선 3척, 범선 2척, 수송선이 2척이었다. 후에 증기선 1척과 수송선 1척이 가세하여 총 9척으로 편성되었다. 2월부터는 요코하마(横浜)촌에서 협상이 시작되어 미일 간에 선물을 주고 받았다. 3월 3일 요코하마에서 미일화친조약이 조인되자 페리는 개항을 약속한 시모다(下田)와 하코다테(箱館)를 시찰하고, 5월에 시모다에서 화친조약 부록을 조인했다. 페리 함대는 약 반년간의 일본 체류를 거쳐 6월 4일 시모다를 출항, 류큐(琉球)와도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귀로에 올랐다.

페리 내항에 관한 연구는 이미 메이지 시기부터 축적되어 왔다. 『페리 함대 일본원정기』나 우라가부교의 서간을 비롯해 미일 쌍방의 자료도 다수 번역되어 사태의 구체적인 추이가 밝혀지고 있다. 최근에는 에도만 방어를 담당했던 각 번과 근린 촌락의 동향에 관한 연구와 페리 내항 정보 전달의 양상을 검토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페리 내항으로부터 막말유신기라는 변혁기를 서민들 자신은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민들이 직접 기록한 서간이나 일기, 혹은 니시키에나 가와라반 등의 미디어를 통해 고찰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up>5</sup>

4 최근의 연구서만 제시한다. 三谷博(2003), 『ペリ 來航』, 吉川弘文館; 加藤祐三(2004), 『幕末外交と開國』, ちくま新書; 岩田みゆき(2005), 『黒船がやってきた』, 吉川弘文館; 岩下哲典(2008), 『幕末日本の情報活動(改訂増補版)』, 雄山閣.

5 佐藤誠郎(1994), 『幕末維新の民衆世界』, 岩波新書; 高橋敏(2005), 『幕末狂亂』, 朝日新聞社; 若水俊(2007), 『江戸っ子氣質と鯨繪』, 角川學藝出版.

이 글에서 다루는 가와라반은 에도 서민들이 입수한 페리 내항 정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역사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나돌던 가와라반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았으며, 역사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하 이 글에서는 흑선가와라반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증기선도(圖)와 미국인도(圖)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4. 흑선가와라반의 제작과 발행

이 글에서는 페리 내항에 즈음하여 발행된 가와라반을 ‘흑선가와라반’이라고 총칭한다. ‘흑선가와라반’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가와라반의 내용은 페리 함대의 선박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페리 내항 당시, 페리 함대의 선박에 대해서는 주로 ‘이국선’, ‘아메리카 증기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흑선’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본래 ‘흑선’이라는 말은 근세 일본에서는 유럽 선박을 지칭하여 사용된 말로 페리 함대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흑선가와라반’이라는 말은 페리 내항 당시의 용어가 아니라, 연구사에서 ‘흑선’이라는 용어가 페리 내항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현존하는 흑선가와라반은 개인과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페리 일행이 방문한 지역의 박물관이나 자료관에서 많이 소장하고 있다. 필자의 관견으로는 370종의 1,000여 점에 이른다. 일본 국내의 기관에 소장된 가와라반의 데이터베이스인,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부속 화상해석 사료센터가 펴낸 「접물종합편년목록(摺物綜合編年目錄, 二稿)」(2000)에는 페리

내항 때의 가와라반이 271점이나 채록되어 있다. 목록에 채록된 것 중에는 필자가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도 있다. 필자가 본 가와라반과, 목록에 채록되었지만 조사하지 못한 가와라반을 합치면 400종류 이상의 흑선가와라반이 현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령 하나의 판목에서 최대한[一杯<sup>6</sup>:200매] 인쇄했다고 가정하면 총수가 8만 장이며, 현존하지 않는 가와라반이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하면 페리 내항 당시는 10만 장이 넘는 가와라반이 나돌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페리 내항 이전 가와라반의 발행량과 비교하면 흑선가와라반의 발행량은 10배도 넘으며, 양과 종류 모두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이 페리 내항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또 가와라반이 당시 서민들의 정보원으로서 활발하게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기록에서 가와라반의 발행 시기, 발행 방법, 발행 지역에 대해 확인해 보자.

에도 간다[神田]의 현책방 주인 후지오카야 요시조[藤岡屋由藏]의 정보 기록인 「후지오카야일기[藤岡屋日記]」에는 이미 페리의 1차 내항 중이던 6월 11일 밤에 가와라반을 판매했다는 기록이 있다.<sup>7</sup> 다른 일기류에서도 첫 번째 내항 때부터 두 번째 내항 시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흑선가와라반이 제작, 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또 출판물의 허가를 담당하던 회초지괘명주[繪草紙掛名主]가 강호정년기[江戸町年寄]에게 제출한 가

6 한번에 찍어내는 니시키에의 수량. 보통 200장. 검은색 한 색으로만 찍어낼 경우 더 많이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

7 『藤岡屋日記』 제43책, 「嘉永六年 海防全書 上」.

8 에도의 국학자 喜多村信節의 수필 「ききのまにまに」 가에이 6년 10월조와, 土浦의 상인 色川三中の 일기 「片葉雜記」 가에이 7년 4월 29일조에 흑선가와라반 발행 기사가 보인다.

에이 6년 11월의 사서(同書)로부터<sup>9</sup> 흑선가와라반의 제작과 판매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정식 판목 제작 기술자가 아닌 무사가 내직(內職)으로 판목 제작에 종사하고 있고, 발행허가를 받지 않은 가와라반이 몰래 판매되고 있으며, 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법출판물인 가와라반이지만, 에도의 책방이 수요를 기대하고 가와라반 발행에 관계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 발행 지역은 에도가 중심이지만, 에도를 방문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져가거나 하여 흑선가와라반은 일본 각지에 유포되어 나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 5. 흑선가와라반의 내용 분류

흑선가와라반의 내용은 페리 일행에 관한 미국 측 정보와 막부의 대응에 관한 일본 측 정보, 페리 내항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구사한 오락적인 것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인 미국 측 정보로는 100여 종이 있는데, 그것은 증기선을 비롯한 페리 함대의 선박, 페리와 그 일행의 품모, 소지품, 언어, 요코하마 상륙 모습, 미국에서 일본으로 보낸 선물 등의 해설이다.

함대의 선박에 대한 가와라반은 약 50종류인데, 보트와 범선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기선에 대한 것이다. 6절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페리 내항 직후의 가와라반과 두 번째 내항 때의 그것

9 『市中取締類集 書物錦繪之部』第273件(626), 「繪草紙掛名主伺書」.

은 화상에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페리 일행의 풍모에 관해서는 인물도가 20종이 있다. 페리와 부관 아담스 등 개인명을 기록한 초상화와 개인명을 기록하지 않은 미국인 병사상이 보인다. 의복과 모자, 소지품의 그림도 있는데, 특히 복장과 모자에 관해서는 그 형태가 계급에 따라 다르다고 기술되어 있다. 특히 모자에 대한 소개가 많은데, 이는 장식성이 있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본인이 모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국성(異國性)을 느끼게 만든 것이 커다란 요인이었을 것이다. 인물도와 이국성에 대해서는 7절에서 검토한다. 「아메리카 언엽화해(言葉和解)」라고 단어를 소개하는 가와라반도 10종 존재한다. 단어는 정확한 영어가 적다. 가와라반의 미국어는 그 단어를 미국인과의 회화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단어집에는 ‘경사스러운 일을 긴파’, ‘기쁜 일을 산치요로’로 소개하고 있는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귀에 익지 않은 소리를 재미있어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어를 실은 가와라반은 이국 소개의 일환이며, 이국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와라반에 소개된 말은 아버지·어머니·쌀·술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들뿐이다. 주변에 있는 인물이나 물건을 가와라반에 소개된 이국의 언어로 확인할 때 가와라반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국인 미국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막부에 보낸 선물도 물품명의 일람과 도해를 곁들여 가와라반에 소개되었다. 두 번째 내항 때에는 모형 증기기관차(1853년 프랑스 노블리스공장 제작)를 보내와 여러 종류의 가와라반이 제작되었다. 이 증기기관차는 실물의 4분의 1 크기였기 때문에, 차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일본인 관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즐겼다고 페리의 일기에 적혀 있다. 가와라반에 묘사된 증기기관차는 크며, 사람들이 안에 타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객차에

‘유산옥형선(遊山屋形船)’이라고 표기된 가와라반도 있다. 페리 자신은 서양 공학의 선진성을 과시할 의도로 보낸 모형이 에도 서민에게는 옥형선(屋形船)이나 신어(神輿)처럼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인 막부 측 정보는 130여 종인데, 약 4분의 3인 100여 종이 우라가나 에도만 주변의 방비에 관한 것이고, 그 밖에 막부와 페리의 협상에 관한 것이 20종, 법령을 인쇄한 것이 10종 정도 있다.

에도만의 해안방비는 당시 ‘오카타메[御圖]’라고 했는데, 우라가부교 등 관리의 이름과 해안방어를 담당한 번을 일람표로 만든 가와라반(役人付)과, 그것을 지도에 표시한 가와라반(御圖圖)이 발행되었다. 각 번의 경비 담당 장소는 몇 차례 변경되어, 그로부터 그 가와라반이 연제의 상황을 기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내항 후인 가에이 7년 1월 15일부터 2월까지의 가와라반이 많이 남아 있다. 에도 방어를 위해 내해에 설치한 포대의 예정지나 규모 등을 기록한 가와라반도 만들어졌다. 페리 일행과 막부 관리의 협상을 묘사한 것으로서는 상륙지 요코하마에서의 접대 광경과 식사 접대 모습 등을 소개한 것이 있다. 막부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선물의 일람표도 만들어졌는데, 그런 가와라반에는 일본인 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페리의 그림이 자주 등장한다.

세 번째의 오락적인 것으로는 약 120종이 있는데, 페리 내항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주제나 모티프로 하여 말놀이나 패러디로 만든 것들이다.

말놀이는 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교카[狂歌], 하우타[端唄], 쇠문자(鎖文字)<sup>10</sup>, 길원언엽(吉原言葉)<sup>11</sup>, 연극대사 패러디, 센류[川柳], 재치문답, 만담 등이 있으며 그 종류는 약 80종 정도이다. 오락적인 가와라반의 7할 이

상이 말놀이이며, 종류와 수량 모두 교카가 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카에는 그때그때 화제가 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페리 내항 후인 가에이 6년 6월 무렵에는 증기선을 읊은 교카가, 8월 무렵부터는 포대축조를 읊은 교카가 많다.<sup>12</sup> 패리디물은 증명서, 대소력(大小曆), 무감(武鑑),<sup>13</sup> 사원과 신사의 연기서(緣起書), 연애편지, 광고전단, 순위표 등으로 꾸민 것이 약 20종 정도 있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한층 기교를 부려 만든 것이다. 그 밖에 희화(戲畫)나 미국인을 포박, 격퇴하는 글을 실은 가와라반도 있다.

이상 흑선가와라반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페리 일행과 막부의 대응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오락성이 높은 것 등 다양한 것들이 다수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흑선가와라반에는 페리 함대에 대해 설명한 것들이 100여 종이나 된다. 그중 절반인 50종은 증기선을 위주로 함선을 그린 것이며, 페리의 초상을 비롯한 인물도 20종, 미국어 단어집 10종 있다. 페리 내항 이전의 일본에서 이국에 관한 정보는 배·사람·언어를 세트로 한 것이 많았는데, 흑선가와라반에서도 마찬가지로

10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한자를 어떤 순서에 따라 읽음으로써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한시. 원형은 기비노 마키비[吉備真備]가 당나라에서 가져왔다는 난해한 예언시 ‘野馬台詩’인데, 페리 내항 때에는 가로 3자, 세로 3자의 도합 9글자를 사용한 변형판이 만들어졌다.

11 遊女가 손님에게 건네는 요염한 말에 이어, 시사적인 말을 적절히 배합한 것. 그 조합의 의외성이 포인트이므로, 금방 읽어도 알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한마디 한마디는 짧다.

12 田中葉子(2006), 「娛樂ものが作る「ペリ來航」黒船かわら版の言葉遊びと見立てものの検討」, 『日本史論集』 10號, 立教大學日本史研究會.

13 무가의 성명·家紋·居城·가신명 등을 기록한 책.

가지의 관심을 볼 수 있다. 배·사람·언어를 아는 것이 이국을 아는 것이라는 의식의 틀이 존재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6절, 7절에서는 흑 선가와라반에 나타난 미국 선박과 인물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 6. 증기선도

〈그림 1 미국 증기선지도〉는 가에이 6년 첫 번째 내항 때 만들어진 가와라반이다. 땅딸막한 검은 선체, 세 개의 돛대에 가득 달린 돛은 바람을 안고 있다. 로프를 타고 있는 흑인과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인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마크인 VOC와 비슷한 깃발이 그려져 있어, 당시의 에도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남만선·네덜란드 선박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나가사키 그림[長崎繪]<sup>14</sup> 등 네덜란드 선박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그려져 있다. 하나는 선체에 달려 있는 두 개의 바퀴인데, 지면(紙面)의 기술에는 ‘미국 증기선’에는 10칸의 ‘수차(水車)’가 네 개 혹은 두 개 붙어 있다고 되어 있다. 첫 번째 내항 후의 증기선도에는 바퀴의 형태나 수는 제각각이었고, 많은 것은 여섯 개나 그려져 있었다. 네덜란드 선박도와 다른 또 하나의 점은 갑판 위의 굴뚝에서 거세게 뿜어져 나오는 연기다. 네덜란드 선박도를 보면 갑판에 낮은 굴뚝과 하얀 연기가 그려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박 내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 나는 연기였

14 근세 일본에서는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네덜란드인·네덜란드 선박 등을 채색목판화로 만든 나가사키에 특산품으로 제작되었다.

다. 그에 비해 증기선도에 그려진 굴뚝과 연기는 매우 크며,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도 있다. 굴뚝과 연기가 강조되어 있어, 당시의 예도 서민들에게 증기선은 네덜란드 선박에 바퀴가 붙어 있고 연기를 뿜어내는 선박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페리 내항 때에는 이 증기선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졌다. <그림 2 외륜선·흑선도(外輪船·黑船圖, 가칭)>를 보자. 길게 날씬해진 선체는 실제의 배 모양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림 1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은 형체의 차이보다도 화면에서 느끼는 스피드감이다. 시커먼 선체 주위에는 부서지는 파도가 묘사되어 있고, 뒷개가 있는 외륜도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굴뚝에서 나온 자욱한 검은 연기는 뒤쪽으로 길게 뻗치고 있고, 성조기인 듯한 깃발을 줄지어 달아 놓은 로프는 후방으로 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증기선이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돛이 접혀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그림 1은 돛이 후방에서 부는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범선의 그림인데, 깃발은 뱃머리 쪽으로 휘날리고 있다. 반대로 그림 2에서는 깃발과 연기는 후방으로 날리고, 돛은 펼치지 않고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배의 그림이 묘사되어 있다.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등에 묘사된 페리 함대의 선박은 돛을 펼친 상태로 그려져 있고, 특히 증기로 달린다는 점을 그리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면, 그림 2의 증기선도는 돛을 펼치지 않고, 즉 바람의 방향에 좌우되지 않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배로서, 증기선의 기능면을 그림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면 윗 부분에는 “1시간에 30리, 1주야에 360리를 달린다. 비바람과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달릴 때는 마치 용이 대해를 건너는 것 같다”는 기술도 보인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페리 내항 직후에는 외견상의 특징이 강조된 증기선의 모습이 가와라반으로 발행되었는데, 에도 사람들은 기존의 네덜란드 선박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증기선을 이해하고 이미지로 떠올리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항 후에는 증기로 달린다는 기능면이 강조된 새로운 증기선의 상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정보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증기선의 이미지에 용이 대해를 건너는 것 같다는 이미지가 수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흑선가와라반의 증기선도는 보다 새로운 지식이 정보로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와 함께 에도 사람들에게 수용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증기선도 이외의 가와라반에 대해서도 각각의 내용을 검토하면, 페리 내항이라는 사건이 해외정보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세와 함께, 또 그 의미부여와 이미지를 동반하여 인식되어간 모습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 7. 미국 인물도

흑선가와라반에 가장 많이 그려진 모티프는 미국 인물로, 증기선도에 함께 그려져 있거나 교카의 삽화에 등장하는 등 거의 절반의 가와라반에 그려져 있다. 이들 인물 표현에는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많은데, 일정한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 미국인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실제로 상륙한 미국인의 모습이나 우라가 앞바다에 떠 있는 증기선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가와라반을 통해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6절에서는 두 번째 내항 후에 새로운 증기선도가 성립

되었음을 확인했지만, 미국인상도 새로운 인물표현이 창출되고 있다. 미국 인물이 그려지는 방법을 분석하여 당시 미국인의 이미지에 대해 검토해 보자.

페리 제독과 부관 아담스는 반신상의 초상화로 많이 그려지고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그림 3 북아메리카홍화정치주상관진상지사(北亞墨利加共和國政治洲上官眞像之寫)> 타이프의 그림이다.

안면의 묘사를 보면 모발·눈썹·수염은 검은색이 아니고, 짧고 가늘며 곱슬곱슬 말려 있다. 모발의 질과 색깔, 헤어스타일 모두 장년의 일본인과는 다르다. 모자와 헤어스타일은 소속된 사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림 속에서는 이국성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되는 점이기도 하다.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 남성들은 깎든지 뽑든지 하여 수염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수염도 이국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크고 둥글며 튀어나온 듯한 눈과 많은 주름은 호걸이나 이방인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옷차림을 보면, 검은 모자를 쓰고, 어깨에 장식이 달리고 앞에 단추가 있는 검은 상의를 입고, 가슴 앞에서 하얀 밴드가 교차되고 있다. 당시 일본인은 머리를 가릴 때는 삿갓이나 두건을 사용하였다. 나가사키 그림 등에 네덜란드인이 종종 넓은 차양이 달린 모자를 쓴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일본인이 외국인으로 분장할 때 모자를 썼듯이, 모자는 이국성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도구였다. 오른손에는 청룡도를 연상시키는 칼을 들고 있지만, 초상화에 함께 그려 넣은 물건으로 주인공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은 초상화의 전통적인 수법이었다. 주인공의 신분이나 직업을 상징하는 물건을 함께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무사상에 칼을 함께 그리는 것이 상투적인 수법으로, 그림 3이 칼을 가지고 있으므로 페리는 무인임을 알 수 있다.

검은 상의와 하얀 밴드 표현은 페리 초상화 이외의 미국인상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종종 갈을 장착한 총을 가진 모습이 ‘북미국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새로운 인물상의 창출이다. 페리를 수행한 화가 하이네의 그림에는 검색 천의 상의에 하얀 밴드를 교차시킨 미국 해군이 그려져 있다. 이 실제 해병의 복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이해하기 쉬운 검은 상의에 교차한 밴드라는 형체가 미국인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복장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 흠차전권 국왕 사절(欽差全權國王使節)도 페리를 그린 것으로 그림 3과 같은 구도이지만 인상은 크게 달라 중국적이다.

중국적이라는 인상을 낳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모발과 눈의 묘사법이다. 털은 길고 곱슬곱슬하지 않은 검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머리는 후두부 위쪽에서 묶어 세 발 비녀로 고정시키고 있다. 눈썹은 굽고 다소 처진 듯한 인상이다. 수염은 수북하지만 입가를 덮을 정도는 아니다. 눈은 아몬드 모양의 눈초리가 치켜 올라간 눈이며 쌍꺼풀이 있고 눈꼬리와 눈밑에는 주름이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눈언저리와 수염의 표현은 공자상과 관우상 등 낫익은 중국인상의 형체 중의 하나였다.

복장은 목둘레의 흰 주름이 눈에 띈다. 주름잡힌 옷깃은 모자와 마찬가지로 근세 일본에서는 이방인을 묘사할 때 종종 보이는 표현이다. 흰색 밴드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주름 아래는 그림 3과 흡사하다. 오른쪽 옆의 선은 몸의 중앙으로 너무 쏠려 있어 머리 부분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배가 뚱뚱하게 돌출된 체형으로 보인다. 중국의 위인상에는 배가 뚱뚱하게 튀어나온 것이 많은데, 이것도 중국적인 인상을 주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3·4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인(異人)·이국인을 표현한 인

물상은 ‘당인(唐人)’의 표현이다. 당인이란 자의적으로는 고대 중국인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근세 일본에서는 이국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미술사 연구자들은 이국을 표현할 때 종종 중국적 형체를 사용한다고 지적한다.<sup>15</sup>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현실의 중국인과는 다른 이미지로서의 이국인, 혹은 상징으로서의 이국인인 ‘당인’이다. 당인 이미지는 중국인 이미지를 기초로 하여 수염·주름옷깃·모자 등 비일본인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만들어진 이국인상이며, 근세 일본에서는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이국인 표현이었다. 후선가와라반의 미국인상은 검은 상의와 흰색 밴드의 병사상이라는 새로운 인물상과, 그것에 당인 표현을 조합한 것, 혹은 전통적인 당인 이미지를 따르는 인물상 등이 보인다. 새로운 이국인상이 만들어져도 종래의 당인 이미지가 병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미국인상으로부터 당시 서민들이 페리의 내항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해 네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 서민들은 페리 일행을 증오할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공포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안면의 묘사에는 이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얼굴이 붉고 코가 높으며 신통력이 있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심산에 산다는 상상 속의 괴물인 텐구(天狗)나 도깨비로 그려져 있지는 않다. 근세 일본의 그림에서는 악과 적을

15 사카모토 미쓰루[坂本滿]는, 예로부터 일본의 최대 관심의 대상이었던 외국은 중국이므로 일본 화가들은 중국에 관해 많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달리 의거할 데가 없는 경우, 예컨대 보지도 못한 남만인의 국가나 풍속을 그릴 때, 화가들이 중국적인 정경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고 있다. 坂本滿(1977), 『日本の美術·南蠻屏風』, 至文堂.

묘사하는 방법으로 길고 뾰족한 손톱·이빨·꼬리 등 동물적인 요소를 이용한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흑선가와라반의 미국인상에는 그런 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다. 또 소지품의 묘사에 주목해 보면, 무기가 많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미국인이 병사로서 인식되었음을 나타내지만, 이들 무기는 오즈츠(大筒)과 같은 파괴력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단순히 갖고 있는 상태로 그려져 있어서, 무기로서의 기능이나 공격성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페리가 내항하기 4년 전인 기에 이 2년(1849), 아편전쟁의 개요를 기술한 『해외신화(海外新話)』(嶺田楓江 저, 五雲亭貞秀 그림)가 발행되었지만, 그 책에서는 영국인의 격렬한 공격 모습이 그려져 있다. 흑선가와라반의 얼굴 묘사, 무기 묘사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에도 서민이 페리 일행을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페리 일행과 미국에 대한 강한 관심이다. 페리 제독의 반신상의 개인 초상이 다수 그려진 것은 그때까지의 이국인 보도와는 다른 점이다. 초상화의 구도를 보면 우타마로(歌麿)의 미인도나 샤라쿠(寫樂)의 배우 그림 등 니시키에의 오쿠비에(大首繪)가 연상된다. 오쿠비에에는 배우나 미인과 같이 당시 서민들에게 이상과 같은 존재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알려, 거기에 그려진 대상을 보면서 자신과 가깝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 당시 니시키에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려진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반신상이 많은 것은 페리 일행에 대한 강한 흥미와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민들은 배우 그림을 보듯이 초상화를 통해 페리상

이 체현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셋째는 미국을 이미 알고 있던 이국과 구별하여 의식한 사실이다. 돛을 접고 질주하는 증기선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검은 군복 차림의 새로운 인물도가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그때까지 내향한 이국선·이국인과 다른 미국선·미국인을 그리려는 의식, 새로움에 주목하는 의식이 확인된다. 페리 내항 이전의 이국 인물 표현을 확인해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중국인(唐人의 이미지를 포함), 이어서 네덜란드인(페리가 내항하기 3년 전인 가에이 3년에 상관장이 에도에 왔다), 류큐인(같은 가에이 3년 경하사(慶賀使)가 에도에 왔다), 조선인[통신사가 에도까지 온 것은 1764년 이에하루[家治]의 습직(襲職) 축하가 마지막이었으며, 후에는 쓰시마까지만 왔대]이 많은데, 이들은 에도의 서민들이 실제로 볼 기회가 있었던 이국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밖의 나라 사람들도 그려졌다. 당시 이국인상은 나가사키에뿐만 아니라 미세모노[見世物], 제례행렬, 접시, 담배쌈지 끈에 다는 세공품과 같은 공예품에도 묘사되어 있다. 또 가부키나 이국이야기를 다룬 읽을거리도 많았다. 명나라의 부흥을 도모하는 국성야회등내(國姓爺和藤内), 류큐로 건너간 진제이하치로 다메토모(鎮西八郎爲朝), 에조에서 송나라로 건너간 요시쓰네[義經], 난쟁이 섬으로 건너가는 아사히나[朝比奈] 등 이국이야기가 인기를 얻었으며, 페리 내항 무렵에는 이국인물도를 게재한 세계지도가 다수 발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인의 경우, 페리 내항 7년 전인 고카[弘化] 3년 비틀의 내항이 미국을 의식하는 첫 기회이며, 그만큼 일본인에게 알려져 있던 이국은 아니었다. 18세기 말부터 종종 내항해 온 러시아인의 모습은 네덜란드인을 바탕으로 나가사키에 그려진 몇 가지 그림이 남아 있다. 페리 일행의 인물상도 나가사키에 바탕을 두었다면 네덜란드인과 비슷한 인물상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흑선가와라반의 미국인상은 나가사키

에의 네덜란드인이나 러시아인과는 다른 모습이다. 나가사키에의 표현에서는 네덜란드인과 러시아인의 머리가 말아올린 머리로 그려져 있으며 수염은 그리지 않은 것이 많으나, 페리 일행의 초상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와 수염이 그려져 있다. 또 네덜란드인과 러시아인상은 머리나 복장이 하에 전체적으로 하얀 인상을 주는 데 비해, 미국인의 경우 머리나 옷도 검은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표현되었다. 복장도 네덜란드인이나 러시아인상과는 다른 군복 차림으로 그려져 있다. 가와라반의 화가가 중국인·조선인·네덜란드인·러시아인과 같이 이미 알고 있던 이국인과 다른 초상을 만들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배의 경우도 돛을 접고 질주하는 증기선상이 만들어졌다. 흑신가와라반은 새로운 미국 선박상·인물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미국과 종전에 알고 있던 이국을 구별하여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넷째는 세 번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인을 새로 알게 된 이국인으로 파악하는 의식이 보이는 한편, 전통적인 이국인 표현, 특히 중국적인 형체가 많이 사용된 사실에서, 미국인을 일본인과 다른 인물, 즉 ‘당인’으로 파악하는 의식도 뿌리 깊었다는 사실이다. 당인으로 그려진 미국인상은 실제 페리 일행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역으로 이국인다운 모습이기도 하다. 당인으로 그려진 미국인상에서는 미국과 기타 이국의 차이는 사라지고, 미국은 일본 이외의 나라, 즉 이국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된다. 새롭게 인식된 미국이라는 나라가 종전 세계관의 틀 속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과 그 이외의 이국이라는 틀로 파악했던 세계관 위에 미국이라는 이국으로 파악하는 의식이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의식은 ‘당인’이라는 말을 소재로 한

교카몬도(狂歌問答)를 쓴 흑선가와라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 일본은 의리도 말도 모르는가. 미국인을 털복숭이 당인(唐人)이라고 하다니?

답 : 당인은 중국인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외이십주(外異十州)는 모두 당인이다.

이 교카의 전제에는 당시 일본인들이 미국인을 당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리고 답가에서는 당인이란 중국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외이십주, 즉 이국인은 모두 당인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당시 서민들은 흑선가와라반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그것의 새로움에 주목하면서, 종전의 세계관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인도 당인이라고, 종전의 세계관의 틀 속에 미국을 추가함으로써 페리 내항을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 8. 맺음말

에도의 서민들은 가와라반이라는 매체를 통해 페리 내항에 관한 다양한 정보·지식·이미지를 입수했다. 증기선도와 인물도의 검토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그들은 페리 내항 이전의 해외정보·지식·이미지를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증기선과 미국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가와라반의 초상화는 사는 사람에게 좀 더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 동시에 전통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가와라반에서는 정보의 진위보다도 열

마나 ‘그럴듯한가’, 즉 얼마나 이국선·이국인다운가가 중시되었다. 흑 선가와라반은 에도의 서민들이 입수한 페리 내항 정보를 현재 우리에게 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습득하고 있던 해외정보·지식·이미지들까지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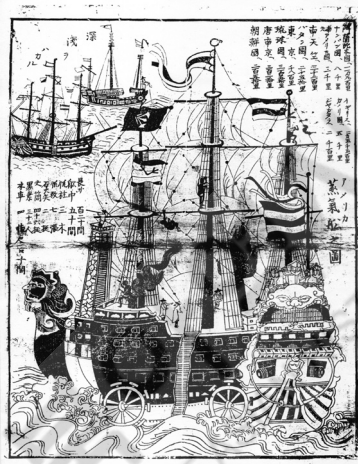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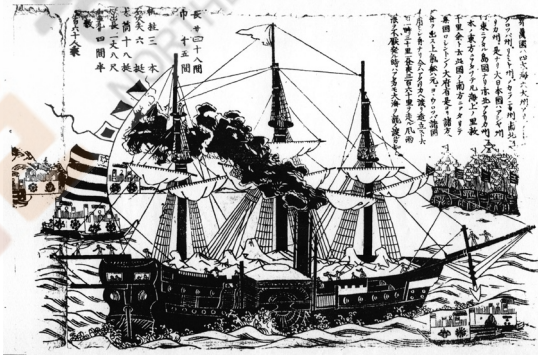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그림 4

※ 주기: 참고 그림 4점의 소장기관은 財團法人黒船館(일본 나가타현 가시와자키시), 전재 불가.

# 한역양학서와 19 세기의 일본의 출판문화

— 홉슨의 서적을 중심으로

아쓰미미 도시후미(八耳俊文, 일본 아오야마대)

## 1. 머리말

필자의 수중에는 ‘경성제국대학도서관’의 장서인이 찍힌 벤자민 홉슨(Benjamin Hobson, 1816~1873)의 중국어 의학서적이 있다. 『서의약론(西醫略論)』(초판 1857), 『내과신설(內科新說)』(초판 1858), 『전체신론(全體新論)』(초판 1851), 『부영신설(婦嬰新說)』(초판 1858)의 4권으로 모두 중국 서적이다. 인쇄 상황으로 볼 때 후인(後印)으로 판단되지만, ‘醫774’부터 ‘醫777’의 스탬프와 ‘藥1639’부터 ‘藥1642’의 스티커가 붙어 있어, 예전에는 이 대학 의과대학 도서관 혹은 의과대학 약학강좌가 소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글에서는 한역양학서(漢譯洋學書), 특히 홉슨의 서적을 예로 들어 이것이 어떻게 한자문화권에 유포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다양한 관련 서적이 간행되었다는 점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의 19세기의 출판문화에 비추어 논하고자 한다.

## 2. 홉슨 서적의 성립

가나자와<sup>[金澤]</sup>대학 부속도서관은 교육과도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로빈슨 동물과도라는 것이 있다.<sup>1</sup> 크기는 약 85×60cm로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연체동물, 유관절동물, 방사상칭동물’의 4축(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동물을 채색으로 표현하여 이들 분류 속에 배치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화공인 프레드릭 로빈슨(Frederick Robinson)이 그림을 그렸으며 1855년에 런던에서 간행되었다. ‘제4고등중학교 도서’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19세기 말 가나자와에 있었던 제4고등중학교에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과 같은 그림을 홉슨의 『박물신편삼집(博物新編三集)』에서도 볼 수 있다. ‘태생류’, ‘난생류’, ‘인개류(鱗介類)’, ‘곤충류’로 분류된 그림이다.<sup>2</sup> 『박물신편삼집』의 초판은 1854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로빈슨 동물과도보다 오래된 것이어서 후자를 바탕으로 전자가 작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일한 원그림을 바탕으로 『박물신편삼집』과 로빈슨 동물과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로빈슨 동물과도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고 1855년판은 그 신판으로 간주하고, 구판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그림으로 해서 『박물신편삼집』이 그려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이 과도의 존재는 『박물신편삼집』이 독자적으로 제작된 것이

1 松田清·益満まを 편(2008), 『金澤大學所藏近代掛圖目錄一印刷圖編』, 京都: 京都大學大學院人間·環境學研究科, 11~14, 109쪽.

2 『博物新編三集』(1854), 廣州: 惠愛醫館, 109쪽.

아니라, 당시에는 많이 사용된 교육용 그림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홉슨은 1816년 잉글랜드 중부의 노샘프턴주의 웰포드에서 태어났다.<sup>3</sup> 아버지는 이 지역의 회중파(會衆派)의 목사였다. 지금도 홉슨의 아버지가 근무했고 홉슨이 자란 교회가 그곳에 남아 있다. 1830년대 전반, 홉슨은 버밍엄종합병원 부설 의학학교에서 의학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1835년에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진학하여 전문적으로 의학을 배웠다. 이 대학에서는 의학의 기초로 과학을 익혔으며 의학에 대해서는 약학, 산과학, 해부학, 외과학, 내과학 등을 두루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38년에는 런던왕립외과의사협회의 시험에 합격하고, 1839년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의 학위시험에도 합격하여 의학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838년에 런던전도회로부터 광저우의 의료선교사가 되라는 지명을 받아, 1839년 7월에 영국에서 출항, 그해 말에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마카오에서는 1843년 1월까지 진료를 계속했고, 그 후에는 난징조약 체결로 영국에 할양된 홍콩으로 이주하여 신설된 병원의 경영을 맡았다. 거기서 의료와 더불어 포교활동도 하였다.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의학에는 해부학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양의학을 익힌 중국인 의사의 양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광저우에 이주한 후 이를 실현시켰으나 곧 네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하나는 중국어로 수업하는 어려움, 둘째 해부와 실험 기구의 부족, 셋째 의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중국어 텍스트의 결여, 넷째 잘못된 의학이론과 처방의 횡행이

---

3 홉슨의 생애는 八耳俊文(2003), 「ウエルカム圖書館藏ホブソン文書を用いたベンジャミン・ホブソン(合信)傳」,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總合文化研究所年報』 제11호, 99~120쪽에 따름.

었다. 홉슨은 영국에서 최신 의학을 배우고 성적도 상위권이었으며 전도에 대한 열정에 가득 찬 젊은 의사였다. 그런 홉슨에게 이교국이자 문화전통이 다른 중국 의학에 대한 이해를 기대할 여지는 없었다. 1849년에 홍콩 상인을 통해 석판인쇄기계를 구입한 것을 계기로 중국어로 된 텍스트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맨 먼저 저술한 것이 『천문약론(天文略論)』으로, 의학이라기보다 전도의 일환으로 씌어졌으며 서양인이 운영 하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1850년 겨울에 병원에서 주 3회 의학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홉슨은 그림이 들어간 해부학과 생리학 책을 중국어 교사인 진수당(陳修堂)의 협력을 받아 완성하였다. 이것이 『전체신론(全體新論)』이다. 여러 권의 의학서적에서 그림을 베껴 실었다. 인쇄 부수는 1쇄가 1,200부, 2쇄가 2,000부로, 중국 안팎의 서양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출판하였다. 중국 측에서도 관심을 보여, 1852년에는 반사성(潘仕成)이 편찬한 『해산선관총서(海山仙館叢書)』에 포함되었다. 또 1853년에는 양광총독인 섭명침(葉名琛)의 아버지인 섭지선(葉志詵)이 『전체신론』의 그림 부분만을 여덟 쪽으로 정리한 『전체분도(全體分圖)』를 만들어 양광총독서에서 간행하였다. 인쇄도의 과도이다. 섭지선은 『전체신론』을 번각하기도 하였다. 홉슨도 그림을 석판에서 목판으로 바꾸었고, 그 이후에는 종종 증쇄하였다.

『박물신편』도 광저우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 『박물신편』의 성립 경위는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신론』과 마찬가지로 진수당의 협력을 얻어 1853년에 저술이 이루어졌으며, 1854년에는 제3집이 2,000부 간행되었다. 제1집과 제2집도 같은 해 인쇄할 예정이었지만, 광저우에서는 외세 배척의 기운이 고조되어 인쇄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 인쇄는 상하이로 옮겨 1855년에 전 3집을 묶어 묵해서관(墨海書館)

에서 발행되었다.

홉슨도 1857년에 상하이로 활동거점을 옮겨,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집필활동에 힘을 쏟았다. 그해는 서양의학서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신론』의 속편으로 중국에서의 치료 사례도 다수 실은 『서의약론(西醫略論)』을 에드킨스가 추천한 문인 관사복(管嗣復)의 협력을 얻어 완성시켜, 상하이의 인제의관(仁濟醫館)에서 그해에 500부 출판하였다.<sup>4</sup> 700부의 추가 인쇄도 보장받았다.<sup>5</sup> 이듬해에는 산과와 소아과 서적인 『부영신설(婦嬰新說)』과, 내과와 약물을 설명한 『내과신설(內科新說)』을 역시 관사복의 협력을 받아 저술하여 1858년에 상하이 인제의관에서 간행하였다. 홉슨은 1858년 12월에 상하이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지만, 외국인 상인들로부터 서적의 예약구매대금으로 2,000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그가 귀국한 후에도 인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홉슨의 책은 중국에서도 수요가 많기는 했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활동을 지지하는 서양인 사회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서 수요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인쇄되었던 것이다.

---

4 『西醫略論』영문서, Wellcome Library, Hobson Papers, MS,5852/16.

5 A Short Report of the Hospital at Canton(December 1857), Wellcome Library, Hobson Papers, MS,5852/18/1~3.

### 3. 한자문화권으로의 보급

#### 1) 베트남

이러한 흡슨의 의학서적들은 그의 과학입문서였던 『박물신편』(초판 1855)과 더불어 19세기 후반, 때로는 20세기 초반까지 한자문화권의 사람들이 서양의학이나 과학을 배우는 데 사용되었다. 먼저 그 예를 베트남에서 살펴보자. 베트남의 국가도서관은 고전서적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전’·‘역사’·‘철학’·‘문학’으로 분류되는 역사자료(주로 간본)를 웹상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http://www.nomfoundation.org/index.php>). 그 ‘철학’분류에 『박물신편』이 포함되어 있다. 사덕(嗣德) 30년(1877) 진중공(陳仲恭)이 쓴 「중전박물신편서(重鐫博物新編序)」가 붙어 있고, 표지에는 “유시기유(維新己酉, 1909)하맹(孟夏) / 박물신편(博物新編) / 관문당장판(觀文堂藏版)”이라고 되어 있는 2책본이다. 첫 권은 『박물신편』 제1집을, 둘째 권은 2집과 3집을 번각한 것이다. 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전적(古典籍)의 의학관련 서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바라키[茨城]대학의 마야나기 마코토[眞柳誠]가 조사한 바 있으며, 이 『박물신편』도 보고되어 있다. 마야나기 마코토는 1877년의 하노이판을 바탕으로 한 1909년의 베트남 관문당장판의 간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up>6</sup> 중국 서적이 출판된 후 20년 만에 베트남에서 번각되었고 20세기에도 간행되고 있는 것은, 베

6 眞柳誠(2006), 「ベトナム國家圖書館の古醫籍書誌」, 『筑波大學人文學部紀要 人文學科論集』 제45호, 1~16항 중 15항.

트남에서 이 책의 존재의의가 20세기가 되어서도 여전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 2) 중국

중국에서는 『전체신문』이 주목을 받아 『해산선관총서』에 수록되거나 섭지선이 번각하기도 하였다. 홉슨은 예언(例言)에서 방본(坊本, 민간출판물)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림에 오류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쓰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속본까지 유포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의사들 중에는 『전체신문』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홉슨 서적 간행 전후에 중국의 전통의학과 서양의 근대의학의 두 이론에 모두 정통하고자 한 ‘중서의회통파(中西醫匯通派)’라 불리는 의사들이 그들이다. 그들의 저술을 검토한 마쓰모토 히데오(松本秀士)에 따르면 그들이 만든 의학서적의 대부분은 『전체신문』 등 중국어로 된 서양의학서를 참조하고 있으며, 인체해부도는 『전체신문』이나 『부영신설』에서 인용한 것이 많은데, 그중에는 『박물신편』에 대해 언급한 것도 있다고 한다.<sup>7</sup>

루신도 독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난징의 강남수사학당(江南水師學堂)에서 목관 『전체신문』을 본 적이 있다고 『납함(納喊)』 자서(1922)에서 기술하고 있다.<sup>8</sup> 그가 본 것은 19세기 말이었지만, 1929년 10월 22일에

7 松本秀士(2005), 「中華文明上に組み込まれる西洋醫學」, 『或問』 제10호, 29~46호.

8 루신(1984), 「납함·자서」, 丸山昇 역자대표, 『(루신전집 2)납함·방향』, 東

강소원(江紹原)에게 부친 편지에서 『전체신론』 뒤에 ‘등 5종’이라는 세 글자를 추가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sup>9</sup> 루쉰은 흡슨의 대표작이 상기의 5종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흡슨이 중국에 있었던 1858년에 이미 『박물신편』부터 『내과신설』까지 5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sup>10</sup> 루쉰이 흡슨의 서적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지만, 중국의 전통이 아니라 서양의 새로운 문화를 담은 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 3) 한국

한국에서는 2005년에 연세대학교의 전인초 주편으로 『한국소장중국한적총목』(학고방) 전 6권이 간행되었는데, 그 자부·서학류를 보면 중국에서 발행된 전도단체의 한역양학서나 종교서적, 강남제조국의 과학기술서 등이 다수 한국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필자는 예전에 일본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서적의 소장목록을 만든 적이 있다.<sup>12</sup> 이들 양지를 비교하면 한국에는 일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

京：學習研究社，9～17쪽.

9 루쉰(1985), 「江紹原에게」, 竹內實 역자대표, 『(루쉰전집 14)서간 I』, 東京：學習研究社, 458～459쪽.

10 王韜는 이들 다섯 점을 “筆墨簡潔，講論精核，眞傳作也”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王韜日記』, 咸豐八年十有四日乙酉). 方行·湯志鈞 整理(1978), 『王韜日記』, 北京：中華書局, 55쪽.

11 전인초 주편(2005), 『한국소장중국한적총목』 3, 子部西學類, 서울：학고방, 592～647쪽.

12 八耳俊文(1995), 「清末期西人著譯科學關係中國書および和刻本所在目録」,

의 서적이 소장되어 있으며, 특히 강남제조국의 출판물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장서를 비롯하여 일본보다 훨씬 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총목』에서 흡슨의 서적을 찾아보면,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고려대학교 화산문고(華山文庫) 등에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실제로 필자는 2006년 3월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부영신설』과 『전체신문』을 열람한 적이 있는데, 후인(後印)이기는 하지만, 둘 다 화각본(和刻本)이 아니라 중국서였다. 『총목』에 따르면 둘 다 의학교구장서(醫學校舊藏書)라고 하므로, 중국어로 된 흡슨의 의학서적은 한국에서도 서양의학서로 주목받고 있었다. 한편 규장각은 “조선왕조기인 1776년에 왕실의 각종 기록이나 조선의 고전적(古典籍)·중국 서적의 수장·보존 등을 통괄하는 기관으로 설치된 것”<sup>15</sup>으로 한일병합으로 한때 이왕직의 관리하에 있다가, 그 후 조선총독부 소관이 되어 경성제국대학 성립 후 1928년부터 30년에 걸쳐 경성제국대학 부설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sup>16</sup> 현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다.

조선총독부 시대에 규장각 문고에 포함되어 있던 조선 도서와 중

---

『化學史研究』 제22권 제4호, 312~358쪽.

13 이한섭(2008), 「ソウル大學奎閣藏漢譯西學書について—1880年代以降集められたものを中心に」, 沈國威 편저, 『漢字文化圈諸言語の近代語彙の形成—創出と共有』, 吹田:關西大學出版部, 311~333쪽.

14 전인초 주편(2005), 앞의 책, 603~604, 610, 612, 633~634쪽.

15 宮本正明(2002), 「解題」, 加藤聖文·宮本正明 편, 『舊植地圖書館藏書目録』 제1권·『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書名目録』, 東京:ゆまに書房, 417~423쪽 중 418쪽.

16 宮本正明(2002), 위의 글.

국 도서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이 작성되어 있다.<sup>17</sup> 이 목록의 중국 도서의 자부, 특히 병가류, 농가류, 의가류, 천문류, 역학류(譯學類), 예술류에 많은 서양서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흡슨의 서적도 의가류에 『내과신설』 3권, 『서의약론』 3권, 『부영신설』 4권, 『전체신론』 2점, 예술류에 『박물신편』 5권을 찾아볼 수 있다. 고종을 중심으로 조선왕조는 활발하게 이들 양학서를 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훗날에 경성제국대학에 소장되었을 터이지만, 필자가 서두에서 소개한 서적이 그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다. 경성제국대학에는 『부속도서관화한서서명목록(附屬圖書館和漢書書名目錄)』이 1933년부터 편찬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의학부나 이공학부의 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책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럼에도 『목록』 제2집(1935)에는 『부영신설』과 『내과신설』이, 제3집(1936)에는 『박물신편』이 2책 수록되어 있다. 이들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발행된 흡슨의 서적이 조선에 반입되어 그것이 몇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었음은 틀림없다.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선시대의 지식인의 손에 건네졌던 사례로, 정약용(다산, 1762~1836)의 『마과회통』 보유(補遺)에 수록된 「신증종두기법상실(新證種痘技法祥悉)」이 있다.<sup>19</sup> 이것은 1805년에 영국 동인도회사 상관의(商館醫)였던 피어슨(Alexander Pearson)이 마카오

17 加藤聖文·宮本正明 편(2006), 『舊植民地圖書館藏書目録』 제11권·『朝鮮總督府古圖書目録』 /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録補遺』, 東京: ゆまに書房.

18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書名目錄』 1집(1933), 범례.

19 「新證種痘技法祥悉」, 奎光齋 각본, 『麻科會通』 補遺 소수, 京都大學附屬圖書館藏富士川文庫.

에서 중두를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중두의 해설(영문)을 현지에서 중국어에 능한 스톤턴(George Thomas Staunton, 1781생)이 중국어로 번역한 것으로,<sup>20</sup> 광저우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수차례 간행되었다. 1828년에는 베이징의 유리창(留喇廠)에서 규광재(奎光齋)에 의해 중간본이 만들어졌는데, 『마과회통』에 수록된 것은 이 규광재의 간본이다. 『마과회통』 보유가 정약용의 손에 의한 것인지 후세 사람들이 추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sup>21</sup> 『영길리국중두기서(英咭唎國種痘奇書)』라고도 하는 「신증중두기법상실」은 1805년에 중국에서 간행되었지만, 일본에는 보급이 늦어 1841년에 이토 게이스케(伊藤圭介)가, 1849년에 히로세 겐코(廣瀬元恭)가 번역해서 알려졌다. 그 이전에 베이징판이 조선에 전래된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베이징 유리창의 고문서거리는 연행사(燕行使)를 수행한 문인들이 즐겨 들렀다고 하므로,<sup>22</sup> 유리창에서 발견한 진기한 출판물이라 하여 조선에 들고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흡슨의 서적이 조선에서 사용된 예로는 최한기(1803~77)의 「신기천험(身機踐驗)」을 들어야 할 것이다.<sup>23</sup> 최한기는 사상가답게 모든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서양의학서로 흡슨의 서적을 독파하였다. 「신기천험」은 전 9권이며 1·2권은 『전체신론』, 3·4권은 『내과신설』 상권, 4권 끝부터 7권의 시작 부분까지

20 田崎哲郎(1994), 「『英咭唎國種痘奇書』について」, 有坂隆道・浅井允晶 編, 『論集日本の洋學』, 大阪:清文堂出版, 203~220쪽.

21 三木榮(1973), 『朝鮮醫書誌 増修版』, 大阪:術圖書刊行會.

22 강재연(2008), 『西洋と朝鮮-異文化の出会いと格闘の歴史』, 東京:朝日新聞社.

23 최한기(2002), 「身機踐驗」; 최한기, 『增補南明樓叢書』 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63~507쪽.

『서의약론』 상·중권, 7권의 나머지 대부분은 『부영신설』, 8권은 『박물신편』 초집, 8권 속편은 『내과신설』 하권과 『서의약론』 하권을 발췌하고, 요소요소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였다.

홉슨의 서적을 입수한 사람은 많아도 이와 같이 다섯 점 모두를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있던 사람은 적었을 터인데, 최한기는 어떤 루트로 이 책을 읽었는지 흥미롭다. 서, 범례, 목록 이외에 본문에서 그가 독자적으로 쓴 것은 1권 서두의 「뇌위일신지주(腦爲一身之主)」, 2권 말의 「신기총론(身機總論)」, 3권 모두의 「중서의학(中西醫學)」, 8권 모두의 「제기치용(諸氣致用)」, 8권 말의 「만물운화개섭의학(萬物運化皆攝醫學)」이며 총론에 해당된다. 『박물신론』에 대해서는 전 3집 중 초집만 다루고 있는 것은 우연이었는지 혹은 최한기가 읽을 기회가 있었던 것이 초집만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에서 우두종두의 창시자이자 보급자로 알려진 지식영도 이 홉슨 서적의 독자였다.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지식영이 소장했던 의학관계서로 『박물신편(唐本)』 1권, 『전체신론(당본)』 1권, 『내과신설(당본)』 1권, 『내과신설(화각본)』 3권, 『부영신설(당본)』 1권, 『부영신설(지석영 자필본)』 1권이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24</sup> 또한 미키 사카에에 따르면, 지식영은 1885년에 『우두신설(牛痘新說)』을 저술하고 사가판(私家版)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그 책에는 홉슨의 종두론이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sup>25</sup> 이는 『부영신설』에 있는 「종두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홉슨은 이 항목에서 우두법의 극적인 효과와 아직 중국에서 확산되지 않고 있던 상

24 三木榮(1991),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思文閣出版, 267~268쪽.

25 三木榮(1991), 위의 책, 263쪽.

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서에 있는 자필의 「부영신설」은 이 책을 필사한 것인 듯하다.

#### 4. 일본으로의 보급

일본의 특징을 말한다면 중국 서적의 수입은 체계적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입수해서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중국 서적을 바탕으로 일본판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국내의 보급에 힘썼다는 점이다. 조선왕조는 중국의 문화동향에 민감하여 끊임없이 신간을 구입하였지만, 보급시키는 데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예컨대, 흙슨의 서적의 경우 모두 화각본(和刻本)이 만들어졌고, 특히 『박물신편』 같은 경우에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번교, 향교, 소학교의 자연과학 교과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적이었다.<sup>26</sup> 필자는 이를 두고 1860년대, 1870년대의 20년간을 ‘박물신편의 시대’라 표현한 적이 있다.<sup>27</sup>

이들 서적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일본에 보급되었지만, 막부 말기에 외국인 이 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직접 중국에서 들여오는 예가 나타나게 되었다. 1859년 1월에 상하이에서 나가사키로 온 미국인 맥

26 新家良雄(1983), 「『博物新編』-幕末の自然科学教科書」, 『圖書』 제411호, 60~63쪽.

27 八耳俊文(1996), 「幕末明治期に渡來した自然神學的自然觀-ホブソン『博物新編』を中心に」,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總合文化研究所年報』 제4호, 127~140쪽 중 136쪽.

고웬(Daniel Jerome Macgowan, 중국명 瑪高濶)은 영파(寧波)에서 13년간 의료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필담으로 일본인 지식인과 교류하였다.<sup>28</sup> 그리고 1858년에 상하이 인재의관에서 출판된 홉슨의 신간인 『부영신설』과 『내과신설』을 나가사키의 의사인 후쿠치 고안(福地苟菴)에게 선물하였다. 또 오무라번(大村藩) 의사였던 오모토 긴도(尾本公同)에게는 1858년 상하이에서 간행된 『식물학』을 선물하고 있다. 후쿠치는 받은 책의 번각을 결심하지만 중간에 좌절, 교토의 의사인 안도 게이슈(安藤桂洲, 天香堂)에게 출판을 맡겼다. 안도는 막부의 출판 허가를 받아, 안세이(安政) 6년(1859)에 『부영신설』을, 안세이 7년에 『내과신설』의 일본판을 간행하였다.<sup>29</sup> 표지에 ‘평안천향당장판(平安天香堂藏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에도의 외과의사인 미야케 곤사이(三宅艮齋, 桃樹園)도 안세이 6년에 『부영신설』과 『내과신설』의 두 책을 번각하였다. 미야케는 『내과신설』을 출판할 때 “에도에서 이미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말로 에도에서 화각본이 간행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30</sup> 그러나 가치 있는 서적은 보급시키는 것(東西兩舉)이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sup>31</sup> 교토에서의 출판을 추진하였다. 안세이 5년 말에 미야케는 에도에서 『서의약론』도 번각하였다. 미야케가 번각한 서적은 표지에 ‘도수원장재(桃樹園藏梓)’라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홉슨의 서적 5권 중 3권을 재빨리

28 八耳俊文(1993), 「D.J. マッゴウアンと中國, 日本 1843~1893」, 『洋學』 창간호, 43~87쪽 중 57~60쪽.

29 『婦嬰新說』(1859), 京都: 天香堂, 序, 1ウ.

30 『內科新說』(1860), 京都: 天香堂, 序, 2オ.

31 『內科新說』(1860), 序, 2オ.

입수하여 번각한 배경을 “곤사이[良齋]는 아마도 나가사키를 거쳤겠지만, 상하이쪽과도 서적·약품 등의 구입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그의 증손인 미우라 요시아키[三浦義彰]는 「삼택 간재약전(三宅良齋略傳)」에서 추측하고 있다.<sup>32</sup> 상하이에서 출판된 흡슨의 서적이 불과 1년 사이에 일본에 들어와서 번각까지 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신문』은 1851년에 광저우의 혜애의관에서 간행되었는데, 1857년에 흡슨이 상하이로 이주하자 인제의관에서 간행하였다. 양화에 능한 유학자 고가 긴이치로[古賀謹一郎]가 소장하고 있던 책 중에 이 혜애 의관 장관의 『전체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sup>33</sup> 일본에는 1850년대 전반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책의 번각을 기획한 것은 오스번(大洲藩)의 시의(侍醫)인 야마모토 세쓰안[山本節庵]으로, 안세이 4년 말에 출판을 신청하여 허가를 얻었지만, 이듬해 5년(1858) 2월 이요 출신으로 당시 교토에서 개업하고 있던 오치 다카시[越智樹]에게 장관을 양도하여 ‘오치장판’으로써 『전체신문』이 탄생하였다.<sup>34</sup> 이러한 경위로 볼 때 『전체신문』의 화각본 성립은 보닛장에 ‘安政四丁巳晩冬’이라 되어 있지만 안세이 5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보닛장에 ‘월지장판(越智藏版)’이라 되어 있는 것과 ‘이서당발태(二書堂發兌)’라 되어 있는 것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 본문의 판은 같다. 이서당(二書堂)은 교토에서 메이

32 三浦義彰(1942), 「三宅良齋略傳」, 三浦義彰, 『文久航海記』, 東京: 冬至書林, 1~67쪽, 22쪽.

33 古賀謹一郎의 장서는 宮内廳書陵部に 소장되어 있다.

34 출판 경위는 都立中央圖書館特別買上文庫 중 「開版見改元帳二」에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자료는 日本科學史學會 편(1964), 『日本科學技術史大系·제1권·통사(1)』(東京: 第一法規出版)에 활자로 번각되어 있으며(61~66쪽), 해당되는 곳은 62쪽 참조.

지 초기에 교과서를 판매하고 있던 서점이다. 교토에서 개업하고 있던 오치 다카시에게서 이어받아 교토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박물신편』의 화각본 출판은 막부 스스로가 개성소(開成所)에서 추진하였다.<sup>35</sup> 관관이기 때문에 출판신청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출판 시기나 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판매를 담당한 노조관(老自館, 萬屋兵四郎)의 겐지(元治) 원년의 ‘발태서목(發兌書目)’이 관권장에 있는 간본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겐지 원년 혹은 그 전의 분큐(文久) 연간(1861~1863)에 간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sup>36</sup>

흡슨의 서적 중 과학서인 『박물신편』은 『전체신문』부터 『내과신설』까지 4책의 화각본이 모두 나온 후에 출판된 셈이다. 『박물신편』이 왜 막부에서 출판되었는지, 그리고 광범위한 독자층이 기대되는 이 책의 화각이 왜 이토록 늦어졌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고찰해 볼 만하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막부의 출판물로 이러한 중국의 양학서를 번각한 것을 들어보면 『박물신편』 외에도 『육합총담(六合叢談)』, 『중외신보(中外新報)』, 『중외집지(中外雜誌)』, 『중학천설(重學淺說)』, 『수학계몽(數學啓蒙)』, 『아편계(鴉片戒)』, 『만국공법(萬國公法)』이 있다.<sup>37</sup> 이들 서적의 공통점은 각 분야의 기본 문헌으로 정리될 수 있다. 앞의 3책은 세계정세를 전하는 것으로 원본 기사를 취사선택해서 번각하고 있는데, 해외뉴스는 직접 관할하겠다는 의사를 막부가 가지고 있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아편계』는 아편의 위험성과 대처법을 명기한 것으로 막

35 福田保(1985), 『江戸幕府刊行物』, 東京: 雄松堂出版, 228~229쪽.

36 福田保(1985), 위의 책, 228쪽.

37 福田保(1985), 앞의 책, 제9장 「蕃書調所・洋書調所・開成所の刊行物」, 제10장 「陸軍所の刊行物」.

부의 아편에 대한 위기의식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국공법』은 국제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막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참조하는 중요한 문헌이었다. 이렇게 살펴보면 신지식의 관리와 보급이라는 기본적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sup>38</sup> 과학 분야의 신지식 보급에 중점을 둔 것이 막부에 의한 『박물신편』의 번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인 번각 시기가 늦어진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박물신편』의 중국서가 1850년대 후반 일본에는 전해지지 않았던 것일까? 홋슨의 의학서는 박래품이기 때문에 『박물신편』만 전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고치현[高知縣]의 목야문고(牧野文庫)에는 『박물신편』의 최초의 형태인 『박물신편삼집』(팡저우 헤에의관, 1854)이 소장되어 있어,<sup>39</sup> 전래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막부의 간행에 대해서도 필자는 예전에 『관관박물신편』의 조사에 입각하여 안세이 6년(1859), 늦어도 만엔[萬延] 원년(1860)에는 출판되었다고 추론한 바 있다.<sup>40</sup> 이 추론에 따르면 1851년부터 185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중국에서 간행된 홋슨의 대표작 다섯 점은 일본에서 수년, 이르면 1년 이내에 번각되어, 1860년 시점에는 모두 일본에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 松方冬子は 막부 말기 한적의 화각·보급을 포함한 정보·지식 수입에 대한 막부의 태도에 대해 ‘서양 근대’ 지식의 확보는 ‘국익’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정통성의 증거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松方冬子(2008), 「近世後期『長崎口』からの『西洋近代』情報・知識の需要と翻譯, 『歴史研究』 846호, 68~76쪽]. 필자의 견해도 松方の 이 해석에 따랐다.

39 高知縣立牧野植物園 편집발행(1986), 『牧野文庫藏書目錄(和書・漢書の部)』, 136쪽.

40 八耳俊文(1996), 앞의 글, 133쪽.

홉슨 서적의 화각본은 목판을 사용한 정판(整版)으로 이루어져 한번 만들어진 판목은 반복적으로 인쇄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쇄가 선명하지 못했다. 선명하지 않은 인쇄물도 유포되었다는 사실은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 증쇄의 과정은 연속적이며 인쇄물 간에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한역양학서 중에는 목활자판으로 화각본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목활자 인쇄는 활자를 짜서 인쇄를 하는데, 인쇄가 끝나면 활자는 다시 해체된다. 그러다가 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활자를 조합해서 인쇄를 하게 된다. 활자를 다시 조합하게 되면 오식의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주목하면 오식의 차이에서 판면의 차이를 판별할 수 있어 유포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홉슨의 서적은 아니지만 홉슨 서적의 화각본 작성의 계기가 된, 앞서 언급한 맥고웬의 중국서 『항해금침(航海金針)』이 어떻게 보급되었는지 이 방법으로 재현해 보도록 하자.<sup>41</sup>

『항해금침』은 중국에 들어간 미국인 의료선교사 맥고웬이 영국인 리드의 『(항해실용) 폭풍, 기타 바람의 법칙』(1849)에 나온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해역에 걸쳐 태풍이 발생하던 곳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어로 쓴 항해기상학 서적이었다. 1853년에 영파(寧波)에서 맥고웬의 주거 겸 진료소였던 애화당(愛華堂)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1년도 되지 않아 상하이와 홍콩 등 개항지에 알려졌고 곧 일본에도 전해졌다. 이 책을 입수한 것이 사쓰마번이며, 사쓰마번은 목활자판으로 일부 종교적인 문구를 삭제한 후 번각하였다. 목활자판은 100에서 수백 부밖에 인쇄할 수 없어 일반적인 출판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쓰마번은 부학판(府學版),

41 八耳俊文(2006), 『航海金針』の成立と流布, 『一滴』 제14호, 41~64쪽.

즉 번교의 출판물로 만들었으며, 그저 번 내부의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에도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번서조소(蕃書調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관계자뿐만 아니라 양학자, 양학에 관심을 가지는 번주, 번교가 독자가 되었다. 초판은 안세이 3년(1856)에 공간되었지만 곧 제2판이 만들어졌고, 안세이 4년(1857)의 제3판부터는 에도의 대형서점 중 하나인 오카다야 가시치(岡田屋嘉七)에서 판매를 도맡아 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제4판까지 만들어져 현재 일본 국내에서 50권 이상의 간본의 소재가 확인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 도서관과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에도 앞서 언급한 『한국소장중국한적총목』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1권이 수록되어 있다.<sup>42</sup>

맥고웬은 1859년에 나가사키에 왔을 때 이 책을 만났다. 그는 훗날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하이에서 나가사키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나는 전혀 낯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가사키의 서점에서 『항해금침』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쓰마후(侯)가 명예롭게도 내 이름으로 가고시마에서 번각해 준 것이었다.”<sup>43</sup> 사쓰마후란 시마즈 나리아키라(島津齊彬)를 지칭한다.

일본을 방문할 때 맥고웬은 일본에서는 그런 한역양학서가 환영받

---

42 화각본이라는 기재는 없지만, 『總目』 3의 643~644쪽의 설명문에 있는 ‘聚珍板’이라는 문자(이것은 활자판의 雅稱으로 일본판에 있는 문자. 중국 서적에는 없다)와 ‘26.0×17.7cm’라는 크기도 화각본의 크기이기 때문에(중국서는 29.7×17.5cm) 동 도서관 장서는 화각본임이 분명하다.

43 *The Rising Sun and Nagasaki Express*(January 18, 1893), p.3.

는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홉슨의 『내과신설』이나 『부영신설』, 윌리엄슨 등의 『식물학』을 준비해 갔을 것이다. 그 외에도 중국어로 번역된 성서도 지참했다고 한다. 와일리의 『입화(入華) 프로테스탄트선교사 기록 : 저서와 생애』(1867)의 「육합총담」 항에는 일본에서 막부에 의해 종교적 기사가 제외되고 나머지가 번각되었다고 서지정보로 기재되어 있다.<sup>44</sup> 그렇다면 홉슨은 자신의 저서가 일본에서 번각판이 만들어질 정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현재 런던의 웰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홉슨의 장서들 중에 미야케 곤사이[三宅良齋]가 번각한 『서의약론』이 포함되어 있다.<sup>45</sup> 미야케가 1859년 1월에 번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1858년 12월에 상하이를 떠난 홉슨이 중국 체류중에 그 화각본을 입수할 수는 없지만, 귀국 후 누군가가 보내주어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홉슨의 서적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본에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의 해설서도 저술되었다. 가장 빠른 시도로는 「개판견개원장(開版見開元帳)」의 만엔 원년(1860)의 부(部)에 기록이 남아 있는, 1월에 히로세 진쿄[廣瀬元恭]가 신청한 「부영신설석의(婦嬰新說釋義)」 3권을 들 수 있다.<sup>46</sup> 이것은 같은 해 1월 11일에 허가가 내렸다. 현재 이 서적을 확인

44 Alexander Wylie(1867), *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 : giving a list of their publications and obituary notices of the deceased*, Shanghai :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p.173.

45 Hartmut Walravens(Introduction by Nigel Allan(1994)), *Catalogue of Chinese Books and Manuscripts in the Library of the Wellcome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Medicine*, London : The Wellcome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Medicine, p.10.

46 「開版見改元帳二」(일본과학기술사대계 · 제1권 · 통사<1>), 63쪽.

할 수 없어 실제로 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교토의 의사인 히로세 겐쿄가 안세이 6년(1859)에 간행된 『부영신설』을 텍스트로 해서 1년도 안 되어 해설서를 저술하고 출판신청을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히로세 겐쿄의 양자가 된 히로세 겐슈[廣瀨元周]가 메이지 7년(1874)에 『부영신설화해(婦嬰新說和解)』를 간행하였다. 이 제언(題言, 메이지 6년)에 따르면 히로세가[廣瀨家]의 가족(家塾)에서 본서를 강의하였고, 가족의 학생들이 그 강의록을 만들었으나 그대로 집에 소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교토요병원[京都療病院] 교사 온켄에게서 배운 친구 하야시 도쿠조[林得三]의 권유로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sup>47</sup> 가족이 히로세 겐쿄의 시습당(時習堂)을 지칭한다면 「부영신설석의」의 원고가 그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막부 말기에는 흡슨 서적의 원문을 그대로 번각하는 데 그쳤지만, 메이지 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해설을 곁들인 일본어 번역서가 간행되었다. 『박물신편』에 대해서는 오모리 이츠키[大森惟中, 秀三, 海谷] 역 『박물신편역해』 전 5권이 게이오 4년(1868)부터 메이지 3년(1870)에 걸쳐 출판되었다. 『전체신론』에 대해서는 메이지 6년부터 7년에 걸쳐 다카기 구마사부로[高木熊三郎] 역 『전체신론역해』가 오사카의 문영당(文榮堂)에서, 메이지 7년에는 이시구로 아쓰시[石黒厚] 역 『전체신론역해』가 나고야의 정관당(靜觀堂)에서 출판되었다. 메이지 11년에는 마쓰이 다다토시[松井惟利] 초역(抄譯) 『통속전체신론』 초편이 도쿄에서 간행되었다. 이것은 『전체신론』의 본문의 전반부를 초역하고 섭생을 권하는 글을 곳곳에 삽입한 것이다. 『서의약론』에 대해서는 메이지 10년, 야마모토 요시토시[山本義

47 廣瀨元周(1874), 『婦嬰新說和解』, 京都: 文明書樓, 題言, 1ウ.

俊] 역 『서의약론역해』가 도쿄의 만급각(萬笈閣)에서 간행되었다. 『부영신설』에 대해서는 히로세 겐슈(廣瀬元周)의 『부영신설화해』가 메이지 7년에 출판되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내과신설』의 일본어 번역판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과신설』의 일부로 콜레라 증상과 대증요법을 적은 「곽란증론(霍亂證論)」을 발췌하여 『내과신설전염곽란설콜레라병』이라는 제목으로 안세이 7년에 간행되었다. 번각은 오와리번(尾張藩) 의사인 야나기다 마사노리(柳田政矩)가 하였고, 그의 제자인 시나노(信濃)의 의사 세키지마 요시무네(關島良致)가 제본하였다. 원문인 텍스트 자체도 메이지 시기에 들어서도 반복해서 인쇄되었다. 『박물신편』의 경우에는 명확히 재각(메이지 5년), 삼각(메이지 7년)임을 명기한 판이 만들어져 보다 널리 유포되었다.

『박물신편』이 보급됨에 따라 그 보유판의 모습을 갖춘 과학입문서도 나왔다. 오바타 도쿠지로(小幡篤次郎) 역술 『박물신편보유』가 메이지 2년에 상고당(尙古堂)에서 발매되었다.<sup>48</sup> 서문의 날짜는 게이오 4년 8월이라 되어 있어, 메이지로 개원되기 한 달 전에 원고가 준비되었음을 나타낸다. 오바타는 나카쓰(中津) 출신으로, 게이오기주쿠 멤버 중 한 명이며 훗날 교육자, 영어학자, 계몽사상가로 활약하였다. 이 책은 로버트 챔버스의 *Introduction to the Sciences*를 번역한 것으로, 『박물신편』을 “궁리의 처음과 끝을 나타내고 있어 그에 의거하여 물리를 추구함으로써 마침내 대지(大知)의 경지에 이르는 문호가 열린다”고 평가하여, 이 책을 “소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 “서양 문명개화의 근원이

48 小幡篤次郎(1868), 역술 『博物新編補遺』, 東京:尙古堂(재발행, 慶應義塾出版局, 1873) 권 상중하.

있음을 알려주는 보감”으로 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 3권으로, 마쓰나가 도시오[松永俊男]의 연구에 따르면 1860년대 전반의 판(1861년판인 듯)을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sup>49</sup> 서적명 일부에 ‘박물관’이 들어가지만, 과학입문서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직접적으로 『박물관』과는 상관 없는 서적이다. 이미 막부 말기에는 ‘박물관보유’의 서적명이 기안될 정도로 『박물관』은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 9년(1876)에 도쿄의 오미스 도요지로[大角豊次郎]가 출판한 『박물관이론』 2권도 과학입문서이기는 하지만 『박물관』과 관련이 없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청나라 광둥성(廣東省) 향산현(香山縣)의 용조륜(容兆倫, 槐圃)의 저작이라고 되어 있는 점이다. 서문에는 중국의 남병씨(南屏氏) 소운(紹雲)이 메이지 8년에 도쿄에 들렀을 때 고향 사람이자 박문 다람한 용조륜 선생을 만나 본서의 원고를 봤더니 사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에 감동을 받아 귀중한 저술이 사라지게 하지 않기 위해 간행하기로 하였다는 경위가 적혀져 있다. 내용은 인류총론부터 시작하여 지학, 역학, 식물학, 화학, 인체론의 순으로 되어 있다. 역학은 장대와 도르래, 사면 등을 다루었으며, 원본은 챔버스의 『국민백과(Information for the People)』로 생각되지만, 이처럼 서양과학에 정통하고 광둥성 향산현 출신으로 메이지 8년에 도쿄에 있었던 용조륜이란 어떤 인물이었을까? 용이라는 성과 광둥성 향산현이라고 하면 중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 용굉(容閔)이 생각하는데(그는 더욱이 향산현 남병촌 출신이다),<sup>50</sup> 그는 일본에 살지

49 松永俊夫(2003), 「チャンパーズ著『科學入門』と小幡篤次郎譯『博物新編補遺』, 『桃山學院大學人間科學』 제24호, 149~168쪽.

50 百瀬弘 역주(1969), 『西學東漸記-容閔自傳』, 東京: 平凡社; 石霓 역주(2003), 『容閔自傳-我在中國和美國的生活』, 上海: 百家出版社; 管林 주편

않았으니 무슨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을까? 이 책에 관한 연구는 없지만 앞으로 연구가 기대되는 자료이다.

이상, 흡슨의 저서가 일본에서 어떻게 환영받았는지에 대해 적었다. 화각본의 출판지는 도쿄(에도), 나고야, 교토, 오사카 등 각지에 이른다. 출판자 혹은 출판에 관여한 사람도 개성소(開成所)라는 막부부터 민간의 의사, 교육자 등 다양하다. 이는 흡슨 서적뿐만 아니라 막부 말 유신기의 한역양학서 출판에 관여한 사람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이들 서적의 보급에 기여한 것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 일본의 출판문화의 확산이었을 것이다. 만약 한역양학서 출판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일본에서는 이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의 다양함이 그 의의를 더욱 빛냈다고 하면 틀림 없을 것이다.

---

(2001), 『廣東歷史人物辭典』, 廣州：廣東高等教育出版社, 634쪽.

# 일본을 통한 근대기술 및 지식의 수용과 그 변용

- 1876 ~ 1884 년 사이의 견일(遣日)사절을 중심으로

허동현(경희대)

## 1. 머리말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시절 아시아의 변방이었던 일본은 서세동점의 시대를 맞아 '서구의 충격(western impact)'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일본형 국민국가를 이루면서 지역의 중심으로 거듭났다.<sup>1</sup> 신흥세력으로 떠오른 일본은 1876년에 미국이 자국의 문호를 개방시킬 때 사용했던 포함외교를 그대로 조선에다 구사하여 쇄국의 기치를 내리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문화 공급자로 급부상하였다.<sup>2</sup> 이때부터 문화의 강물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역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의 눈에 한국은 부정

1 西川長夫(1995), 「日本型國民國家の形成—比較史的觀點から」, 西川長夫·松宮秀治 編, 『幕末・明治期の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 新曜社, 3~42쪽.

2 Key-Hiuk Kim(1980), *The Last Phase of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28~351; 金基赫(1990), 「開港을 둘러싼 國際政治」, 『韓國史市民講座』 7, 一潮閣, 1~23쪽.

적 타자의 이미지로 각인되고 말았지만, 세계의 신조류에 대응하려는 개화와 지식인들의 눈에 비친 일본의 모습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1876년의 개항(開港)은 한·일 양국 간 문화의 수혜자와 공급자의 위치를 뒤바꾼 문화교류사상 역전(逆轉)현상을 초래하는 시점인 동시에 제국주의 침략이 시작된 기점이다. 사실 일본은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무력으로 강요하여 조선을 경략하는 데 필요한 여러 특권, 곧 무역권·조차권·치외법권·종가 8%의 협정관세·주사권(駐使權)·주병권(駐兵權) 등을 확보한 ‘제국주의적 침략자’였다. 그러나 일본은 소송을 비롯한 근대무기류를 조선에 기증하고 유학생의 파견을 유도하면서 조선을 일본식 제도개혁으로 유도하려고 애썼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 조정에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으며, 1880년에는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중재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1876년 이래 일본은 조선에 대해 실제로는 ‘제국주의적 침략자’였지만, 겉으로는 ‘개화와 독립의 옹호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양면적 태도를 보였다.<sup>3</sup>

조선 정부는 1876년과 1880년에 걸쳐 두 차례의 수신사(修信使), 그리고 1881년에는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일본에 보내 서구화된 문물제도와 시설 등을 살펴 보고하게 하였다. 조선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수신사의 보고를 통해 서구 열강의 동점(東漸)에 맞서 국가의 존립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80년 12월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창설한 후 본격적으로 개화(開化)·자강정책(自強政策)을 추진하려 했다. 1881년 조사시찰단의 파견도 조선의 본

---

3 유영익(1983), 「한·미관계 전개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 『한·미수교 1세기의 회고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6~142쪽.

격적인 문호개방과 부강책(富強策)의 추진에 앞서 통리기무아문과 세관의 조직·운영, 그리고 군제의 개혁 등에 필요한 인재의 확보와 참모자료 수집에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시찰단은 조선 정부가 메이지 일본을 근대화하는 본보기로 삼으려 한 본격적 시도로서 일본의 이와쿠라(岩倉)사절단에 비견되는 한국 근대화 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었다.<sup>4</sup>

제1차 수신사 김기수(金綺秀, 1832~1894)는 『일동유기(日東記遊)』, 제2차 수신사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은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 제4차 수신사 박영효(朴泳孝, 1861~1939)는 『사화기략(使和記略)』을 남겼으며, 조사시찰단의 강문형(姜文馨, 1831~?)·민종묵(閔種默, 1835~1916)·박정양(朴定陽, 1841~1904)·심상학(沈相學, 1845~?)·어윤중(魚允中, 1848~1896)·엄세영(嚴世永, 1831~1899)·조병직(趙秉稷, 1833~1901)·조준영(趙準永, 1833~1886)·이원회(李元會, 1827~?)·이현영(李顯永, 1835~1907)·홍영식(洪英植, 1855~1884) 같은 조사(朝士)들은 90여 책에 달하는 ‘시찰기(視察記)’류와 ‘견문사건(聞見事件)’류로 대별되는 결과보고서들과 시찰활동과 관련해 작성한 일기 및 기행록 등을 남겼다.<sup>5</sup> 이 문건들은 일본이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근대 서구 문물을 수용·도입해 정치·경제·군사·산업·외교·통상·사회·문화·교육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이룩해 놓은 성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4 이와쿠라 사절단과 조사시찰단에 관한 비교에 대해서는 허동현(2002), 「조사시찰단(1881)의 일본 경험에 보이는 근대의 특성」, 『한국사상사학』 19, 525~532쪽 참고.

5 조사시찰단이 남긴 각종 문헌에 관한 자세한 解題는 허동현(1998a), 「朝士視察團(1881)의 日本見聞記錄總覽」, 『史叢』 48, 23~53쪽 참고. 이들 문헌은 허동현 편(2000), 『조사시찰단 관계 자료집(이하 자료집으로 약칭)』 1~14, 國學資料院에 영인·수록되어 있다.

광범위하게 파악·서술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문건들은 개항 이후 1880년대 초반까지 일본을 통한 근대지식의 수용과 그 변용의 여러 양상들을 구명(究明)함에 불가결의 중요성을 지닌 사료라고 말할 수 있다.

견일사절들은 일본의 문물과 제도를 시찰한 뒤 크게 두 부류로 — 유교 도덕을 지키면서 근대기술의 장점을 취하려 한 동도서기론자(東道西器論者)와 근대지식과 기술을 모두 수용해 국민국가를 세우려 한 국민국가수립론자(國民國家樹立論者)로 — 대별되는 근대기술과 지식 수용 태도를 보였다. 이 글에서는 개화 초기 견일사절(遣日使節)들이 남긴 각종 기록에 두 개로 보이는 대조적 근대기술과 지식 수용 양태와 그 변용의 여러 양상들을 분석하되 특히 조사시찰단의 경우를 중심으로 적출 부각해 보려 한다.

## 2. 동도서기론자의 근대기술 수용론

1876년 조선 정부는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구래의 교린관계의 회복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876년과 1880년 두 차례의 수신사와 1881년의 조사시찰단을 통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음으로써 기존의 유교 문명관에 입각한 일본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유교 문명관에 가해진 충격의 파열음은 제1차 수신사 김기수의 다음과 같은 소회가 잘 대변한다.<sup>6</sup>

---

6 김기수(1971), 『日東記遊』, 국사편찬위원회 편, 『修信使記錄』, 국사편찬위원회, 103쪽.

기교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한 개의 火輪으로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만든다. 기교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바이니, 나는 이것을 보고 싶지 않다. 지난번에 나의 유람을 막은 사람이 옳았고, 나에게 유람하도록 권고한 사람은 옳지 못했는데, 나는 그 옳은 말을 쫓지 못했으니 그렇다면 내가 유람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는가? 奇技淫巧도 말로는 이것으로 利用厚生한다고 하니, 이용후생이라면 이를 배워야만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를 보는 것쯤이라.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문명론적 시각에서 볼 때 야만이 아니라 이용후생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산업이란 장점을 가진 문명한 타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도덕을 기준으로 문명과 야만을 가르던 종래의 문명관념은 압도적 기술문명 앞에 흔들리기 시작하였다.<sup>7</sup> 김기수의 경우 도일하기 전에 갖고 있던 일본 이적관(夷狄觀)을 일본 시찰을 통해 탈피하였지만,<sup>8</sup> 그가 귀국 후 지방관으로 좌천될 만큼 당시 외양일체론적 위정척사론(倭洋一體論의 矯正斥邪論)은 거의 모든 유교 지식인의 뇌리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었다.<sup>9</sup> 메이지 일본이 수용한 서구 근대기술을 접한 조선의 지식인 중에서는 화이론적(華夷論的) 왜양일체관을 폐기하고 근대기술의 수용을 고민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朝鮮策略)』의 영향으로 개화정책이 추진되고,<sup>10</sup> 이에

7 허동현(2000), 『근대한일관계사연구: 朝士視察團의 일본관과 국가구상』, 국학자료원, 24~28쪽.

8 하우봉(2001), 「개항기 수신사의 일본인식」, 김용덕·미야지마 히로시 공편, 『근대 교류사와 상호 인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48~249, 256~257쪽.

9 한철호(2006), 「제1차 수신사(1876) 김기수의 일본인식과 그 의의」, 『사학연구』 84, 157쪽.

10 김홍집은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왕정복고와 문호개방의 과정을 소개하

따라 조사시찰단이 메이지 일본의 근대문물과 제도를 샅샅이 조사한 이후부터였다.<sup>11</sup>

조사시찰단의 조사들 중에는 일본 시찰을 통해 일본을 개혁의 모델로 삼는 문명관의 전환을 경험한 이도 있었지만, 4개월에 불과한 시찰 기간은 대다수 조사들에게는 평생 몸에 밴 유교의 가치와 세계관을 벗어나게 하기에는 너무 짧았다.<sup>12</sup> 이 점은 조사들이 일본이 공자를 모신 문묘(文廟)의 제향을 폐지한 것을 개탄하거나 유학이 쇠잔해 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sup>13</sup>

- 이현영 : 요즈음 와서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경쟁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이미 마음속으로 개탄했던 터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과 예악의 풍속을 장차 어디에서 밝힌단 말입니까? 실로 별것 아닌 듯 근심하고 탄식만 할 바가 아닙니다.
- 강문형 : 백제 때 사람 왕인이 서적을 가지고 온 다음부터 경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중세에는 학풍이 자못 융성하여 공맹을 존중하고 程朱(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정호·정이와 주희를 이름-인용자)를

---

고, 이를 시세에 맞는 '自然之勢'로 긍정하였으며, 메이지유신 이후 부국강병 정책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우봉(2001), 앞의 글, 250~251쪽.

11 허동현(2002), 앞의 글, 514~520쪽.

12 허동현(1986), 「1881년 朝鮮 朝士 日本視察團에 관한 一研究」, 『한국사연구』 52, 135~137쪽; 허동현(1998b), 「1881년 朝士視察團의 明治 日本 社會·風俗觀」, 『한국사연구』 101, 148쪽.

13 이현영, 『일사집략』, 허동현 편(2000), 『자료집』 14, 46쪽; 강문형, 『문견사건』, 허동현 편(2000), 『자료집』 12, 14쪽; 민종묵, 『문견사건』, 허동현 편(2000), 위의 책, 124~125쪽; 엄세영, 『문견사건』, 허동현 편(2000), 위의 책, 338쪽; 심상학, 『일본문견사건초』, 허동현 편(2000), 위의 책, 232~233쪽.

담론할 줄을 알았고, 중국의 경서와 사서가 들어오면서부터 경서에 능통하고 문장을 잘 짓는 선비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요즘음 들어서는 서학이 크게 번성해 각 번의 문묘는 대부분 관서로 바뀌거나 폐기되었으며, 오경과 四子(공자·증자·자사·맹자)는 아무 쓸모 없게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한문을 하는 선비는 엉락해 뜻을 펴지 못하고 지금은 흐느껴 울며 개탄할 뿐이다.

- 민중목 : 메이지 이후 새로 갖춘 서적들을 보면 심중팔구는 서양 책이다. 공부하는 사람 네댓 명만 이따금 도서관을 찾은 뿐 학생들이 없다. 근래에는 제향을 폐지했는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요직에 있는 사람이 외람되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 어찌 부끄럽고 개탄치 않을 수 있겠는가.
- 엄세영 : 공자의 문묘에 서적관(지금의 도서관)을 설치해 중국·일본·서양 책을 다 구비하였고, 독서하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 명이다. 아! 옛날 성인이 학문을 베풀어 어찌 경서 아닌 잡다한 책으로써 시작하였겠는가.
- 심상학 : 공자의 문묘를 가서 보니 공자의 소상이 안온하였다. 건물의 이름은 대성전이라 했고 첫 번째 문은 仰高門, 두 번째 문은 入德門, 정문은 杏壇門이라 씌어 있었다. 왼쪽 건물에는 사서오경과 百家子書가 탁자 위에 놓여 있어 자못 경서를 존중하는 의절이 있었으나, 오른쪽 건물에는 여러 나라의 책들이 잡스럽게 놓여 있어 보기에 심히 불경스럽다.

이들은 유교적 가치기준으로 메이지 일본의 이모저모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서구의 근대지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이용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본 근대기술의 수용에는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이현영은 “모든 후생의 방법과 부강의 술책에서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고 바꿀 만한 것은 바꿀 수 있다”고 말했고, 조준영은 “만약 그 군제·무기·배·기계·농법 등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넉넉하게 할 만한 것”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다.<sup>14</sup> 그리고 민중묵은 일본의 산업진흥 경험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을 시사했다. “중국은 사람이 많고 국토도 넓으나 서양인들에게 피해를 입었으니 강하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은 작은 나라이기는 하나 부강지술(富強之術)에 힘써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니 약하다 할 수 없다.”<sup>15</sup> 이와 같은 생각들은 부분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기도 했다. 조병직의 수행원 안중수는 경교학사(耕敎學舍)를 설립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 쓰다센(津田仙)과 관료들에게서 근대 농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조선에 돌아와서 1885년에 『농정신편(農政新編)』을 펴냈고, 1884년에는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 설치를 도왔다.<sup>16</sup> 그리고 조사(朝士) 김용원은 일본에 머물면서 오사카 조폐국에서 ‘금은 분석법’을 연수하고 1882년 8월경부터는 광산의 채굴기술과 양잠학을 배웠다. 어윤중의 수행원 김양한은 조선소에서 항해술을 배우고 가마이시(釜石) 광산에서 주철 기술을 익혀 1882년 11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기계도졸업증장(器械圖卒業證章)’이라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손봉구는 처음에는 도쿄대학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하려 했으나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여 입학할 못하자 시니가와(品川) 유리공장에 견습공으로 들어가 유리제조 기술을 배웠다.<sup>17</sup>

이처럼 조사시찰단의 대다수 단원들은 평생 깊게 뱀 유교적 가치관

14 이현영, 『문견사건』, 허동현 편(2000), 앞의 책, 513쪽; 조준영, 『문견사건』, 허동현 편(2000), 앞의 책, 610~611쪽.

15 『承政院日記：高宗篇』 辛巳 9月初 1日條.

16 李光麟(1969), 「安宗洙와 農政新編」, 『(改訂版)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223~224, 226쪽.

17 허동현(1995), 「1881년 조사시찰단의 활동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66, 33~35쪽.

을 뛰어넘는 문명관의 변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를 온존시키는 범위 안에서 국가의 부강과 백성의 후생에 도움이 되는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한 국가개혁을 구상하였다. 동도서기론자들의 국가구상은 크게 넷으로 요약된다.<sup>18</sup>

첫째, 메이지 일본의 국가통합 장치 중에서 왕정복고, 집권적 정부 형태, 삼권분립의 권력구조, 그리고 행정체제와 관료제도의 효율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민권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사법제도와 경찰제도, 군제와 군사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둘째, ‘절용·애민’의 전통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본 이들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경제적 성장은 높이 샀지만, 이로 인한 국가재정과 민간경제의 파탄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했다. 이들은 일본식 산업진흥 정책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편리함과 재정수입 증대효과가 있는 교통·통신 시설, 우수한 근대식 광산 채굴 설비와 공법, 기술인력의 양성, 국민계몽과 기술자립을 위한 박물관과 산업박람회 개최, 농민계몽사업을 비롯한 농업진흥 정책의 수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셋째, 일본의 사회·풍속상의 변화는 대체로 매우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적어도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직업·신분 제도에 변화가 필요함은 인식하였고,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신문의 계몽기능이나 서양의학, 맹아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

---

18 허동현(2000), 앞의 책, 97~126, 149~166, 186~207, 219~232쪽; 허동현(2002), 앞의 글, 522~524쪽.

다. 결국 선별적으로 서양의 사회제도나 기술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메이지유신 이후 문명개화의 원동력이 바로 서구 근대사상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서구 근대기술의 우월성만 인정하고 그 기술문명을 꽃피운 토대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들의 국가 생존전략은 피할 수 없는 서구에 대한 문호 개방과 서양 세력의 진출에 대응해 근대기술과 무기체계는 받아들여되 전통적 체제나 가치는 유지·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미봉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도서기론자들이 제기한 근대기술 수용론은 개신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개화상소(開化上疏)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1882년 8월에는 국왕에 의해 근대기술 수용론이 국가 정책으로 천명되자 동도서기를 주장하는 전직관료와 재야유생들의 개화상소가 연이어 올려졌다.<sup>19</sup> 동도서기론의 정연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1882년 12월 윤학선(尹學善)의 상소에서 잘 나타난다.<sup>20</sup>

아! 西法이 나오게 되자 그 기계의 정밀함과 부국의 방법에 있어서는 비록 周를 일으킨 呂尙이나 蜀을 다스린 諸葛亮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간여하여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의 윤리는 하늘로부터 얻어서 본성에 부여된 것인데, 천지에 통하고 만고에 뻗치도록 변하지 않는 이치로 위에서 道가 된 것이다. 수

19 권오영(1990), 「동도서기론의 구조와 그 전개」, 『한국사시민강좌』 7, 86~96쪽.

20 『日省錄』 고종 19년 10월 7일조, 역문은 권오영(1990), 위의 글, 92~93쪽에서 재인용.

레·배·군사·농업·기계는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으로 밖에 드러나 器가 되는 것이니, 제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器이지 道가 아닙니다.

이처럼 서구나 메이지 일본의 근대문물 중 유교 도덕을 해치지 않는 기술과 무기 등을 수용하려 한 채장보단(採長補短)의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근대기술 수용론은 1880년대 전반을 풍미하였다.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 유교문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기술 등만을 받아들여려는 배제와 수용의 논리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점차 수용 쪽으로 기울었고 그 폭도 기술과 제도에서 정신으로 확대되어 나갔다.<sup>21</sup>

### 3. 근대지식과 기술수용을 통한 국민국가 수립론

서세동점의 시대를 맞아 일본은 ‘서구의 충격(western impact)’에 발 빠르게 대응해 메이지유신으로 일본형 국민국가를 이루면서 지역의 중심으로 거듭났다. 이후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 현실주의적 개화파 지식인들의 눈에 일본은 야만이 아닌 문명의 상징으로 비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왜(倭)로 멸시되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 배워야 할 화(和)로 인식되었다.

21 장인성, 「근대 조선 일본관의 구조와 성격 : 자기·타자·상황의 함수적 표상으로서의 일본관」, 김용덕·미와지마 히로시 공편, 앞의 책, 180~181, 193~194쪽.

이러한 문명관의 변화는 1882년 제3차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박영효가 남긴 기행문 『사화기략(使和記略)』의 제목이 잘 말해 준다. 개화파 지식인들은 메이지 일본을 새로운 서구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해 따라 배워야 할 이상적 개혁 모델로 인식하였다.<sup>22</sup>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조사시찰단의 홍영식(洪英植)과 어윤중(魚允中)이 귀국 후 국왕에게 복명한 다음의 문답에 잘 나타난다.<sup>23</sup>

- 고 종 : 일본의 제도가 장대하고 정치가 부강하다고 하는데 살펴보니 이와 같더냐?
- 홍영식 : 일본의 제도가 비록 장대하나 모두 모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財力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많으므로 항상 부족함을 근심합니다. 그 軍政은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이룩한 것입니다. 일본이 노력한 바를 갖고 현재 이룩된 것을 보면 진실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 고 종 : 오로지 부강만을 도모하던 戰國時代와 동일하더냐?
- 어윤중 : 진실로 그러합니다. 春秋戰國은 바로 小戰國이며 오늘날은 바로 大戰國이라 모든 나라가 다만 지식의 힘으로 경쟁할 뿐입니다. …… 현재 형세를 돌아볼 때 부강함이 아니면 국가를 지키지 못하므로 상하가 한뜻으로 노력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 일일 뿐입니다.

22 허동현(2004), 「개화기 한국인의 일본관」, 『사학연구』 70, 222~225쪽. 『사화기략』에 대해서는, 최덕수(1999), 「『사화기략』(1882)연구」, 『사총』 50, 31~53쪽; 한철호(2008), 「개화기 박영효의 『사화기략』에 나타난 일본 인식」, 『한국학논집』 44, 95~124쪽 참조.

23 『承政院日記』 1881년 9월 1일조; 魚允中, 『從政年表』. 허동현 편(2000), 『자료집』 13, 194쪽.

특히 어윤중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약육강식의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보다 생존경쟁이 더 치열한 이 시대에 나라가 살길은 오직 부국강병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력은 곧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능력의 총합을 말할진대, 나라의 부강함은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지식’은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가가 이룩한 모든 제도와 과학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각국끼리 서로 무역을 함에 단지 물화만 교역하는 것이 아니다. 재예(才藝)로 서로 도우므로 그 지식과 기교를 익힐 수 있으니, 좋은 점은 취하고 장점은 행할 뿐이다. 이것이 재주와 지식의 무역이니 물화에 비해 그 이익이 더 크다”면서 정보와 지식의 교류도 활발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sup>24</sup>

유교적 가치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던 어윤중과 홍영식은 일본 시찰을 통해 근대지식과 기술수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어윤중은 유학 숭상의 폐단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폐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과거제를 폐지하고 해외유학 등을 통해 근대지식과 기술을 수용하는 방안을 주창했다.<sup>25</sup>

우리나라가 평소에 유교를 숭상하고 계다가 유약하고 나약함에 빠진 것을 어질다고 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기상을 떨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풍속을 변혁하려면 먼저 이들로 하여금 옛 습관을 통렬히 혁파하게 해야 한다.

근래에 각국이 여러 나라에 유학을 보내는 데 열심이지만, 대부분 대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로 가고 소국에는 가지 않는 것은 잘 살피지 못

24 어윤중, 『수문록』, 허동현 편(2000), 앞의 책, 56쪽.

25 어윤중, 『수문록』, 허동현 편(2000), 앞의 책, 15, 24, 25, 56쪽.

한 것이다. 대국이 행하는 바는 대개 그 물질의 부유함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낭비가 지나치게 심하고 재물의 소모도 적지 않다. 우리 같은 소국은 쉽게 이를 수 없는데도 이를 본받으려 하면 국민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만 축낼 뿐이다. 현재 서양에는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말고도 벨기에와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치법과 정구가 불 만한 것이 많고 …… 오히려 뛰어난 점이 있다.

과거를 혁파하면 공명진취를 도모하는 무리들이 모두 앞다투어 외국에 나가 재주와 기예를 습득하여 돌아올 것이다. 만약 과거를 폐하지 않으면 인재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모두 옛 학문에 안주하여 학술의 정진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옛사람은 누구나 빈궁을 편안히 여기는 안빈을 어질다고 보았으니 진실로 옳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을 가난을 편안히 여기게 만듦으로써 살아갈 방도를 세우는 데 힘쓰지 아니 하게 했으니 어찌 그 입과 몸을 지탱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그는 “일본 사람들은 일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단연히 감행하므로, 잃는 바가 있더라도 국체(國體)를 세울 수 있었다. 청나라 사람들은 낡은 관습에 연연해 허송세월하며 날을 보낸다. 이로써 천하를 보면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행하는 자가 성공한다”고 하여 메이지 일본의 근대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sup>26</sup> 이러한 인식은 조사시찰단의 수원으로 일본에 유학했던 윤치호(尹致昊, 1865~1945)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sup>27</sup> 그는 1884년 6월 1일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하였다.<sup>28</sup>

---

26 어윤중, 『수문록』, 허동현 편(2000), 『자료집』 13, 7쪽.

27 그의 중국에 대한 혐오감은 지인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서한에 잘 나타난다.  
“중국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마치 더럽기 짝이

청국은 사람이 많고 땅이 커서 일본의 11배나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30여 년 내외로 更張·振作하여 문명과 부강을 사람들이 일꾼게 되었고 60년이나 외국과 더불어 통상한 청국보다 백배나 더 낫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청국은 옛것만 지켰으나 일본은 능히 옛것을 고쳐 새것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개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새것을 쫓고 옛것을 지키는 이익과 손해가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윤중과 윤치호 두 사람은 일본 시찰과 유학을 통해 일본형 국민국가를 향후 조선에서 실현 가능한 국가 모델로 삼는 개혁 구상을 할 수 있었다.<sup>29</sup> 이들에게 일본형 국민국가는 향후 조선에서 실현 가능한 국가 모델로 자리잡게 된다. 이 점은 어윤중이 구상한 국가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명확해진다.<sup>30</sup> 어윤중은 일본의 국가통합 장치들을 조선에 도입하고자 했다. 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군주는 국가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만 군림하고 실질적인 정치

---

없는 물이 가득 괴어 있는 웅덩이처럼 느껴집니다. …… 물은 괴이면 썩어가고 잡초가 덮이고 진흙과 벌레가 가득 차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중국은 낡아빠진 집과 흡사합니다. …… 그 지붕은 이제 현대를 휩쓸어가려고 하는 강한 폭풍이 불어 닥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날아갈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늙은 바보영감과 아주 똑같습니다.” 윤치호(1995), 「T. H. Yun's Letteer to Anonymous Person, June 5, 1885」, 윤경남 역, 『(국역) 좌옹 윤치호 서한집』, 효산문화, 32~33쪽.

- 28 송병기 역(2001), 『국역 윤치호 일기』 1, 연세대학교출판부, 150~151쪽.  
 29 허동현(2001), 「어윤중(1848~1896)의 개화사상 연구 : “은건”개화와 내지 친청사대파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상사학』 17, 442~467쪽 ; 허동현(2006), 「개화기 윤치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1, 123~124쪽.  
 30 허동현(2001), 위의 글, 442~467쪽.

권력은 근대적 개혁을 도모하는 정치세력이 장악한 집권적 정부형태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국강병책을 실시하여 국권이 확립되고 백성이 근대국민으로 거듭 나서 군민동치(君民同治)를 담당할 주체로 성장할 때까지는 입헌정체(立憲政體)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또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부국강병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료제의 효율적 정비가 관건이었다. 관료들이 국정운영의 주체가 되어 국가 자원과 국민 역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조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과거제 폐지와 성과급 제도의 도입, 그리고 관리의 상공업 종사 허용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외 자주권의 확보와 산업진흥에 필수적이라고 본 근대 사법체계의 수용과, 특히 서구에 불평등조약 체결의 구실을 제공하는 잔혹한 형행(行刑)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근대적인 군사체제를 확립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사실 비민주적 집권정부로 특징지어지는 일본형 국민국가의 국가통합을 위한 장치들은 다원화된 근대 시민사회를 창출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서구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모방한 당시 일본의 통치체제는 입헌체제로 나아가는 과도기 체제였고,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근대 정치체제의 발전방향과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통치·지배 기구는 일본처럼 시민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조선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발전 모델일 수 있었다.<sup>31</sup>

둘째로, 경제통합을 위한 조감도이다. 그 첫걸음으로, 물적·인적 교류와 정보·지식 교환의 통로인 교통·통신망의 근대화과 이를 바탕

---

31 허동현(2002), 앞의 글, 509~512쪽.

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아래 근대산업을 진흥하고 민간부문의 상업을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재정 조달방안으로 재정관할권의 중앙집권화, 세제의 근대화를 비롯해 재벌의 육성을 통한 자본의 집중화, 관세자주권 회복을 통한 재원조달, 그리고 외자도입을 모색하였다. 즉, 그는 한국사상 최초로 조직적인 차관도입과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국민·문화 통합방안이다. 그는 조선의 발전이 지체된 원인을 유학의 숭상에서 찾으면서, 일본과 같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이끌 정신적 지주로서 유학을 대신할 수 있는 서구의 근대사상과 기독교 수용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근대국민의 형성을 위해 신분제 타파와 교육의 진흥도 도모하는 혁신적인 사회개혁론을 입안하였으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적극 받아들이고 서구 국가들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혁신적 국민국가 수립론은 급진개화와 김옥균·홍영식·박영효 등의 이상과 맥을 같이하는데, 이후 이들이 천명한 갑신정변 정강(政綱)의 원형을 이룬다. 어윤중이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보낸 1881년 12월 20일자 편지에서 그는 김옥균과 박영효, 서광범을 자신의 ‘절친한 친구들(切友)’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니 잘 돌아달라고 부탁했다.<sup>32</sup> 또 김옥균이 일본을 둘러보는 내내 어윤중의 일본과 중국 기행록인 『중동기(中東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일화, 박영효

32 “魚允中書翰(明治14年 12月 20日),” 「福澤宛書翰」, 慶應義塾 編(1964), 『福澤諭吉全集』 21, 岩波書店, 374쪽, “弊邦金玉均朴泳孝徐光範三君 皆中(어윤중)之切友也 又此航渡貴邦先以先生之名誦之 當即往拜矣(?) 乞隨事周旋 無有艱窟之患.”

가 자신의 회고담에서 1882년에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것이 갑신정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 사실 등은 어윤중이 급진개화파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sup>33</sup>

#### 4. 이와쿠라 사절단과의 비교를 통해 본 조사시찰단의 한계<sup>34</sup>

조사시찰단은 한국의 근대 서구문물 수용사에서 특기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다. 시찰단 일행에게는 이 경험이 근대지식과 기술의 수용을 도모할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의 국가구상은 이후 조선의 정치·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 조사시찰단은 한·일 문화교류사에서 교류의 위상이 뒤바뀌는 전환점이자, 일본을 근대화의 발전 모델로 상정한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12명이나 되는 고위관료가 일본의 곳곳을 누비며 이모저모를 살핀 뒤에 그 보고 들은 바를 조선의 개혁에 반영하려 하거나, 유학생을 보내 일본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려 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사의 틀 내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조사시찰단은 근대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 면에서 1881년 중국에 보내진 영선사(領選使)나 1883년 미국과 유럽을 돌아본 보빙사(報聘使) 같은 해외 파견 사절이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은 데 비한다면, 이들의 성과는 출중

33 허동현(2002), 앞의 글, 520~521쪽. 어윤중을 친청성향의 온건개화파로 보는 학설에 대한 비판은 허동현(2001), 앞의 글 참조.

34 이 절은 허동현(2002), 앞의 글, 524~530쪽의 내용을 전재하였다.

했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막부 말기의 서구 국가들에 파견된 사절단과 메이지유신 후의 이와쿠라 사절단 등 조사시찰단과 비슷한 성격의 일본 사절단과 비교해 보면, 조사시찰단의 취약점이 드러난다. 이 양자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조선이 보인 근대지식과 기술수용 노력의 한계성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서구 선진문물을 수용하려는 노력은 공식사절단 파견과 해외 유학생 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유신 이전까지 모두 여섯 차례 서구 국가들에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1860년 80명의 사절이 미국에 파견되었으며, 1862년 유럽 국가들을 순방한 사절단의 규모는 38명이었다. 그리고 1862년 네덜란드, 1865년 러시아에 유학생을 보냈으며,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조슈와 사쓰마도 이 시기에 영국에 유학생을 밀파했다. 각국의 정치·학제·군제 등을 파악하는 사명을 띤 사절단은 대의정치, 군사제도, 정부 전매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부터 의술, 병원 경영법, 각종 학교, 전신, 우편, 토목기술, 부두, 보세 창고에 이르기까지 근대 서구문명이 이룩한 모든 것을 탐구하였다. 특히 1862년 사절단의 경우 서구문물에 대한 탐색활동이 매우 조직적이고 철저했는데, 하급 조사원들이 매일 탐구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상급 서기관은 이 보고서들을 토대로 『영국탐험』, 『프랑스탐험』, 『러시아탐험』 등의 책자로 정리하였다.<sup>35</sup> 사절단원 중에서도 후쿠자와 유키치의 왕성한 활동은 군계일학과 같았다. 동료들이 처음 본 기차에 크게 감탄하며 차량의 크기, 속도, 레일의 폭과 높이를 측정해서 일기

---

35 田中彰(1992), 『開國と倒幕：日本の歴史 15』, 集英社, 223~225쪽; 하가 토오루 저, 손순옥 역(1989), 『명치유신과 일본인』, 예하, 125~136쪽.

에 기록하고 있을 때, 이미 그는 철도회사의 구성과 경영법, 은행업, 영국과 프랑스의 이집트 철도 분할지배 같은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후쿠자와는 서구 근대문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면서 새로운 국가구상의 비전을 제시하는 저서를 냈다. 그것이 『서양사정(西洋事情)』이다. 그 무렵 15만에서 20만 부가 팔린 것으로 추정되는 베스트셀러 『서양사정』은 일본인들에게 서구 근대의 산물인 국민국가 수립의 꿈을 효과적으로 전파한 최고의 매체였다.<sup>36</sup>

조사사찰단이 일본에 파견되기 10년 전에, 메이지 일본은 대규모 해외사절단을 파견한다.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특명전권대사로 한 이 해외사절단은 특명전권부사 네 명 — 참의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대장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공부대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외무소보 야마구치 나오요시(山口尚芳) — 과 정부 각 부서의 중견 실무관리 41명 등 공식사절 46명을 비롯하여 18명의 수행원과 유학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한 지 겨우 4개월, 근대국가로의 첫걸음을 막 내디딘 신생정부는 정부 수뇌의 절반을 사절단의 대표로 삼고 그 밑에 막말의 사절 참가자들을 서기관으로 배속한 데다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한 전문 이사관까지 참여시킨 100여 명 규모의 이와쿠라 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한 것이다.<sup>37</sup> 이와쿠라 사절단의 성격과 목표는 그때 이들을 전송한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의

36 하가 토오루 저, 손순옥 역(1989), 위의 책, 138~140쪽.

37 田中彰(1977), 『岩倉使節團：講談社現代新書 487』, 講談社, 8~9쪽; 田中彰(1994), 『岩倉使節團『米歐回覽實記』：同時代ライブラリ174』, 岩波書店, 2~3쪽.

송별사에 잘 드러난다.<sup>38</sup>

외국과의 교제는 국가의 안정과 위기에 관련되며 사절의 능력 여부는 국가의 영욕에 관계된다. 지금은 대정유신, 해외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이니 그 사명을 만리 떨어진 곳에서 완수해야 한다. 내외정치, 앞날의 대업이 성공하고 못하고가 실로 이 출발에 달려 있고 그대들의 대임에 달려 있지 않는가? 대사는 천부의 훌륭한 자질을 지닌 중흥의 공적이 있는 원로이다. 동반하는 여러 卿들은 모두 국가의 주석이며 함께하는 관원들도 한때의 인물들이다. 모두 이 훌륭한 뜻을 한마음으로 받들어 협력하여 그 직분을 다해야 한다. 나는 그대들의 뜻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안다. 가라! 바다에서 증기선을 옮겨 타고 육지에서 기차를 갈아타며, 만리 각지를 돌아 그 이름을 사방에 떨치고 무사히 귀국하기를 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미국·영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독일·러시아·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위스 등 구미 선진국가들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중동과 아시아의 낙후된 상황도 관찰하였다.<sup>39</sup> 산조의 송별사에도 나오듯이, 전권대사 이와쿠라와 부사 오쿠보와 기도는 메이지유신의 주역이자 귀국 후 헤게모니를 장악한 실세들이었다. 시찰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오쿠보는 「입헌정체에 관한 의견서」, 기도는 「헌법제정의 건언서(建言書)」를 제출한데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국가구상, 다시 말해 일본형 국민국가

38 田中彰(1994), 앞의 책, 44쪽.

39 田中彰(1994), 앞의 책, 46~194쪽.

의 창출을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sup>40</sup> 그리고 사절단의 증견관리나 유학생들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하여 일본형 국민국가의 형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쿠라 사절단이 거둔 성과는 구메 구니타케의 『미구회람실기』에 고스란히 담겨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되었다. 구메는 이 책에 “이 사절이 거둔 모든 성과를 국민의 일반적 이익과 개발을 위해 편집·간행”한다고 썼듯이, 이와쿠라 사절단원들은 천황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같은 사고를 실천에 옮겨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다.<sup>41</sup>

이로부터 10~20년 후에 근대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 떠난 우리의 조사시찰단은 일본의 사절들과 달리 비공식 시찰단이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과 일본의 근대문물 수용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찰임무를 떠났던 12명의 조사와 그 수행원들이 약 4개월 동안 일본의 제도와 문물을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경험이 조선의 근대화 작업에 전폭적으로 활용되기 힘들었다는 한계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우선 이들은 고종의 밀명을 받고 개인자격으로 갔으며 또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정척사파의 세력이 강했다. 또 일본의 막부 말기와 메이지유신 후의 사절단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첫째, 일본이 1860년부터 시작한 근대문물의 수용 노력을 우리는

40 田中彰(1994), 앞의 책, 210~212쪽.

41 田中彰(1994), 앞의 책, 46쪽; 松本健一(1998), 『日本の近代：開國・維新』 1, 中央公論社, 347~355쪽; 福井純子(1995), 「米歐回覽實記の成立」, 『米歐回覽實記を讀む』, 法律文化社, 429~430쪽.

20년 후에, 그것도 일본의 눈에 의해 변형된 이미지를 간접 경험했다. 4개월 여에서 1년 여의 짧은 시찰기간 또는 유학기간은 일본형 국민국가나 서구 근대의 지적 성과를 충분히 소화·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다. 특히 이들은 그는 서구 근대의 지적 성과를 이해하는 데 대체로 일본 지식인들에 의해 ‘번역된 근대(translated modernity)’—‘오역’, ‘오독’된 근대—를 통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이들은 동시대의 일본 지식인들이 겪은 지적 혼돈보다 더한 서구와 일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본적으로 변형된 ‘삼중 번역된 근대(triple-translated modernity)’의 미로를 헤맬 수밖에 없었다.<sup>42</sup> 특히 근대서구에서 도입된 개념들—일본에서 조어된 번역된 한자어들—을 처음으로 접한 조사시찰단원들은 이를 이해하는 데 문자의 이면에서 생기는 개념의 차이를 극복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sup>43</sup>

둘째, 후쿠자와가 말한 것처럼 일본 사절단은 서구 근대가 이룩한

42 지금은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로 번역어가 정착된 자유민권운동도 메이지시대 일본인들이 개개인의 개별적인(individual) 권리를 집합 개념으로서 민권(people's right)으로 잘못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든가, Herbert Spencer의 Social Statics(1851)을 번역하면서 서명을 『社會靜學』이 아닌 『사회평권론(社會平權論)』으로 오역함으로써 이 책이 자유민권운동의 성전으로 자리잡게 했다는 에피소드가 대표적 사례이다.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저, 임성모 역(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54, 88~89, 107쪽. ‘번역된 근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Lydia Liu(1995),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University Press;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저, 임성모 역(2000), 위의 책, 219~226쪽 참조.

43 아키즈키 노조미(秋月望)(2001), 「스에마쓰 지로(末松二郎)의 필답에 나타난 ‘근대’: 1881년의 ‘신사유람단’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김용덕·미와지마 히로시 공편, 앞의 책, 25~34쪽.

정신적·물질적 성과의 요체를 파악하여 이를 일본에 적용함으로써 서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진취적인 성향의 인물이자 메이지 정부의 실세들로 구성되었다. 그에 비해 조사시찰단의 경우, 물론 능력이 출중한 이른바 정예 관료출신의 조사들이었지만, 어윤중과 홍영식을 제외한 대부분은 국왕의 하명에 따라 피동적으로 참여한 봉건군주의 가신(家臣)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또 그 수행원들은 조사들과의 사사로운 관계로 선발되었으며, 윤치호나 유길준(俞吉濬, 1856~1914)처럼 일본 유학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을 빼면 대개가 관직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들이었다. 그 밖에 역관 출신의 통역과 하인 등 20여 명도 조사들이 근대 문물제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큼 각성되지는 못했다.

셋째, 일본의 사절단은 자신들의 경험을 활자화하여 국민들과 공유하는 데 힘을 썼지만, 우리의 조사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조사들은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왕의 밀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보고하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서사(書寫)에 능한 아전들을 동원해 ‘문견사건’과 ‘시찰기’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비단으로 장정한 수서본(手書本)을 고종에게 바쳤다. 따라서 조사들의 보고서는 국왕이나 일부 위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들이 거둔 성과가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sup>44</sup>

---

44 조사들의 일본 견문 보고서 대부분은 고종의 개인 장서인 집옥제 도서관에 보관되어 왔다. 이태진(2000), 『고종시대사의 재조명』, 태학사, 300~303쪽.

##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1876~1884년 사이 건일사절들이 일본을 통한 근대기술과 지식의 수용과 그 변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1880년대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힘입어 서양과 일본의 앞선 기술과 농법 등을 받아들여자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을 수용한 개신 유학자들이 늘어나면서 화이론적(華夷論的) 메이지 일본 인식은 유교 지식인 사이에서도 점차 힘을 잃어갔다. 이들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이른 부국강병과 산업화를 높이 평가해 일본을 이용후생(利用厚生)에 도움이 되는 근대기술과 산업을 보유한 장점을 가진 문명한 타자로서 인식하였다. 메이지 일본의 근대문물 중 유교 도덕을 해치지 않는 기술과 무기 등을 수용하려 한 채장보단(採長補短)의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근대 기술 수용론은 1880년대 전반을 풍미하였다.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 유교문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기술 등만을 받아들여려는 배제와 수용의 논리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점차 수용 쪽으로 기울었고 그 폭도 기술과 제도에서 정신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이 가시화됨에 따른 배제의 논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유교문명과 근대 문명을 절충하려 한 동도서기론자들은 유교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비판할 수 있었다.<sup>45</sup>

둘째, 국민국가 수립론자들은 일본을 모델로 한국에 국민국가를 수립하려 했으며, 이들에게서는 전통적인 일본 이적관이 불식되고 전근

---

45 장인성(2001), 앞의 글, 180~181, 193~194쪽.

대에서부터 항상 따라 배워야 했던 우월한 문명이었던 것으로 인식되는 타자규정의 역전현상이 초래되기도 했다. 어윤중과 윤치호 두 사람은 일본 시찰과 유학을 통해 일본형 국민국가를 향후 조선에서 실현 가능한 국가 모델로 삼는 개혁 구상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어윤중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이룩한 국가, 경제, 국민, 문화 통합 장치를 모델로 삼아 개혁추진 주체로서 집권적 정부형태의 도입, 차관도입과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의 입안, 서구의 근대사상과 기독교 수용, 그리고 근대국민의 형성을 위한 신분제 타파와 교육의 진흥도 도모하는 혁신적 국민국가 수립론을 세웠으며, 이는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홍영식·박영효 등이 꿈꾼 개혁구상의 원형을 이루는 것이다. 개혁의 모델로서 메이지 일본을 보는 인식은 불변의 고정관념은 아니었다. 윤치호·박영효·서재필 같은 이들은 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문명개화론자로서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황인종주의나 아시아 연대론에 영향을 받아 일본을 독립의 옹호자로 보기도 했지만, 일본이 가면을 벗고 침략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났을 때에는 일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거나 반일태도를 노정하였다. 윤치호와 박영효 같은 이들의 메이지 일본 인식은 국제·국내정치 현실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지만, 그 호오(好惡)와 긍부(肯否)의 일관된 기준은 조국과 민족의 생존이었다. 이들의 외세에 대한 모순된 인식은 외세가 아닌 민족을 주어로 해서 볼 때는 일관되어 있었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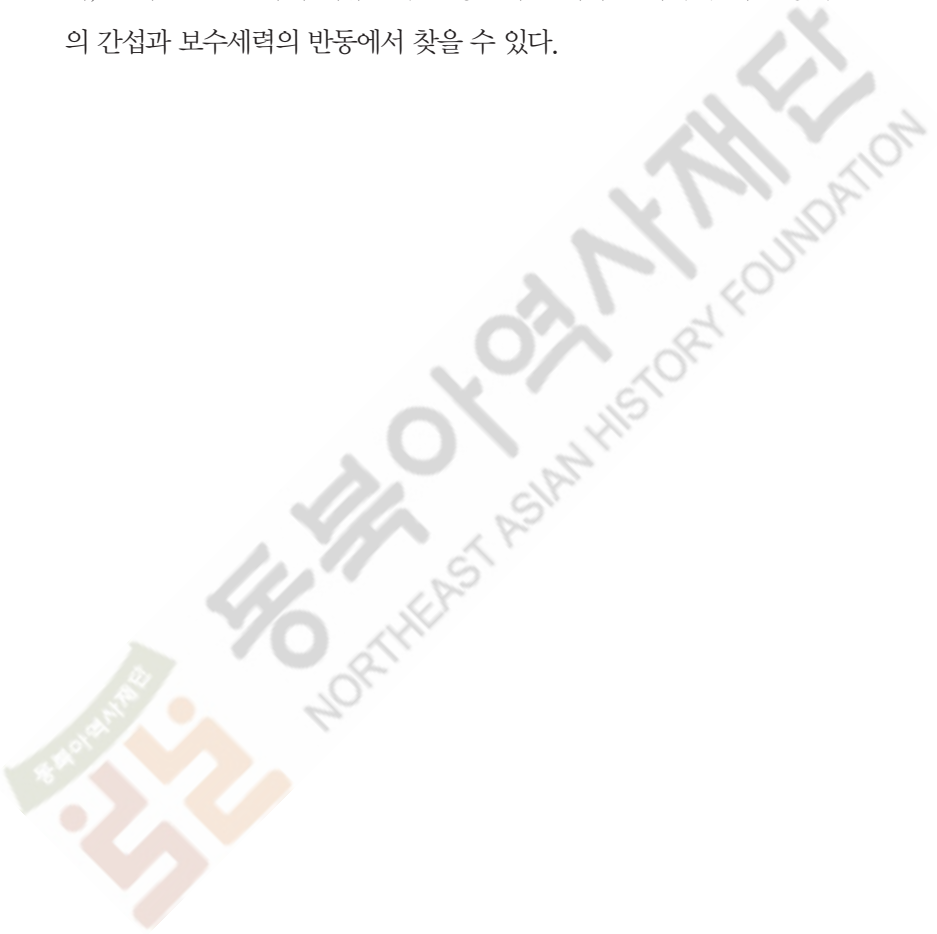
셋째, 거시적으로 볼 때 위정척사파 지식인들과 달리 서구문물의 수용에 유연한 자세를 보인 동도서기론자들도 일본을 시찰하면서 얻은

46 장인성(2001), 앞의 글, 163~164쪽; 허동현(2006), 앞의 글, 123~148쪽.

근대문물과 제도에 대한 지식에 힘입어 시각이 크게 변하면서 조선에 국민국가를 수립할 필요성을 자각할 가능성이 컸다. 사실 후쿠자와 유키치도 1862년 유럽을 둘러볼 당시 서구 근대의 산물인 민주주의의 기본제도와 관행을 이해할 수 없었다.<sup>47</sup> 그러나 후쿠자와는 서구국가들을 둘러보면서 익힌 새로운 견문을 바탕으로 근대적 계몽사상가로 거듭났다. 서구의 근대문물을 접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가 그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후쿠자와의 세계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동도서기론을 제기했던 조사들 중 몇몇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본격적으로 일본 지향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도모한 갑오경장(1894~1895)에 각각 참여한 바 있었다. 당시 박정양은 학부대신과 총리대신, 이현영은 내부대신, 엄세영은 농상공부대신으로 활약하였다. 갑오경장의 개혁 추진기구인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는 이들 동도서기론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일본의 집권적 정부와 유사한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당시 지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선거에 의한 향회(鄉會)의 구성도 이들이 호평했던 일본의 부·현회와 비슷한 제한적 지방자치제도였다. 이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들도 장기적으로 국민국가를 수립할 필요성을

47 福澤諭吉(1970), 『福翁自傳』, 慶應義塾 編, 『福澤諭吉全集』 7, 岩波書店, 107~108쪽. “정치상의 선거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선거법이란 것이 어떤 법률이고, 의회라는 것은 어떠한 관청이냐고 질문하면, 저쪽 사람은 웃기만 한다. 무엇을 묻는지 잘 알고 있다는 태도이다. …… 또한 보수당과 자유당이라는 당파 같은 것이 있어 서로 지지 않고 밀리지 않으려고 맹렬하게 싸운다고 한다. …… 태평무사한 천하에서 정치적인 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알 수가 없다. ……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적이라면서도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신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깨달은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어윤중의 이상은 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어윤중과 동일한 이상을 꿈꾸던 급진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의 힘을 빌려 무모하게 일으킨 유혈쿠데타 갑신정변(1884)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더욱 심해진 중국의 간섭과 보수세력의 반동에서 찾을 수 있다.



# 근대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

## - 1898~1931년 기간을 중심으로

양닝이(楊寧一, 중국 베이징사범대)

### 1. 머리말

청조 말부터 중국에는 일본 유학 붐이 일어나, 이것이 중국 사회의 근대적 변화를 강력하게 촉진했다. 그간 학계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일본유학운동[留日運動]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글에서는 『와세다대학 교우회원명부[早稻田大學校友會員名簿]』를 기본 단서로 삼아, 1898~1931년 기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의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 기간의 하한선을 1931년으로 끊은 것은, 그 해에 일본이 중국 침략전쟁을 일으킴에 따라 일본으로의 유학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기는 중국의 일본유학운동에서 전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이다.

## 2. 근대 중국의 일본유학운동에서의 와세다대학의 위치

연구자들이 중국 유학생을 받은 일본의 학교들을 연구할 때 주로 언급하는 곳은 홍문학원(弘文學院), 도쿄동문서원(東京同文書院), 법정대학(法政大學)과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등이다. 필자는 근대 중국의 일본유학운동에서 이 학교들이 각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그중에서 와세다대학이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중국 유학생을 받은 학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언어학습을 중심으로 한 속성학교로, 홍문학원·도쿄동문서원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역락서원(亦樂書院)을 전신으로 하는 홍문학원은 1902년에 개설되었고 학교장은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였다. 학원의 학제는 3년으로 운영되었고, 일본어와 중등 정도의 보통학과 수업을 강의했으며, 3학년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나뉘었다. 1909년 이 학교는 문을 닫았다. 도쿄동문서원은 동문회(同文會)가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1902년에 세운 곳으로, 주로 일본어와 보통중등학교 수업을 진행했다. 정치적인 목적이 선명했는데, 1926년에는 운영을 중단했다. 이 학교들은 운영된 기간이 짧았고, 중등교육과 대학예과교육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고등 인재를 양성할 수는 없었음이 분명하다.

또 다른 유형은 법정대학·육군사관학교 등 정규대학 혹은 전문학교의 경우이다. 육군사관학교는 군사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전문학교로, 1898년에 처음 중국 유학생들이 입학하였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은 청말에서 민국 초까지 중국 군대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중 몇몇은 군사 방면부터 정치 방면에까지 그 위세를

당당히 떨쳤다. 법정대학은 1904년에 많은 수의 중국 유학생을 받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일본으로 유학 간 많은 중국 유학생이 법률을 공부하고자 했는데, 그중 법정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법정대학은 설립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률전문학교로서 야간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1904년이 되어서야 실업과를 설립했다. 1920년에 새로운 대학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대학은 종합대학으로서 주간수업을 주로 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와세다대학은 상술한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와세다대학은 예과와 보습과뿐 아니라 학부와 대학원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게다가 후자가 중심이 되었다.

둘째, 와세다대학은 학과의 설치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정치학과와 법학과뿐만 아니라 문학과와 상과도 있었고, 이공 전공과 사범 전공도 있었다.

셋째, 유학생을 받았던 기간이 길었다. 와세다대학은 1882년에 설립되어 1898년부터 중국 유학생을 받기 시작해 근대 이래로 중단된 적이 없었다.

넷째, 와세다대학의 창립자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주장한 ‘동서문명의 조화’라는 정신은 그 특정한 역사적 배경과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명론의 관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즉, 이 정신은 “어떤 의미에서 오쿠마가 설립한 와세다대학을 지탱시키는 학문의 버팀목이 되는 정신이었고”, “와세다대학이라는 이러한 특색 있는 사립대

---

1 法政大學 編(1961), 『法政大學八十年史』, 法政大學, 49~68쪽 참조.

학의 이상에 대해 말하자면 또한 그 근본원리가 되는 근원성을 포함하고 있었다.”<sup>2</sup> 이로 인해 와세다대학은 아시아, 특히 중국의 전통을 중시했다. 일례로 1905년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 청국유학생부(淸國留學生部)라는 교육기구를 특별히 설치했다. 이 청국유학생부에는 본과, 예과와 보습과가 설치되었다. 본과의 학제는 2년이었고, 아래로 사범과, 정치이재과(政治理財科)와 상과를 설치하였고, 사범과는 또 물리화학과, 박물학과, 역사지리과로 나뉘었다.

다섯째, 와세다대학의 설립 취지는 ‘학문의 독립’으로,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취지하에 와세다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심지어는 반역적인 성격을 지닌 학자들까지 불러모았는데, 예를 들어, 우키다 가즈타미(浮田和民), 아베 이소(安部磯雄), 사노 마나부(佐野學),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쓰다 소기치(津田左右吉), 오야마 이쿠오(大山郁夫)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의 가르침은 유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은연중에 감화력을 발휘했다.

이런 이유들로 근대 중국의 일본유학운동 가운데 많은 유학생이 와세다대학에 들어갔다. 사네토 게이슈(實藤惠秀) 씨가 저술한 『중국인유학 일본사(中國人留學日本史)』에서의 통계에 따르면, 1902~1931년 와세다대학의 졸업생 수는 총 1,272명으로, 전체 목록에서 3위를 차지한다. 또한 와세다대학의 중국 근대화 노정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2 峰島旭雄(1992), 「從比較文化的角度來看」, 大隈重信, 『東西方文明之調和』,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98쪽.

### 3. 『와세다대학 교우회원명부』에 반영된 와세다대학 중국 유학생의 기초 상황

현재 와세다대학 도서관에는 다이쇼[大正] 원년·3·5·6·13·15년과 쇼와[昭和] 2·3·4·5·6년 각 해에 출판된 『와세다대학 교우회원명부[早稻田大學校友會員名簿]』(이하에서는 『교우회원명부』로 약칭)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사료이다. 필자는 이 『교우회원명부』에 대한 초보적인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중국 유학생이 1902년 처음으로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1931년 시점까지의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 졸업자들의 정황은 아래와 같다.<sup>3</sup>

년도	명	년도	명
1902	1	1917	21
1903	2	1918	27
1904	4	1919	15
1905	4	1920	43
1906	12	1921	22
1907	6	1922	53
1908	228	1923	30
1909	196	1924	30
1910	209	1925	18

3 實藤惠秀(1983), 『中國人留學日本史』, 三聯書店, 113~115쪽, 「역래 각 학교에서 졸업한 중국유학생 수 일람표[歷年畢業于日本各校之中國留學生人數一覽表]」에서 빌려왔다.

1911	98	1926	17
1912	32	1927	15
1913	58	1928	12
1914	10	1929	9
1915	13	1930	20
1916	39	1931	28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08~1911년 기간의 유학생 졸업자 수는 다른 해보다 확연히 많은데, 청국유학생부의 학생들이 대체로 이 시기에 졸업을 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주의할 부분은 일정 수의 졸업생들이 『교우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실제로 와세다대학에서 졸업한 중국 유학생의 수는 『교우회원명부』에 기록된 통계 숫자보다 많다.

와세다대학이 중국 유학생들을 얼마나 받았는지, 현재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졸업생 수에 근거해 대략적인 추산은 할 수 있다. 사네토 게이슈는 1908년의 졸업생이 같은 기수의 유학생 총수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1927~1937년 사이의 졸업생이 평균 각 기수의 유학생 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sup>4</sup> 이 두 경우 졸업생 수와 그 기수의 유학생 비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통상 일본에서 유학한 근대 중국의 유학생 수가 대략 7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 문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졸업생 명수는 11,966명이다. 양자 간의 비율은 대략 6~7 : 1로, 바로 사네토 게이슈가 제시한 비율의 중간치에 해당한다. 잠정적으로 6 : 1의 비율

4 實藤惠秀(1983), 117~118쪽.

정도로 추산해 보면, 1898~1931년 와세다대학에는 모두 약 8,000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 하겠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 대체로 중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했다. 귀국 후 유학생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분포 상황은 아래와 같다.

지역	명수	지역	명수
北京	99	安徽	22
上海	17	山東	21
浙江	166	廣西	18
廣東	83	遼寧	18
直隸	57	河南	13
四川	51	貴州	11
湖南	50	陝西	10
江蘇	42	吉林	6
江西	39	甘肅	3
山西	33	雲南	3
福建	26	黑龍江	2
湖北	24	臺灣	1
		總數	815

북양 정부 시기의 행정구획에 비추어 보면, 와세다대학 졸업생들이 귀국 후 거주한 지역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몽골(蒙古)·칭하이(青海)·신장(新疆)·시짱(西藏) 이외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분포가 불균등하고, 비교적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 많은 사람이 거주했다.

졸업생들이 중국에 돌아와 종사한 직업군은 대체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직업	정계	교육계	경제계 (실업·금융계 포함)	자유직업 (변호사·기자 등 포함)	총계
명수	79	32	20	17	148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졸업생 가운데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계에, 그리고 일정한 수가 실업과 금융업에 종사했다. 사실상 『교우회원명부』에는 전체 졸업생 총수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47명의 직업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분의 7에 해당하는 졸업생들의 직업은 아직 알 수 없다. 그중에는 공신주의운동에 종사한 자,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되지만, 아마 대다수는 사회의 가장 기층에서 일하며 생활했던 풀뿌리계층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바꿔 말하면, 『교우회원명부』에 직업이 기록된 졸업생들은 분명 사회 엘리트 계층에 속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이 중국 근대화의 각 영역에서 공헌한 바

상술한 것처럼 와세다대학의 유학생 교육 수준은 비교적 높았고, 전공개설도 비교적 완비되어 있었다.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은 귀국 후 중국 사회 내의 각 영역에 퍼져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하에서는 각 영역으로 나누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 영역을 살펴보자.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은 귀국 후에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에는 졸업생도 있었지만 또 중도에 퇴학한 사람도 있었다. 이는 와세

다대학에서 받은 전공 교육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형세로 인해 결정된 측면도 컸다. 주지하듯이, 공산주의운동에 투신한 천두슈[陳獨秀], 리다자오[李大釗], 평바이[彭湃], 랴오칭즈[廖承志] 등은 모두 와세다대학에서 수학했다. 그 밖에 양두[楊度], 장지[張繼], 평쓰여우[馮自由] 등은 중국 정계에서 한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처럼 중국 정계에서 활약한 와세다대학 출신 유학생들은 다방면에서 활약하여, 국회의원, 재정·사법·교통·외교 부문의 관리도 있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중 일부는 중국의 정치 건설에서 중대한 공헌을 하기도 했는데, 징야오웨이[景耀月]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 1882년 산시성[山西省] 루이청현[芮城縣]에서 출생한 징야오웨이는 1904년에 산시성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일본 와세다대학에 들어가 법률을 공부하고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징야오웨이는 일본 유학 기간 동안 쑨중산[孫中山]이 창립한 동맹회[同盟會]에 참가해 조직간사를 맡았으며, 또한 유학생 동학들에 의해 중국유일동학회[中國留日同學會]의 위원장직에 추천되었고, 후한민[胡漢民], 쑹자오런[宋教仁], 황싱[黃興] 등과 함께 중국의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그는 상하이[上海]에서 위여우린[于右任]과 함께 『민우일보(民吁日報)』를 창간하고 신문에 시평과 문장을 자주 발표하여 민중이 반제·반봉건의 혁명운동에 참가하도록 선전활동을 벌였다. 신해혁명(辛亥革命) 전야에는 북방지역의 거의 준비작업을 책임졌다. 우창기의(武昌起義) 후에 그는 산시성 대표자격으로 각 성 대표회의의 의장으로 추대되어 심혈을 기울여 수많은 사무를 처리했다. 또한 「임시약법(臨時約法)」과 「임시정부조직법(臨時政府組織法)」을 기초하고, 민주체제를 건립하기 위한 여러 입법활동에 많은 공헌을 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곧 총

통의 취임선서식이 거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취임선언문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그는 옆방에 들어가 일필휘지로 급히 글을 집필하여 「임시대총통취직선언(臨時大總統就職宣言)」을 완성시켰다. 그는 참의회 참의장의 신분으로 쑨중산의 취임을 지지하는 연설을 발표하고, 직접 쑨중산에게 인수(印璽)를 교부하였다. 난징임시정부[南京臨時政府] 성립 후, 그는 임시정부의 교육차장에 취임하였고 난징정법대학[南京政法大學]의 교장직을 겸임하였다. 그는 전국 제1부 민주교육법규의 초안 작성을 주관했는데, 여기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과 공자 제사와 독경(讀經) 폐지를 주장하는 등, 중국의 근대적 민주교육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그는 종종 ‘국부’ 쑨중산과 함께 국시를 논의했으며, 쑨중산은 친히 ‘고원(高遠)’이라고 쓴 족자를 그에게 주어 그의 혁혁한 공헌을 표창하기도 했다.

그는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제제(帝制) 복벽을 반대했다. 북양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규탄한 것을 이유로 그는 총통부(總統府) 회인당(懷仁堂)에 10여 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위안스카이는 제제 회복을 추구하고, 이에 화중진(花重金)은 징야오웨를 매수하려고 시도했으나, 징야오웨는 제제에 동조를 표하는 증서에 서명하라는 그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했다. 장쑤(張勳)가 복벽하자, 그는 대의에 격동되어 산시로 숨어 들어가, 산시[山西]·산시[陝西]·허난[河南] 각 성의 혁명역량을 이끌고 ‘양하토벌군(兩河討伐軍)’[양하는 황하(黃河), 위하(渭河)를 가리킴]을 조직했고, 총사령으로 천거되어 장쑤의 반역을 성토했다. 차오쿤(曹錕)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뇌물을 쓰자, 그는 병으로 입원한 상태에서도 친구에게 부탁하여 차오쿤에게 손수 쓴 글을 전해서 그의 치욕스런 행실을 질책하였다. 동북군벌 장쑤린(張作霖)이 중국공산당의 지도자 리다자오 등을 체포

하자 장쥘린에게 편지를 써 문화계의 애국인사를 살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징야오웨는 비록 일본에서 유학했지만 민족적 기개를 품고 있었다. '9·18사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그는 책상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3일 밤낮을 침대에 누워 식음을 전폐했다. 그는 괴뢰 만주국의 총리 정샤오쉬(鄭孝胥)에게 편지를 써서 “조국을 배반하고, 자진하여 우썌꾸이(吳三桂), 홍청초우(洪承疇)에게 굴복하고, 적을 아버지로 삼으니……”라고 그를 질책했다. 1935년 '화북사변(華北事變)' 후, 일본이 몇 해 동안 물러나 있었던 우페이푸(吳佩孚)가 '세상으로 나와' '화북자치(華北自治)'를 준비하는 것을 지지하자, 그는 우페이푸를 만나 그만두도록 설득했다. 1936년 '서안사변(西安事變)'이 발생했을 때에는 장쉐량(張學良), 양후청(楊虎城) 두 장군에게 서한을 보내고, 또 마오(毛) 주석과 주(朱) 총사령관에게도 편지를 보내, “반드시 장(蔣介石)으로 하여금 내전을 중지하고 당쟁을 그만두고 대국을 돌보게 하며, 단결해 외부의 침략에 항거하여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하고, 내전을 피해 적이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역설했다. 1937년 '7·7사변' 후, 일본 괴뢰정부는 그를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화북교육총서(華北教育總署)의 일을 맡기려 했다. 그는 “나는 문인이고, 정치에는 뜻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일본 괴뢰정부가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여 징야오웨가 베이핑도서관(北平圖書館) 관장직에 취임한다는 소식을 발표하자, 그는 즉시 성명서를 실어 “이 일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지금 몸이 노쇠하여 갖가지 병이 몸에 달라붙어 있으니 실로 능히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나는 문천상(文天祥)이 될 수는 없지만, 다만

역사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지금은 민족의 흥망이 걸린 상황으로 국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과는 다르니 터럭만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굶어 죽는 것은 작은 일이고, 절개를 잃는 것은 큰일이니, 소무(蘇武)가 바로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했다. 항전시기 그는 오랜 기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수입이 없어 생활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달팠고 병을 치료할 돈조차 없어 병의 상태가 날로 나빠지다가, 끝내는 일본 침략자의 박해로 생을 마감했다.

중칭국민당정부는 중화민국을 창건하던 과정에서의 징야우웨의 불후한 공헌과 항전시기에 순국한 충성심과 대의를 기리기 위해 성대한 추도회를 열고 무흘령으로 표창함을 선언했다. 중국공산당원 역시 『신화일보(新華日報)』에 그의 타계 소식을 실었다.<sup>5</sup>

외교계에서 활약한 푸스잉[富士英, 1880~1926] 역시 언급할 만한 인물이다. 푸스잉은 저장(浙江) 자싱(嘉興) 사람으로, 1898년에 일본 도쿄로 가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여 4년 후에 졸업했다.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과 북양대신공서(北洋大臣公署)에서 외교사무를 담당했다. 1913~1919년에는 주조선총영사(駐朝鮮總領事)를 역임했다. 당시 조선은 이미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였는데, 그는 부임 후 화예(華裔)를 위해 제자학교를 설립하고 애국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총영사관은 서울시 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영사관의 부지가 넓어 일본인이 탐을 냈고 그것을 가로채 총독부로 개축하려고 했다. 이에 거금의 뇌물로 푸스잉을 회유해 그곳을 사들이려고 했으나 푸스잉은 이를 강경하

5 高勝恩(2007a), 「景耀月與民國初創」, 『文史月刊』第10期; 高勝恩(2007b), 「民國風云人物景耀月的家世后裔」, 『文史月刊』第11期.

게 거절했다. 파견 기간이 끝나 귀국한 후에도 일본인은 오래된 수법으로 후임자를 매수한 데 이어 푸스잉에게 거금의 뇌물을 쥐 다시는 이권을 내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푸스잉은 이를 재차 거절하고, 당국에 글을 올려 주권을 상실하고 국위가 실추되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일본은 결국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후에 푸스잉은 외교부 참사로 임명된다. 한번은 신장(新疆) 이리(伊犁)로 순시를 갔는데, 현지 관원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푸스잉에게 은밀히 뇌물을 건네며 자신을 비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푸스잉이 호되게 거절했던 사건도 있었다. 베이징에서의 임기 때에 그는 교통신비·교제비 등 여러 비용들을 모두 자신의 급여에서 지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집의 하인을 그만두게 하고 그 처가 대신 일하게 했다. 임직 기간 동안 그는 양 옷소매가 닳고 돈 한 푼 없는 형편이 될 정도로 청렴했다. 여덟 명의 자녀가 모두 고생스럽게 공부하여 공비(公費)학교에 들어갔다.<sup>6</sup>

교육 영역은 와세다대학 출신의 중국 유학생 인재들이 준비해 놓고 있던 영역이었다.

젠넨이(蹇念益, 1876~1930)는 구이저우(貴州) 쑤이(遵義) 사람이다. 8국 연합군이 중국을 침략하여 청 정부의 주권과 국위가 실추되자, 당시 뜻있는 청년들은 잇따라 유학을 떠났고, 유학을 통해 중국이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커다란 사회 조류가 되었다. 젠넨이는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면서 정치와 법률을 공부했다. 그는 출중한 조직 능력으로 중국유학생총회 간사로 선출되었고 량치차

6 浙江省人物志編纂委員會 編(2005), 『浙江省人物志』, 浙江人民出版社를 참조.

오(梁啓超)와 교류하였다. 쯐넨이는 량치차오보다 세 살이 적었으나, 정치적 입장이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그는 정부에서 직무를 맡게 된다. 신해혁명 이후 량치차오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데, 당시 량치차오의 계획이 쯐넨이로부터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여 “량(치차오)이 계획하고 쯐(넨이)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위안스카이의 칭제(稱帝) 활동이 점차 격렬해지자 쯐넨이와 차이어(蔡鐸)는 북경과 천진 사이를 오가면서 량치차오와 함께 은밀히 반원(反袁)을 꾀하였다. 호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각지의 군벌은 여전히 할거상태에 있었고, 국사는 아직 정상궤도에 접어들지 못했다. 쯐넨이는 정부에서 직위를 맡는 것은 원치 않았고 오로지 의원의 신분으로 국사를 함께 의논하고자 하였다.

쯐넨이의 교육 영역에서의 공헌은, 1912년에 다른 법학계 저명인사들과 함께 베이징에 차오양대학(朝陽大學)을 창설한 일이었다. 차오양대학은 법률, 정치, 경제 등의 학과가 중심이 된 저명한 사립법과대학으로 당시 성대한 칭송을 얻은 중국의 법학 요람 중의 하나였다. “남쪽에는 동우(東吳)가 있고, 북쪽에는 차오양(朝陽)이 있다[南有東吳, 北有朝陽]”, “차오양 없이는 법원이 이루어지질 않는다[無朝(陽)不成(法)院]”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949년, 원래 차오양대학이 있던 땅에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이 건립되었다. 다음 해 2월, 중국정법대학은 화북대학(華北大學), 화북인민혁명대학(華北人民革命大學)과 합병되어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이 설립되었다.<sup>7</sup>

<sup>7</sup> 熊先覺·徐葵(1997. 9), 『法學搖籃－朝陽大學』, 北京燕山出版社, 第1版을 참고.

런카이난(任凱南)도 교육 방면에서 큰 공헌을 한 와세다대학 출신 중국 유학생이다. 후난성(湖南省) 상인현(湘陰縣)에서 태어난 그는 청년시절 총명하고 공부를 잘해 관비 유학시험에 붙었고 이에 일본의 와세다대학으로 건너가 수학했다. 일본 유학시절, 황싱(黃興)과 사귀어 동맹회에 가입하였고 신해혁명을 위해 분주히 연락을 취하고 문장을 지었다. 신해혁명 후 그는 영국 런던대학에 합격하여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중국으로 돌아왔다.

런카이난은 교육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1921년, 레이명창(雷夢強)과 창사따루중학(長沙大麓中學)을 설립하고, 후난성립도서관(湖南省立圖書館)의 관장직을 겸임했다. 또한 1922년에 후난상업전문학교(湖南省立商業專門學校)의 설립을 주관했다. 그는 교장을 역임하면서 특히 교육의 혁신과 교사의 자질 문제를 중시했다. 1926년, 이 학교와 후난공업전문학교(湖南工業專門學校), 후난법정전문학교(湖南法政專門學校) 등이 성립후난대학(省立湖南大學)으로 합병되게 되는데, 그는 이곳에서 경제학을 가르쳤고, 1928년에 교장으로 선출되었다. 1927년, 런카이난은 다시 국립우한대학주비위원회(國立武漢大學籌備委員會) 위원, 우한대학(武漢大學) 경제학 교수로 초빙된다. 1932년, 우한대학 경제학과 주임으로 임용되었고, 후에 우한대학법학연구소 경제학부 주임을 겸임했다. 그 후 런카이난은 다시 후난대로 돌아와 교무장직을 맡았고, 따루중학 이사장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항일전쟁 기간, 그는 후난성 참의원으로 초빙되었으나, 1945년에 “참여하나 의논하지 않고, 의논하나 결정하지 않고, 결정하나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깊이 실감하고는 곧 사직하였다. 후에 후난성 교육청 청장에 위임되었으나 “교육을 하는 것은 관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벼슬하려고 안달하는 병이 있는 자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말하

면서 고사하였다. 그는 수입의 대부분을 책을 구입하는 데 썼고 전적(典籍)을 천하 공공의 재산으로 여겼다. 별세 후에는 뒷사람들이 그의 유언을 받들어 그가 소장하고 있던 만여 권의 장서를 후난대학과 따루중학에 기증했다.

런카이난은 자신의 일생을 교육사업에 헌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학식은 깊고 넓었고, 특히 경제학 방면에 조예가 깊었다. 사람들이 칭송하여 이르기를 경제학계에 “남쪽에는 런(카이난)이 있고 북쪽에는 마(인추, 馬寅初)가 있다”고 했는데, 그가 이 두 대가 중 하나인 것이다.<sup>8</sup>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 중에는 문화 영역에서 활약한 뛰어난 인물들이 많다. 쑤만수(蘇曼殊), 두귀샹(杜國暉)은 중국 문화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하에서는 소위 ‘5대 천왕’이라고 불린 사람들 가운데 황칸(黃侃), 왕둥(王東), 첸쉬안통(錢玄同), 주시쭈(朱希祖) 등 네 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은 모두 와세다대학 출신으로 귀국 후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푸런대학(輔仁大學),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師範大學), 국립중앙대학(國立中央大學, 지금의 난징대학) 등의 유명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황칸은 국학대사로 칭송되었고, 첸쉬안통은 언어문자 개혁 활동가이자 문자음운학자, 오사 신문화운동의 창도자 중의 한 명이었으며, 주시쭈는 중귀대학(中國大學) 문과 사학과의 초대 과주임이었다.

와세다대학 출신의 중국 유학생 중에는 자유직업, 예컨대 기자나 변호사 등의 직종에 종사한 이들도 있었다. 린바이수이(林白水)는 저널리스트 중에서 특히 출중한 인물이었다. 그는 푸젠성(福建省) 민허우(閩侯) 출신

---

8 汨政文整理(1987), 「任凱南先生傳略」, 政協汨羅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 『汨羅文史資料 第1輯』, 政協汨羅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으로, 중국 신문계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는 젊은시절 신문업에 종사했고,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 해외에서 신문학 과정을 공부한 최초 인물로 불렸다. 귀국 후 한동안 정치에 참여하다가 이후에는 오랫동안 신문을 발행했다. 그는 『공언보(公言報)』·『사회일보(社會日報)』·『평화일보(平和日報)』 등을 창간해 정론 문장을 발표하면서 군벌 정객들의 내막과 추문을 폭로했다. 린바이수이가 중국 신문업의 발전에 미친 중대한 공헌 중의 하나는 백화문(白話文) 신문을 낸 것으로, 이는 신문에서 문언문 대신 백화문을 사용하게 하는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1923년 1월 25일 『사회일보』에 군벌 장종창(張宗昌)의 심복 판푸(潘復)에 대한 글을 게재하여 “이 판푸라는 놈을 말할 것 같으면 그의 관리로서의 성적은 실로 놀랄 만하다. 그는 1년 몇 개월 동안의 재정차장 겸 염서장(鹽署長)을 맡으면서, 베이징에서 두 채의 집을 샀고 장식 일체를 포함하여 대략 10만 원을 써버렸다. 또 텐진 영국 조계에서 큰 양옥 한 채를 지었는데, 부지만 해도 10무 정도이고 전체 공사비용과 지가로 전부 15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다. 말투는 통속적이거나 진실을 과감히 폭로했다. 이처럼 린바이수이는 사실을 통해 누차 군벌 장종창을 비판하였고, 결국 그 때문에 1926년 장종창에게 체포되어 살해당하게 된다.<sup>9</sup>

탕바오어(唐寶鐸)는 변호사 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상하이에서 출생한 탕바오어는 바로 중국 근대 명인 탕사오이(唐紹儀)의 조카이다. 탕바오어는 관비로 일본에 파견된 최초의 유학생들 13명 중의 한 명으로, 역락서원(亦樂書院)에 입학했다. 그가 졸업 후 청 정

9 王仲莘(2006), 「白話報的鼻祖 通俗化的大師—謹以此文紀念林白水先生英勇就義八十周年」, 『炎黃縱橫』 第8期.

부로부터 주일본나가사키총영사[駐日本長崎領事館] 대리 부영사에 임명되었던 때가 21세였다. 2년 후, 그는 주도쿄공사관[駐東京公使館]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탕바오어는 주일공사관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쿄 와세다전문학교의 행정과에 들어가 국제법을 공부했고, 졸업 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부로 진학했다. 중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유학생들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탕바오어는 와세다대학 졸업 후 귀국길에 올랐으나 벼슬길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 1924년 정계에서 물러난 후 텐진(天津)에 정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

탕바오어는 텐진의 유명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학과의 창시자였고, 중국 변호사협회의 창립 멤버였으며, 오랜 기간 중국 변호사공회의 회장직을 역임했다. 이러한 직함들은 중국 법률계에서의 그의 공헌을 족히 증명해 준다.<sup>10</sup>

그 밖에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중국 유학생들은 실업에도 종사했다. 『교우회원명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메이지 41년에 졸업한 청량제[程良楷]는 상하이중국은행 총회계감사직을 맡았고, 메이지 42년에 졸업한 왕전성[汪振聲]은 지난[濟南]중국은행에 취직했으며, 다이쇼 6년에 졸업한 양지시[楊繼灝]는 중국전기주식유한공사에 취직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아직 그들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10 唐培堃(1988), 「中國最早的留日學士唐寶鏗」, 政協珠海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 『珠海文史 第七輯』, 政協珠海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 5. 와세다대학 중국 유학생이 낙후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

중국의 국토 면적은 광활하여 지역 간의 발전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은 귀국 후에 상대적으로 경제와 문화가 발달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반면, 낙후지역에서 취업한 이들은 적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은 수의 이 유학생들이 낙후 지역의 발전에 미친 영향력은 컸다. 아래에서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저장(浙江)은 근대적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며, 또한 『교우회원명부』에 기재된 중국 유학생 졸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의심할 바 없이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은 저장의 근대화 발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과거가 폐지된 후 저장에는 신식 교육에 적합한 교사들이 매우 부족했고, 때문에 저장 순무는 1906년에 저장양급사범학당(浙江兩級師範學堂)을 설립한다. 이곳은 저장에 존재했던 신식학당 중 규모가 가장 컸고, 전문적으로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사들을 육성했다.

이 학당은 처음부터 일본 유학 경험자 초빙에 힘을 쏟았는데, 교사 중에 와세다대학 출신의 중국 유학생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했다. 양나 이강(楊乃康)은 1908년에 와세다대학 청국유학생부 사범과를 졸업한 후 박물관과 교수로 초빙되었고 한동안 교무장을 대리했다. 주시주는 1908년에 와세다대학 청국유학생부 역사지리과를 졸업한 후, 1909년에 이 학당의 역사 교사가 되었다. 예정두(葉正度)는 와세다대학 졸업 후 이 학당에서 외국역사와 외국지리를 가르쳤다. 이쥬저우(易宗周)는 1906년 와

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서 공부했고, 이 학당으로 와 법률제도와 재무관리를 가르쳤다. 장종쉬(張宗緒)는 1908년 와세다대학 사범과를 졸업하고 박물학과 식물학을 가르쳤다. 그들이 가르친 과목들은 거의가 일본에서 배운 것으로, 수업내용과 교육방침이 무척 참신하여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양급사범학당의 이러한 수준 향상은 저장 지역에서 신식교육을 담당했던 중학교와 소학교 교사들의 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저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11</sup>

당시 구이저우(貴州)는 비교적 낙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장과 같이 많은 수의 유학 인재들이 모일 수가 없었다. 청초 때에는 구이저우에서 세 명의 장원과 한 명의 탐화랑(探花郎)을 배출하여 사람들이 ‘삼정갑일탐화(三鼎甲一探花)’라고 불렀다. 쑤이(隴義) 출신의 민주주의 혁명가 양시모(楊錫謨)는 젊은시절 일찍이 『공거상서(公車上書)』에 이름을 올리고는 합격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이름을 양자오린(楊兆麟)으로 바꿨다. 1903년에 일갑(一甲) 3등(탐화)으로 급제했고,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 와세다대학의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에서 동맹회에 가입하여 민주혁명에 참여했던 그는 신해혁명 후 정국이 동요하자 1914년 쑤이로 돌아와 정착하게 된다. 지방정부와 동향 어르신들의 요청에 응하여 고향을 위해 일했다. 지방지 『속귀주부지(續貴州府志)』의 편찬을 주관하기도 했다. 위안스카이 등 북양군벌에 심히 반대한 그는 베이징편수국사(北京編修國史)로 오라는 그들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위안스카이가 황제를 칭

11 呂順長(2002), 「清末における浙江省留日學生の歸國後の活躍」, 大里浩秋·孫安石, 『中國人留學日本史研究の現段階』, 御茶水の書房.

하자, 이에 차이어가 먼저 기의를 일으켰고, 뒤이어 그도 적극적으로 구이저우의 민주파 동인들과 연락을 취하고 전문(電文)을 작성해 전국에 통전하여 위안스카이의 복벽을 규탄했다. 그 후 지방의 선현들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문집 등을 편집하는 일에 참여했다. 1919년 5·4운동이 폭발하였으나 쥘이는 편벽한 지역이었던 탓에 소식이 늦게 도달해 6월 하순이 되어서야 각계에서 호응하여 혁명에 동참하게 된다. 이때 양자오린은 친히 현장으로 가 연설했다고 한다.<sup>12</sup> 이러한 양자오린의 활동은 구이저우 민주혁명의 발전을 강력히 촉진했다.

1905년을 전후해 구이저우는 두 차례로 나누어 20명의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는데, 그중 왕페이편(王佩芬)이 와세다대학에 입학했다. 그들은 귀국 후 적극적으로 신학(新學)을 추진하였고 구이저우대학당(貴州大學堂)에서 교편을 잡는 등 교육 방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28년, 구이저우대학당의 기초 위에 구이저우대학이 설립되는데, 왕페이편은 그곳에서 중문을 가르쳤다. 1930년에는 구이양현립중학(貴陽縣立中學)을 세웠다. 민국 초, 구이양(貴陽)의 교육발전은 느린 편으로 1920년대에 보통중학 한 곳이 있었을 정도였다. 왕페이편은 교장직을 맡고는 학교운영에 최선을 다했고 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어떤 논자는 구이저우성에서 군사, 정치, 교육문화와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으니 왕페이편의 제자들이 천하를 가득 채웠다고 말할 만하다고 평한다.<sup>13</sup>

12 韋敦(2001), 「清探花貴州遵義楊兆麟生平」, 貴州文史研究館, 『貴州文史叢刊』第1期.

13 楊适(1989), 「民國時期貴陽普通中學教育簡介」·熊先煜(1989), 「憶貴陽縣中校長王夢淹先生」, 政協貴陽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編, 『貴陽文史資料』

또 다른 낙후지역인 푸젠[福建] 룽옌[龍巖]에도 마찬가지로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중국 유학생이 이곳의 교육사업을 위해 힘썼다. 1891년 룽옌에서 태어난 린후이자[林會嘉]는 1918년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1921년에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했다. 그는 귀국 후에 “벼슬은 맡지 않고, 상인은 나아가지 않으며, 오로지 교육에만 힘쓴다”는 정신으로, 1903년에 설립한 성립제9중학(成立第九中學)에서 교편을 잡고 후에 학감과 사무주임을 맡았으며, 차오시추이잉소학[曹溪萃英小學]의 교장을 겸임했다. 1929년, 그는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도 여전히 교육을 업으로 생각하고 고향의 교육사업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1947년에 중국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수차례 교육사업에 돈을 기부하고 교사를 짓는 일을 주관했다.<sup>14</sup> 이렇게 린후이자 등 교육사업에 헌신한 몇 대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9중학(현재의 龍巖一中)의 인재들이 배출되어 ‘붉은 토지 위의 교육 명주’라고 칭송될 수 있었던 것이다.

## 6. 몇 가지 생각할 거리

이상 몇 가지 와세다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그곳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중국 유학생들이 자신이 받아들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귀국 후 중국 사회에서 실천했음을 알 수 있

選輯 第26輯』, 政協貴陽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 14 林榮照(1986), 「畢生爲教育事業服務的林會嘉先生」, 政協龍岩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編, 『龍岩文史資料 第13輯』, 政協龍岩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89~90쪽.

다. 이는 유학이 지식교류와 전파에서 중요한 형식이 되었으며, 대학이 국제적 지식교류의 중요한 경로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국제적인 지식교류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와세다대학의 사례를 통해 보면 이것의 성패 여부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 즉 높은 수준의 교육, 학교운영의 국제적 성격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학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지식교류와 전이작용을 연구하는 데 주로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주목했던 반면 사회 기층의 상황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저명한 학자인 안도 히코타로[安藤彦太郎]가 와세다대학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저작을 살펴보면 그가 중점적으로 연구한 중국 유학생은 리다자오, 평바이, 랴오칭즈 뿐이다.<sup>15</sup> 실제로는 유학생들은 기층이나 지방에서 명예나 영달을 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했으니, 이는 우리의 감탄을 자아낸다. 또한 그들은 중국의 사회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던 현지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들에 대한 연구가 중국 사회의 진정한 변천과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거의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등 그들을 연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 밖에 이들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때 여전히 돌파해야 할 방법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유학생들의 영향력을 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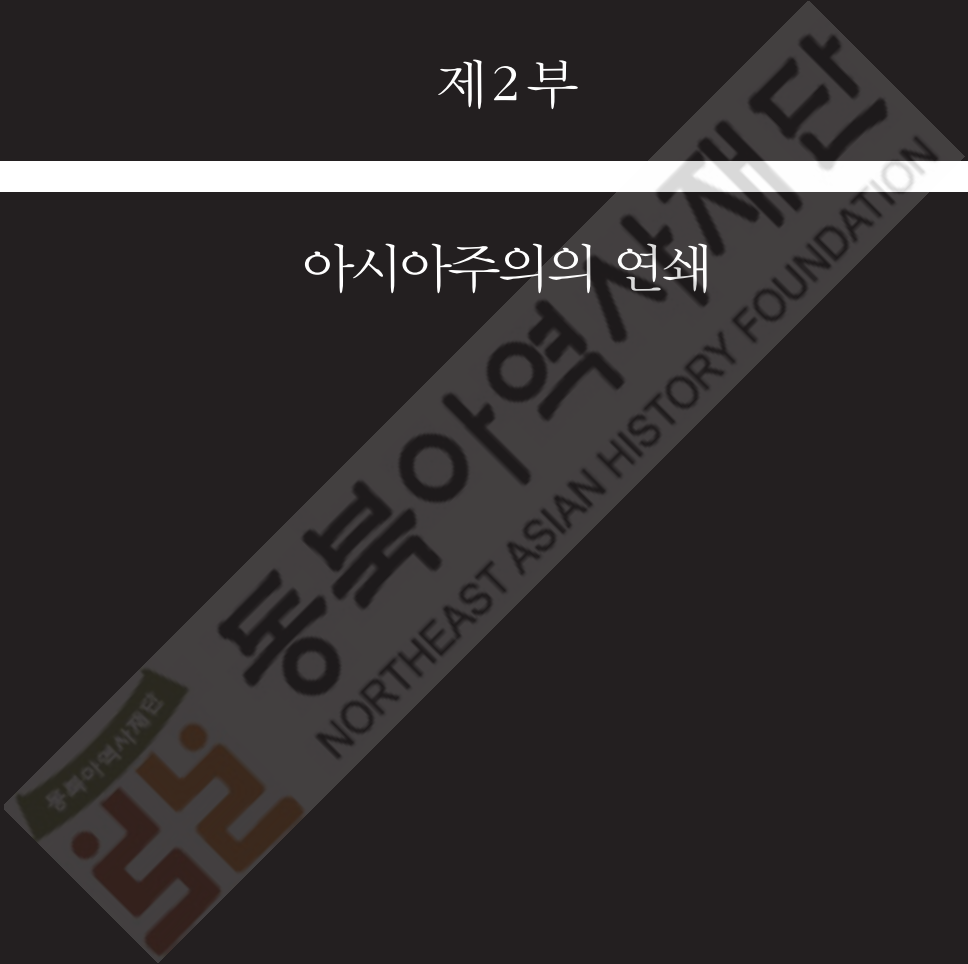
---

15 安藤彦太郎(2002), 「早稲田で學んだ中國留學生」, 『未來にかける橋—早稲田大學と中國』, 成文堂.

할 때 일반적으로 취했던 방법은 유학의 경력과 귀국 후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즉 유학 경력과 귀국 후의 활동 사이에 필연적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언급한 '5대 천왕' 중의 네 명의 인물은 모두 와세다대학 출신이긴 했지만 또한 모두가 국학대사 장타이엔[章太炎]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이 이론 성취는 얼마간 와세다대학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얼마간은 장타이엔에게 영향받은 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그 밖에 본문에서 중국의 근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소개했던 사람들 외에도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집단에는 인루경[殷汝耕], 진방평[金邦平]과 같은 일부 매국노들이 포함된다는 문제도 있다. 기존의 연구 방법은 너무 간단했다. 앞으로 유학생들이 받은 교육내용, 사상의 변천과정, 귀국 후 활동에서의 지도사상 등 다방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을 두어야만 유학생들이 근대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좀 더 합당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 제2부

### 아시아주의의 연쇄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소일본주의’, ‘민간재계주의’, ‘대아시아주의’

– 근대 일본에서의 아시아주의의 세 가지 가능성

마쓰우라 마사타카(松浦正孝, 일본 홋카이도대)

## 1. 머리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외교’시대 이후에 일본을 중심으로 존재한 아시아주의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필자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 글에서는 이번 회의의 공통주제가 ‘동아시아 지식교류와 역사 기억’임에도, 지금까지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논할 때 어김없이 언급되어 왔던 ‘교토학파’나 미키 기요시(三木清) 등 사상사 연구자가 중시해 온 지식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군인이나 저널리스트, 재계인 같이 당시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교양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에 대해 실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다룬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필자가 현실 정치사에서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일본 사상사가 중시해 왔지만 실제 정치적 영향력에 의문이 있는 이 사상사자들의 사상 자체를 논의하는 데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인물은 당시 일본

제국과 아시아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서관이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던 교양인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지식인’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사기억’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 이 글이 ‘아시아주의’를 논하는 데 강조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일한 양국에서 ‘아시아주의’라는 말의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일한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를 이야기할 때 늘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아시아주의’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수만큼의 ‘아시아주의’가 있다고까지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침략과 연대라는 두 측면을 지닌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가진 말로, 그리고 조선반도의 식민지화와 ‘동아신질서’, ‘대동아전쟁’, ‘대동아공영권’을 포함한 일본의 과거 침략의 역사 및 전후에서 최근에 걸친 동아시아 공동체 관련 논의도 포함하는 용어로서 ‘아시아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일본에서 사용되는 ‘아시아주의’ 속에는 호자키 호쓰미[尾崎秀實] 등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 연안(延安) 등에서 중국 측의 포로가 되어 중국공산당 등과 연대한 반전동맹이나 전시기 일본의 체제 외에서 활동한 노사카 산조[野坂參三] 등의 좌익은 보통 포함되지 않는다.<sup>1</sup> 일본의 ‘아시아주의’에는 냉전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아시아주의’라는 말은 ‘대동아공영권’ 등 1930년대·1940년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침략이라는 특정한 역사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1990년대 이

---

1 전형적인 것으로 竹内好(1993), 『日本とアジア』(筑摩書房)에 수록된 「日本人のアジア観」, 「日本とアジア」, 「日本のアジア主義」, 「方法としてのアジア」 등의 논문을 참조할 것.

후의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연대주의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언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sup>2</sup> 그렇다면 이 글이 소아시아주의에서 대아시아주의까지를 ‘아시아주의’의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본래 커다란 오해를 불러올 위험성을 지닌다. 이 점에 대해 여기서는 우선 일한 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 글에서는 ‘아시아주의’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당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할 것임을 강조해 둔다. 물론 일본에서 사용되는 ‘아시아주의’라는 용어의 이러한 용법, 즉 연대와 침략의 연속성을 함의하는 용법 자체에 대한 비판 자체는 하나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병합과 조선반도의 식민지배가 일본에 의한 침략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시대 일본이 놓여 있던 국제환경과 당시 정치환경 속에서 연대와 침략이라는 두 요소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폭넓은 입장의 차이가 있었으며, 그 두 요소가 때로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다양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일찍이 조선 식민지(특히 미나미[南]총독 아래서의 ‘내선일체’)에서 일본제국의 언어정책을 분석한 이연숙은,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동화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동시대의 식민정책학자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가 일본제국과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동화’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식민지정책의 근거에 계몽철학과 프랑스혁명<sup>3</sup>이 있다고 지적한 점을 평가했다. 그리고 야나이하라가 느끼지 못했

2 강동국(2008), 「韓國におけるアジア主義とナショナリズム相關關係の形成と持續」, 日本國際政治學會二〇〇八年度研究大會, 部會7「アジア主義の比較 歴史的文脈と現實的意味」, 10월 25일.

던, 조선인을 ‘국어(國語)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는 일본의 언어정책에서 ‘차별적 동화’가 가진, 정책화·가시화되지 않지만 그러나 교묘하고 정치하며 강력한 ‘동화’와 ‘차별화’의 상호 보완구조를 예리하게 지적했다.<sup>3</sup> 실로 훌륭한 일본제국의 식민지정책의 복안적인 구조분석이다.

현재의 높은 가치기준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의 한계나 결함을 지적하는 것은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모든 일본인이 늘 침략적이었다는 입장도, 일본은 ‘침략국가’가 아니었다는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당시 다양한 시대적 제약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각 주체는 ‘연대’ 및 ‘동질성’과 ‘침략’ 및 ‘지배’·‘착취’라는 두 요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 글은 그러한 문제점을 대략 세 개의 입장 — 소일본주의, 민간경제교류에 기반을 둔 전쟁억제론(현상유지주의, 혹은 임시로 ‘中帝國主義’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대아시아주의 — 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 2. ‘소일본주의’ – ‘구외교’적인 미우라 데쓰타로에서 ‘신외교’적인 이시바시 단잔으로

먼저 일본에서 유명한 ‘소일본주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론가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개최된 워싱턴회의에 즈음하여 ‘제국의 시대’의 종언을 내다보

3 이연숙(1996), 『「國語」という思想』, 제2장 「『同化』とはなみか」, 岩波書店.

면서 ‘일체를 버릴 각오’<sup>4</sup> 하에 “만주를 포기하고 조선·타이완의 독립을 허용하고 기타 지나(支那)에 수립한 수많은 경제적 특권, 무장의 발판을 버려라. 그리고 이들 약소국가와 더불어 살라”고 호소하며 일중제후를 논했다.<sup>5</sup> 이시바시의 입장은 하나의 이상주의지만, 경제적 리버럴리즘에 입각한 아시아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시바시는 1921년 다음과 같은 말까지 하고 있다.

조선·타이완·사할린·만주처럼 얼마 안 되는 땅을 버림으로써 광활한 지나 전역을 친구로 만들고, 나아가 동양 전역, 아니 세계의 약소국 전체를 우리의 도덕적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만일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횡포를 부리고 또 영국이 교만하게 동양의 여러 민족이나 세계의 약소국민을 확대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모름지기 그 확대받는 자의 맹주가 되어 영·미를 응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구구한 평상적인 군비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전법의 비결은 인화에 있다. 교만한 한두 나라가 아무리 엄청난 군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 해방의 세계적 맹주로서 배후에서 동양 또는 전 세계로부터 진심으로 지지를 받는 우리나라가 그 전투에서 지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쟁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이어야 한다.<sup>6</sup>

주목할 만하게도 이시바시는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까지 호소하고 있다. 대학졸업 후 1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하사로서 평생을 병사

4 石橋湛山(1984), 「一切を捨つるの覺悟」, 松尾尊允 [公の下に儿] 편, 『石橋湛山評論集』, 岩波書店.

5 増田弘(1990), 『石橋湛山研究』, 東洋經濟新報社, 105쪽.

6 石橋湛山(1984), 「大日本主義の幻想」, 앞의 책.

교육을 위해 바쳐도 좋다고 생각한 단잔<sup>7</sup>은 물론 비전(非戰)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단잔의 ‘아시아주의’는 『동양경제신보』 역대 주간이었던 우에마쓰[植松考昭], 미우라 데쓰타로[三浦純太郎] 등의 주장을 한층 발전시켜, 리버럴리즘과 단잔 나름의 현실적인 공리적·경제합리주의의 이론에 기초한 주장이었다.<sup>8</sup> 영국식 자유무역·공상입국주의에 입각한 단잔은 자원이 빈약하고 영토가 협소해 인구 과잉상태에 있는 일본이 식민지를 갖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보유함으로써 군비확장경쟁을 가져오고 전쟁을 낳아 전쟁의 위험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며 군비절폐론을 주창했다. 위에 인용한 논고도 군비폐지론을 전개한 끝부분에 식민주의 비판·침략주의 비판의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지 전쟁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논고를 허심탄회하게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일본 맹주론을 주창하는 것도 아니며 주안점은 식민지포기와 군비폐지론이다. 그러나 유력 야당 헌정회(憲政會)의 총재 가토 다카이키(加藤高明)는 같은 해 9월 헌정회 호쿠리쿠(北陸)대회의 연설에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일본은 무엇을 위해 지나와 전쟁을 벌이고 러시아와 싸운 것인가? 또 일본만 이것을 되돌려준다 해도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비판했는데, 당시 총리 하라 다카시(原敬)도 마찬가지로 의견이었다. 군축은 자로서 ‘헌정의 신’으로 불렸던 오사키 유키오(尾崎行雄)도 단잔을 향해 직접 “장정 100만의 피를 뿌리고 20억의 국고를 쏟은 만주를 이제 와서

7 石橋湛山(1972), 「昭和二年の年頭に當り社員諸君に希望す」, 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會 편, 『石橋湛山全集』 제10권, 東洋經濟新報社, 514쪽.

8 増田弘(1990), 앞의 글, 105쪽; 姜克實(1992), 『石橋湛山の思想史的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増田弘(1995), 『石橋湛山』, 中央公論社를 참조할 것.

포기하는 것은 조상에 대해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단잔 스스로 “당시에는 이런 논의는 일개 평화주의자의 공론에 불과했으며, 일반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회고하고 있다.<sup>9</sup>

워싱턴회의에 즈음하여 나온 이러한 단잔의 주장의 원류는 그의 상사였던 미우라 데스타로가 제1차 세계대전 전야에 그때까지 조선 식민지화와 만주 확보를 포함해 정부의 시책을 옹호하던 『동양경제신보』의 논조를 제국주의 비판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1913년 1월 5일부터 3월 15일에 걸쳐 7차례에 나누어 연재한 「만주 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 및 동년 4월 15일에서 6월 15일에 걸쳐서 6회 연재한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가 그 중심이다. 미우라는 『동양경제신보』 지상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포기를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해에 잡지 『제3제국』 11월 10일호에 게재한 「감세의 절규」에서 대륙확장론을 비판하고 미래에 식민지 조선을 포기하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滿鐵을 얻었고 요동반도를 조차했으며, 조선을 합병했다. 외관과 위엄이 대단하게 갖춰졌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 이들 지방과의 무역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통계상으로는 약 2배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조선·만주 경영을 위해 해마다 수천 만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 돈이 교역액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 크다. 그렇다면 만주와 조선을 우리 영토 혹은 세력범위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쓸데없이 국가의 재정을 팽창시켰을 뿐, 얻은 것은 쓴 것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도 일본이 향후에 영구히 조선·만주를 점령하고 이것이 국민생활에 이득이 될 전망이 있다면 다소 참아야

---

9 石橋湛山(1985), 『湛山回想』, 岩波書店, 211~212쪽.

하겠지만, 조선인[鮮人]은 여전히 조선인, 그들을 일본 군대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제국의회에 의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량이 좁은 일본인이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에는 결국 자치를 허용하고, 만주는 결국 지나에 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에 지배당할 운명이다. …… 대륙확장론자는 항상 말한다. 조선은 일본의 심장에 겨누어진 권총이기 때문에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주가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만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베리아가 필요하다. 어찌 바이칼뿐이라! 우랄을 넘어 페테르스부르크까지 않으면 철저한 사고가 아닌데, 그 정도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는 듯하다. 러시아가 만주에 오든 조선에 오든, 우리나라의 국력이 충실하다면 결코 국가의 독립을 침해당할 염려는 없다.<sup>10</sup>

당시 미우라가 정말로 조선 독립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만주 포기론을 위한 수사로서 거기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을 뿐인지는 불분명하다. 동년 초에 미우라가 『동양경제신보』에 발표한 「만주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의 요점은 일영동맹을 지속시킴으로써 ‘지나대륙의 보전’을 지향하면서 군비팽창에 따른 파탄 방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마쓰오 다카요시 씨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주 포기를 주장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미우라의 요지는 결국 아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육상 北防線을 長春 북쪽, 鐵嶺선에 두는 것은 남만주의 장악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만주가 명목상 지나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세계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영토

---

10 松尾尊允 편(1995), 『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鍊太郎論說集>』, 東洋經濟新報社, 188~189쪽.

로 공인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오늘날 장춘 북부에 위치한 우리의 국방선을 뒤로 후퇴시켜 조선의 국경과 旅順의 요새를 국방선으로 바꾼다면 이는 곧 사실상 만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본론의 초반부에서 명백히 선언한 바로서, 본인의 만주 포기론은 요컨대 우리 대륙방어선을 수정해 이를 여순과 조선 국경에 두기를 바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11</sup>

조선 포기론까지 주장한 미우라의 논의는 당시의 여론에서 돌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의 인용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미우라는 상공업계에 주된 독자를 가진 『동양경제신보』에서는 조선 포기론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만주 포기론에 그치고 있다. 마쓰오 씨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sup>12</sup> 미우라는 「해군확장의 이유 여하」(『동양경제신보』 1913년 7월 5일자·7월 15일자) 서두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근래 육군의 확장에 관해서는 반대론이 제법 가시화되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재정 곤란이 도저히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지만, 이런 논자들은 결국 만주에서 몽고 또는 北지나로 우리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자는 대륙발전정책에 대한 반대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실제로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들은 그 사회적 지위나 기타 여러 관계로 인해 분명한 말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 만주 포기를 시인하고 우리 국방선을 조선 국경으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현재 육군의 규모를 축소하기를 바라는 자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이 육군 확장 반대 또는 육군 축소론은 근래 점점 더 그 기세가 커져 차츰 일반적인 풍조

11 三浦鍊太郎(1995a), 「滿洲放棄か軍備擴張か」, 松尾尊允 편(1995), 『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鍊太郎論說集>』, 東洋經濟新報社, 120~121쪽.

12 松尾尊允(1995), 「解説・三浦鍊太郎小論」, 松尾尊允 편(1995), 『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鍊太郎論說集>』, 東洋經濟新報社, 412~413쪽.

가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있다.<sup>13</sup>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 궁핍과 중국 정세 등을 이유로 식민지 조선 국경까지는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동하는 많은 사람들, 미우라는 정재계를 비롯한 여론에서 얻었다. 조선의 식민지 영유까지는 확보해 두고 그 이상은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우라는 군비확장 경쟁을 우려하는 정재계에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전년 1912년 12월 제2차 사이온지<sup>[西園寺]</sup> 내각은 육군 2개 사단의 증설안을 각의에서 부결시켰고, 이에 불만을 품은 우에하라 유사쿠<sup>[上原勇作]</sup> 육군대신이 단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이온지 내각은 총사퇴하고 현정옹호운동으로 시작되는 다양한 세력의 개혁요구를 포함한 다이쇼정변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sup>14</sup> 군비확장을 요구하는 군벌에 대한 반감을 내포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시대적 풍조 속에서 탄생한 『제3제국』은 13년에 가야하라 가잔<sup>[茅原華山]</sup> 등이 창간한 ‘민주주의(반관료주의)’와 식민지포기론·소일본주의를 내세운 급진적 자유주의 성향의 잡지이다. 지방청년이나 조선인 학생 독자도 확보하고 있던 이 잡지에서 미우라는 가야하라와 함께 조선 포기론을 한 번 논한 적이 있다.<sup>15</sup> 미우라는, 이상으로서의 급진주의적 식민지포기론은 『제3제국』에, 현실적인 문제인 군비확장·대제국화를 반대하는 만주 포기론은 실업계를 독자층으로 가정한 『동양경제신보』에 구별하여 집필했

13 三浦鍬太郎(1995b), 「海軍擴張の理由如何」, 松尾尊允 편(1995), 『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鍬太郎論説集>』, 東洋經濟新報社, 175쪽.

14 坂野潤治(1983), 『大正政變』, ミネルヴ 書房을 참조.

15 松尾尊允(2001), 『大正デモクラシ』, 岩波書店, 제5장을 참조.

다.<sup>16</sup> 미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정재계의 특정 부분의 이익·주장을 대표하는 정치적 리얼리스트였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우라의 「만주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이든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이든 모두 더 이상의 군비확장을 부정하고 지속적인 식민지 확대의 경제적 비합리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강조하는 것이었다.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는 말한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해외에 영토를 확장한 이래 우리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타이완에 1억 6,732만 엔, 조선에 1억 8,316만 엔, 關東州와 남만주철도에 6,212만 엔, 사할린에 460만 엔, 모두 합해 무려 4억 1,667만 엔에 달한다. 이것은 일본 국민에게 증대하고 엄청난 부담, 큰 희생이 아니고 무엇이랴? 우리나라는 위로는 국고의 궁핍에 허덕여 차입재정에 차입재정을 거듭하고, 아래로는 인민이 무거운 국부담에 울고 자본 결핍을 호소한다. 한편 20억의 외채(관민 공동계산)를 지고, 그 이자 지불에 허덕이는 한편 과도한 물가 급등으로 인해 사회 인심의 불평이 점점 마음속에 쌓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는 4억 엔의 큰 자본을 국민으로부터 착취해서 식민경영에 투하하였지만, 이들 식민지 인민의 90%는 조선인, 지나인이다. 이들에게 우리 본국과 추호도 기쁨과 걱정을 함께 나누고 고락을 함께 하는 감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영토팽창정책을 추구한 결과 이미 군비확장을 위해서 10억 엔을 들였고,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4억 1,000만 엔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향후 수년 동안 육해군 확충에 5억, 7억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두 차례의 대전투로 인

---

16 松尾尊允(2001), 위의 책, 96~97쪽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다.

해 타이완을 얻고, 조선을 얻고, 사할린을 얻고, 관동주를 얻고, 20만 평방 마일의 만주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는 기색이 있지만, 영토팽창을 위해 과거에 10억 엔을 군비확장비로 투입하고 4억 2,000만 엔을 식민지 경영에 투입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해 실제로 연간 5,100만 엔을 부담하고 있다. 향후 점점 증가는 할지언정 결코 감소할 전망이 없는 이 엄청난 희생을 보고,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애초에 이들 신영토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경제적 이익은 과연 이런 큰 희생을 보상할 만한 것인가?<sup>17</sup>

미우라는 그 후 타이완과 내지, 조선과 내지 사이의 이민과 무역 상황을 검토한 결과, 모두 특별한 효과가 없을 뿐더러 신식민지 경영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미우라가 『동양경제신보』 지상에서 도출해 낸 것이 만주 포기론이며, 종전의 조선·타이완 식민지 국경까지 철수한다는 ‘소일본주의’의 결론이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인 타이완·조선까지는 지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식민지 타이완을 포기하라는 논의는 당시 미우라의 붓끝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벽에 부딪힌 타이완과 그 전 개혁」<sup>[1916년 7월 5일자에서 10월 5일자까지 9회 연재]</sup>은 타이완총독부의 초대로 시찰한 결과 집필된 논문이다. 표제에서 기대되는 식민지주의 비판과는 달리, 미우라는 이와 같이 서술하고 나아가 제4대 고다마 겐타로<sup>[兒玉源太郎]</sup> 총독 취임 후(민정장관은 고토 신페이<sup>[後藤新平]</sup>) 식민지 타이완의 발전이 얼마나 현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한다.

17 三浦鎭太郎(1995c), 「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 松尾尊允 편(1995), 『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鎭太郎論說集>』, 東洋經濟新報社, 158~159쪽.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라. 타이완이 벽에 부딪혀 있다고 하지만 타이완 영유 이래 오늘날까지의 시설 경영이 모조리 잘못되었다, 실패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향후 타이완의 진보 가망성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물론 오늘날까지 20년간의 시설 속에는 잘못된 것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달성한 타이완의 대발전이 대체로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 타이완의 부의 근원은, 예를 들어 농업 분야도 그 이용 정도가 여전히 매우 유치한 수준이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 남아 있는 발달의 여지도 또한 그에 상응하여 매우 크다. 다만 내가 “벽에 부딪혔다”라고 한 것은, 종래의 경영방침은 이미 그 방침이 가질 수 있는 본래의 역할을 다해, 오늘날의 타이완은 이미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sup>18</sup>

미우라의 미래에 대한 제언은 타이완총독 전제정치를 폐지하고, 타이완 본도인(本島人)의 자치를 수립하여 본도인을 타이완의 정치경제의 주역으로 삼는다는 것이 요지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타이완을 남지(南支) 남양(南洋) 무역에 이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이완 발전의 방향성은 그뿐만 아니라 농업 하나만 보더라도 관개배수설비·치수설비·도로교량을 갖추고, 본도인에게 시비·종묘·농기구의 개선 등 농업기술을 교육하면 우수한 본도인은 스스로 “타이완의 재력을 오늘날의 두 배로 늘리고 세 배로 늘리는 것을 기약할 수 있다고 의심치 않는다.”<sup>19</sup> 요컨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야의 미우라에게 소일본주의란 ‘소군비주의’로서 제국주의의 범위 내에 있으

18 三浦鍊太郎(1995d), 「行き詰れる台湾とその展開策」, 松尾尊允 편, 『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鍊太郎論説集>』, 289~290쪽.

19 三浦鍊太郎(1995d), 위의 글, 327쪽.

며 산업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였던 것이다.<sup>20</sup>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철저한 경제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미우라가 중국인에 대한 경쟁의식이나 경계심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주 포기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미우라는 “우선 먼저 문제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 만주의 주인은 결국 누구인가라는 것이다”라는 질문을 앞세운다. 대륙발전론자라면 당연히 일본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도 미우라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능히 만주의 부의 근원을 개척하고, 이용하고, 그리하여 만주에서 가장 잘 번식할 수 있는 인종인가? 그 인종이야말로 당연히 주인이라 할 만하다. 지금 이 견지에서 관찰하건대 가장 많이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일본인인가 러시아인인가, 아니면 지나인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만주 장악, 대륙발전책을 채택하는 데 가장 먼저 연구·해결이 필요한 근본 요점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만주는 오래도록 지나나 조선은 물론 러시아에도 속하지 않고 3국 간에 끼여 있는 요충지로서 야만족이 발호한 곳이다. 그런데도 애친각라씨(愛親覺羅氏)가 만주족에서 일어나 지나를 정복하고 이에 군림한 이래 만주는 명실공히 지나의 통치하에 귀속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 만주에 발호하는 것은 여전히 지나인이며, 지나인은 실로 만주 총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주의 부의 근원을 개척하고 이용하고 왕성하게 인구를 증식시켜 나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지나인이지 러시아인도 일본인도 아니다.

러시아가 하얼빈철도(동청철도)를 만주에 부설하여 하얼빈을 건설하고, 뤄순을 경영하는 등 거액의 자본을 투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

---

20 三浦鍊太郎(1995c), 앞의 글, 136~137쪽.

권을 확장한 것은 본래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중국인이었다. 일러전쟁 이후 일본이 남만주철도를 계승하고 만주 경영과 '만주' 확보를 위한 육군 확장에 해마다 거액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만주에서의 경제활동은 축소 일로를 걸어 “농업과 상업 분야에서 홀로 지나인의 발전 신장을 볼 뿐”이라고 미우라는 갈파한다. 만주를 군사적·정치적으로 일본이 확보하려 해도 결국 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인이고, 일본이 국고지출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중국인이 이주·증식하여 번영할 뿐이라는 것이다.

미우라는 이러한 중국인의 왕성한 경제활동의 예를 식민지 타이완에서도 찾는다.

타이완이 우리 영토에 귀속되자 크고 작은 정치가 우리 일본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타이완에 건너간 일본인은 정복자로서 만사에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支那種은 인구의 증식이 왕성한 데 반해 타이완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번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걸핏하면 지나인에 비해 뒤떨어지고, 그중에서도 상업 같은 것은 지나인에게 구축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극진한 보호 혜택을 받는 설탕회사를 제외하면, 타이완은 완전히 지나인종의 타이완으로, 우리 국민은 자비를 들여 지나인을 위해서 官吏의 소임을 다하고, 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미우라에 따르면 중국인을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타이완 통치뿐만이 아니다.

홍콩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여 자유항으로 만든

이후 영국인의 세력과 문명의 지식은 이곳의 상권을 한 손에 장악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나인은 이곳에서도 해마다 상권을 확장하여 근래에 이르러서는 지나인이 이곳 상권의 주인이 되려는 기세라고 한다. 그 밖에도 安南과 해협식민지의 경제상의 주인은 프랑스인도 영국인도 아닌 바로 지나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리하여 지나인의 우수성은 가는 곳마다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나인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인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국인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우라는 중국인이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만주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sup>21</sup>

그렇지만 앞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미우라는 식민지 타이완을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고,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 그때까지의 타이완 통치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는 식민지 통치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타이완인에게 정치·경제상의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의 미우라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식민지로서의 타

---

21 三浦鑣太郎(1995a), 앞의 글, 95~97쪽.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만주사변 직후의 이시바시 단잔에게도 계승되었다. 만주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은 차제에 “공공하게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만주포기론에서 후퇴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이시바시는 “이른바 保疆安民의 주의를 확립하는 것 이외에 모든 정치 및 경제시설은 그곳에 거주하는 지나인의 뜻에 맡긴다. 즉 절대적인 자치로서, 우리나라에서 고문을 보내는 것도 만약 그것이 감시인과 같은 의미를 지닌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 시기의 주장으로서는 극좌파의 논진을 구축하고, 관동군 내부의 만몽신국가건설론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鴨武彦(1996), 『大日本主義との闘争<石橋湛山著作集3 政治・經濟論>』(東洋經濟新報社)에 수록된 「支那に對する正しき認識と政策」(1932년 2월 6일·13일 ‘사설’). 그러나 단잔의 경우에는 “기자는 지나 국민에 동정을 가지는 점에서는 아마 이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듯이[鴨武彦(1996), 위의 책, 197쪽], 미우라에 비해 중국인에 대항하는 색채가 약하다.

이완·조선을 유지해서 그것을 일본제국의 범위로 삼은 다음, 그들 식민지 경영방법을 최대한 자치령화하여 그들의 경제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머물렀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고토 겐이치[後藤乾一] 씨는 『아세아공론(亞細亞公論)』 복각판의 해설에서 『아세아공론』 제2호인 1922년 6월호가, 미우라가 쓴 「조선에 자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문 때문에 발매금지·전권몰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나아가 문제가 된 미우라의 논문을 재현하고 있다.<sup>22</sup> 조선독립선언이 발표된 1919년의 3·1독립운동 직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당국에서 엄중하게 처분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918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이시바시 단잔이 『동양경제신보』에 발표한 「일체를 버릴 각오」나 「지나와 제휴하여 태평양회의에 임해야 한다」, 「대일본주의의 환상」은 당국에서 출판금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 처분에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서 『아세아공론』의 창립자·사장이 재일조선인인 유태경(柳泰慶)이었다는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는 이시바시의 주장이 주로 워싱턴 회의에서 중국과 제휴하여 영·미와 대항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단잔의 배경에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이 제안한 인종차별철폐법안의 부결과 1920년 미국에서 제2차 배일토지법의 성립 등, 1924년의 배일이민법으로 나아가는 조류에 대한 일본 국민 사이의 인종적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잔은 그런 의미에서 반인종차별적이고 반서양제국주의적이며, 중국인에 대한 경계심을

22 後藤乾一(2008), 「日本現代史研究と『亞細亞公論』」, 後藤乾一·紀旭峰·羅京洙 편집해제, 『亞細亞公論·大東公論』, 用溪書舎.

강하게 갖고 있던 미우라보다 더 아시아주의적이지자 동시에 이상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단잔은 아마도 그렇게 대담한 제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잔은 미국의 배일이민법을 “어른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일본 측이 이민배척의 대상에서 일본인만은 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인과 조선인은 어떻게 되든 일본인만 백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만족한다는 마음은 이기적이며 비굴하다. 세계의 존경을 받는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실익으로 봐도 동 법안에 의해 거부되는 일본인의 입국이 불과 1년에 146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일본은 “구구한 자국의 체면 따위에 집착하지 말고 아시아에서 친구를 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잔은 일본 국내에서 반미감정이 고양되어 군황론이 발흥하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군축(大軍縮)을 단행하고 “우리 국민이 군대를 버리고 산업에 노력하며, 동양의 국민들과 손을 잡고 문명의 발달을 도모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sup>23</sup>

중국·인도를 포함한 세계의 약소한 유색민족국가와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창한 「일체를 버릴 각오」에 이어 『동양경제신보』 1921년 7월 30일자 「사설」에서 단잔은 「대일본주의의 환상」(1)과 더불어 「지나와 제휴하여 태평양회의에 임해야 한다」를 썼다. 거기에서 단잔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뒤의 논의의 복선으로 인용한다.

우리나라가 지나와 함께 지나의 치외법권의 철폐, 관세개정 문제, 인종평등대우 문제를 가지고 태평양회의에 임한다면 그 결과는 물어볼

23 鴨武彦 편(1996), 앞의 책에 수록된 「米國は不遜日本は卑屈」(1924년 4월 26일호 ‘사설’).

필요도 없이 그 회의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렸을 정도로 유리하게 호전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태평양회의를 보고, 영국과 미국이 한패가 되어 우리나라를 괴롭히려는 꿩꿩이로 시작했다고 이를 간다. 본인도 영·미 양국에 그런 불량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나에 대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침략적인 태도로 나왔다. 革命亂에 편승해서 우한[武漢]에 병영을 건설하고 유럽 대전쟁에는 21개조의 요구를 들이대거나 혹은 돈을 빌려 주고는 특권을 취하고, 영국이 생사가 걸린 대전에 전력을 기울여 지나를 비워 두었을 때 일본은 이때다 하며 허를 찔러 방약무인한 행동을 했다. 영국인은 전쟁이 끝나면 두고 보라고 하면서 전시 중에는 불패함을 감추어 왔다. 또 미국은 대전 이전부터 극동정책에 열중해 왔는데,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첫 번째 휘방꾼은 우리나라이다. 영국이 한패가 되어 지나를 유혹하여, 일본에게 본패를 보여 주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거나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가 빨리 뉘우치고, 현재까지 제국주의적 정책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지나와 제휴하여 나아간다면, 영미로부터 못매질을 당할 이유가 없어지는 동시에 국면이 일변하여, 인도를 영유하고 백인 호주를 만들고 멕시코를 압박하고 유색인종을 학대하고 필리핀과 괌을 무장하여 극동을 위협하고 있는 영·미가 드디어 고초를 당할 위치에 서게 된다. 당초 태평양회의는 일본인이 분개하는 바와 같이 일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열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태도 하나로 오히려 영·미를 지승자박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런 국면을 호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우리나라가 지나와 제휴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 정부에는 이런 대세를 간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각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지나를 소홀히 하면서 영국에 매달리고 미국에 양해를 구하려 하고 있다. 이 무슨 사대주의의 추태란 말인가! 이런 태도로 태평양

회의에 임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파리회의의 전철을 밟는 꼴로서, 다  
시금 일본과 지나의 우스꽝스러운 혈투(영·미 입장에서 볼 때), 혹은  
엄청난 비극(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는 영·미가 나와서 “이런 악당이!”라고 말하며 일본의 머리를  
베고, “이 용감한 청년이여!”라고 말하며 지나의 머리를 쓰다듬을 것  
이다. 결국 일본과 지나 양국 모두 유색인종으로서 오랫동안 백인으  
로부터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밑줄 마쓰우라]

본인은 파리회의의 개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外政상의 전통을 내던  
지고, 역사적인 일체의 과정을 버리고, 약소국 즉 이른바 학대받는 유  
색인종을 대표하여 해방의 가치를 내세우며 이 세계 개조의 대회의  
에 임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각오 없이 결국 지나  
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비극을 일으켰다. 당시 본인은 천재일우의 큰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렸다고 발을 구르며 통탄했었다. 그런데 하늘  
은 아직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이번 태평양회의에서 다시 우리나라  
에게 큰 회오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만일 이 기회를 잃는다면 필시  
세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에 사람이 없어 또다시  
이 큰 기회를 날려버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  
워 견딜 수 없다.<sup>24</sup>

미우라는 50세가 되던 1924년 12월 동양경제신보사의 주간 자리  
를, 이듬해 1월에는 대표이사·전무이사의 자리를 이시바시 단잔에 넘  
겼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양경제신보』에는 다이쇼 연간에, 주간 미  
우라 아래에 노자키 류시치(野崎龍七), 다카하시 가메키치(高橋龜吉), 이시바

24 石橋湛山(1971), 「支那と提携して太平洋會議に望むべし」, 石橋湛山, 『石橋湛山全集』 제4권, 東洋經濟新報社, 32~34쪽. 또 이 책의 주해에 따르면 이시바시는 「人種的差別撤廢要求の前に」[1919년 2월 15일호 ‘사설」, 「國際聯盟の中心事業」(1919년 2월 5일호 ‘사설) [모두 『石橋湛山全集』 제3권(1971년 수록)]에서 파리강화조약 때 유색인종을 위해 국책을 대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시 단잔이라는 ‘삼총사’로 불린 인재가 있었다. 미우라가 3명 중 최연소인 단잔을 후계자로 선택한 시기를 전후해 노자키는 21년 경쟁사인 다리아몬드사로 회사를 옮겨 1939년에 사장이 되었고, 다카하시는 1926년에 독립해서 다카하시경제연구소를 설립해 전후에 이르기까지 120여 권에 이르는 경제분석 전문서를 출판했다.<sup>25</sup> 그리고 『동양경제신보』에 남은 이시바시가 이념주의적인 리버럴리즘을 추진해 나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카하시는 정부계 싱크탱크의 주재자로서 1933년 캐나다, 그리고 1936년 북미 요세미티에서 개최된 태평양문제조사회의에서 소셜 덤핑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마찰 문제를 일본 측 대표로서 반박하고,<sup>26</sup> ‘만주국’ 재무부·경제부, 조선총독부, 타이완총독부 등의 의뢰에 따라 시찰·조사를 실시하였고, 텐진군(天津軍)이 화북을 침략했을 때는 통화문제 등에 가담했으며,<sup>27</sup> 전시경제하에서 상공성(商工省) 중앙물가위원회 위원 등<sup>28</sup> 각종 정부위원회의의 위원으로서 제국정부와 식민지당국과 군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활약했다.<sup>29</sup> 미우라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정치관련 사설을 이시바시에게 맡기게 되었고, 대표권을 이시바시에게 넘긴 뒤에도 이사로서 이시바시를 측면에서 도왔다.<sup>30</sup>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미우라와 이시바시와의 사이에는 실은

25 다카하시 가메키치에 대해서는 『証券研究』 89호(1989년) 「高橋龜吉研究」 외에 鳥羽欽一郎(1992), 『生涯現役』, 東洋經濟新報社 등을 참조.

26 酒伊哲哉(1991), 『東亞新秩序の政治經濟學』, 『國際政治』 97호.

27 松浦正孝(2002), 『財界の政治經濟史』, 東京大學出版會, 제5장을 참조.

28 松浦正孝(1995), 『日中戰爭期における經濟と政治』, 東京大學出版會, 제3장 제2절을 참조.

29 鳥羽欽一郎(1992), 앞의 책, 제6장.

30 松尾尊允(1995), 앞의 글, 414~418쪽.

같은 경제 본위의 논의라도 화상(華商)·중국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식민지 타이완에 대한 태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미우라의 논의는 일본의 재계 온건파라는 배경에서 크게 일탈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1</sup> 이시바시는 아시아주의나 중일제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점에서 미우라나 시대를 크게 뛰어넘은 것이었다. 그 후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 신질서 옹호의 기수로서 활동하는 다카하시 가메키치가 미우라와 결별한 것은 꼭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미우라 데쓰타로와 이시바시 단잔의 ‘소일본주의’에는 경제합리주의에 뒷받침된 리버럴리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의 사이에는 좀 더 현실주의적이고 ‘구외교(舊外交)’적인 잔재를 남기는 미우라와, 훨씬 이념적·도의적이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 국가 측이 강조한 ‘민족자결’의 원칙에 강한 영향을 받은 ‘신외교’적인 이시바시라는 식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지만 ‘소일본주의’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미우라의

31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미우라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진정한 상대는 영국’이라고 당시의 反英 풍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법정화폐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최대의 경제권익을 보유한 현실주의적인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손을 잡고 “영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지금은 그 영국과의 전쟁은 중지해야 한다는 철저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경쟁상대는 영국이지만, 서로 손을 잡고 극동의 국제질서를 양국의 손으로 유지한다”[三浦鍊太郎(1995), 「支那事變の處理方針」(1939년 2월 16일 신경제체제협회 강연), 松尾尊允 편, 『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鍊太郎論說集>』수록, 360~361쪽]라는, 이케다 세이힌[池田成彬] 등 재계의 ‘친영파’가 주장하던 노선이었다. 단잔도 마찬가지로, 중일전쟁 전야 이후와 중일전쟁 돌입 이후에도 영일제휴의 논진을 폈다[예를 들면, 鴨武彦 편(1996), 앞의 책에 수록된 「日本は對支援助を共同にすべし」(1935년 4월 6일 ‘사설’), 「不謹慎なる外交論を排す」(1936년 8월 29일 ‘사설’), 「日英兩國提携の必要」(1936년 10월 3일 ‘사설’), 「ドイツの背反は何を訓えるか」(1939년 9월 2일 ‘사설’) 등을 참조].

‘소일본주의’에서는 역시 영국의 ‘소일본주의’를 부연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sup>32</sup>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나와 제휴하여 태평양회의에 임해야 한다」의 인용부 중에서 필자가 밑줄을 그은 부분은 중요하다. 단잔이 이 인용부분의 마지막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태평양회의에서 세 번째 기회를 놓치고 중국 침략을 추진한 결과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미우라와 이시바시가 주장한 만주 포기의 대극으로서 일어난 만주사변을 의제로 하여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영·미를 포함한 서양 각국 앞에서 중국과 논쟁을 벌이고, 일본의 만주 철수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자 일본이 연맹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11년 반 후에 벌어지기 때문이다. 마쓰오 다카요시 씨나 단잔 연구가 강극실(姜克實) 씨가 지적하는 대로, 단잔도 만주사변 후에는 만주사변이나 ‘만주국’ 성립을 기정사실로서 추인하고, 그 이후에는 그 상태에서 중일전쟁의 전면화(全面戰化)나 3국 군사동맹에는 반대의 논진을 펴게 되었다.<sup>33</sup> 단잔은 이념적·이상주의적인 식민지포기론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뒤에 소개하는 재계 온건파와 동일한 친영파의 입장에서 제국확장론자를 비판한다는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물론 후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분명히 ‘소일본주의’로부터의 리버럴리즘의 퇴각이며 굴복이다. 만주사변을 포함하여 일본의 침략을 받은 여러 지역에서 보자면, 이시바시도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을 국내에서 방관하고 있던 사람 중 하나로 보일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시바시가 만주사변을 추인한 것

---

32 三浦鍬太郎(1995c), 앞의 글.

33 松尾尊允 편(1984), 앞의 책, 「解説」; 姜克實(1992), 앞의 책, 제7장.

을 명기하지 않으면 역사의 은폐임과 동시에 만주사변 및 5·15사건(1932) 이후의 정치·외교 환경의 급변,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경시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일본 정치사의 문맥에서 보자면, 대일 본주의가 대두하고 ‘친영파’에 대한 테러가 빈발하는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대한 반역자는 아니다”는 입장에서 체제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의 저항을 계속한 자유주의자로 평가하는 시각<sup>34</sup>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특히 주도면밀하게 용어를 고르면서도 그가 논전의 무대를 옮긴 3국동맹 비판, 의회제 옹호 등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필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또 그는 자유통상주의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신질서의 논리에 부정적이었으며, 광역경제건설(대아시아주의)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sup>35</sup> 자신의 주의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이외에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저널리스트 이시바시의 행동은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가장 양질의 행동이었다. 그러나 사상가는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회의에 즈음한 이시바시의 ‘소일본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또 이시바시 단장은 1946년 4월 전후 최초의 총선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낙선했지만, 미국 점령군의 강한 의향으로 성립된 제1차 요시다(吉田) 내각에 낙선했던 몸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대신(大藏大臣)으로 입각하여 적극재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시바시는 점령군이 사용하는 종전처리비가 거액이라며 반대하는 동시에 적극

34 松尾尊允 편(1984), 앞의 책, 「解説」, 308~309쪽.

35 鴨武彦 편(1996), 앞의 책에 수록된 「百年戦争の子想」(1941년 7월 5·12·19일), 「近衛文麿公に與う」(1945년 10월 27일 ‘사설’).

재정으로 인해 점령군과 대립하여 1947년 총선에서는 당선되었음에도 GHQ에서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그 후 이시바시는 한국전쟁 때 미국을 강력히 비판하고, 그 후 일중무역촉진론을 주창했다. 1951년 공직추방이 해제되어 1954년 하토야마(鳩山) 내각 성립과 더불어 통산대신(通産大臣)이 된 이시바시는 중·소 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려 했다. 하토야마가 1956년 일·소 국교회복 실현을 계기로 사임하자 후임 자민당 총재로 이시바시가 선출되어 총리로서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세계평화 실현을 축으로 하는 신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중의원 해산·총선 선거운동 와중에 이시바시는 과로와 감기로 인해 뇌혈전으로 쓰러져, 이시바시 내각은 불과 2개월만인 1957년 2월 퇴진하게 되었다.<sup>36</sup>

그런데 아시아주의의 선택지 가운데 이시바시가 주장하는 식민지포기·제국주의적 권익포기를 각오한 대중국 제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남는 것은 재계 온건파를 기반으로 한 불완전한 중일제휴의 아시아주의와 서양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 해방을 전면에 내세운 대결적인 아시아주의가 남게 된다. 일단 후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36 増田弘(1995), 앞의 책, 제5장~제6장.

### 3. ‘대일본주의’에서 ‘대아시아주의’로 – 우쓰노미야 다로와 마쓰이 이와 네 · 대아세아협회

미우라 데쓰타로가 “만주 장악 내지 대륙발전정책을 강행하려 한다 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일영동맹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 더구나 영 일동맹을 포기하면 동시에 우리 대륙발전정책도 그 기초를 잃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일영동맹 이외에서 그 기초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는 해군의 대대적 확장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는 이 무모한 군비를 위해 스스로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다”<sup>37</sup>고 다이쇼 정변에 이르는 육해군 군비확장경쟁의 역설을 지적하고 있을 때, 이들 만주 포기론에 맹렬히 반격을 가한 것이 당시 육군참모본부 제2부장(정보부장)이었던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 육군소장이다.

때마침 미우라 데쓰타로의 「만주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滿洲放棄乎軍備擴張乎]」가 『동양경제신보』에 연재되고 있던 1913년 1월 우쓰노미야는 약 2개월에 걸쳐 중국·조선으로 시찰여행을 떠났다. 조선에 도착한 1월 19일 우쓰노미야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경찰서장, 헌병대장 대리 등의 안내를 받아 다수의 내지인과 함께 신 축 중인 부두를 시찰했다. 시설이 크게 바뀌고 이렇게 다수의 내지인 으로 붐비는 상황을 보니 다년간의 숙원이 이제야 결실을 맺어, 그 유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바라건대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진전 시켜 만주와 몽고에도 실현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들이

37 三浦鎮太郎(1995a), 앞의 글, 113~114쪽.

가, 대륙정책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까지 대륙 포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들이여. 직접 와서 이 상황을 목도하고 철저히 숙고하고 가라.<sup>38</sup>

1월 22일 안동현(安東縣)을 시찰했을 때는 조림이나 경작의 가능성이 큰 것을 보고 “조선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의 으뜸가는 재산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으며,<sup>39</sup> 만주에 들어간 23일에는 조선보다 바위 표면이 많이 드러난 산을 보면서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조림이 가능하다. 만주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소감을 표명했다.<sup>40</sup> 그 후 휘순, 다렌(大連) 등을 시찰한 후 부두증설 중인 다렌항을 보고, 남만주철도 회사 본사에서 중역들과 의견교환을 한 우쓰노미야는 28일 이렇게 일기에 적고 있다.

그 길로 남만주철도회사 본사에 도착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만주·몽고가 더욱더 제국에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확신을 강하게 가졌다. 동시에 이런 종류의 시험소사업을 확장시켜 각종 산업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만주·몽고 포기론자와 완고하고 편협한 국회의원, 신문기자 등에게 현지를 관광시키고, 이런 시험성적 등을 공개하는 것이 그들을 계몽하는 데 가장 손쉬운 길임을 느꼈다.<sup>41</sup>

조선·만주를 일본이 보유해야 한다고 일일이 강조하며 우쓰노미야

38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日本陸軍と大陸政策 陸軍大將宇都宮太郎日記』 제2권, 岩波書店, 185쪽.

39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위의 책, 187쪽.

40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188쪽.

41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190쪽.

가 투자를 불태우는 상대인 ‘만주·몽고 포기론자’란 미우라 데쓰타로 등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이다.

1월 31일 지린성[吉林省]의 중심인 창춘[長春]의 변화함에 감명을 받은 우쓰노미야는 이렇게 적고 있다.

도시가 번창해야 함은 물론, 전략상·정략상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자극한 것은 南滿, 中滿의 도처에 앞으로 施政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크게 발전할 소지가 크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병탄하는 것이, 우리가 自強自大到 자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나의 해묵은 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sup>42</sup>

우쓰노미야 다로는 사가번[佐賀藩] 출신으로, 아마카타 아리토모[山縣有朋], 가쓰라 다로[桂太郎],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등 육군의 주류인 조슈번벌[長州藩閥]과 대립하여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전 육군대신을 받드는 사쓰마벌[薩摩閥]·사가벌[佐賀閥] 중심의 ‘우에하라벌[上原閥]’의 핵심적인 존재였다. 우쓰노미야 등 ‘우에하라벌’은 육군 주류파가 서양 열강의 동점(東漸)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과의 협조정책을 최우선하고, 일본의 대아시아 정책이 인종적 대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만주·몽고 권익의 옹호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 비판적이였다.<sup>43</sup> 육군 보병소좌 시절인 1900년 4월 우쓰노미야는 “조슈파[長州

42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192쪽.

43 가쓰라 총리의 만주·몽고 대책에 대한 우쓰노미야의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181쪽, 1913년 1월 7일 항

派가 육군의 핵심부를 독점”한 사실에 분개하여 “사쓰마·조슈의 소장(消長)은 굳이 따질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육군 핵심부에 반전주의자 등이 발호하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군비확장의 큰 정신을 누가 지지할 것인가?”라고 일기에 적으면서 ‘조슈벌’의 대 서양 열강 공조주의를 매도하고 있을 정도다.<sup>44</sup> 미우라 데쓰타로와 이시바시 단잔이 중국 통일론자였던 것과는 반대로 우쓰노미야는 일관되게 중국 분열론자였다.

아시아주의자인 우쓰노미야 다루는 과거 청일전쟁 후의 참모본부 부원 시절에 타이완, 조선·화중(華中)·화남(華南)에 장기간 출장을 다녀온 후에 제출한 「비 청한여행복명서(秘 淸韓旅行復命書)」에서 문명의 부식과 동방의 여러 민족의 구제를 달성하여 인종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청국을 분열시킨 뒤에 일·청·한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역설했다.<sup>45</sup> 그리고 1911년 10월 이것을 발전시킨 「대지나사견(對支那私見)」을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기독교·백인종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일본제국을 생존시키는 자강자대(自大自強) 정책을 위해 우선 표면적으로는 청나라를, 뒤로는 혁명파를 지원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거중조정(居中調停)을 통해 중국을 만주와 중국 두 개의 국가로 분리시켜 만주를 보호국화하고 남방정부와는 동맹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만일 서양 열강의 중국의 과분(瓜分)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것을 억제하고 “이전부터 연구해 온 남북의 여러 지방”을 획득(그 중 북쪽의 일본 분할지에는 만주인, 남쪽에는 한족의 小朝廷을 만들어 타국 분할지 내의 모든 민심을 일본 쪽으로 수렴시

참조.

44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제1권, 1900년 4월 25일 항.

45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解題」 45쪽 주17을 참조.

켜 우리 천황에 귀항<sup>46</sup>해야 한다고 논하는 것이었다. 이 안은 심복인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 참모본부 제4과장<sup>47</sup>과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참모본부 지나반원에게 내시한 뒤에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 참모차장을 비롯한 육군 상층부와 사이온지 총리 등에게도 제시하기로 하였다.<sup>48</sup> 그리고 우쓰노미야는 미쓰비시 재벌의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弥]에게서 당시 돈으로 10만 엔의 자금을 얻어(후에 5만 엔 반환) 심복인 마쓰이 이와네와 이도가와 다쓰조[井戸川辰三]에게 주어, 이 자금을 쑨원의 국민혁명 지원과 만주·몽고 독립공작, 동남아시아 공작 등에 운용하도록 하였다. 우쓰노미야는 이러한 공작을 통해 중국을 분할하고, 일본 주도하에 남북정부의 거중조정을 통해 입헌군주국으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영국이 주도하는 형세가 되었기 때문에 남북강화(講和)를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테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 등 조슈벌 육군간부와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의 의향에 따라 영국 등 서양 열강을 추종하게 되었고, 위안스카이·쑨원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청의 황제는 퇴위하고 청나라는 멸망했다. 우쓰노미야는 이러한 움직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훗날을 기약하게 된 것이다.<sup>49</sup>

그 후에도 우쓰노미야는 만주·몽고의 권익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46 상기 『宇都宮日記』에 남겨진 「對支那私見」은 우에하라 유사쿠 제14사단장(宇都宮市) 앞으로 보낸 10월 19일자 서한에도 적혀 있는데, 괄호 안의 부분이 추가되어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다. 上原勇作關係資料研究會 편(1976), 『上原勇作關連文書』, 東京大學出版會, 55~56쪽.

47 사가벌(佐賀閩).

48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제1권, 1911년 10월 15일 항.

49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제1권 1911년 10월 15일 항에서 동 2권 1912년 11월 25일 항에 이르는 기술이나 1·2권 해제 참조.

남방정부와 만주·몽고가 위안스카이를 협공하도록 하여, 만주·몽고는 일본의 수중에 넣고 본부는 분립시키거나 남방정부에 통일시켜 훗날 일본이 자력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기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전망하에 남방정부를 일본 정부에 의한 ‘엄정중립’방침의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만주·몽고 공작을 계속하였으며 남양사업(南洋事業)에도 관여하고 있다.<sup>50</sup> 이러한 우쓰노미야의 아시아주의와 대중정책은 만주사변 이후 우쓰노미야가 후계자로 점을 찍은 마쓰이 이와네를 중심으로 한 대아세아협회에 의해 실로 충실하게 계승되어 나간다. 우쓰노미야는 아시아주의자였지만, 동시에 미우라 등의 ‘소일본주의’와 대립하는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기도 했다.

미우라 데쓰타로는 1912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동양경제신보』에서 연재하던 「모든 전몰 후의 영국과 일러전쟁 이후의 일본(諸戰没後の英國と日露戰爭後の日本)」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다.

구미인 중에는 일본이 전쟁의 결과, 전쟁 전리품이 크다는 점과 전후 항상 군비의 대확장을 감행하는 사실을 보고 일본 국민은 전리품에 도취되어 전쟁을 유리한 장사라고 이해함으로써 결국 가장 위험한 호전적 국민이라는 본성을 드러내 왔다고 심히 우리나라의 발흥을 혐오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이는 구미 일부의 편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다수가 종래의 전승 결과에 도취해서 우리나라 발전의 근본방침을 영토확장으로 정하여, 제국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생각컨대 대륙발전, 지나 분할, 이것은 육군확장의 바탕에 숨어 있는 목적이다. 생각컨대 영토를 확장하지 않으면 한없

50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제2권, 1912년 12월 17일부터 1913년 4월 9일 향까지 참조.

이 증가하는 인구를 어떻게 부양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인구증식을 제한하고 섬나라 내에 칩거하는 소국민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남양군도는 첫손가락에 꼽히는 우리 국민 발전의 영토이다. 만일 피할 수 없다면 미국과의 전쟁 또한 결코 마다할 수 없다는 것이 해군확장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결론이다. 이 영토확장론 만큼 전승의 결과에 도취되어 깊이 그 폐해를 자각하지 못하는 국민의 감정에 부합하는 것도 없다. 이것은 실로 오늘날과 같이 군비의 대확장을 결행하도록 만든 가장 유력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sup>51</sup>

소일본주의자인 미우라가 여기서 비판하는 육군의 확장론이 바로 우쓰노미야의 구상이며, 서양 열강의 일본에 대한 시기심을 경계한 나머지 너무 연약하다며 우쓰노미야가 비판한 것이 당시 육군 수뇌부였다.<sup>52</sup> 각각 공격의 표적이 미묘하게 어긋나고 입장도 달랐다.

조선·만주 시찰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하기 전에 우쓰노미야는 2월 8일 “최근 만주·몽고에서 우리의 지위를 경시하는 어리석은 주장

51 松尾尊允 편(1995), 앞의 책, 84쪽.

52 그러나 실제 정국은 우쓰노미야 등의 염원이었던 우에하라의 육군대신 취임이 실현된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이 단명에 그쳤다. 우쓰노미야도 당초에는 바라고 있던 조선 배치를 위한 2개사단 증설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우에하라 육군대신이 야마가타·데라우치 등의 조슈벌과 동조하여 ‘통수권의 간섭’을 고집해서 사이온지 총리와 충돌하고, 같은 사쓰마벌인 해군의 획책 등도 있어 천황에의 직접 상주를 통해 사직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사이온지 내각의 하라다카시[原敬] 내무대신 등과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던 우쓰노미야는 이것을 ‘조슈벌’의 음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櫻井良樹(2007), 「解題」,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 『日本陸軍と大陸政策 陸軍大將宇都宮太郎日記』 제2권]. 육군 번벌과 政友會의 政軍관계의 대립과 육군 번벌 내의 서양 열강에 대한 의견대립은 차원이 다르며, 전자가 우월한 것은 정우회와 번벌의 제휴(‘1900년 체제’)의 붕괴의 시작이었다[坂野潤治(1983), 앞의 책].

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모(某) 신사의 말」이라는 글을 지어, 고토 신편이[後藤新平] 체신대신(遞信大臣)과 반자이 리하치로[坂西利八郎] 대좌,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주 청국 공사, 아오키 노부즈미[青木宣純] 소장, 사토 야스노스케[佐藤安之助] 중좌 등에게 보여주었다. 만주 포기론 등에 대항하여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이들에 대한 반론을 가하기 위해 그 토대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2월 24일 우환에서 해군 관계자에 보낸 이들 의견서에 대해 3월 9일 사쓰마벌의 아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 총리의 뜻에 따라 그 사위이기도 한 다카라베 다케시[財部徳次] 해군차관이 “보내주신 취지에는 대체로 찬성이지만,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차제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유보해 주셨으면 한다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만나 봐있을 때로 미룬다”는 전보를 보내 왔다. 당시 해군의 거물이기도 한 총리가 자신의 의견에 적어도 마음속에서는 동의하고 있음을 표명했다는 기대 이상의 결과에 우쓰노미야는 만족했다.<sup>53</sup> 신문지상이나 잡지를 떠들썩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던 ‘소일본주의’와 ‘대일본주의’의 논쟁은 유감스럽게도 회피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우쓰노미야 다로의 아시아주의에 있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 인종 통혼론(通婚論)과 인종적 연대감(인적 이동)에 대한 강한 집착이다. 우쓰노미야의 아들로 전후 자민당의 국회의원인 도쿠마[徳馬]는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아버지와 조선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잊을 수 없는 김응선(金應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머리가 좋은 이 소년을 남동생처럼 키웠는데, 나

53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제2권, 209쪽 등.

중에 이왕(李王)의 무관장(武官長)이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증대로 일본 미인과 결혼했으며, 주당에다가 '사노사부시'라는 노래를 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때때로 찾아와, 술에 취하면 아버지와 추억을 얘기하다 울어버려서 어머니가 난처해 했다.

일본인은 조선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어느 날 어린 나를 반듯이 앉히더니 작은 책을 낭독하라고 하기에 목청을 돋우어 읽었는데, 알고 보니 일본인은 조선인과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논문이었다.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그런 것을 읽히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웃었는데도 아버지는 아주 진지했다. 아마도 미래에 조선인 여성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으셨을 것이다.<sup>54</sup>

참고로 우쓰노미야가 진심으로 사랑한 장남 도쿠마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듬해 육군유년학교를 중퇴했다. 그리고 구제(舊制) 미토고등학교[水戸高等學校]에 입학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감화를 받아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에 진학, 마르크스 경제학자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에게 사사하였다. 이후 검거되었다가 공산당에 입당하지만, 체포·투옥된 후 옥중에서 전향하여 석방된 도쿠마는 주식으로 모은 돈을 밑천으로 제약회사 미노파젠을 설립, 전후에는 자유당·자민당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그의 입장은 독자적인 아시아주의의 입장에서 만주·몽고 권의 포기론을 주창하여 아버지의 신랄한 비판을 받은 이시바시 단잔의 리버럴리즘, '소일본주의'와 동일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이시바시 단잔이나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등의 계통으로 단독강화론, 평화공존론을 주창해 안보개정(安保改定)에 반대하고 중국·소련·북한과의 우호를 주

---

54 宇都宮德馬(1964), 「おやじ(37)宇都宮太郎 弱い者の見方」, 『朝日ジャーナル』 6월 14일호.

창하는 동시에 『군축문제자료』를 발행하여 자민당 좌파의 입장에서 군축을 호소해 나갔다. 도쿠마에게는 좌우의 차이는 있었지만 아버지 다로와 관련된 아시아주의적인 역사 기억이 평생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우쓰노미야 다로는 1896년 조선인 김응선과 의형제를 맺고, 우쓰노미야 긴고(宇都宮金吾)를 칭하는 그를 소학교에서 세이조학교(成城學校)로 보내 사관후보생으로 키워 한국 태자 이은(李垹)의 시종무관으로 만들었다. 당초 자신의 딸이나 친족과 결혼시키려고 했으나, 김응선이 다른 일본 여성과 가까워지자 그 여성을 일단 자신의 양녀로 삼은 뒤에 결혼시켰다. 그리고 일기에 “우선 일한 양국인의 잡혼(雜婚)을 본 것은 나의 이상의 일단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런 종류의 혼인이 속출하여 양국관계의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고 있다.<sup>55</sup>

고대·중세 이래의 해역·국토의 연속성에 대한 의식은 그것이 설령 픽션에 가까운 역사 기억이었다 하더라도, 사가 출신의 아시아주의자인 우쓰노미야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근대의 산물인 국적조차 자유롭게 벗어나 아시아의 민족은 통혼하여 국경을 희박하게 만들고, 아시아연방(아시아연맹이 아니라 연방이다)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시아주의의 ‘지사(志士)’에게 있어 일대 사업이라고 여겨졌다. 이미 1900년(메이지 33) 참모본부 제3부원 시절 우쓰노미야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55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제1권, 1909년 1월 31일 항.

일단 한국에 귀화해 내부에서 한국을 개발 유도하여 몸소 일한 양국의 가교가 되어 한국을 일본에 끌어당기는(합병, 연방, 동맹 그 모든 것이 점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29년 淸韓旅行復命書의 목적) 것은 첫째로는 제국을 강대하게 만들고, 둘째로는 한국민을 구하고, 셋째로는 아시아연방의 기초로서 오늘날 지사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는가? 숙고를 요한다.<sup>56</sup>

앞서도 사가번이 조선·대륙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 인식을 계속 가졌다고 서술했는데, 한국 태자 이은의 비(后)로 간택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의 외할아버지는 마지막 사가 번주(藩主)였던 후작 나베시마 나오히로(鍋島直大)이고, 이러한 사정도 이 혼인의 커다란 배경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sup>57</sup> 조선군 사령관 우쓰노미야 다로는 옛주인 나베시마 가문으로 연결되는 혼례에 즈음하여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오늘 도쿄 아자부(麻布)에 있는 황실의 별장에서 거행된李 왕세자 이은 전하와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왕전하의 경사스러운 결혼은 평생의 이상이 실현된 것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하루 빨리 왕자 왕녀를 출산하여 양가를 번영하게 함과 동시에 내선의 일치·동화가 더욱 진실된 것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이 경사로 인해 조선인 정치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공포하여 歡天喜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며,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또한 진작부터

56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1900년 5월 18일 항.

57 마사코의 백부 直光映는 한국통감부에서 농사조사를 의뢰받아 황무지 구입에 종사했다[小田部雄次(2007), 『李方子』, ミネルヴ書房, 64·244쪽]. 또 이은의 여동생 덕혜와 쓰시마의 소[宗] 백작가의 혼인[小田部雄次(2007), 위의 책, 65쪽]도 사가 나베시마로 연결되는 마사코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희망해 온 바와 같이 구(舊)한국 무관을 순수한 일본 육군장교로 임용하고, 서위, 서훈에 관한 건도 오늘 마침내 공포되어 나 또한 기쁨을 견딜 수 없으며 실로 소망을 성취했다.<sup>58</sup>

그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통혼·동화·통합까지 바라고 있었다. 역시 조선군사령관 시절 조선인 장병을 초대한 우쓰노미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참모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의 수년 이래 日鮮日支 등의 동화·합동·공존의 정신을 피력하고, 피아가 친밀하게 지냄과 동시에 크게 이 주의(日鮮의 진실한 동화·합동)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勸說했으며, 그들도 속마음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했다. 나는 성심성의껏 그들 鮮人을 감화시키려고 결심했다.<sup>59</sup>

우쓰노미야는 1919년 3월 일지선(日支鮮) 합동·제휴를 통한 공존공영 등의 내용이 담긴, 오래된 포부를 정리한 「본원(本願)」을 작성하고, 인쇄한 『경세위언(警世危言)』 등과 함께 조선인 요인과 뒷일을 부탁한 마쓰이 이와네 등에게 배포하였고,<sup>60</sup> 귀임 후인 1921년에는 조선군사령관

58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제3권, 1920년 4월 28일 항. 왕자출산 때의 일기는 동 1921년 8월 19일 항 참조.

59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1919년 2월 12일 항. 또 2월 10일에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사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백제멸망 때 일 본으로 귀화한 백제왕족의 후예라는 계보를 보내와 “일선 동화를 위해서 매우 귀중한 가문이다. 장래에 일고를 요한다”고 기록하고, ‘日鮮同祖論’에 의한 동화·통합을 추진하려고 생각했다.

60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1919년 3월 9·11일·4월 16일·5월 6일·8월 27일·10월 2일, 1920년 5월 28일·9월 21일 항 등 참조.

재직 중에 사망한 내선 양측의 전사자 추모를 위해 합동제휴·공존공영의 취지를 적은 석비를 조선 땅에 건립했다.

원래 우쓰노미야의 출신지인 사가<sup>[히젠[肥前]]</sup>번은 일찍이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文祿·慶長の 역, 임진왜란, 정유재란. 1592~1593, 1597~1598)에 초대 영주인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가 주군 류조지<sup>[龍造寺]</sup> 씨 대신 대장으로 참여하여 가토 기요마사 등과 함께 2번대(番隊)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임진왜란 초기 나오시게는 히젠에서 고려 또는 명나라로의 전봉(轉封)을 강력히 희망하여, 히데요시에게 그 뜻을 전해 주도록 가토 기요마사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것은 나오시게뿐만 아니라 조선 출병을 계기로 나베시마의 지휘하에 들어간 구(舊)류조지 씨 배하 하급 무사들의 소원이기도 했고, 히젠 영민(領民)들의 의향을 수용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히젠의 주민들 다수는 사쓰마·히고<sup>[肥後]</sup>·하카타<sup>[博多]</sup>·나가토<sup>[長門]</sup>와 함께 ‘후기 왜구’로서 명나라에 건너가 생계를 꾸리고 있어서 명이나 조선으로 전봉을 환영하였다.<sup>61</sup> 이 사실은 중세 이래 환지나(還支那) 해역에 걸쳐 중국·조선·일본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무역이나 약탈 등을 행한 ‘왜구’로서의 활동<sup>62</sup>이나 조선 출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 더불어 사가인들에게 긍지로 구전되어, 연속된 역사 기억 또는 자기인식으로 공유되어 있었다. 즉 조선군사령관이 된 사가 출신의 우쓰노미야 다로는 1918년 각지를 시찰하는 도중 회령에서 만난 사가 출신의 사관후보생들에게 “나오시게 공이 히젠을 반환하고 함경도로 전봉시켜 달라고 히데요시<sup>[太閤]</sup>에게 청했던 옛일”이 있음을 고

61 武野婁子(1979), 『藩貿易史の研究』, ミネルヴ 書房, 136~138쪽.

62 村井章介(1993), 『中世倭人傳』, 岩波書店.

하고 격려했다.<sup>63</sup>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가를 포함한 규슈에서 주고쿠(中國) 지방 서부에 다수 존재하는 중국계와 조선계의 ‘당인정(唐人町)’에 착목하여 중국인·류큐인·말레이계·아프리카계·인도계 등이 잡거·공생하는 동중국해무역[주로 일본의 은과 중국산 비단실,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녹피·鮫皮(武具用)·伽羅·설탕 등이 교역된다]이 명의 해금정책에 따라 역설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sup>64</sup>

또한 시마즈 씨와 나베시마 씨가 조선 출병 때 연행한 조선인 도공과 장뇌 기술자에게 사쓰마와 사가에서 도자기와 장뇌를 생산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며, 더구나 그들은 메이지시기까지 조선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고 보호를 받았다.<sup>65</sup> 사쓰마번·사가번 사람들에게 조선과 대륙, 그리고 조선인은 가까운 존재였던 것이다. 당시 근대 국민국가가 갖고 있는 국경의 개념은 없었다. 따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히데요시에게는 시마즈 정복으로 ‘국내통일’이 완성되고, 다음 단계로 ‘해외파병’에 나선다는 의식은 없었으며, 개척자로서 규슈에서 연속적으로 류큐, 조선, ‘소류큐(小琉球, 필리핀)에 복속을 요구하고, 나아가 명나라 왕조를 전복하고 그 대신 ‘일본 왕조’를 대륙에 세운다는 시나리오는 연속적인 것이었다. 또 베이징으로 들어가 고요제이 천황(後陽成天皇)을 이곳으로 옮겨 중국 황제로 삼은 후에는 천축(인도) 정복으로 방향을 돌리기

63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2007), 앞의 책, 제3권, 1918년 9월 21일 항.

64 荒野泰典(2006), 「唐人町と東アジア海域世界」, 歴史學研究會 편, 『シリズ港町の世界史3 港町に生きる』, 青木書店.

65 예를 들면, 안우식·橋川文三의 대담(1978), 「日本の近代化と西郷隆盛の思想」, 『西郷隆盛全集大四卷 月報』, 大和書店, 4쪽의 안우식의 발언; 小田部雄次(2007), 앞의 책, 64~65·244~245쪽을 참조.

위해 닝보[寧波]로 이동할 계획이었다고 한다.<sup>66</sup> 국경에 의해 구분된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되기까지 아시아의 바다와 육지, 세계의 지평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집권화를 추진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 강대한 다이묘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마즈 씨와 나베시마 씨는 주요 다이묘 중에서 예외적으로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 이후에도 거의 상처를 입지 않고 남을 수 있었다.<sup>67</sup> 그리고 중세 이래의 사회구조나 대륙·조선에 대한 인식이 특히 사쓰마·사가번에서는 막부시대 말기까지 남아 있었다. 더구나 도쿠가와 정권 초기까지 사가 나베시마번에서는 시마즈·마쓰라[松浦] 두 씨와 함께 중국과 루손·안남·삼 등과의 통상외교에 의욕을 보여 나가사키[長崎] 무역을 추진했다. 막부 말기에는 ‘란벽[蘭癖]’으로 유명한 제10대 번주 나오마사[直正]가 서양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아편전쟁 때에는 영국 군함에 석탄을 팔기 위해 마쓰라군[松浦郡]에서 채탄사업을 개시하여 그것을 나가사키에서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하고, 그 이익으로 군제개혁을 포함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했다. 시마즈 씨와 마찬가지로 센고쿠시대[戰國時代] 이래의 문제의식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생각할 때 중세 이래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나, 일본 국내질서와의 연속성이나 비교를 고려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가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가 도야마현[富山縣]에서 작성된, 일본열도를 거꾸로 그린 ‘환일본해제국도[環日本海諸國圖]’

66 中野等(2008), 『戦争の日本史16 文祿・慶長の役』, 吉川弘文館, 1~54쪽.

67 村上泰亮·公文俊平·佐藤誠三朗, 『文明としてのイエ社会』, 中央公論社, 392쪽.

를 사용하여 강조한 바와 같이, 동해와 동중국해는 일본열도와 남서군도, 아시아대륙으로 둘러싸인 ‘내해’였다. 중세, 그리고 근세 초기까지 ‘왜구’·‘왜인’은 ‘일본인’과 동일하지 않았다. ‘왜인’은 국가를 초월해 국경과 상관없이 한반도·중국대륙·일본열도 등에 걸친 해역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집단이며, 아이누는 사할린이나 아무르강<sup>[흑룡강]</sup> 상류에서 홋카이도·도호쿠<sup>[東北]</sup> 지방 북부에 걸쳐 활동한 교역민이었다. 몽고제국 시대 또는 청나라 시대에는 아무르강 하류·사할린·홋카이도·도호쿠 지방 북부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아이누·화인(和人)·산단(山團)·우일타 등이 뒤섞여 ‘북쪽의 왜구’로서 모피무역 등을 전개했다.<sup>68</sup> 우치다 료헤이<sup>[内田良平]</sup> 등이 만든 민족주의 결사인 고쿠류카이<sup>[黒龍會]</sup>의 명칭은 흑룡강 너머로 백인종을 쫓아내기 위해 붙였다고도 하고, 시베리아를 건너 흑룡강 부근에 도달한 우치다가 그 경치에 감동해서 붙였다고도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아시아’상(象)이 아이누를 포함한 이 주변의 민족이 뒤섞여 교역을 하면서 생활하던 시기를 ‘도원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천하로 웅비한다는 ‘천하포무(天下布武)’를 달성한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시기에 ‘일본국’으로서의 통일의식이 강해지고,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을 거쳐 도쿠가와 정권이 ‘쇄국’을 실시할 때까지 동해 연안이나 규슈 지방의 사람들에게 ‘아시아의 바다’는 조선·중국은 물론 류큐·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생활권이며, 일본은 바다에 의해 나뉘어진 ‘섬나라’ 따위가 아니

68 佐々木史郎(2005), 「北東アジアの河川, 海上交通とその據点」, 歴史學研究會 編, 『シリズ港町の世界史』 제1권, 青木書店; 中村和之(2008), 「アイヌの北方公益とアイヌ文化」, 加藤雄三·大西秀之·佐木史郎 編, 『東アジア内海世界の交流史』, 人文書院.

었다.<sup>69</sup>

역사가 아미노 요시히코는 단일민족신화에 입각한 내셔널리즘을 비판함으로써 일본 역사학계에 강한 충격을 던졌고, 반대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우파로부터 공격을 당한 리버럴한 역사가다. 우쓰노미야 다로와 도쿠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주의가 좌우를 넘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나, 리버럴리스트 역사가 아미노의 학술과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등 과거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이 국민국가(국가주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것은 일본의 아시아주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다.

한편 우쓰노미야 다로가 ‘대일본주의’의 후계자로서 기대를 건 것은 나고야 출신의 마쓰이 이와네였다. 마쓰이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대아세아협회라는, ‘대동아전쟁’을 주도해 나간 범아시아주의의 이데올로기 네트워크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sup>70</sup> 그는 우쓰노미야의 ‘대일본주의’를 ‘대아시아주의’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 그 전기가 된 것은 이시바시 단잔의 ‘소일본주의’를 전략적으로 후퇴시킨 만주사변이다. 만주사변 후 국제연맹에서 일본과 중국은 그것을 둘러싸고 대립하였고, 영국과 미국 등 서양 각국은 압도적 다수로 ‘만주국’을 부인하였으며, 일본을 비판하는 리튼 조사서의 결의가 나왔다. 당시 육군을 대표해서 군축회의의 일본 전권대사를 맡았

69 특히 網野善彦(2000), 『日本の歴史10』, 『「日本」とは何か』, 講談社를 참조.

70 松浦正孝(2009 간행 예정), 『大東亞戰爭はなぜ起きたのか 汎アジア主義の政治経済史』, 名古屋大學出版會; 松浦正孝(2006·2007), 『日中戰爭はなぜ南下したのか』 1~3, 『北大法學論集』 57권 1호~58권 2호; 松浦正孝(2008), 『解説雑誌「大亞細亞主義」と大亞細亞協會について』, 後藤乾一·松浦正孝 편 집·해설, 『復刻版 大亞細亞主義』, 龍溪書舍를 참조.

던 마쓰이는 이러한 연맹의 현장을 목격하고 격렬히 분개해, 1932년 2월에 일본 육군전권의 역할을 버리고 귀국해버렸다. 그리고 연맹 구성의 기만성에 대해 여기저기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예를 들면, 1933년 2월에 오사카 마이니치[毎日]신문사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마쓰이는 국제연맹의 일본 비판 결의는 과거의 3국 간섭에 비해 “몇 배의 치욕”이며 탈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는 국제연맹 밖에 있는 미국·소련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국제연맹 자체도 가맹국인 영국이 속국을 합쳐서 7표, 프랑스가 소협상국을 합쳐서 5~6표, 국제연맹 밖의 미국과 소련이 5~6표의 영향력이 있는데, “아시아의 패자인 우리 제국 일본”은 1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국제 인식을 표명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버마, 인도, 페르시아, 터키 등 아시아의 동포와 손을 잡고 “이들을 이끌고 진정한 대아시아 건설”을 이룩해 진정한 세계 평등·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아시아주의로 돌아가라”고 외친<sup>71</sup> 것이다. 그리고 마쓰이는 국제연맹을 대신하는 아시아연맹을 만들기 위해 ‘만주국’ 건국 1주년제인 1933년 3월 동지들과 함께 대아세아협회를 설립했다.

대아세아협회 설립의 모체가 된 것은 1932년 봄 나가타니 다케요[中谷武世] 법정대학(法政大學) 교수, 시모나카 야사부로[下中彌三郎] 평범사(平凡社) 사장 외에 미쓰카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 나카야마 마사루[中山優], 이마나가 쥬이치로[今中十一郎], 시미즈 도조[清水董三], 나카히라 료[中平亮], 우지타 나오요시[宇治田直義], 라스 비하리 보스(Rash Behari Bose, 인도인 혁명가), 콘디(안남의 왕족) 등의 학자·평론가들이 만주국 건국 이후의 아시아문제를

71 「本社主催特別大講演會の松井大將の熱弁」, 『大阪毎日新聞』, 1933. 2. 28~3. 3.

아시아대륙 전체의 문제와 함께 멀리 중동문제까지 포함시켜, 만주사변 문제보다 넓은 맥락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범아시아학회다. 여기에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히로타 고키[廣田弘毅, 외무성 대기발령 중] 등의 정치인·외교관, 스에쓰구 노부마사[末次信正, 해군 제2함대 장관],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 육군 예비역중장·귀족원의원], 오바타 도시로[小畑敏四郎, 참모본부 제3부장], 혼마 마사하루[本間雅晴, 兵器本廠의 신문반장], 히구치 기이치로[樋口季一郎, 도쿄경비참모], 스즈키 데이이치[鈴木貞一, 육군성 군무국 지나반장], 이시카와 신고[石川信吾, 해군군령부 제2반 제3과 참모] 등의 유력 육해군인, 무라카와 겐고[村川堅固, 도쿄대학 문학부 교수, 서양사], 야노 진이치[矢野仁一, 교토대학 문학부 명예교수, 동양사],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 도쿄대학 문학부 조교수, 국사학], 가노코기 가즈노부[鹿子木貞信, 규슈대학 법문학부장, 철학], 오타 고조[太田耕造, 國本社 기관지 발행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등의 지식인이 가세해 대아세아협회가 성립된 것이다.

대아세아협회는 기관지 『대아세아주의(大亞細亞主義)』를 1933년 5월 창간호부터 1942년 4월의 중간호까지 9년 동안 발행했으며, 정치단체가 아니고 사상문화단체로서 대아시아주의를 계몽·선전하는 동시에 타이완·조선·필리핀과 같은 해외와 오사카·후쿠오카·가나자와·교토·구마모토·고베 등에 지부를 만들어 불교단체·군대·재향군인회·지방행정조직·반상회·상공업계·재외교포·식민지 등에 침투하는, 아시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대아시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서양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일본에 아시아와 제휴할 것을 호소한 쉰원의 중국 후계자들과의 제휴를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제국을 ‘대동아전쟁’으로 이끌 때에 반영(反英)운동을 중심으로 큰 역할을 해 나갔다.

마쓰이 등의 대아세아협회가 마쓰이의 직접적인 ‘스승’이었던 우쓰노미야 다로의 ‘대일본주의’에서 ‘대아시아주의’로 발전해 나간 지표로서는 세계대공황과 ‘만주국’ 성립 이후의 세계에서 국제연맹을 대체할 아시아연맹을 지향한 것 외에 아시아를 하나의 실험장으로 하는 일대 경제권을 만들어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일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려한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만주국’과 일본, 일본제국의 식민지인 타이완·조선 등을 새로운 ‘일만지(日滿支) 블록, 나아가 ‘동아시아 신질서’로서 새로운 분업체제로 재편하여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동해를 ‘내해’로 하는 일체화된 경제블록을 형성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기부양을 실현했다. 그리고 중국을 침략하여 화북·화중·화남 등으로 분치합작(分治合作)시키는 ‘중화연성자치국(中華連省自治國)’으로 해체하고, 그것과 일본제국, ‘만주국’·몽고자치국·신장(新疆)자치국·시짱(西藏)자치국 등으로 ‘아시아연맹’을 형성하고자 했다. ‘만주국’ 건국으로 소련과의 전쟁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보고 조선·‘만주국’을 일체화한 병참기지를 건설했다. 우가키 가르시게(宇垣一成) 총독 시기에 시작된 조선 북부·‘만주국’으로의 조선인 이주정책은, 후에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노동력이 부족해진 1939년 이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강제 노동정책이나 ‘대동아전쟁’ 시기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의 노무자 동원정책의 원형이 된다. 화교 자본과 아시아 각지의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타이완을 거점으로 하는 ‘남양’ 진출을 실현시키고, 조선인·중국인·아시아 각지의 현지인을 노무자로 삼아 벌이는 일대 공공사업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공존공영’, 나아가 아시아에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마쓰이 자신은 타이완군 사령관 시절에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종래

의 중국 서남부와의 제휴공작을 진척시키는 동시에 ‘남양’ 진출을 목표로 하는 대아시아주의 운동을 추진했다. 그 후 중일전쟁 발발에 즈음해서는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및 중지나(中支那)방면군 사령관으로서 상하이 상륙·수도 난징공략 등을 지휘하고, 대아세아협회의 이사 등을 맡은 육군군인들과 협력하면서 반영주의·대아시아주의 등을 축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중국 점령지에 괴뢰정권을 수립했다. 마쓰이카 ‘난징 대학살’과 영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최고지휘관에서 해임당한 이후에도 대아세아협회 임원·회원들은 고아인(興亞院)을 중심으로 전쟁수행과 중국 점령지에서의 선전공작·선무(宣撫)공작을 추진했다.

이러한 대아세아협회의 대아시아주의라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 준 것이, 모체가 된 범아시아학회의 이마오카 쥬이치로(今岡十一郎) 등 지식인의 ‘투란주의’<sup>72</sup>와 아시아연맹론이며, 또 대아세아협회 설립에 즈음하여 새로이 참가해 서양사를 전쟁·침략과 유색인종의 착취의 역사로 묘사하고,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역설한 무라카와 겐고 도쿄제국대학 명예교수<sup>73</sup> 등의 지식인이었다. 대아세아협회 회원 중에는 교토제국대학·고베상업대학 등 간사이(關西) 지방의 유력대학의 교수진도 많이 참가했지만, 대부분은 의학·농학·경제학 등 아시아개발과 관련되는 실학계통의 교수들이며, 소위 ‘교토학파’라고 불리는 포스트모던 지식인은 참가하지 않았다.

72 ‘투란주의’는 투란민족, 즉 우랄·알타이민족의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운동으로, 핀란드·헝가리에서 중앙아시아, 몽골·만주·조선·일본인 등이 동일한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海野弘(2005), 『陰謀と幻想の大アジア』, 平凡社, 제2장 등을 참조.

73 村川堅固와 그의 아들 堅太郎(전후 도쿄대학 문학부 교수)는 전후에도 오랫동안 그리스·로마사의 권위로서 학계에 강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지금까지 대아세아협회는 정치결사로서의 활동보다 사상문화단체로, 더구나 정당·결사로서보다는 이데올로기 네트워크로, 이 협회를 거점으로 하는 완만한 침투력·영향력을 통해 일본의 정치를 움직였기 때문에 파시즘론을 포함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유럽 정치이론·미국 정치이론 등 서양에서 유래된 ‘전쟁범죄’ 책임자 색출을 위한 그물망에서 빠져 있었다. 또 도쿄국제군사재판에서도 마쓰이 등의 변호인이 대아시아주의에 기초하여 서양 제국주의 비판을 전개하려 했지만, 점령군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동모의’라는 전쟁범죄의 틀 안에서 심판했다. 이 때문에 마쓰이는 난징 학살사건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죄목만으로 사형판결이 내려졌던 것이다. 『대아세아주의』에는 당시 정치적 발언이 봉쇄되어 있던 군인을 포함한 많은 대아세아협회 회원들의 매우 귀중한 논문과 제반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만, 이 잡지는 2008년부터 복각되기 시작해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그러나 고노에 내각에 의한 중일전쟁의 확대, 동아시아신질서 선언, 1939년에 고양된 3국군사동맹과 대정익찬회(大政翼賛會) 성립 등을 가져온 대(大)반영가두운동, 왕자오밍(汪兆銘) 정권의 옹립, 그리고 ‘대동아전쟁’을 주도한 소용돌이 속에 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전후가 되자 나카타니 다케요·시모나카 야사부로 등의 과거 대아세아협회 회원들은 세계연방운동을 일으키는 한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와 함께 동남아시아개발기금 구상을 미국의 자금을 이용해 실현하고자 시도했다. 또 자민당 국회의원이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를 중심으로, 우쓰노미야 도쿠마를 포함한 좌우 각파의 정치인·재계인들로 구성된 일본아랍협회를 창설하고,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에게 압록강댐 건설 실적이 있는 일본의 기술력·자금력을 동원해 앵글로·

색슨에 대항하기 위해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는 구상을 제안해 추진하려고 했다.<sup>74</sup> 또 일본은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해서 ‘대동아전쟁’을 벌인 것이며, 착취를 목적으로 한 서양 제국주의와는 달리 ‘공존공영’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일본은 침략국가가 아니라는, 현재 일본에 뿌리 깊이 남아 있는 언설도 ‘대아시아주의’ 이데올로기가 수정되어 만들어진 ‘역사기억’으로 계속해서 연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민간재계주의’

지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에서 아시아주의의 세 번째 대안이었던 ‘민간재계주의(民間財界主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세 개의 아시아주의 중에서는 약간 불안정한 용어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두 가지와 달리, 식민지를 포함한 제국과 국민국가 등 현재의 상황과 기존의 국가를 기본틀로 인정하고, 민간재계를 주체로 일본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가자는 입장이다. 원래 일본의 재계는 도쿠가와시대에 일본이 실시했던 무역과 국내유통 억제정책인 ‘쇄국’시대에 서양 각국이나 중국 상인(華商) 등에 비해 뒤떨어져버린 경제활동을 제도와 세력범위 등의 면에서 급속히 되찾으려 하는 메이지 신정부의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사쓰마번(현재의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다스린 영주 시마즈씨의 영지)은

74 中谷武世(1983), 『アラブと日本』, 原書房을 참조.

‘쇄국’정책에 반대하여 류큐를 거점으로 하는 밀무역을 해서 도쿠가와 막부와 대립, 비밀리에 영국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그중 한 사람인 초대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구미의 상인은 앞으로 깊이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지나 상인은 앞으로 일본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오사카에 중국 상인에 대항하기 위한 상업학교 설립을 호소했다.<sup>75</sup> 그리하여 같은 사쓰마번 출신의 유학생 동료였던 상인 고다이 도모아쓰[五代友厚] 등 민간재계의 힘을 빌려 오사카상업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메이지·다이쇼 시기에 활약한 미우라 데쓰타로 등의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아라오 세이[荒尾精]나 네즈 하지메[根津一], 기시다 긴코[岸田吟香] 등의 아시아주의자도 같은 관점에서 서적·약재상점인 한구낙선당(漢口樂善堂)과 일청무역연구소(日淸貿易研究所), 동아동문서원(東亞同文書院) 등의 대아시아 무역 진흥·첩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습기관을 설립했다.

한편, 서양경제의 다양한 제도와 개념을 조속히 일본에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메이지 신정부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그 측근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와 가까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정부의 재정경제담당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정변으로 인한 하야[이노우에·시부사와는 1873년, 오쿠마 시게노부와 후쿠자와 계열의 관료는 1881년] 이후에는 민간재계를 형성하고, 회사·은행·보험을 비롯한 경제제도를 일본에 정착시켜, 많

75 籠谷直人(2000), 『アジア國際通稱秩序と近代日本』, 名古屋大學出版會, 11~12·84쪽.

은 회사·기업을 창립함으로써 일본의 자본주의제도를 정착시켰다. 시부사와 등은 식민지 조선에 제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行) 지점을 개설하고, 1902년에는 조선의 경제개발을 위해 조선협회를 설립해 조선총독부와 협력하면서 조선에서의 경제제도 정비와 경제개발에 나섰다. 중국에 대해서는 1907년 대중국 투자회사인 동아흥업(東亞興業)을 설립하고, 1914년 4월에는 전년도에 일중합작회사로 설립된 중국흥업(中國興業)을 중일실업(中日實業)으로 재편했으며, 1920년에는 일중친선을 위한 일화실업협회(日華實業協會)를 설립했다.

물론 일본의 대중국·조선을 포함한 대아시아 경제정책에서 정부와 정부계 금융기관, 식민지 당국과 군부 등이 수행한 역할은 크지만, 시부사와 에이이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간 민간재계가 아시아주의에 미친 영향도 대단히 크다. 거기에는 경제분야에서 중국 상인이 행사하는 압도적인 영향력 앞에서 중국 상인 등에 대항해 일본이 통상의 패권을 확립해 나가려고 하는 아시아에 대한 침략적인 측면과 중국 등과의 제휴 없이는 일본의 경제발전은 없다는 우호적인 측면의 양면이 있는데, 종종 그 양면은 떼어놓기 어려울 정도로 결부되어 있었다.

시대가 지나 만주사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1935년 중반이 되면 만주사변으로 단절상태에 가까웠던 일중무역도 회복되기 시작해 중국이 경제제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 측에서도 오사카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외무성의 후원하에 일지(日支)경제연락위원회 설치준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35년 10월에 장제스 등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우딩창(吳鼎昌) 중국염업은행 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민국 부일(赴日)경제고찰단이 조직되어 방일하게 되었다. 우 단장은 방적과 잡화 등 일중 간에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널리 의견을

교환하고, 산업별로 일중경제제휴의 가능성을 모색할 의향을 밝혔다. 고찰단은 일본의 은행업계와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와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방적공장·전선공장 등을 시찰해 친선을 강화하고, 그 결과 중국 측의 제안으로 경제제휴·무역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측에 중일무역협회(회장은 周作民 金城銀行 總經理), 일본 측에 일중무역협회(회장은 兒玉謙次 요코하마정금(正金)은행 총재)가 상설되었다.<sup>76</sup>

그 후 1935년 11월 4일 중화민국은 영국이 파견한 로스(Sir Frederic Lieth Ross)의 조언에 따라 통화제도개혁을 단행했다. 은을 중심으로 하는 그때까지의 불안정한 통화제도에서 파운드와 연동한 법정통화(법폐)로 바꾸는 이 개혁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계에서는 군부의 존재와 ‘만주국’을 화북에서 분리시킨다는 의향 때문에 그 장래를 비관하는 관측을 내놓고, 법폐에 반대하는 ‘어용학자’ 다카하시 가메키치와 재계 온건파를 대표하는 동아흥업주식회사 상무로 메이지대학 상학부 교수(외환론·지나 외환론)인 우치다 가쓰시[内田勝司]가 격론을 주고받았다. 강경한 아시아주의자인 외교관 스마 야키치로[須磨彌吉郎] 난징 총영사<sup>77</sup>와 군부는 영국의 원조를 받은 이 화폐제도 개혁안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중국이 자력으로 화폐제도를 개혁하기를 바라고 있던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대장대신(大藏大臣)도 일본의 협력을 요구하는 영국 측의 요청을 거절해 중국은 영국의 원조를 받아 개혁을 단행했다.<sup>78</sup> 중국의 화폐제도 개혁이 세간의 비관론을 뒤집고 성공을 거두는 가운데, 급조한 지나주둔군[天津

76 이하 일본 재계의 일중전쟁 회피의 움직임과 전쟁수습공작에 대해서는 松浦正孝(2002), 『財界の政治經濟史』, 東京大學出版會, 제5장을 참조.

77 須磨未千秋(1988), 『須磨彌吉郎外交秘録』, 創元社, 76~78쪽.

78 松浦正孝(1999), 「再考·日中戰爭前夜」, 『國際政治』 122호 참조.

軍)도 이에 초조함을 느끼고, 화북 현지에서 신통화 공작(다카하시 가메키치가 이에 협력)과 밀무역 등 경제적·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의 은행·상업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 및 장제스와 공상희(孔祥熙) 등의 난징정부와 중국 실업계 사이에서 다시 ‘경제를 경제인의 손에’라는 형태로 민간재계 주도의 경제제휴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현지의 군부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다. 일본 측에서 중심이 된 것은 육군출신의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내각에서 대장 대신 겸 척무대신(拓務大臣)을 맡았던 재계출신의 유키 도요타로[結城豊太郎] 전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 총재였다.

하야시 센주로는 만주사변 때 조선군사령관으로서 천황의 ‘봉칙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 본국 통수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동군(關東軍)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등을 돕기 위해 독단으로 월경(越境) 출병한 ‘월경장군’으로 유명하다. 또 군부를 누르기 위해서 정우회·민정당의 협력을 기반으로 육군출신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조각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후 성립된, 기성정당 등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치기반이 취약한 내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에서 강경파로 간주되는 정치인이 실제로 집권하면 친아시아 정책을 취하려고 하거나, 자위대를 위헌으로 주장해 온 사회당 당수가 총리가 되면 그 입장을 180도 전환시키는 등의 사례가 보이듯이, 하야시 내각도 실제 3개월이라는 짧은 정치생명 속에서 유키 대장대신과 외무성 출신의 사토 나오타케[佐藤尚武] 외무대신의 콤비가 화북분리 공작을 중지하고 기동(冀東) 밀무역을 억제시키려 하거나, 장제스 정권의 중국 통일을 인정하고 문화경제를 중심으로 일중 국교조정을 도모하려 한 지극히 대중 유희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역사의 일개 에피소드를 뛰어

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야시 내각의 정책전환의 이면에는 경제계 중에서도 온건파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외무성 내의 온건파가 있었다.

1935년 10월에 방일한 중화민국 부일경제고찰단에 대한 답례로 재계에서는 고다마 겐지(児玉謙次) 요코하마정금은행 총재를 단장으로 1937년 4월 이번에는 일본 측이 중국을 방문하는 실업단을 조직했다. 실로노구교(巖瀬橋)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의 일이다. 고다마 방중단의 최대 목적은 일중 간의 소원해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자가 거리낌 없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향후 무슨 일에 대해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드는 것에 있었다. 그 때문에 방문지에서 일반문제 간담회와 설탕문제 간담회, 금융부 간담회, 면업(綿業)문제 간담회 등의 개별부회가 열렸다. 양자 간에 격렬한 논의를 벌이며 반박하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대체로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군인이 본업을 떠나 경제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는 경제인들끼리 하고, 문화와 경제양면에서 국교를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결국 양자는 일본 측이 기동 밀무역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중국 측이 배일적(排日的)으로 보이는 고율관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특히 고다마 단장(일중무역협회 회장)과 주작민(周作民) 중일무역협회 회장이 만약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방문단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를 썼던 후나즈 신이치로(船津辰一郎) 재화방적동업회(在華紡績同業會) 이사를 통해 정금은행의 암호통신을 ‘핫라인’으로 이용한다는 것도 결정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 곧바로 후나즈 신이치로에 의해 일중화평(和平)공작이 모색된 데는 이러한 복선이 있었던 것이다. 또 1938년 여름 대대적으로 개편된 제2차 고노에 내각에서 미쓰이은행(三井銀行) 출신으로 재계 대

표인 이케다 세이헌(池田成彬)이 대장대신 겸 상공대신, 이케다의 맹우(盟友) 우가키 가즈시게가 외무대신이 되어, 영국을 중개자로 하는 일중화 평공작이 이루어진 것<sup>79</sup>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고다마 실업방문단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그것은 이 방문단을 사토 나오타케 외무대신과 함께 도와준 유키 도요타로 대장대신이 공상회 행정원 부원장 및 왕충혜(王寵惠) 외교부장에게 보낸, 민간 재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제휴를 통해 일중관계를 타개하자는 강한 메시지의 전달이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방문단 중에서 최연소로 유키의 사위였던 대일본제당 사장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이다. 대장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암묵적인 양해를 전제로 한 일중경제제휴를 통해 천진군(天津軍)·관동군의 소장군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고, 일중 간의 위기타개를 희망한다는 것이 후지야마가 전한 유키의 메시지였다. 일본 정부는 군부에 군비확장 예산을 인정하는 대신, 숙군(肅軍)과 정치외교에 대한 불간섭을 약속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군이 화북에 관한 정치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경제제휴의 실적을 만들어 군부를 억제함으로써 기동·기찰(冀察) 정권과 기동 밀무역을 해소하고, 중국은 통일을 촉진하며,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정당한 무역발전을 통해 중일 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sup>80</sup> 후지야마가 전한 일중 민간재계에 의한 경제제휴는 양국 내 재계·업계 내부에서의 생산 자율통제·수출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것이며, 유키 도요타로 등 당

79 松浦正孝(1995), 『日中戦争期における経済と政治』, 東京大學出版會.

80 「孔副院長會晤日本經濟視察團員大日本製糖社長藤山愛一郎記錄抄件」, 「部長會晤日本經濟視察團員大日本製糖社長藤山愛一郎談話記錄」(모두 『關於改善中日關係』 7책 소수, 臺北: 中華民國檔案資訊處).

시의 재계 주류가 추진하던 방침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인회상(日印會商)과 일란회상(日蘭會商) 등을 통해 쓰다 신고(津田信吾) 가네보(鐘紡) 사장 등 오사카 산업계의 대영(對英) 강경론이 대립했다. 그들은 대아세아협회 등에 들어가 영국과 중국 등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결국 민간재계를 중심으로 한 일중경제제휴와 전쟁억지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후지야마는 전후 공직추방이 해제된 후 경제동우회 대표, 일본항공 회장,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계에 복귀했다. 그리고 장제스에게 1952년 4월 30일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재계의 모습 잘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인용한다.

장 총통 각하, 저는 지금 각하를 만나 뵈었을 때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7년 춘3월 우리 일본의 실업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국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일지단결해 난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제당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雷太를 말함—마쓰우라 주]와 총통 각하와의 우의로 인해 오직 유일하게 면회할 기회를 갖게 되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특히 일행 전원을 다도회에 초대해 주신 자리에서 하신 총통 각하의 인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실업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일본 실업가들이 존경하는 대선배였던 시부사와 에이이치 자작은 논어의 신봉자이지만, 그 논어 속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시부사와 자작이 신봉하는 논어의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함축적인 내용의 인사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에 일본이 당하게 되면 반드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중국에 태연히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국하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결국은 불행스러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게 만드는 힘이 없었음을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여행에서 총통 각하를 비롯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 동시에 2, 30대의 각계 청년층과 난징과 상하이에서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젊은 중국의 청년들이 성실하게 중국을 근대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과 의욕에 불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는 동시에 우리 일본인도 그 청년들의 마음에 동감하고 진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본인에게 그런 새로운 중국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틈도 없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까지는 우리나라의 실업가 중에도 중국이 근대국가로서 성장하면 일본 산업의 경쟁자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국은 여전히 근대화하지 않는 농업원료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좁은 견해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근대국가가 되어 근대적 산업이 일어나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본의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민족적 해방에 의한 근대 신국가 건설과정에서 있는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그 점에서 우리는 향후 충분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일본이 과거에 취했던 정신·행동과 전혀 반대의 사고방식으로 중국과 협력했었다면, 오늘날 중국은 훌륭한 근대국가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적 中共 정권 같은 것이 중국 본토를 지배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sup>81</sup>

당시 후지야마의 주위에는 일찍이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후지야마 라이타(藤山雷太)처럼 재계를 돕

81 藤原銀次郎・小林一三・藤山愛一郎(1954), 「蔣介石總統への手紙」, 『現代隨想全集』 제32권, 創元社, 385~387쪽.

는 자리에 앉으라는 목소리도 강했지만, 후지야마 자신은 “과거 고우 세이노스케[郷藏之助] 씨라든가 이사가 다카시[井坂孝] 씨처럼 재계를 돕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재계에서는 이미 성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절친한 기시노부스케에게 외무대신 취임을 요청받았을 때, 입각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는 시라스 지로[白洲次郎] 등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 대한 ‘측근정치’의 폐해를 비판해 온 전력과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후지야마는 ‘진흙투성이’가 될 각오를 했다. 일본 측 민간재계 대표의 방중 사절단에 참여했으면서도 중일전쟁을 지지하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과 중국에 대한 속죄의 마음도 컸다. 또 정치인이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던 후지야마가 사숙(私塾)하던 사촌 이케다 세이헌에게서 “후지야마 군, 이번에 중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나?”, “재계인이 모두 나오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지금까지처럼 정치를 군인에게 맡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재계인도 정치에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것도 정치에 직접 관여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sup>82</sup> 후지야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케다 씨는 미쓰이의 총수였고, 그다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만, 전쟁중에 이케다 씨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나도 그 심부름꾼 역할을 했지만, 일본 경제는 그런 터무니없는 전쟁을 하면 지탱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고가 몸에 배어 있으셨겠지요. 재계인이

82 藤山愛一郎(1976), 『政治 わが道』, 朝日新聞社, 27~40·166~180쪽 등도 참조.

나와서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치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권유를 받고 거절하기는 했지만, 당시 다양한 재계 출신들이 중의원과 참의원에 나와 계셨습니다. 재계인 중에도 그런 의미에서 종전을 맞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해서 알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모로 문제가 있는 전쟁을 했습니다. 당시 재계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경위를 알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무모한 전쟁이었다는 생각을 아무래도 씻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과 같은 상태가 되어 정치에 입신해 볼까, 또 일중관계도 가능한 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원인입니다.<sup>83</sup>

후지야마는 1957년, 도조[東條] 내각 타도운동 이래 교류가 있었던 기시 노부스케의 권유로 재계출신 외무대신이 되어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이듬해에는 중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다.<sup>84</sup> 특히 일중우호에 주력해 종종 중국을 방문했으며, 1973년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이 되었다.<sup>85</sup> 또 정계에 들어가기 이전인 1955년에는 자원해서 반동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했으며 귀국 후에는 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배상문제 조기해결을 각 방면에 호소하기 시작해, 1956년 봄에는 필리핀과의 배상협상을 직접 다루게 되었다.<sup>86</sup> 눈앞의 손익에 얽매이지 않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동남아시아·아프리카(소위 A·A그룹)의 경제건설을 돕는 것을 일본 경제외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

83 藤山愛一郎(1976), 「戰時下の財界の動き」, 赤松貞雄 著, 『語りつぐ昭和史 激動の半世紀』, 朝日新聞社, 76~77쪽.

84 藤山愛一郎(1959), 『日本の百人全集 I 私の行き方』, 學風書院, 152~174쪽.

85 藤山愛一郎(1976), 앞의 책, 197~230쪽.

86 藤山愛一郎(1976), 앞의 책, 49~55쪽.

한 후지야마도 민간재계를 축으로 한 또 하나의 아시아주의의 모습이 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sup>87</sup> 이상주의적인 속죄론을 바탕으로 한 후지야마의 사고방식은 아시아주의라는 점에서 전전·전시에 대아세아협회 이사로서 활약하고 대(對) 필리핀 배상문제에서 활약한 무라타 쇼조(村田省藏) 오사카상선(大阪商船) 사장이나 기시 노부스케 등과 공통되는 면이 있고, 중국·동남아시아 등에서의 현실적인 경제권익을 기대하는 경제인들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전전에는 대중국 정책 등에서 생각을 달리하던 그들이 전후에 어떻게 교차했는지는 지금부터 해명해야 할 테마이다.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후지야마는 기시 내각 총사퇴 이후 1960·1964·1966년 세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다. 후지야마파를 조직하고, 정치자금으로 대부분 사유 주식, 토지, 저택, 그림 등을 전부 팔아치웠다. 그 결과 재산을 탕진했고, 사재를 다 털게 만든 파벌은 점차 와해되어 형해화해, “비단 손수건을 걸레로 썼다”는 말을 들었다. 그가 정치에 쏟아 부은 사재는 수백억 엔에 상당한다고 한다.<sup>88</sup>

## 5. 맺음말

이상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일본을 중심으로 ‘소일본주의’, ‘중제국주의(中帝國主義, 제계제후를 통한 전쟁억제론)’, ‘대

87 藤山愛一郎(1958), 『社長室にて』(學風書院)의 「『ハンケチを雑巾に使うな』と言われて」, 15~27쪽, 「まずアジアから」, 247~249쪽 등을 참조.

88 藤山愛一郎(1976), 앞의 책, 232~250쪽.

아시아주의'라는 다른 세 가지 아시아주의의 유형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소일본주의'는 미우라 데쓰타로에서 이시바시 단잔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조금씩 변화했다. '대아시아주의'는 막부 말기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동아시아주의(일청한제후론)에서 출발했다. 과거 중화제국의 영화를 '콩알만한 섬 제국'으로서 선망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즈음하여 영국 대사관 무관으로서 대영제국과 연대하여 세계전략을 겨냥한 경험을 가진 우쓰노미야 속에서 서서히 그것은 '대제국' 건립의 비원(대일본주의)로 자라나, 세계공황과 만주사변이라는 격변의 와중에 우쓰노미야의 계승자 마쓰이 이와네에게서 '대아시아주의'로 부화했다.<sup>89</sup>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소일본주의' 대 '대일본주의'의 대립구도가 있었고, 만주사변 이후에는 '대아시아주의' 대 '중제국주의(친영파·재계를 중심으로 한 전쟁억제론)'라는 대립에 '소일본주의'가 '중제국주의'에 합류했다. 전후에는 미국을 비판하고 아시아·아프리카에 가장 큰 관심을 표명한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도 전전에는 많은 재계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를 전제로 영국·프랑스·미국 등 서양 각국과의 협조를 우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후에는 이들 3개의 입장 모두가 나가타니 다케요나 시모나카 야사부로 등 과거 아세아협회 멤버를 중심으로 우쓰노미야 도쿠마, 미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 기시 노부스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등을 하나로 아울러, 하나의 움직임으로 결집하는 흥미로운 측면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89 松浦正護(2008), 「汎アジア主義における『九州要因』」하, 『北大法學論集』 제 59권 제2호.

다음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전후 아시아주의가 어떤 형태로 일본의 정치경제구조에 편입되어 어떤 형태로 재생·변형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근대 일본은 전전에 ‘대아시아주의’의 선택지에 가장 가까운 길을 걸었다. 그리고 일본은 ‘대동아전쟁’에서 영·미·네덜란드를 포함한 ‘연합국’과 교전해서 패했다. 그러나 자주 언급되듯이 일본제국은 이 패전과 함께 모든 식민지를 상실함과 동시에 전쟁 말기에는 원폭투하·대공습·소련의 만주침공 등 미국·소련에 대한 피해자 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냉전구조 속에서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 식민지책임·전쟁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전쟁에 관한 피해자 의식만 남긴 채, 일본이 아시아 각 지역을 침략한 사실을 망각하고 ‘대아시아주의의 꿈’을 미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우선 일본 국내에서 이해하고 공유해 나가는 것이,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가 의미하는 것을 서로 상대화하고 이해하는 것과 함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 유태경과 『아세아공론』

– 동아시아 지식교류사의 새로운 발견

라경수(羅京洙, 일본 와세다대)

## 1. 머리말

‘무명’의 한 잡지가 긴 침묵의 잠에서 깬다. 『아세아공론(亞細亞公論)』이라는 잡지가 바로 그것으로, 금번에 고토 겐이치[後藤乾一] 교수가 이끄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연구팀에서 복각하였다.<sup>1</sup>

동 잡지는, 무명의 조선청년 지식인 유태경(柳泰慶)이 도쿄에 설립한 아세아공론사라는 출판사에서 1922년 5월에 창간된 월간지이다. 그러나 동 잡지는 다음 해인 1923년 1월을 끝으로 폐간된다. 총 9호밖에 출간되지 못한 단명의 잡지였던 까닭인지 『아세아공론』은 극히 일부 연

1 後藤乾一·紀旭峰·羅京洙 編(2008), 『復刻版 亞細亞公論·大東公論(全3卷)』(龍溪書舍)이 그것으로, 이 글은 복각본에 해제논문으로 실린 줄고 「朝鮮知識人柳泰慶と『亞細亞公論』-移動·交流·思想」을 수정·가필한 것임을 밝히며, 유태경의 인물상과 『아세아공론』의 기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동 복각본을 참조 바람.

구자들에게 인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장 겸 주필이었던 유태경이라는 인물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무명’ 잡지가 전후 일본의 총리대신까지 지낸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을 비롯한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를 풍미했던 기라성 같은 일본의 ‘유명’ 논객들은 물론 중국·대만·인도 등의 아시아 지식인들을 그 필진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흥미를 끄는 대목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지식인 유태경과 그가 만든 잡지 『아세아공론』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태경이 어떠한 인물이었으며, 『아세아공론』은 어떤 성격의 잡지인가, 그리고 유태경이 잡지를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인류주의(人類主義)’라는 사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식인 유태경 : 인물과 활동

그렇다면 지식인 유태경은 누구이며, 어떠한 활동을 했을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정면으로 대항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김구(金九)나 이승만(李承晩) 등과 같은 저명한 민족지도자들과 달리, 이름 없는 유태경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역사 담론의 ‘주변에 놓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가 거의 없거나 아직 본격적으로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필자는 한국의 국가보훈처, 그리고 유태경이 유학했던 미국의 대학 등에 소장된 일부 관련 자료들을 해당기관의 도움으로 입수할 수 있었다. 특히 유태경의 아내인 김태은(金泰恩)<sup>2</sup>이 국가보훈처 공훈

심사과에 제출한 자필증언과 증빙서류는 유태경의 행적을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sup>3</sup> 이렇게 입수한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인 유태경의 족적을 ‘이동과 교류’의 관점에서 시대순으로 재구성해 보겠다.

유태경은 1892년 음력 8월 28일생으로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내 김태은은 유태경이 일본 유학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유태경이 1907년에 도쿄 소재 세이소쿠[正則] 중학교<sup>4</sup>를 졸업했다는

- 
- 2 유태경의 아내 김태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자면, 1907년 6월 29일 출생한 그녀는 유태경과는 15살의 차이가 난다. 둘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 유태경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1938년에 중경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그녀도 동행, 이동하면서 남편과 겪었던 갖은 고생을 비교적 소상히 회고하고 있다. 광복 후에는 서울의 풍문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하기도 한다. 김태은은 “그저 남편을 내조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겸손해 한다. 하지만 그녀가 쓴 자필 증언자료의 문장력이나 언어구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당시로서는 상당한 여성 지식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동 자료는, 남편 유태경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 김태은이 1989년 6월에 제출한 것이다. 동 자료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기 2년 전인 1987년 6월 6일, MBC 문화방송에서는 유태경과 관련한 특집뉴스를 편성해 보도했다. 동 보도에 따르면, “여든이 되도록 아내 김태은은 남편의 조국 광복운동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해 주위에 자랑 한 번 하지 않았으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를 찾을 때에도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손 한 명 없이 어렵게 사는 김태은은 주위의 권위로 남편의 유공자 인정 신청을 뒤늦게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입증자료부족’이라는 사유로 그 유공자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필자는 유태경의 독립유공자 인정여부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의를 했는데, 여전히 인정이 보류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자면, 금번 와세다대학 연구팀에서 복각한 잡지 『아세아공론』은 유태경의 독립유공자 인정관련 재심사에 상당히 중요한 사료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 당시, ‘세이소쿠[正則]’라는 이름을 쓴 도쿄 소재 중등교육기관은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현재의 正則學園高等學校의 전신인 正則英語學校가 있다. 앞서 언

것이다. 이때는 유태경이 15세 무렵이다. 소년 태경이 정확히 언제부터,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유학을 위해서 현해탄을 건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년 이상의 기간을 도쿄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함의를 갖는다. 유태경은 손수 설립한 출판사의 사장이면서도, ‘수천(壽泉)’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아세아공론』에 총 12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글을 기고한다.<sup>5</sup> 그의 수준 높은 일본어 구사능력은 여타 일본인 지식인들의 기고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는 역시 소년기에 경험했던 도쿄 유학이라는 성장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유태경은 유창한 일본어를 무기로 당시의 일본 식자층은 물론, 일본에 체류하던 대만이나 중국, 인도 등의 다양한 아시아 지식인들과 폭넓은 지식교류를 나눴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의 이러한 교류를 출판사 경영과 잡지의 필진 확보를 위한 일종의 ‘네트워크’로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유태경이 이미 일본 유학시절부터 도쿄를 정치활동과 사상형성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잡지 『아세아공론』이 식민지 종주국의 한복판인 도쿄에서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1912년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망명해 청도대학(靑島大學)

---

급한 이시바시 단잔 전 총리대신이 다녔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대신을 배출한 현재의 正則高等學校가 있다. 유태경이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후후 학적기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 5 몇몇 주요 논고들의 제목을 열거하자면, 「천직을 잃은 현대의 신문과 기자[天職を失へる現代の新聞と記者]」(1922년 6월호), 「림찬민 씨를 방문하다[林長民氏を訪ふ]」(1922년 9월호), 「사이토 조선총독과 만나다[齋藤朝鮮總督と語る]」(1922년 10월호), 「조선 유학생의 과거와 현재[朝鮮留學生の過去及現在]」(1922년 11월호) 등이 있다.

에 입학한다. 1914년에는 일본이 독일의 조차지였던 청도를 공격하자, 유태경은 북경으로 탈출, 이번에는 북경대학(北京大學)에 학적을 두게 된다. 1918년부터는 만주로 이동해 거기서 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하지만,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한다.

1920년에 출옥한 후, 그 활동무대를 소년시절 유학했던 도쿄로 다시 옮긴다. 그리고 1922년에 드디어 아세아공론사를 설립해 잡지 『아세아공론』을 출간하게 된다. 유태경이 30세가 되는 해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잡지는 이듬해인 1923년 1월에 바로 폐간되고, 청년 태경은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의 도미 목적은 유학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 당국의 집요한 회유와 강요에 따른 ‘유학을 빙자한 망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야심차게 추진한 ‘출판사업’을 어쩔 수 없이 접고 미국으로 향하는 청년 태경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필자는 이러한 유태경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 2009년 5월에 미국을 방문, 아내 김태은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태경의 미국 유학생활에 대한 행적을 조사한 바 있다. 유태경은 30대 중반의 만학도로 뉴욕주에 있는 컬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을 거쳐, 1928년에는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서스쿼해나대학(Susquehanna University)에서 사회과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는다.<sup>6</sup> 버지니아주에 위치하는 베사니대학(Bethany College)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특별학생(special student)’이라는 신분으로 잠시 적을 두기도 한다.<sup>7</sup> 그러다가 형제의 부음소식을 듣고 1930년에 귀국하

---

6 Susquehanna University ed.(1929), *The 1929 LANTHORN*, p. 51.

7 Bethany College ed.(1927), *BETHANY COLLEGE BULLETIN*, Vol. XX, No. 2, March, p. 91.

게 된다.<sup>8</sup> 필자가 그의 미국 행적을 조사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국에서는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북미조선학생총회(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가 조직되었으며,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조선 지식인들은 동 조직을 거점으로 학술 교류는 물론,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북미조선학생총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Korean Student Bulletin*에 자신의 졸업과 귀국 소식 등을 겨우 두어 번 전할 뿐, 유태경은 재미 조선인 유학생 커뮤니티에는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다. 도미한 유태경은 단지 학업에만 전념하면서 그토록 정열적으로 추진했던 도쿄에서의 ‘사업’ 실패로 인한 실의와 굴욕감을 조용히 달래며 지냈던 것은 아닐까?

1930년에 서울로 와서는 협성실업학교의 이사가 된다. 1931년에는 중화민국 동성구(하얼빈) 행정장관의 외교자문이 되기도 한다. 1932년 만주국 건국으로 인해 북경으로 망명, 1938년에는 중경으로 이동한다. 광복 후인 1946년에는 경상남도 울산 군수에 취임, 1949년에는 고학생들을 위한 육영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아내 김태은이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자료 ‘독립유공자 평생이력서’에는, 유태경이 “6·25 전쟁 때 가출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김태은의 다른 자필 증언자료에는 “남편을 여의고 슬펐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6·25 때’라는 것이 전쟁이 발발한 1950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기간인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어느 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유태경이 행방불명되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에 대

---

8 The Committee on Friendly Relations Among Foreign Students ed.(1930), *Korean Student Bulletin*, Vol. VIII, May, p. 8.

한 것도 명확하지 않다. 1950년은 그의 나이가 58세가 되는 해이다. 현재로서 파악 가능한 지식인 유태경의 생애와 행적은 여기까지가 전부이다.

이상의 약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커다란 특징은, 유태경이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을 가졌다는 점이다. 아내 김태은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그의 신분증명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분증명서는 1945년 8월에 중경 소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등을 역임한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sup>9</sup>의 명의로 발급되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유태경은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초월한 이동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증명서에는 유태경이 “다년간 광복운동을 행했다(從事韓國光復運動多年)”는 사실이 명기돼 있다. 한편, 중경시가 1945년 9월 30일에 유태경에게 발급한 당시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서도 ‘독립운동가 유태경’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동 등록증의 직업란에는 ‘광복운동자’로, 근무지란에는 ‘한국임시정부’로 명기되어 있다.<sup>10</sup>

이처럼 1940년대의 유태경은 1920년대와는 다소 다른 인물상과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1922년에 발간된 『아세아공론』에 투영된 유태경의 모습은 물론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를 주장은 하지만, 민족주의자나 독립운동가로서의 색깔은 그다지 내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견

9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신익희는 1917년에 와세다대학을 졸업, 유태경과는 도쿄에서 이미 알고 지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 아내 김태은에게도 동일한 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그녀의 증명서에도 ‘광복운동’이라 명기되었다. 김태은이 단지 남편의 내조만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에도 일정한 역할과 공헌을 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태경에게 김태은은 사랑하는 ‘아내’이자, 사상과 운동을 함께한 ‘동지’였던 것이다.

해이다. 이에 비해 1930년대, 1940년대로 가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한 유태경의 ‘적극성’은 더욱 강해져 간다. 내외홍보사가 1949년에 발행한 『대한민국인사록』에서도 유태경의 이러한 ‘모습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동 인사록의 발간사에는 “세계 도처에 망명하여 국가 없는 민족의 설움을 한몸에 받아가며 끝없는 유랑생활을 하면서도 일각(一刻)을 잊지 않고 조국 광복에 모든 정력을 기울여 온 민족선배들의 애국정신! …… 갖은 박해와 아울러 혼란기의 생활고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조국 자율독립을 위하여 분투 헌신해 온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계각층의 애국동지들!”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유태경도 그 선배와 동지 중의 한 명으로 동 인사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동 인사록에는 유태경이 “중경의 중국군의 후원으로 김구 씨와는 공생공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다”<sup>11</sup>고도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인물 요람의 인사록에 실릴 정도로 유태경은 1945년 광복 전후를 즈음해서는 ‘독립운동가’로서 세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유태경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현재는 거의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되고 말았다.

전술한 약력사항을 바탕으로 유태경이 출생에서 사망(혹은 행방불명)까지 약 60년의 생애 동안 이동한 경로를 정리하자면, 조선, 도쿄, 청도, 북경, 만주, 도쿄, 미국, 조선, 하얼빈, 북경, 중경, 조선 등의 흐름이 되겠다. 그가 비교적 짧은 주기로 국경을 넘는 국제적 이동을 끊임없이 반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동한 곳도 조선, 일본, 중국, 미국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가와 지역이었다.

11 내외홍보사 편(1949), 『대한민국인사록』, 100쪽.

유태경은 이러한 국제이동을 경험하면서 식민지 지배하에 놓인 민족의 처지를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지의 다양한 지식인과 문화를 접하면서 견문과 식견을 넓혀 ‘국제파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태경의 국경을 넘는 이동과 민족을 초월한 교류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유태경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이동과 월경(越境)의 인생을 걸어온 유태경은 그야말로 ‘디아스포라 지식인’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디아스포라를 내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원래의 고향과 모국을 등지 지 않을 수 없게 된 사람들 혹은 민족집단으로 규정할 경우, 이산자로서 쓰라린 경험을 한 이들 디아스포라들은 모국 혹은 타국의 체제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과는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아이덴티티가 형성된다.

특히 디아스포라 지식인의 경우에는 그 사상 형성에서 이러한 독특한 경계인(境界人) 아이덴티티가 더더욱 두드러진다. 국제이동과 지식교류를 다양하게 경험한 유태경의 이산자적인 삶은 ‘민족주의’와 ‘인류주의’라는 다소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의 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풍부한 국제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유태경은 아주 세련된 지식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전술한 유태경의 신분증 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에는 아주 작은 크



〈그림 1〉 30대 중반경의 유태경

\* 출처 : Blough-Weis Library Archives, Susquehanna University.

기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다. 동 사진은 관련 자료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유태경의 외모와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증명서와 등록증이 1945년에 발급된 점을 고려하면, 유태경이 50대 초반이었을 때의 사진으로 추정된다.<sup>12</sup> 이와는 별도로 유태경이 30대 중반에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서스쿼헤나대학에서 입수할 수 있었다. 위의 〈그림 1〉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사진을 통해 청장년 시절의 유태경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인상적인 것은, 이 두 사진 속의 유태경이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안경을 쓴 유태경의 모습은 지적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 또한 상당히 미남형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진을 통해, 유태경이 식민지 시대에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텔리’였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지(知)를 겸비한 그의 용모는 식민지 종주국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 당시 도쿄에 와 있던 아시아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그들을 잡지 『아세아공론』의 집필진으로 섭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12 동 사진은 모두에서 언급한 복각본에 실린 필자의 해제논문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 바람.

### 3. 잡지 『아세아공론』 : 동아시아 지식인의 교류공간

여기서는 국제파 인텔리 유태경이 발간한 월간지 『아세아공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동 잡지가 갖는 형식적 특징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편집상의 ‘파격성’이다. 도쿄라는 공간적 특수성이 엄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조선어와 중국어도 함께 사용하고자 했던 대담한 편집이 돋보인다. 예를 들자면, 동 잡지는 그 표지명으로 “亞細亞公論/THE ASIA REVIEW/아세아공론”과 같이 3개국어를 동시에 표기하기도 했으며, 거의 매호마다 표지 디자인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동 잡지의 창간호(1922. 5)와 마지막 호(1923. 1)의



<그림 2> 『아세아공론』의 창간호와 폐간호

표지로, 앞서 설명한 편집상의 파격성과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표지 디자인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출판업계의 상식과 관행을 한 영세한 출판사가 과감히 깬다는 점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을 것이다.

또 하나의 큰 특징으로는 뛰어난 사업수완을 꼽을 수 있다. 『아세아공론』에는 많은 광고가 게재되었다. 100쪽 이상되는 매호의 전후반부 여러 쪽은 다양한 기업들의 광고로 채워졌다. 특히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대만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등 당시의 대표적 국책성 기업들의 광고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 광고는 지식인 유태경이 지향하는 사상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타 유명잡지에 비하면 그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무명의 잡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광고를, 그것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광고를 획득해 지면에 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역시 사장 유태경의 인적 네트워크가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꿔 말하자면, 아세아공론사 사장 유태경은 당시 정재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권당 50센 [錢]인 잡지만을 팔아서 영세한 출판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장 유태경은, 잡지가 지향하는 사상과는 다소 충돌을 하더라도 출판사 경영에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잡지의 내용을 보자. 동 잡지는 기본적으로 사상지의 성격이 강한 종합잡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 잡지가 ‘인류주의’를 그 사상적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시아 제 민족의 각성과 약소민족의 해방”을 구체적인 실천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창간호와 1922년 6월호 표지에는 ‘인류주의’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그리고 지구의의를 뒷배경으로 사람과 사람이 악수하는 표지

디자인도 새겨, 잡지가 추구하는 사상과 성격을 알기 쉽게 전달코자 했다.<sup>13</sup> 당시 『동아일보』도 신간 소개란을 통해서 “조선청년 유태경 씨가 주간으로 중국, 대만, 조선, 일본 등의 청년논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아시아 제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고 약소민족의 해방을 추구한다”<sup>14</sup>고 하면서 동 잡지의 창간소식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처럼 주의주장이 뚜렷한 『아세아공론』이었으나, 집필진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과 사상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어서 여러 방면에 걸친 주제의 글들이 게재되었다. 사장 유태경이 조선 청년이었음에도 조선과 관련된 기사들이 반드시 많았던 것도 아니었다. 지면상 여기서는 교육, 종교, 문학을 중심으로 논하겠다.

첫째, 교육과 관련해 아세아공론사는 출판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 유학생은 물론, 대만이나 중국 등 여타 아시아출신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세아공론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사업을 전개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잡지의 거의 매호에는 ‘본사의 사업’이라는 유학생 관련 특별란을 두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① 자비 유학생 기숙사의 설립, ② 유학생의 고충을 위로하기 위한 운동회·음악회·강연회·연설회·전람회·활동사진회 등의 개최, ③ 생활필수품의 실비제공과 잡지 무료배포, ④ 형사상의 문제나 건강, 천재지변 등으로 곤궁에 처한 경우에 대한 상담, ⑤ 유익한 도서출판 등 모두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

13 어떤 이유에서인지, 7월호부터는 그러한 슬로건과 디자인이 표지에서 사라진다.

14 『동아일보』, 1922년 7월 27일자.

유학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아세아공론』의 내용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잡지의 본문에는 유학생 관련 내용들이 여럿 등장한다. 예를 들자면, 창간호에는 ‘1922년도 재일본조선유학생 각학교 졸업생 일람(一九二二年度在日本朝鮮留學生各學校卒業生一覽)’<sup>15</sup>이라는 통계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이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졸업생들의 이름과 (소·중학교, 전문학교, 대학 등의) 출신학교명이 포함되어 있다. 총 87명의 졸업생 중에 여학생은 12명에 불과했다. 관비 유학생이 10명으로, 사비 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또한 전문학교와 대학 졸업생이 67명으로 소·중학교 졸업생보다 훨씬 많았다. 1922년 10월호에 실린 ‘유일본 조선학생 통계표 인원(留日本朝鮮學生統計表人員)’<sup>16</sup>이라는 자료에는 유학생들의 출신지까지도 명기되어 있으며, 1922년 현재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은 2,235명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1922년의 6월호와 12월호에는 각각 ‘1922년도 중화민국 유학생 졸업생 일람표(一九二二年度中華民國留學生卒業生一覽表)’와 ‘유일본민국학생 인원(留日本民國學生人員)’이라는 중국인 유학생 통계자료도 게재, 조선인 유학생 규모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언급한 ‘본사의 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 아세아공론사는 당시 유학생들이 안고 있었던 생활상의 곤란이나 민족적 차별문제 등을 적확하게 파악,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잡지 『아세아공론』의 지면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교수의 교육차별 [東京女高師教授の教育差別]」이라는 제목의 평론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어려움

15 『아세아공론』 창간호(1922. 5), 117~119쪽.

16 『아세아공론』(1922. 10), 24~35쪽.

을 겪는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하고 있다. 교육에는 국경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차노미즈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學]의 전신인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의 모 교수가 일본인 학생들에 비해 조선인과 중국인 유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당 교수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sup>17</sup>

그렇다면 왜 아세아공론사는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며, 관련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로 장소 문제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잡지의 마지막 쪽에 있는 출판정보를 보면, 1922년 11월호부터는 그 주소가 ‘東京牛込區早稻田鶴卷町二一四’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출판사가 이 시기를 즈음해 이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새로 이전한 쓰루마키초[鶴卷町]라는 곳은 와세다대학교는 지척 거리이다. 때문에 유학생들과의 접촉이 상당히 용이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sup>18</sup> 실제로도 동 잡지의 필진 중에는 와세다대학 관련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시바시 단잔,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 스키모리 고지로[杉森孝次郎], 미우라 데쓰타로[三浦鉄太郎], 다카쓰지 히데노부[高辻秀宣], 오야마 이쿠오[大山郁夫],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 사카모토 요시오[坂本義雄], 사카모토 데쓰로[坂本哲郎], 무토 나오하루[武藤直治] 등이 와세다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노 마나부[佐野學]와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등이 동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들 인사는 잡지 『아세아공론』에 단골로 글을 기고했다. 아세아공

17 『아세아공론』(1922. 5), 133~134쪽.

18 1919년까지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조선인 유학생은 약 100명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명 정도가 동 대학에서 수학했다. 『아세아공론』 창간을 전후해서 상당수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동 대학에 다녔음을 알 수 있다. 早稻田大學우리同窓會 編(1976), 『韓國留學生運動史—早稻田大學우리同窓會70年史』를 참조.

론사 사장 유태경은, 자신이 표방하는 ‘인류주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와 반골정신’이라는 와세다대학의 학풍이 그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 동대학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연’을 맺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즉, 와세다대학은 유태경의 ‘인류주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場)’이었던 셈이다.

한편, 잡지 『학지광(學之光)』은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의 기관지로 조선인 유학생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동 잡지는 『아세아공론』이 창간되기 훨씬 전인 1914년에 창간, 1930년에 폐간된다. 『아세아공론』이 창간되기 얼마 전인 1920년 7월에 발간된 『학지광』을 보자면, 그 주소가 ‘早稻田鶴卷町六二、朝鮮物産商會内’로 되어 있다. 아세아공론사와는 한 동네인 셈이다. 조선인 유학생들(특히 와세다대학 재학생)의 손에서 운영되었던 학지광사와 후발주자인 아세아공론사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학지광』이 이미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빛(光)을 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세아공론』은 정반대로 큰 대조를 이룬다.

아세아공론사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보인 또 하나의 이유로는, 사장 유태경 자신이 유학생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기에 도쿄에서 중학 시절을 보냈던 것을 비롯해 오랜 기간 동안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유학생생활을 경험한 그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생활과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sup>19</sup> 유태경은 1922년 11월호에 「조선 유학생의 과거

19 한편, 잡지 폐간 후에 유태경이 유학한 미국의 서스쿼헤나대학의 학적기록에는, 그가 와세다대학에서도 수학했다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유태경이 와세다대학 정식 졸업생인지 아니면 청강생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학적

와 현재[朝鮮留學生の過去及現在]라는 논문을 기고하고 있다. 동 논문은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의 유래, 한일합방과 3·1운동 전후의 유학생 동정, 당시의 유학생 단체와 기관지, 유학생들의 사상적 흐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치와 인명 등을 들어가며 아주 자세히 논하고 있다(일본당국의 검열로 삭제된 부분이 있지만). 약 10쪽을 할애한 유태경의 동 논문은 그의 유학생에 대한 생각과 인식, 그리고 그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조선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 차원에서도 유익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종교와 관련해 잡지 『아세아공론』의 매호에는 비둘기와 예수 얼굴을 형상화한 그림(삽화)이 곳곳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동 잡지의 사상인 ‘인류주의’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의 그림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예수 얼굴 그림은 필자로 하여금 『아세아공론』이 마치 종교지가 아닌지 하는 착각과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종교와의 접점을 설명이라도 하듯 동 잡지에는 기독교 혹은 여타 종교 관계자들의 논고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본 구세군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아마무로 군페이(山室軍平)는 「약자의 친구인 기독교[弱者の友としての基督]」(1922년 6월호, 일부 삭제됨)라는 글을 기고했으며, 기독교적 인도주의에 입각해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한 아베 이소오는 「현대사상과 종교[現代思想と宗教]」(1923년 신년호)라는 글을 남겼다. 기독교만이

---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동 기록이나 당시의 정황 등으로 봐서는 그가 어떠한 형태로든 와세다대학에 ‘적(籍)’을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라 불교 관련 논문도 실렸다. 이회광(李晦光)은 「조선 불교계의 현상 타파[朝鮮佛敎界の現状打破](1922년 7월호)라는 글을 통해 현실사회와는 동떨어져 있는 조선 불교계의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1922년 12월호에서는 “아시아의 종교문제[亞細亞に於ける宗教問題]”라는 특집란을 편성, 종교적 시점에서 당시의 아시아를 바라보고자 했다. 전술한 예수의 삽화가 도입부분에 삽입된 동 특집란에는 다케다 도요시로(武田豊四郎)의 「인도의 자치운동과 종교[印度における自治運動と宗教]」, 호아시리이치로(帆足理一郎)의 「종교문제의 귀추와 아시아[宗教問題の歸趨と亞細亞]」, 와시오 준교(鷲尾順敬)의 「지금의 종교문제와 조선의 불교[現今の宗教問題と朝鮮の佛敎]」, 그리고 최몽재(崔夢齋)의 「조선 기독교의 작금[朝鮮基督教の今昔]」 등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모두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각의 종교가 아시아의 민중들에게 행해야 할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교사학자였던 와시오 준교의 논문은 당시의 “일본에는 종교다운 종교가 없다”며 일본인의 종교관을 비판하면서도 “조선에는 민중의 불교가 있다”면서 조선인의 종교를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교와 분석은 아주 흥미를 끈다.<sup>20</sup> 마지막의 최몽재 논문에서는 조선 내 기독교 교회의 기원, 박해의 역사, 관련 인물, 그리고 기독교 각파와 신도수를 포함한 통계자료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당시의 종교연구에 그 자료적 희소 가치가 상당하다.

유태경이 종교를 가졌는지, 가졌다면 어떠한 종교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가 잡지 『아세아공론』을 통

---

20 『아세아공론』(1922. 12), 13쪽.

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인류주의’ 사상은 기독교적 박애주의와 상당 부분 그 궤를 같이한다. 이를 감안하자면, 유태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노세 이와키치[能勢岩吉]는 창간호에 「유수천 군에게 보냄[柳壽泉君に與ふ]」이라는 글을 기고한다. 아세아공론사 사장 유태경(유수천은 필명)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다. 노세는, 위기에 처한 아시아의 제 민족과 전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유태경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잡지 『아세아공론』에 대해서는, 위기가 닥친 것도 모르고 잡자고 있는 인류를 깨우기 위해 그 사상적 경종을 울리는 ‘선전기관’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노세는 유태경을 ‘열렬한 기독교신자’라고 언급했다. 신이 유태경에게 목숨을 걸고 인류주의를 주창하고,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을 절규할 힘을 주었다고까지 했다.<sup>21</sup> 유태경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은 잡지 폐간 후에 가졌던 그의 미국 유학생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유태경은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이 거의 가지 않았던 이름 없는 시골 대학인 서스쿼해나대학과 베사니대학에서 수학한다. 이 두 대학은 비록 작지만 유서깊은 미션계 대학으로, 특히 유태경은 서스쿼해나대학에서는 YMCA 활동까지 했다.<sup>22</sup>

이처럼 유태경은 종교와 사상의 밀접한 상관성에 착안, 기독교의 박애주의에 자신의 ‘인류주의’ 사상을 오버랩시킨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사상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세아공론』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인 잡지(borderless journal)’를 만들

21 『아세아공론』 창간호(1922. 5), 148~150쪽.

22 Susquehanna University ed.(1929), p. 51.

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셋째, 문학과 관련해 『아세아공론』에는 논문과 평론뿐만 아니라, 잡지의 후반부에는 반드시 몇 편의 문학작품도 게재하는 등 일종의 문예지 역할도 하고 있다. 장르에서도 단편소설, 시, 번역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태경 자신도 수차례에 걸쳐 중국 청대의 괴담소설인 「요재지이(聊齋志異)」를 일본어로 번역해 기고했던 ‘문학청년’이었다. 그의 문학적 재능은 물론, 중국어 능력 또한 일본어만큼이나 뛰어났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아세아공론』에 문학작품을 비교적 많이 기고했던 인사로는 사카모토 데쓰로, 노세 이와키치, 다카쓰지 히데노부, 김희명(金熙明) 등을 들 수 있다. 동 잡지에 실린 문학작품들은 대체적으로 1920년대 당시 유행했던 사회주의 사상과 아나키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들도 있다. 1922년 7월호에 실린 노세 이와키치의 「대동강야화(大同江夜話)」라는 작품이 그러하다. 이 작품은 일본 남성이 평양에서 조선 여성과 하룻밤을 지내는 체험담을 그린 것으로, 일본 남성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진 ‘내지인(内地人)’이었다.<sup>23</sup> 그러나 그 조선 여성의 비참한 인생역정을 듣고서 남성은 많은 것을 깨닫고 바로 평양을 떠난다. 남성은 “그 조선 여성의 아버지는 일본의 광산 노동자로 끌려가 지옥 같은 감옥방에 갇혀서 흑사당하고 있으며, 그녀의 오빠는 독립운동가로서 해외에 망명 중이다. 홀로 남겨진 그 여성은 이러한 환락가에서 몸을 파는 생활을

---

23 『아세아공론』(1922. 7), 74쪽.

하고 있다”<sup>24</sup>고 전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처한 당시 조선인 디아스포라(이산자) 가족의 비참한 ‘풍경’을 내지인의 눈으로 묘사한 문학성 높은 작품이다.

또한 문학과 관련해 김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 그는 『아세아공론』에 「시조(詩調)」(1922년 10월호)와 「평양감별곡(平壤感別曲)」(1923년 신년호)이라는 두 작품을 기고했다. 이것들은 조선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번역작품이기는 하지만, 이 두 작품은 김희명이 일본에서 발표한 처녀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경수(朴庚守)의 연구에 따르면,<sup>25</sup> 김희명은 1917년에 도일한다. 1922~1927년까지 일본대학(日本大學) 전문부 사회과에서 수학, 재학시에는 사회과학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는다. 1928년에 도쿄부(東京府)의 촉탁직원으로 취직한 후로는 사회사업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 기존의 급진적 프롤레타리아 문학활동은 전개하지 않게 된다. 도쿄부에서의 경력은 차후 ‘가네미쓰 시로[金光史朗]’로 창씨개명하는 김희명이 친일파로 낙인찍히는 계기가 된다. 김희명의 초기작품에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 자포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로 접어들면서 역사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 인해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잡지 창간 당시 유태경은 김희명보다 11살이나 나이가 많았다. 아세아공론사 사장 유태경은, 같은 조선에서 현해탄을 건너온 젊은 문학청년 김희명의 반제국주의에 바탕

---

24 위의 잡지, 82~82쪽.

25 박경수(2007. 5), 「일제하 재일 문학인 김희명(金熙明)의 반제국주의 문학운동 연구 : 그의 시와 문학평론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화회 편, 『일본어문학』 제37집, 295~298쪽.

을 둔 급진적 문학성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논고들이 『아세아공론』에는 많이 수록되어 있다. 동 잡지의 필진들이 당시를 수놓았던 저명 인사인 까닭에 이들에 대한 인물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아세아공론』에 기고한 이들의 논고들은 연구대상에 포함된 적이 거의 전무하다. 이처럼 그 사료적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동 잡지가 그만큼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망각된 잡지’였음을 입증하고 있다.<sup>26</sup> 지면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끄는 인물과 논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으로 망명해 카레라이스를 전수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진 인도 지식인 라슈 비하리 보스(Rash Behari Bose)를 특기할 만하다. 보스는 「인도의 현재와 그 비폭력적 독립운동에 대해[インドの現状とその非暴力的獨立運動に就て]」(1922년 8월호), 「신문명의 탄생[新文明の誕生]」(동년 10월호), 「세계 대전의 책임자[世界大戰の責任者]」(동년 12월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アフガニスタンに就いて]」(1923년 신년호, 본문 누락됨)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아세아공론』에 기고했다. 여러 차례나 글을 기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스가 아세아공론사 사장 유태경과는 상당히 가까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보스의 논고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소개된 적이 거의 없다.<sup>27</sup>

다음으로 니시무라 신지라는 인물을 들고 싶다. 와세다대학을 졸업

---

26 後藤乾一(2009), 「大正デモクラシーと雑誌『亞細亞公論』—その史的意味と時代背景」, 『アジア太平洋討究』 第12號, 161쪽.

27 後藤乾一(2009), 위의 글, 161쪽.

하고 동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역사인류학자 니시무라는 「일선동계론(日鮮同系論)」(1923년 신년호)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기고한다. 니시무라는 체질인류학적 관찰과 구체적인 수식을 제시하면서 “일본인이 혼혈민중인 것처럼 조선인도 혼혈민중”이며, “두 민중은 체질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동일계통”이라고 주장했다. 단지, “조선 민중은 타종족과의 혼혈량이 일본 민중보다 적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일본 민중과 조선 민중의 혼혈량의 차는 전자가 6이라면 후자는 3의 비율”이라고 주장했다.<sup>28</sup> 이러한 니시무라의 주장은 일본제국의 식민지배에 대항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했던 조선인들의 ‘단일민족’이라는 불변의 신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당시 조선인 독자들의 반응이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니시무라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의 ‘일선동원론(日鮮同源論)’을 『아세아공론』에 계속 기고하겠다고 예고하지만, 잡지가 바로 폐간되는 바람에 더 이상 그의 관련 논리전개를 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잡지 『아세아공론』은 결국 창간 이듬해인 1923년 1월의 신년호를 끝으로 폐간된다. 창간에서 폐간에 이르는 9개월 동안, 총 9호를 발간하는 것으로 30세 조선 청년의 야심찬 출판사업은 그 막을 내리고 만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하는 기사내용은 일부가 삭제당하거나 심지어는 판매금지 처분까지 받기도 하는 등 『아세아공론』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 당국의 집요한 통제와 감시를 받는다.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자유주의 사조에 힘입어 출판 저널리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었던 다이쇼 데모크

28 『아세아공론』(1923. 1), 43~46쪽.

라시 시대를 무색케 할 정도의 언론탄압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동양 경제신보(東洋經濟新報)』의 주필을 역임했던 미우라 데쓰타로는 『아세아공론』의 1922년 6월호에 「조선에 자치를 부여하라[朝鮮に自治を與ふべし]」는 논고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선 민족에게 자치를 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미우라의 논고가 일본 당국을 자극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결국 본문내용의 거의 절반 가량이 삭제되고 만다.

이처럼 일본 당국은 유태경을 식민통치행위에 거슬리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그리고 『아세아공론』을 ‘불온잡지’로 규정하고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것이다. 아내 김태은의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유태경은 일본 당국의 사주를 받은 박춘금(朴春琴) 일파에 테러까지 당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 당국의 탄압은 『아세아공론』이 폐간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잡지 폐간 후, 청년 태경은 바로 도미한다.

#### 4. 『대동공론』이라는 잡지

1923년 7월, 『대동공론(大東公論)』(이하 한글표기)이라는 잡지가 도쿄에서 창간된다. 필자는 이 잡지가 『아세아공론』을 개제(改題)한 후속지라는 정보<sup>29</sup>를 바탕으로 동 잡지의 입수를 시도했다. 다행히도 도쿄 소재 재단법인 오야 소이치 분코(大宅壯一文庫)가 그 창간호를 소장하고 있었다. 동 잡지의 창간호는 전반적인 편집 스타일이 놀라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1978),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 3, 25~27쪽.

을 정도로 『아세아공론』의 그것과 흡사하다. 두 잡지를 간략히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잡지의 형식면이다. 동 잡지의 표지에는 ‘대동공론(大東公論)’이라는 표제와 함께 ‘THE ORIENT REVIEW’라는 영문 타이틀, 그리고 ‘사회주의 검거 비판호(社會主義者檢舉批判號)’라는 다소 과격한 특집란 제목이 명기되어 있다. 『아세아공론』의 ‘아세아’가 ‘대동’으로, 그리고 THE ASIA REVIEW의 ‘ASIA’가 ‘ORIENT’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아세아공론』은 ‘인류주의’를 사상적 슬로건으로 표방한 반면, 『대동공론』은 권두언에서 ‘인류행복’이라는 용어를 내걸고 있다. 광고란도 두 잡지는 거의 동일했다. 『아세아공론』에 게재되었던 조선은행이나 조선식산은행, 대만은행 등과 같은 국책회사들의 광고가 『대동공론』에도 그대로 실린다. 단, 『아세아공론』에 빈번하게 등장했던 예수의 얼굴은 『대동공론』



〈그림 3〉 『대동공론』의 창간호

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세아공론사가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유학생 관련 사업을 대동공론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대동공론사는 사내에 고학생 직업소개부와 안내부를 두면서까지 유학생들의 직업 상담과 기숙사 소개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두 잡지의 다른 점이라면, 그 주소가 와세다대학 근처가 아닌 “東京市四谷區新宿二ノ七五”였으며, 발행인도 임한

수(林漢殊)라는 인물로 바뀐 정도였다.

다음은 잡지의 내용면이다. 『아세아공론』의 필진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재차 『대동공론』(창간호)의 필진으로 등장하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카모토 데쓰로, 니이 이타루[新居格],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김희명, 김금호(金琴湖), 다카쓰지 히데노부 등이 그들이다. 전술한 인도 지식인 라슈 비하리 보스도 재차 등장, 「인도의 현재와 사명[印度の現狀と使命]」이라는 논고를 기고한다. 『아세아공론』이 폐간되고 6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거쳐 『대동공론』이 탄생하지만, 기존의 집필진과의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일본 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받기는 『대동공론』도 마찬가지였다. 동 잡지 창간호의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세아공론』을 창간한 유태경은 『대동공론』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가 도미해 ‘부재중’이었기 때문이다.

잡지 『대동공론』의 창간호만을 발굴·분석하여 동 잡지가 『아세아공론』의 후속지라고 단정짓기에는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남는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그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을 감안했을 때, 『대동공론』은 『아세아공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30</sup>

---

30 두 잡지의 이러한 유사성을 고려, 본고의 도입부에서 소개한 『아세아공론』의 복각본에는 『대동공론』의 창간호도 포함했음.

## 5. 맺음말

이상, 학계에 거의 알려진 적이 없었던 조선 지식인 유태경과 그가 만든 잡지 『아세아공론』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지식인 유태경은 사상가이면서도 교육자, 문학가, 번역가, 경영자, 정치가, 연구자, 언론인, 그리고 종교인 등의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세아공론』에 투영된 유태경의 ‘인류주의’라는 사상은 잡지의 전체적인 논조와 그의 활동상을 참작한다면, 당시 일본제국이 그 질서 재편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면서 침략성과 패권성을 내재했던 ‘아시아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의 사상논리와는 사뭇 다른 성격의 것임을 그냥 알 수 있었다. 유태경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인 민족의 내일을 걱정하는 ‘민족주의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국제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인류주의자’였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이름 없는 한 조선 청년 지식인의 ‘미디어’를 통한 사상운동은 결국 ‘불완전연소’로 끝나고 말았지만, 당시를 살았던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언론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는 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이 글이 ‘동아시아 지식 교류사’에 새롭고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무명의 지식인 유태경과 국경을 초월한 잡지 『아세아공론』을 재평가하는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다이쇼 시기 재경 타이완인 유학생과 아시아

– 잡지 『아세아공론』을 단서로

지쉬평(紀旭峰, 일본 와세다대)

##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아세아공론』(亞細亞公論)을 통해 다이쇼 시기 재경 타이완인 유학생<sup>1</sup>의 ‘지의 구축’과 그들의 아시아관을 고찰한 것이다. 다이쇼 시기 타이완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당시 ‘내지일본고등교육기관(內地日本高等教育機關)’, 특히 사립대학 전문부는 근대 타이완의 문화와 정치, 민족운동의 기수를 대거 배출했으며,<sup>2</sup> 둘째, 아시아 지식인의 연대를 구현한 『아세아공론』을 통해 당시 재경 타이완 지식인의 아시아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 1932년, 타이완 유학생이 ‘내지재학자’로 개칭되기 전까지 ‘내지일본’에 진학하는 타이완인은 ‘유학생’으로 취급되었다.
- 2 재경 타이완인 유학생에 대해 矢内原忠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제정치국에 반항하는 정치운동은 우선 국외에서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이완 민족운동의 선구자는 도쿄 유학생의 一團이다.” 矢内原忠雄(1934), 『帝國主義下の臺灣』, 岩波書店, 243쪽.

다이쇼 시기는 메이지 시기나 쇼와 시기에 비해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메이지 시기와 쇼와 시기를 이어주는 과도기라는 견해도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반면에 과도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이 공존할 수 있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sup>3</sup>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성기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자유주의·인류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사상도 대두하는 등 다양한 사상이 꽃을 피우는 가운데,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동방시론(東方時論)』(1916년 9월 창간)과 『아세아시론(亞細亞時論)』(1917년 7월 창간. 黑龍會 기관지 『黑龍』에서 개칭)을 비롯해 아시아를 큰 주제로 삼는 기관지도 잇달아 창간되었다.

그리고 1922년 5월, 전례가 없는 “하나의 기관지에 3개 언어가 혼재하는” 잡지 『아세아공론』이 출현했다. 따라서 이 잡지는 “중일조(中日朝) 3개 문체로 아세아 각국의 명사, 숙녀의 의견을 발표함과 동시에 도쿄에 유학하는 각국 유학생들의 사정을 신고, 또 일반 정치, 외교, 교육, 종교, 사회, 노동, 여성계, 문예, 기타 각종 소식을 게재”<sup>4</sup>한다는 획기적 발상을 가진 조선인 유태경(柳泰慶, 壽泉)<sup>5</sup>의 손에서 창간된 종합 월

3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대해서는 信夫清三郎(1954), 『大正デモクラシー史Ⅰ～Ⅲ』, 日本評論社; 太田雅夫(1990), 『増補大正デモクラシー研究—知識人の思想と運動』, 新泉社; 三谷太一郎(1995), 『新版大正デモクラシー論—吉野作造の時代』, 東京大學出版會 등을 참조.

4 「社告」, 『亞細亞公論』 제1권 창간호(1922).

5 유태경은 “본명이며, 壽泉은 아호입니다만, 그가 일찍이 중화민국 베이징에 유학했을 때 대륙 전체적으로 저 유명한 亞太應別宮의 소재지인 萬壽山과 玉泉山을 보고, 가운데 글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유태경(1922), 「讀者と記者」, 『亞細亞公論』 제1권 제6호(10월호), 1922, 63쪽]. 유태경은 “1923년 6월 20일 亞細亞公論을 蔡鴻錫 외 3명에게 양도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제

간지였다(밑줄은 필자).

한편 채배화(蔡培火)·임정록(林呈祿)·왕민천(王敏川)·황정충(黃呈聰) 등 재경 타이완인들<sup>6</sup>은 일부 일본 지식인, 특히 기독교계 지식인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월간지 『대만청년(臺灣青年)』<sup>7</sup>의 발행과 타이완의회설치청원 운동<sup>8</sup> 추진에 노력하는 동시에 정태옥(鄭泰玉, 泰信)·유태경 등 조선인과 연대를 꾀한 결과 『청년조선』, 『아세아공론』에 논고를 발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아세아공론』에 기고한 타이완인은 많지 않았지만, 집필자 대부분은 일본 유학경험자였고, 그들의 논설은 “내대(內臺) 차별대우의 철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배일(排日)<sup>9</sup>을 비롯한 아시아 전

---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요코하마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했다”고 하였다(『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 第32卷, 不二出版, 2004, 131쪽). 또한 『亞細亞公論』의 뒤를 이은 잡지로 보이는 『大東公論』(1923년 7월 창간)에 대해서는, 「要視察朝鮮人要覽(大正 13년 9월) 『權熙國』」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베이징에서도 중화민국 기독교청년회에 출입하다가, 12년 3월 유태경으로부터 亞細亞公論을 인수하여, 동지들과 함께 大東公論이라고 이름붙여, 동년 7월 발행했다(이후 자금이 고갈되어 휴간)”고 하였다(『政治運動系要視察朝鮮人權熙國』, 同上書, 146쪽).

- 6 임정록과 채배화의 일본 유학은 다이쇼 전기이다. 그에 반해 황정충, 왕민천, 황조금 등은 다이쇼 후기였다.
- 7 『臺灣青年』은 1920년 7월에 창간한 신민회와 타이완청년회의 기관지이다. 1922년 4월호부터 『臺灣(THE FORMOSA)』로 이름을 바꿨다. 타이완총독부 경무국(1939), 『臺灣社會運動史』(복각판)(초출,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 제2편 臺灣領有以後の治安狀況中卷, 龍溪書舍, 28~31쪽).
- 8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이란 1921년 1월부터 1934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전개된 본도 타이완의 정치운동이다. 타이완총독부경무국(1939), 315~404쪽.
- 9 국제적 배일의 계보는 坂口滿宏(1993), 「アメリカにおける排日問題と日本人キリスト教團體」, 宮本誠太郎 등, 『近代日本政治思想史發掘—平和・キリスト教・國家』, 風行社를 참조.

체의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글에서는 다이쇼 시기 타이완인 유학생, 특히 대부분의 타이완인이 재적하던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주안점을 두면서 재정 타이완인의 ‘지적 실천’과 ‘인적 교류’를 고찰하고 아울러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견해도 살펴보고자 한다.

## 2. 타이완인의 ‘내지일본’ 유학

### 1) 일본 유학의 시작

메이지 시기 이후 청나라(이하 중국으로 표기) 유학생이 최초로 일본에 온 것은 조선인의 일본 유학(1881년)보다 약 15년 늦은 1896년 4월이었다.<sup>10</sup> 그 전까지는 미국 유학이 주를 이루었지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중국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 유학생을 보내게 되었다.<sup>11</sup> 그 후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 가속화된 결과, 중국 유학생이 점차 감소했지만 “중국 사회에서 그들의 활약은 계속되었다”<sup>12</sup>고 한다.

10 田中宏(1979), 「日本留學の中國人」, 『歴史公論』 4월호, 雄山閣, 133쪽. 또한 조선인 유학생에 대해 “그러나 보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유학생의 의식은 단순히 ‘개화’를 위한 일본 유학에서, 일본 유학 과정을 통해 ‘반일’·‘항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阿部洋(1976), 「解放前韓國における日本留學」, 『韓』 제5권 제12호, 도쿄한국연구원, 30쪽.

11 さねとうけいしゅう(1981), 『中國留學生史談』, 第一書房, 8쪽.

12 上垣外憲一(1882), 『日本流學生と革命運動』, 東京大學出版會, 213쪽.

그에 비해 1897년 도쿄 후지미[富士見]학교 5학년에 편입한 양세영(楊世英)과 도쿄 맹아학교의 정주은(鄭主恩)이 아마도 최초의 타이완인 유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중국인과 타이완인의 일본유학 시작 시점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의 자격으로 일본에 들어오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호세이[法政]대학 청국유학생 법정속성과(法政速成科, 1904~1908), 메이지대학의 경위학당(經緯學堂, 1904~1910), 와세다대학 청국유학생부(1905~1910) 등이 잇달아 설치되었던 반면, ‘식민지인’인 타이완인에게는 이와 같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 중국인은 전문교육·속성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에 유학했지만, 초기 타이완인의 일본 유학은 소·중학교가 대부분이었다.<sup>13</sup>

## 2) 타이완인의 ‘내지일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다이쇼 시기 중반부터는 고등교육기관을 목표로 하는 유학이 점차 주를 이루게 되면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타이완인 유학생이 소학교를 제치고 중학교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sup>14</sup>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히라누마 요시로[平沼淑郎] 등 와세다대학 교수들의 지적처럼 “타이완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른바 타이완인에 대한 교육차별을 한 가지 원인으로 들 수

13 전전 타이완인·조선인 유학생의 추이에 대해서는 佐藤由美·渡部宗助(2005), 「戦前の臺灣・朝鮮留學生に關する統計資料について」, 『植民地教育體驗の記憶』, 皓星社를 참조.

14 臺灣總督府民政部學務部(1919), 『大正六年臺灣總督府學事第十六年報』, 16쪽.

있을 것이다. 결국 타이완인이 좀 더 고도의 전문지식을 얻는 수단으로서는 일본 유학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22년 전후 타이완에서 타이완인 1일 평균 임금은 타이완 거주 일본인(1.85엔)의 거의 절반 수준인 0.97엔이었기 때문에,<sup>15</sup> 생활비만 최저 1개월에 25엔이 필요한 유학의 경제적 부담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sup>16</sup>

1918년 12월 6일 대학령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학령에 따르면 중학교를 졸업해야 입학할 수 있는데, 타이완과 조선의 중학교는 5년제가 아니라 4년제다. 이러한 새로운 대학령은 조선과 타이완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이완인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향이 있다”<sup>17</sup>는 지적처럼, 당시 타이완에서는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는 4년제였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타이완인에게, 특히 학부 입학은 곤란했다.<sup>18</sup> 그래서 하나의 선택지로서 대부분의 타이완인 유학생은 우선 내지일본 중학교에

---

15 1922년, 타이완인의 평균임금은 목수 1.8엔, 미장공 2엔, 잡역부 0.8엔, 대장장이 1.3엔, 주물공 1.2엔, 농부 0.5엔, 화물처리인 1.5엔, 어부 1.2엔이었다. 山川均(1996), 「植民政策下の臺灣」, 『山川均全集』 제7권, 276~278쪽.

16 도쿄의 하숙생활은 大生川志郎(1921), 『最新東京苦學案内』(복각판), 近代日本青年期教育叢書, 제Ⅳ기 제6권(초출, 敎成社), 日本圖書センター, 1992, 24~36쪽 참조. 또 당시 도쿄 유학비용에 대해 와세다대학 출신의 황조금은 연간 약 400~500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조금(2001), 『朝琴回顧錄-臺灣政界耆老黃朝琴』, 龍文出版社, 타이페이, 12쪽.

17 安部磯雄(1920), 「臺灣の教育問題に就て」, 『臺灣青年』 제1권 제4호, 10쪽.

18 교육차별에 대해서는 吳三連 구술·吳豊山 기록(1991), 『吳三連回憶錄』, 自立晚報社文化出版部, 타이페이, 34쪽을 참조.

편입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황조금(黃朝琴)은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와 연수학관(研數學館)과 같은 예비교(豫備校)<sup>19</sup>에 다닌 다음 일본 중학 3학년에 편입하는 긴 과정을 거쳐, 드디어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sup>20</sup>

이상과 같이 대학부 입학이 힘든 데다가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이 거의 전무한 식민지 타이완 지식청년의 취직문제까지 겹쳐, 엘리트 관료를 양성하는 관립대학보다는 ‘법과의 메이지대학’과 ‘정치경제과의 와세다대학’ 등 사립대학 전문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sup>21</sup>

19 正則英語學校는 正則豫備學校의 자매학교로 오로지 영어만 가르쳤다. 반면 正則豫備學校는 주로 이화학과 수학을 가르쳤다. 藤井衡 편(1916), 『大正五年版新撰東京遊學案内』, 東京集文館, 38쪽. 한편 연수학관은 1897년에 奧平浪太郎이 창립한 수학 사숙이었다.

20 黃朝琴(1984), 『愛國愛鄉—黃朝琴傳』, 近代中國雜誌社, 타이페이, 4쪽.

21 “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메이지대학 출신자들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위는 1920년 전후, 즉 다이쇼 중기까지 이어지며 사법관과 함께 법조계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였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서 메이지대학 법과 출신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메이지대학 백년사 편찬위원회(1992), 『明治大學百年史』 제3권, 통사편 I, 1992, 592~593쪽. 그리고 林丕祿의 영향을 받아 메이지대학의 타이완인 유학생은 법과에 입학하는 사람이 많았다. 메이지대학 백년사 편찬위원회(1994), 『明治大學百年史』 제4권, 통사편 II, 212쪽. 실제로 메이지대학 법과 출신 타이완인으로는 임정록 외 곽정헌(郭廷獻), 사개석(謝介石), 여영석(呂靈石), 채식곡(蔡式穀), 채선어(蔡先於), 나만거(羅萬倬), 장룡지(張龍池) 등이 있다. 臺灣新民報社調查部(1934), 『臺灣人士鑑』, 臺灣新民報社 참조.

### 3) 전문부 정치경제과로의 집중

다음에서는 『아세아공론』에 논설을 발표한 와세다대학의 타이완인 유학생을 개관한다. 「와세다대학의 외지학생·생도수」(『와세다대학백년사』제 4권)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전후 초기까지 타이완인 학생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지만, 1925년 이전의 타이완인 유학생 추이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매년 연말에 『와세다학보』에 게재되는 「와세다대학 보고」의 자료를 통해 다이쇼 시기 타이완인 유학생의 추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표 1〉 다이쇼 시기 와세다대학 아시아 유학생의 재학생 추이

연도	지역	타이완	조선	중국	인도	터키
1912년(다이쇼 원년)		1	37	166	1	0
1913년(다이쇼 2)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1914년(다이쇼 3)		9	50	168	0	1
1915년(다이쇼 4)		12	40	180	2	1
1916년(다이쇼 5)		13	48	188	2	1
1917년(다이쇼 6)		21	61	200	2	1
1918년(다이쇼 7)		19	69	205	0	0
1919년(다이쇼 8)		24	74	233	0	0
1920년(다이쇼 9)		17	59	218	0	0
1921년(다이쇼 10)		19	80	201	0	0
1922년(다이쇼 11)		22	83	199	0	0
1923년(다이쇼 12)		30	92	209	0	0
1924년(다이쇼 13)		29	214	113	0	0
1925년(다이쇼 14)		31	122	88	0	0
1926년(다이쇼 15)		41	136	66	0	0

주 : 附屬高等學院, 工手學校 포함.

출전 : 각 연도 「現在學生府縣別表」, 『와세다학보』에서 필자 작성.

〈표 2〉 와세다대학 타이완인 졸업생 일람(다이쇼 시기 입학만 해당)

학과 졸업년도	전문부			대학부					고등사범 합계
	법률	정치경제	상과	법학	문학	이공	문학	국어한문	
1915년(다이쇼 4)	林時珍	黃毓材·鄭其芹					3		3
1916년(다이쇼 5)		劉明哲					1		1
1917년(다이쇼 6)		蔡國珍					1		1
1918년(다이쇼 7)							0		0
1919년(다이쇼 8)				巫川(독일법)			2		2
1920년(다이쇼 9)		劉安紅		蕭秀球(영국법)		林仲榭(전기공학)	5		5
1921년(다이쇼 10)							0		0
1922년(다이쇼 11)							0		0
1923년(다이쇼 12)		王敏川·黃呈聰					4		4
		黃朝琴			呂盤石				
1924년(다이쇼 13)		吳衛秋·劉鳳岐 林萬金·彭木發			林仲輝 王金海			蔡添丁	8
		黃周							
1925년(다이쇼 14)		張水泉·陳瑞圖							4
1926년(다이쇼 15)		呂世明·林呈旺	蔡美楚				新制2名		5
		郭發·溫成龍							
1927년(쇼와 2)	許茂元		潘家和		徐先烈			吳丕松	4
1928년(쇼와 3)	邱福洪	李金鐘		林士上(영국법)		林澄藻(경제)		張棟蘭	8
				吳鏡璽(영국법)		鄭繼(경제)		(영문학)	
1929년(쇼와 4)	施添福	葉啓仁·楊肇嘉		廖台義(영국법)		鄭川(경제)			7
		鄭繼		郭朝鳳(영국법)					

주 : 1925년(다이쇼 14) 신제(新制) 대학부 정치경제과 2명 모두 지표상 명확하지 않음.  
출전 : 각 연도 『와세다학보』에서 필자 작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타이완처럼 일본의 식민지하에 놓여 있던 조선 유학생 수는 대략 타이완인 유학생의 3배에서 4배에 달한다. 이에 반해 타이완인 유학생은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거의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타이완인 졸업생과 출신학과(학부, 전문부, 고등사범만 해당)에 대해서이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초의 타이완인 졸업생은 1915년 임시진(林時珍, 전문부 법률과)과 황육재(黃毓材)·정기근(鄭其芹, 전문부 정치경제과) 등 3명으로 생각된다. 그 후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중심으로 타이완인 유학생 수는 조금씩 증가해 간다. 이는 처음에 전문부의 입학기준이 학부보다 느슨한데다, “타이완에서는 국민교육뿐만 아니라 각 방면의 교육에서 정치교육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sup>22</sup>는 타이완 교육의 현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타이완인의 전문부 정치경제과 입학이 현저했다.

또 당시 사범학교 졸업생은 전문부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와세다대학·메이지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타이완인은 타이완 총독부 국어학교의 졸업생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면, 황정충(실업부 농업과, 1907), 왕민천(王敏川, 전 사범부 을과, 1909), 유봉기(劉鳳岐, 공학사범부 을과, 1911), 황육재(국어부, 1911), 정기근·무천(巫川, 국어부, 1912), 팽목발(彭木發, 공학사범부 을과, 1912), 하춘희(何春喜)·류달린(劉達麟, 국어부, 1913), 시침복(施添福, 공학사범부 을과, 1913), 왕김해(王金海)·오경징(吳鏡登, 공학사범부 을과, 1917) 등이 있다.<sup>23</sup> 이러한 현상은 뒤집어 생각하면, 당시 타이완인 최고교육기관인 타이

22 王金海(1921), 「臺灣教育に關する私見」, 『臺灣青年』 제3권 제2호, 39쪽.

23 臺灣總督府國語學校(1917), 『臺灣總督府國語學校一覽 自大正六年至大正七年』, 219~247쪽.

완충독부 국어학교의 졸업생이 아니면 직접 내지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힘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24</sup>

### 3. 전문부 정치경제과와 근대 타이완의 계몽운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서의 ‘지의 구축’은 어떻게 실천되었을까? “신식 교육세대가 만들어 낸 사회 엘리트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의 수가 가장 많다”<sup>25</sup>는 지적처럼 타이완인 유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타이완 사회의 중견으로 활약했다. “각종 직업에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정치과로, 관도로 나아가 행정이나 외교관이 되거나, 재야에서 의원·신문기자·저술가·상업가·은행가·회사원이 될 수 있으며, 혹은 시험을 쳐서 판검사나 변호가가 될 수도 있다”<sup>26</sup>고 하듯이 전문부 정치경제과에서도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예를 들어, 1934

24 와세다대학 외에 타이완충독부 국어학교 출신의 타이완인 유학생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이 있다. 메이지대학의 채식곡(元 사범부 을과, 1903), 임정록(국어부, 1908)과 도쿄고등사범의 채배화(元 사범부 을과, 1910), 장요당(張耀堂, 공학사범부 을과, 1914), 황토수(黃土水, 공학사범부 을과, 1915) 등이다. 臺灣總督府國語學校(1917), 위의 책; 吉田千鶴子(2009), 『近代東アジア美術留學生の研究－東京美術學校留學生史料』, ゆまに書房, 209~212쪽.

25 吳文星(1983), 『日據時期臺灣師範教育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研究所, 타이페이, 220~221쪽.

26 “그중에서 특히 와세다의 정치경제과는 동 대학의 중견으로서, 또 가장 오랜 것으로 호평이 자자하다”고 한다. 高橋都素武(1992), 『全國學校案内』(복각판, 近代日本青年期教育叢書, 제Ⅴ기 제11권), 日本圖書センター, 20~21쪽.

년, 입신출세의 상징으로 출판된 『대만인사감(臺灣人士鑑)』을 보더라도 전문부 정치경제과 출신 타이완인 교우의 직업이 다양함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구청석(歐淸石, 변호사), 오형추(吳衡秋, 석유회사 대리점 경영·彰化街 협의회원), 황주(黃周, 臺灣新民報社 상하이지구장), 황정중(臺灣新民報社 사회부장·線西信用販賣購買利用組合長), 양조가(楊肇嘉, 臺灣新民報社 사장·타이완 지방자치연맹 상무이사), 유안홍(劉安紅, 萬巒庄長·高雄州 청과동업조합대의원), 여세명(呂世明, 彰化輕鐵주식회사 전무이사·街協議會員 등) 등을 들 수 있다.<sup>27</sup> 또 전후에도 여세명, 황조금 등은 타이완성 의원으로 활약했다.<sup>28</sup>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들의 진로보다는 오히려 『아세아공론』 투고를 통해 정치경제과 타이완인 유학생의 ‘지적 실천’을 검증하고자 한다.<sup>29</sup>

## 1) 전문지식의 획득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학생의 지식 획득은 독서, 강연회, 서클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27 臺灣新民報社調查部(1934), 앞의 책; 岡本眞希子(2009),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臺灣總督府と帝國日本』, 三元社, 320쪽을 참조할 것.

28 關懷德 편(1956), 『臺灣名人傳』, 商業新聞社, 타이페이, 40쪽과 155쪽.

29 『臺灣』, 『六合雜誌』, 『亞細亞公論』 등 잡지에 지속적으로 투고함과 동시에 번역과 강연을 하는 타이완인 유학생들을 ‘지식의 운반자’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王敏川 등 유학생들이 ‘일본문에서 한문으로’라는 형태로, 『臺灣青年』과 『臺灣』에 게재된 일본인의 기고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다시 『臺灣青年』과 『臺灣』에 게재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紀旭峰(2008), 「大正期臺灣人『内地留學生』と近代臺灣—早稻田大學專門部政治經濟科を中心として」, 『アジア太平洋研究科論集』 16호,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과, 13쪽.



출전 : 와세다대학 대학사자료센터 소장 「三號館舊藏資料」·「C付屬學校(舊制)·5專門部:[大正9年]選擇科目屆(專門部政治經濟科3年)」(5-08).

〈그림 1〉 타이완인 유학생 유안홍의 '선택과목 신청서'(1920)

학교 공부일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법 각론, 재정학, 금융정책, 상업정책, 국제공법, 국제사법 등의 과목을 신청한 류안홍의 '선택과목 신청서'(그림 1)를 통해, 타이완에서는 정치학, 법학, 사회학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는 타이완인 유학생에게 정치경제학과의 수업이 얼마나 유의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후일 정치경제과 출신의 양조가는 아베 이소오, 다카하시 세이고[高橋清吾], 오야마 이쿠오[大山郁夫]의 강의에 대해 “특히 정치학 관련 수업은 매번 반드시 출석했을 뿐 아니라, 가끔 정치학 담당 교관의 숙소를 방문하여 지도를 받았다”<sup>30</sup>고 회상하고 있다.

한편 『와세다학보』의 졸업생명부에 따르면 왕민천, 황정충, 황조금 등 3명은 모두 1923년에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졸업한 동급생이었다. 거꾸로 계산했을 때 그들이 입학한 해는 1920년이었던 것으로 보

30 양조가(1967), 『楊肇嘉回憶錄』(상), 三民書局, 타이페이, 225쪽.

〈표 3〉 1920년도(다이쇼 9) 외세대학교 전문부 정치경제학과의 과목배당 일람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학과·교원							
정치학	국가원리학	浮田和民	行政法汎論	副島義一	行政法各論	島村他三郎	
	제국헌법	副島義一	政治學史	高橋清吾	自治政策	高橋清吾	
경제학·재정학	경제학원리	塩澤昌貞	貨幣及銀行	服部文四郎	鐵道政策	佐竹三吾	
			農業政策	猪俣津南雄	商業政策	上田貞次郎	
			工業政策及	塩澤昌貞	金融政策	服部文四郎	
			社會政策		保險政策	栗津清亮	
			財政學	小林丑三郎	財政學	小林丑三郎	
사학	사양사	本多淺治郎	近代史	本多淺治郎	近時外交史	信夫淳平	
	*동양사상사	遠藤隆吉	東洋近代史	松井等	支那現代外交史	青柳篤恒	
			文明史	内ヶ崎作三郎			
			最近政治史	煙山專太郎			
지리학	지리학	志賀重昂					
문학·사회학			社會學	遠藤隆吉			
철학	*철학	杉森孝次郎					
법학	민법요론	牧野菊之助	民法要論	磯谷幸次郎	國際公法	中村進午	
	형법요론	岡田朝太郎			國際私法	松野祐高	
부기					商法要論	柳川勝二	
외국어	영어	(吉田源次郎)	英語	(吉田源次郎)	簿記	神尾錠吉	
		山崎貞			英語	山崎貞	
	일어	渡俊治	日語	帆足理一郎	日語	勝保錠吉郎	
	*중국어		*支那語	渡俊治	*支那語	菊池三九郎	
논문 및 국외연습	논문	菊池三九郎	*國會演習		*國會演習		

주: ① 제2학년 이후에는 전공 방침에 따라 學課의 수를 한정하여 선택 필수하게 함. \* 표시는 선택사항.

② 담당교원 공란과 ( )는 사료가 불명확하기 때문임.

출전: 「大正九年度學科配當表」, 외세대학교 대학원사 자료센터 소장 「三號館舊藏資料」, 「自明治年度至大正11年度學科配當表」(綴)(25-05)와 「외세대학교대학원사」, 제2권에서 필자 작성.

인다.<sup>31</sup>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전문부 정치경제과의 필수과목은 ‘정치학’과 ‘경제학’에 관련된 전문과목뿐만 아니라 ‘사학’, ‘지리학’, ‘사회학’, ‘문학’, ‘법학’, ‘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도 이수해야 했다. 게다가 일본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타이완인 유학생도 ‘국회연습’<sup>32</sup>이라는 독특한 과목을 통해 근대의회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 2) 계몽운동 참가

러시아혁명과 한반도의 3·1독립운동, 중국의 5·4운동 등 민족운동의 자극을 받아, 재경 타이완인 유학생들은 계몽운동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sup>33</sup> 와세다대학의 타이완인 유학생들은 ‘영사회(瀛士會)’라는 학내 타이완인 학생 서클 활동뿐만 아니라 동아동맹당(新亞同盟黨), ‘신민회’,<sup>34</sup> ‘코스모 구락부’<sup>35</sup> 같은 단체에도 의욕적으로 참가했다.<sup>36</sup> 한편,

31 왕민천이 1919년에 입학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32 “메이지 21년 6월의 과정표에 따르면 정치과 제3학년 전기에 ‘국회법’ 강의가 신설되었는데, 이와 함께 정치과 제3학년 전·후기에 격주로 1회 ‘국회법연습’이 있었다. 2년 후 의회 개설을 앞두고 있던 이 시기에 이들 과목을 개설한 것은 高田(早苗)의 강력한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학교의 특색을 유감없이 발휘한, 참으로 특필할 만한 신기축이었음에 틀림없다.” 와세다대학 대학원사 편집소(1978), 『早稻田大學百年史』제1권, 770쪽.

33 러시아혁명이 아시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石母田正(1952), 『歴史と民族の發見』, 東京大學出版會, 20~21쪽을 참조할 것.

34 “재경 타이완인 유학생의 민족적 각성과 실천운동으로의 발전 경향은 林獻

당시 조선인의 계몽문화운동은 “타이완인의 운동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도쿄 유학생들은 이미 여러 단체를 조직하여 기관지를 간행하고 사상을 선전 보급하는”<sup>37</sup> 상황 속에서 채배화, 임정록, 왕민천 등 타이완인은 재경 조선인과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타이완청년잡지사 구성원들은 『아세아공론』보다 약 3개월 빨리 탄생한 『청년조선』(1922년 2월 15일 창간) 제1호에 「타이완 청년의 분기」(『타이완청년』지에 대한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공개장)를 기고하고 있다.<sup>38</sup> 또한 이 기사 내용 중 일부는 훗날 『아세아공론』 창간호에도 게재되었다(『타이완에서의 언론압박을 내지 조야에 호소한다』).

제작년에 우리는 고향 선배들과 협력하여 帝都에서 타이완청년잡지사를 창립하고 월간잡지 『타이완청년』을 같은 해 7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과거 같은 잡지 제1권 제3호에도 발

---

당·채혜여 등의 통제 아래 구체화되었다. 도쿄 청년학생을 설득하여 다이쇼 8년 말에는 100여 명을 규합하여 啓發會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얼마 후 그것을 신민회로 개칭했다고 한다. 타이완총독부경무국(1939), 앞의 책, 25~31쪽.

35 松尾尊允(1999), 「コスモ俱樂部小史」, 『京都橘女子大學研究紀要』 26호, 京都橘女子大學研究紀要編纂委員會, 33쪽.

36 하지만 와세다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민인동맹회, 早大一新會, 건설자동맹회, 早大文化會 등 조직 활동에는 와세다대학 타이완인 유학생이 참가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메이지대학에 재학하는 타이완인 彭華英은 건설자동맹의 일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建設者同盟會史刊委員會(1979), 『建設者同盟の歴史~大正期のヴ・ナロード運動』, 日本社會黨中央本部機關紙局.

37 타이완총독부경무국(1939), 앞의 책, 24쪽.

38 박경식 편(1990), 『朝鮮問題資料叢書第十二卷日本植民地下の在日朝鮮人の狀況』, アジア問題研究所, 11쪽.

표한 것처럼 타이완 각지의 하급관리는 이 잡지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 잡지의 구독자를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구독 정지를 권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잡지를 압수하는 등 독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게다가 그 중심이 되는 타이완총독부는 특수한 타이완 신문지 규칙에 의거하여 우리 잡지 보급소를 타이완 도내에 설치하고, 이미 내무성의 검열을 통과한 잡지를 대호 새로 납품하여 검열을 받도록 하고, 또 잡지를 독자에게 발송할 때는 모든 잡지에 총독부가 인정한 보급인의 인감을 찍도록 명령했다. ……

실제로 『아세아공론』의 집필자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타이완인 유학생 황정충, 왕민천 외에 같은 전문부 정치경제과인 조선인 이상수(李相壽, 1923년 졸업)와 중국인 탕학일(湯鶴逸, 1922년 졸업), 장창언(張昌言, 1924년 졸업) 등도 논설을 발표했다.<sup>39</sup> 이러한 『아세아공론』의 예를 통해, 아시아 유학생과 일본 지식인 사이에는 어떤 교류와 연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이쇼 시기에 중국인이나 조선인에 비해 타이완 유학생의 수는 훨씬 적었으며 계몽운동도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9 李相壽, 「日支交渉を論じて現代の強國にお政策を彈劾す」(제1권 제2호)와 湯鶴逸, 「求日本人之反省・西湖雜詩漢詩」(한시)», 「排日」(제1권 제5호)·「論中華民國與高麗之關係」(제2권 제1호·한문)와 張昌言, 「日本政府當局の支勞働者追放に就て日本官民に忠告す」(제1권 제6호) 등이 있다.

## 4. 『아세아공론』에 나타난 아시아 지식인의 대화

“『아세아공론』은 아시아 민족의 단결이나 통일과 같은 협소하고 인색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인류주의의 표징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선정했다. 인류의 행복은 개개인의 행복이 확장된 형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부패한 우리 아시아 자신이 구미인과 비교해 손색없는 인격자가 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 첫걸음으로 우리 아시아인들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서로 잡아먹으려는 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창간호의 ‘잡지명 현상모집’에 쓰여 있듯이 『아세아공론』은 “인류주의와 박애정신을 가지고 아시아인을 각성시키는 것”을 당면 목표로 첫걸음을 내디뎠다.<sup>40</sup>

한편 『타이완청년』 등 재경 타이완인이 주재하는 기관지와 마찬가지로 『아세아공론』도 창간 당시부터 일본 지식인들이 원고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중에서도 와세다대학 관계자들의 기고가 현저하다.<sup>41</sup> 일본인 집필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베 이소오, 오야마 이쿠오, 스기모리 고지로[杉森孝次郎], 다케다 도요시로[武田豊四郎], 사노 마나부[佐野學] 등 교관과 더불어, 야마무로 군페이[山室軍平],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 등 와세다대학 출신자들의 기고도 다수 있었다. 그들 중 대부

40 잡지 『亞細亞公論』의 기본선율에 대해서는 後藤乾一(2009), 「大正デモクラシーと雑誌『亞細亞公論』その史的意味と時代背景」, 『アジア太平洋研究』 12호,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150~160쪽을 참조할 것.

41 紀旭峰(2007), 「植村正久と臺灣——近代日本キリスト者を通じて」, 『問題と研究』 제36권 제6호(11·12월호), 국립정치대학국제관계연구센터, 타이페이.

분은 기독교 활동과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sup>42</sup> 하지만 지면 관계상 일본 지식인과 아시아 유학생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1) 중국인과 타이완인 집필자에 대해

성명이 없는 기고를 제외하고 중국인과 타이완 집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다. 중국인으로는 대계도(戴季陶, 天仇), 부립어(傅立魚), 탕학일, 장창언, 양탁오(楊燾吾), 호중화(胡中和), 왕료인(王了人), 료인(了人, 왕료인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음), 취천생(醉天生, 필명) 등이 있다.<sup>43</sup> 이에 비해 타이완인 집필자는 채배화와 황정충, 왕민천 등뿐이었다.

먼저 유학시기가 발행기간과 달랐던 대계도(니혼대학 전문부 법과, 1909년 중퇴)와 채배화(東京高師, 현 쓰쿠바대학)는 어떤 경위로 원고를 기고했을까? 대계도의 경우는 아마 『아세아공론』의 편집을 담당한 미야자키 류스케(宮崎龍介)의 소개, 알선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계도는 손문을 통해서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을 알게 되고, 그 친교는 도텐의 장남 류스케로 이어졌다. 이런 교우관계가 대계도의 『아세아공론』 기고로 이어진 요인

42 “사회주의에는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의 사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志士仁人적인 유교정신을 도입한 경우와 아베 이소오, 시마다 사부로처럼 기독교 정신을 도입한 경우가 있지만, 일종의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약자를 구제하는 데 열심이었던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遠藤興一(1998), 『田川大吉郎』, 大空社, 184쪽.

43 紀旭峰(2008), 「半植民地中國・植民地臺灣」知識人から見たアジア, 後藤乾一・나경수·紀旭峰 편집해제, 『20世紀日本のアジア關係重要研究資料 亞細亞公論・大東公論』(복각판) 제1권, 龍溪書舎.

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44</sup> 이에 비해 채배화라는 타이완인 집필자는 1915년 일본에 갔는데, 유학 중에 채혜여(蔡惠如)와 임어당 등 타이완의 지방 명사(士紳)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양한 계몽운동에 몰두하는 동시에 아세아공론 잡지 사장 유태경과의 교류를 통해 원고 게재의 기회를 얻었다.<sup>45</sup>

그런데 메이지 시기에 일본에 유학한 대계도와 부림어(메이지대학, 졸업년도 불명)를 제외하고는 다이쇼 시기의 일본 유학 경험자, 특히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 출신 집필자가 많았다. 와세다대학 외에 메이지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의 호중화(1921년 졸업), 니혼대학 전문부 정치과의 왕료인(1921년 졸업) 등을 들 수 있다.<sup>46</sup>

왜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 유학생들이 많이 관여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유학 시기와 『아세아공론』의 발행 기간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아세아공론』과 와세다계열 지식인과의 깊은 연관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아세아공론』 창간 당시부터 미우라 데쓰타로(三浦鍊太郎, 아베 이소오, 오야마 이쿠오, 다카쓰지 히데노부(高辻秀彦)를 위시한 와세다계열 일본인 집필진이 많았던 데다 본사가 와세다 쓰루마키초(鶴

44 대계도의 일본관은 望月敏弘(1999), 「戴季陶の初期日本認識について辛亥革命前後から日本亡命時期を中心に」, 小島朋之·家近亮子 편, 『歴史の中の中國政治近代と現代』, 勁草書房; 嵯峨隆(2003), 『戴季陶の對日本觀と中國革命』, 東方書店 등을 참조.

45 “『亞細亞公論』 주간 유수천과 채배화, 임정록의 친교와 아세아공론에 대한 빈번한 투고는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채배화는 아세아공론사의 이사로 촉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타이완총독부경무국(1939), 앞의 책, 24쪽.

46 興亞院(1940), 『日本留學中華民國人名調』; 周棉 편(1999), 『中國留學生大辭典』, 南京大學出版社, 南京.

卷町, 나카메구로에서 이전)에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와세다대학 유학생이 큰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 2) ‘식민지 타이완’의 지식인이 본 아시아

중국인과 타이완인의 기고를 정리해 보면 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각국의 국내정세와 국제정세를 반영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 둘째, 논설에는 정치경제학과 출신 집필자를 비롯해 전문지식이 논설에 많이 드러나 있다는 점, 셋째, 일본어와 중국어 등 양국어의 원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대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의 중일 관계를 요구하는 ‘반식민지 중국’ 지식인의 논고가 많았던 데 반해,<sup>47</sup> 당시 일본의 식민지하에 놓여 있던 타이완인의 기고는 주로 ‘타이완 내 차별대우’의 철폐를 호소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당시 타이완 지배의 실태가 내지일본에서는 그다지 크게 보도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타이완인에게 『아세아공론』은 내지 일본인에게 ‘타이완총독부의 통치정책’과 ‘타이완 내 차별대우의 실태’를 고발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매체 중 하나였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채배화의 「극동의 평화, 과연 가능할까?」(제1권 창간호), 황정충의 「타이완의 경제적 위기」(제1권 제3호), 왕민천의 「현명한 정치가의 출현을 희망한다(중국어)」(제2권 신년호) 등의 논고는 식민지 타이완의 통치정책의 개선을 논하는 한편, 「국제적 배일」, 「아시아·먼로주의」 등 아시아

---

47 紀旭峰(2008), 앞의 글, 75~80쪽.

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이들 논설은 반드시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논점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그들의 논고를 통해 당시 ‘식민지 타이완’ 지식인의 중국관, 조선관, 일본관, 아시아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황정충의 「타이완의 경제적 위기」는 그 내용이 1921년 총독부의 검열에서 전문 삭제명령이 내려진 「타이완 경제계의 위기와 그 구제」(『타이완청년』 제3권 제5호, 1921)와 「타이완 경제계의 위기와 그 구제(承前)」(『타이완청년』 제3권 제6호, 1921)를 가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정충은 식민지모국본위주의와 식민지분위주의의 우열에 대해 구미의 예를 들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흡수주의 때문에 다수의 식민지를 잃었고, 남은 소수의 식민지는 오히려 거꾸로 본국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태다. 영국은 대체적으로 독립 자급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부담을 면하고, 모국과 식민지가 서로 융합하여 번영하고 있는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진국의 과거 식민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 그러므로 타이완이 그 전철을 밟아온 것은 제국을 위해 타이완을 위해 우려할 만한 일이다”<sup>48</sup>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논고는 『아세아공론』이 경원시해 온 ‘아시아주의’에 대해 ‘대아시아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타이완의 통치방침은 쓸데없이 일부 모국인의 이권부식에만 부심하고, 타이완인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타이완인이

---

48 황정충(1922), 「臺灣の經濟的危機」, 『亞細亞公論』 제1권 제3호(7월호), 25쪽.

농노로 변하고 있는 것은 一視同仁의 황덕이 아니라고 본다. 일시적인 작은 이익을 위해 영원한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제국의 번영을 위함이 아니다. 새로운 영토에 대한 통치는 당연히 정복자의 태도를 버리고 주민에 대해, 정의로우며 만사 공명정대하게 모국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공존공영주의의 성의가 있어야만 제국의 이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써 대국민의 사랑을 여러 나라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주의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49</sup>

황정충이 제창한 ‘만사공명정대’, ‘공존공영주의’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 교수인 아베 이소오도 『다음 시대』에서 제기하고 있다. 아베는 우승열패를 전제로 하는 자유경쟁주의를 비판하면서 “우승열패와 공존공영의 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공존공영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류평등(사해동포주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50</sup>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아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지의 교류’·‘지의 연쇄’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황정충과 동급생이었던 왕민천은 「현명한 정치가의 출현을 희망한다」라는 제목의 원고를 기고했다. 왕민천은 타이완 의회의 설치, 식민지 언론집회의 자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할 것’, ‘당파를 감화시킬 것’, ‘당파에 좌우되지 말 것’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제기한 다음, 유색인종과 백색인종 간의 지위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

49 황정충(1922), 위의 글, 29쪽.

50 安部磯雄(1927), 『次の時代』, 春陽堂(복각판, 安部磯雄著作集 제5권, 學術出版會), 56~73쪽; 紀旭峰(2009), 「安部磯雄の臺灣論大正期と昭和期の臺灣訪問を手がかりに」, 『アジア太平洋研究科論集』17호,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16쪽.

선민족, 일본민족, 한민족 3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현명한 정치가의 출현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則當有超越黨派之毅力 感化黨派之能力 勿爲黨派之所左右 庶可謂賢明之政治家也 故於日本本土 當使普通選舉的實現 卽同此義 而於臺灣則當許設置民選議會 苟能如是 則不但可避特權階級之專橫 而亦可融可和民族之感情也 …… 況觀亞細亞之文明 於今日尙遠遜歐美 誠難自爲庇護 白色人種之每自誇爲優等人種 豈非有特於此 而有有色人種之輒被蔑視 亦豈非有基於此 有色人種不相發奮圖文化之進步 終爲所侮 亦安能免 故於有色人種中 如朝鮮民族日本民族漢民族 實有負指導文化之使命 欲期有色人種與白色人種 有同等文化之地位 非此三民族協同努力 何能達此目的 故欲圖有色人種此進步 不爲白色人種所輕視 宜相援助 不宜相傾陷. ……<sup>51</sup>

한편, 채배화의 「극동의 평화 과연 가능할까」의 논점은 식민지 타이완에 놓여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과 중국’, ‘일본과 조선’, ‘일본과 타이완’이라는 상호관계의 추이에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채배화는 우선, ‘일본과 조선’, ‘일본과 타이완’ 관계의 차이점<sup>52</sup>을 분석하고,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 철폐를 호소하고 있다. 그

51 왕민천(1923), 『希望賢明政治家之出現』, 『亞細亞公論』 제2권 제1호(신년호), 16쪽.

52 “일본과 조선은 함방이다. 나라와 나라를 합의적 형식에 따라 병합한 것으로, 그 理想은 양국 국민의 공존공립에 있었다.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는 조선과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합의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 땅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섬이고 인구는 많지 않으며, 게다가 타이완 사람들은 무기도 없고 그 기질은 원래 평화를 사랑하며 인종적 증오의 감정이 없다”고 하고 있다. 채배화(1922), 「極東の平和果たして如何」, 『亞細亞公論』 창간호(5월호), 27쪽.

리고 극동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화상친’이 불가결한 하나의 요소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논설이 발표되기 전년인 1921년 8월 채배화는 「중일 친선의 요체」(『타이완청년』 제3권 제2호)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일중 친선의 의의·필요·장애·요체에 대해 논한 바 있다.<sup>53</sup> 또 베르사유 강화회의와 워싱턴 평화회의에서 있었던 중일 양국의 격렬한 항쟁에 대해 채배화는 “극동은 극동인의 극동이다. 극동의 건설은 극동인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파괴 역시 극동인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54</sup>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극동은 극동인의 극동이다’라는 주장이 결코 먼로주의와 같은 배외적인 성격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배화가 ‘극동은 극동인의 극동이다’라는 논조를 내세운 진의는 “극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규는 모두 극동인 자신이 만들어 낸 죄업이라고 믿는다. 극동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결코 타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극동의 각 민족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각자의 신변을 점검하고 종래의 미몽에서 깨어나 일치협력하여 철저하게 새로운 다른 길을 걸어 근본적인 평화건설책을 택하지 않으면, 어떠한 외적 원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동의 평화는 절망적이라고 각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나는 극동인의 극동을 소리 높여 주창했지만, 그것은 결코 저 먼로주의의 걸모습을 답습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배외

53 채배화는 중일관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실로 일본 대 조선·타이완의 문제는 일본 대 중국 문제의 양대 시금석이며, 중일관계는 일본과 조선, 일본과 타이완 관계에서 그 연결의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채배화(1928), 『日本國國民に與う植民地問題解決の基調』, 臺灣問題研究會, 139쪽.

54 채배화(1922), 앞의 글, 24쪽.

적 색채는 조금도 띠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책임을 중시하고 그 소재를 명백히 할 것을 주장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sup>55</sup>라는 ‘아시아인의 자기 반성·자기 책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이 ‘극동은 극동인의 극동이다’를 방불케 하는 논조는 1920년 채배화가 발표한 「우리 섬과 우리들」(『타이완청년』 제1권 제4호)에서도 엿보인다.

실로 과거 우리 섬은 대단한 전쟁터였다. 스페인이 물러난 대신 정씨가 의거하였고,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시 滿淸의 정령이 실시되었다. 제국이 영유하기까지 몇 번 쟁탈전이 되풀이되었는지 모른다. 불행하게도 제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경우에는 우리 섬은 황군 비약의 근거지가 될 것이며, 또 때로는 우리의 집들이 모두 적탄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우리 섬은 제국 남방의 鎖鑰이며 군사상의 중요 거점이다. 우리 섬의 정치가 다년간 무인에게 장악된 것은 이 점이 너무 과도하게 중시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여 우리는 결코 유유자적하게 언제까지나 무능력하게 서 있을 수 없다. 타이완은 일본제국의 타이완임과 동시에 우리들 타이완인의 타이완이다. 비바람이 불 때는 들창문을 동여매야 한다. ……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장래의 진정한 생활을 영위할 준비에, 우리의 지력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영민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체력은 충실히 연마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코 군국주의의 말류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완수하기 위한 각오이다.<sup>56</sup> ……

그러나 실제로 채배화가 어떤 문맥에서 ‘타이완은 일본제국의 타이

55 채배화(1922), 앞의 글, 24쪽.

56 채배화(1920), 「我島と我等」, 『臺灣青年』 제1권 제4호, 19~20쪽.

완임과 동시에 타이완인의 타이완'이며, '극동은 극동인의 극동'이라고 제창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5. 맺음말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와 '아시아'는 다양한 시점에서 이야기되어 왔다. 특히 일본의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서는 “전후 일본 학계의 ‘동아시아’ 개념은 의식하든 하지 않든,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가 이론화한 동아시아 세계론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sup>57</sup>는 지적처럼,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이 하나의 정설로서 중요시되어 왔다. 한편, 1960년대에 전후 일본의 아시아주의 연구 열풍의 도화선 역할을 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미야자키 도텐, 기타 잇키[北一輝], 손문 등의 아시아론을 비교했다. 최근에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는 근대 이후의 동아시아 개념과 동아시아 질서의 편성 과정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개념의 재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58</sup> 이에 비해 아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는 “일본이 지의 연결고리가 된 것은, 거기서 아시아 각지의 사람들이 만날

57 李成市(2008), 「古代東アジア世界論再考地域文化圏の形成を中心に」, 『歴史評論』 697호(5월호), 校倉書房, 39쪽. 또 西嶋定生の ‘동아시아 세계’와 ‘한자 문화권’에 대해 西嶋定生·이성시 편(2000), 『古代東アジアと日本』, 岩波書店을 참조할 것.

58 子安宣邦(2003), 『「アジア」と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近代日本のオリエンタリズム』, 藤原書店; 子安宣邦(2008), 『「近代の超克」とは何か』, 青土社 등이 있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사상연쇄와 아시아의 연대의식을 창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59</sup>는 전제 아래, 근대 아시아의 ‘지식인의 연대’와 ‘지식의 연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시아를 다시 살펴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겨우 9호를 끝으로 폐간을 맞은 『아세아공론』을 두고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국가’·‘한 민족’이라는 틀을 넘어 아시아 지식인에게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청일전쟁 후 서로 다른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과정을 거쳐온 중국인과 타이완인에게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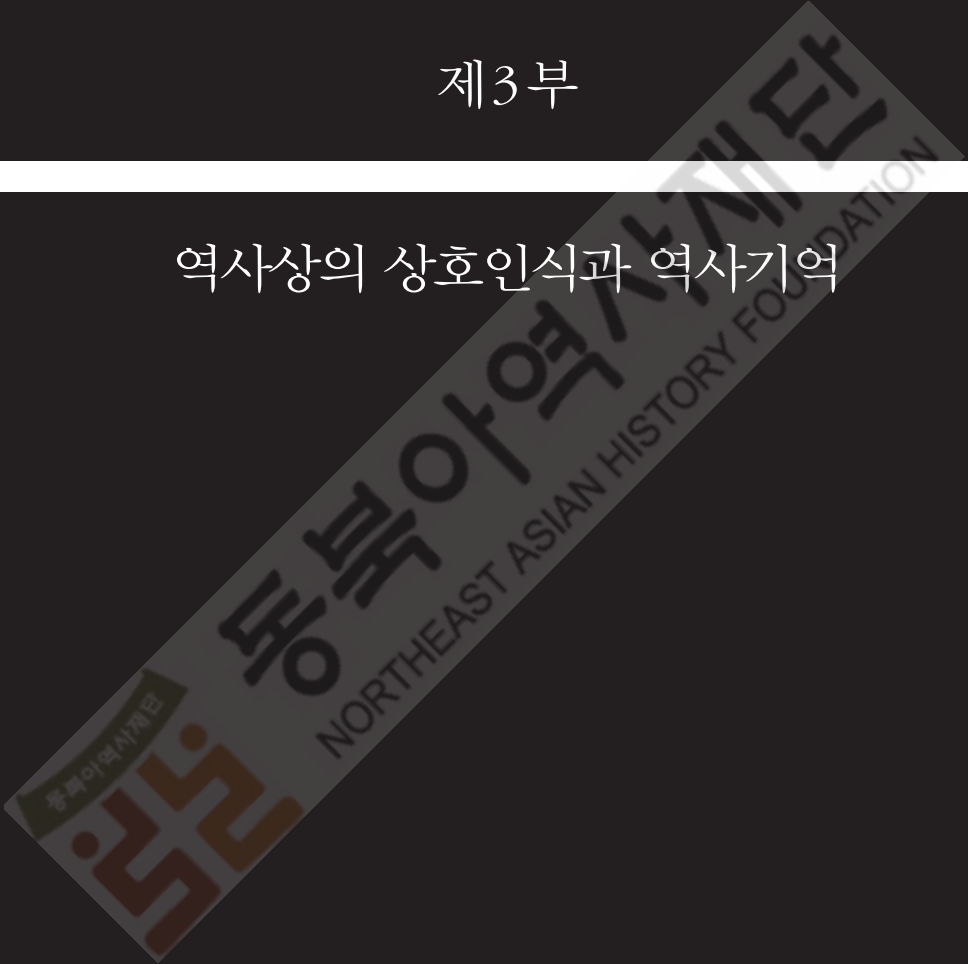
중전으로부터 이미 6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BC급 전범,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 영토문제를 비롯해, 많은 아시아인은 아직도 식민지 통치와 대동아전쟁 등이 남긴 유산에 농락당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역사에 대한 기억과 역사교육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 북한, 중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역사문제가 ‘보이는 벽’·‘보이지 않는 벽’의 형태로 우리들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가운데, 1920년대 초반에 ‘인류주의’를 내걸었던 『아세아공론』은 보다 열린 아시아를 지향하는 데 하나의 방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닐까.

※ 부기: 조사를 위한 열람을 허락해 주신 와세다대학 대학사자료센터와 오슈 시립사이토마코 토기념관(奥州市立齋藤實記念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59 하지만 그 후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나 망명자가 일본을 떠나고, 중국과 조선의 유학생이나 망명자의 반일 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을 지의 연결고리로 삼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유학 열기도 차츰 식어갔다”고 한다. 山室信一(2001),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 岩波書店, 350~355쪽.

## 제3부

### 역사상의 상호인식과 역사기억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근세 일본의 조선 인식

## - 임진왜란의 기억을 중심으로

미야자마 히로시(宮嶋博史, 성균관대)

### 1. 머리말

일본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요토미[豊臣] 정권의 성립을 가지고 중세와 근세를 나누는 분수령으로 간주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임진왜란(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전쟁)은 근세 초기에 일어난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커다란 사건인 메이지유신을 전후해서 ‘정한론’이 나오고, 결국에는 일본의 한국 지배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일본 역사에서 근세와 근대의 시작은 모두 조선=한국에 대한 침략과 깊이 결부되어 있었는데, ‘메이지’ 일본의 지도자들도 조선=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진하는 데 항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고사를 의식하고 있었다. 이런 사태는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었지만, 왜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역사가 되풀이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하나의 실마리로, 근세 일본에서 임진왜란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기억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임진왜란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있지만, 먼저 그것들을 종류별로 개괄한 후에 무사들이 작성한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쓰마<sup>[薩摩]</sup>의 시마즈씨<sup>[島津氏]</sup>나 조슈<sup>[長州]</sup>의 모리씨<sup>[毛利氏]</sup>는 임진왜란의 주요 참전자였을 뿐만 아니라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한국 침략을 주도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무사들의 임진왜란 기록을 검토하는 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임진왜란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패배였다고밖에 할 수 없지만, 일본이 임진왜란을 과연 패배로 인식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과 관련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임진왜란 전후에 조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이 어떤 조선 인식을 바탕으로 일어났으며, 또 임진왜란 후에는 조선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대<sup>(對)</sup>조선=한국 정책을 역사적으로 규정한 조선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2. 임진왜란에 관한 각종 기록

근세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에 관하여 많은 기록이 작성되었고, 또 그 일부는 간행되어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다. 그것들을 주로 저자 또는 편자의 유형에 따라 구별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민간인의 기록인데, 대부분은 간행되지 않았지

만, 그중에는 간행되어 널리 읽힌 서적도 적지만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막부나 다이묘[大名]가 편찬한 것으로, 임진왜란에 직접 참가한 무사나 그 자손들의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료이다.

세 번째 유형은 위의 두 개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임진왜란에 관한 조선 측의 기록을 원문 그대로나 혹은 일어로 번역해서 출간한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조선 정부의 중추에서 전쟁을 지휘했던 유성룡이 전후에 집필한 『징비록』은 1695년 일본에서 간행된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도 몇 번에 걸쳐 간행·번역되었다. 1695년 에도[江戸]에서 출판된 『징비록』의 서문은 저명한 일본의 유학자였던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이 썼다. 가이바라는 서문에서 고전을 인용해, 병(兵)에는 의병·응병(應兵)·탐병(貪兵)·교병(驕兵)·분병(忿兵)의 5종류가 있으며, 의병과 응병은 군자의 용병이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은 탐·교·분의 병으로서 천도(天道)가 미워하는 바로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나아가 대국이라 하더라도 호전적이면 멸망하고, 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위험하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조선은 후자에 해당하며, 국가가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바라의 평가는 비교적 객관적인 것이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패배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견해는 극히 소수에 속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오제 호안[小瀨甫庵]의 『태합기(太閤記)』, 다케우치 가쿠사이[竹内確齋]·오카다 교쿠잔[岡田玉山]의 『회본태합기(繪本太閤記)』, 호리 교안[堀杏庵]의 『조선정벌기(朝鮮征伐記)』, 시모코베 슈스이[下河邊捨水]의 『회본조선정벌기(繪本朝鮮征伐記)』, 가와구치 조쥬[川口長孺]의 『정한위략(征韓偉略)』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특히 『태합기』와 『회본태합기』

기』는 도쿠가와 시대에 인구에 회자되어 일본인의 임진왜란관, 조선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가신이었던 후루하시 유겐[古橋又玄]이 저술한 『청정기(清正記)』도 같은 유형에 속하는 기록이다. 이 기록들은 사실과 픽션을 섞어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공적을 찬양하는 입장에서 쓰고 있으며, 임진왜란이나 그것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서술한 서적들은 모두 간행된 것이지만, 민간인이 기록한 대부분은 간행되지 않고 집안에 전래되어 오다가 최근의 연구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임진왜란 때 의승(醫僧)으로 종군했던 교넨(慶念)이라는 인물의 체험기록인 『조선일일기(朝鮮日日記)』를 들 수가 있다. 이 일기에는 임진왜란의 비참함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데, 나이토 슌포(内藤雋輔)가 발굴,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1</sup>

또 구라치 가쓰나오[倉地克直]도 1669년에 오카야마(岡山)·이케다(池田)번에서 작성된 「강산번가중제사가보오음기(岡山藩家中諸士家譜五音寄)」를 이용하여,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일반 무사들의 가보 중에서 임진왜란에 종군한 인물들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sup>2</sup> 구라치는 임진왜란의 호칭으로 국내의 전투와 동일한 호칭인 ‘고려진(高麗陣)’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임진왜란이 외국과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본이라는 ‘민족적’ 자각이나 조선에 대한 멸시라는 측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의식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다.

1 慶念 著, 内藤雋輔(1965), 「朝鮮日日記」, 『朝鮮學報』 35.

2 倉地克直(2001), 『近世日本人は朝鮮をどうみていたか』, 角川選書.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기록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임진왜란에 관한 각종 일본 측 기록의 특색으로 하나만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임진왜란에 관한 공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요토미 정권이나 도쿠가와 정권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일본에서는 국가의 입장에서 임진왜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적인 기록이 일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서 ‘정사(正史)’의 편찬이 고대의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역사라는 학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역사를 기록한다는 행위도 매우 중시되었는데, 그 단적인 예가 ‘정사’ 편찬이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정사 편찬사업은 주변 지역에도 수용되어, 조선과 베트남에서도 왕조가 망하면 그 왕조의 정사를 편찬하는 것이 새로운 통치자의 의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유교문화권에 한 다리만 걸쳐 놓고 있던 일본에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동아시아 지역과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고대 일본에서는 『일본서기(日本書記)』를 위시해서 정사로 간주할 수 있는 서적이 몇 차례 편찬되었지만, 율령국가가 쇠퇴하면서 정사 편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10세기 이후에는 정사가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이러한 차이는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조선에서는 『선조실록』이라는 기본사료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유성룡이나 이순신 등 임진왜란의 최고 지휘자들이 직접 쓴 기록이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공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이 직접 집필한 기록도 극히

단편적인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사들이 교양이 없었다는 점, 도요토미 정권이 임진왜란 후에 곧바로 붕괴되어 도쿠가와 정권으로 넘어간 점 등도 그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편찬하는 전통이 일본에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조선 전기의 『실록』을 복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후대에 남기는 것에 대한 조선의 이러한 열의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상황은 완전히 대조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역사서 편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이 일본의 패배였다는 인식도 가질 수 없게 만든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 3. 도쿠가와막부와 다이묘가 편찬한 공적 기록

다음으로 임진왜란에 관한 각종 기록 중에서 공적인 성격을 갖는 것, 즉 도쿠가와막부나 근세의 다이묘 가문에서 편찬한 것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막부의 기록으로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관정중수제가보(寬政重修諸家譜)』(이하 『寬政家譜』라고 약칭함)이다. 『관정가보(寬政家譜)』는 1799년에 막부의 명령에 따라 편찬이 시작되어 1812년에 완성된 총 1,52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가계기록이다. 막부는 이보다 앞서 『관영제가계도전

『寛永諸家系圖傳』을 편찬한 적이 있었는데, 『관정가보』는 이를 대폭 보충한 것으로 도쿠가와 시대 최상급 무사들의 가계와 개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편찬은 각 다이묘와 하타모토〔旗本〕에게서 제출받은 가보를 토대로 하여, 그 진위를 막부가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부의 공적 사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정가보』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도쿠가와 시대 중기에 존재하던 다이묘와 하타모토의 가계이며, 가계가 단절된 가문은 그 지류가 존속되고 있는 가문에 한해서, 가계에 대한 사료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임진왜란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나 가토 기요마사, 그리고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등의 가계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관정가보』는 가보라는 명칭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족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의 가보는 기본적으로 방계자손을 제외하고 있는 점, 정부의 명으로 편찬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이나 중국의 족보와 구별되고, 류큐〔琉球〕의 가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류큐의 가보와 공통되는 점이지만, 중요한 개인에 관해서는 극히 상세한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개인기록 부분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술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의 도요토미 군대는 전체가 9개 부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각 부대의 지휘자는 제1대부터 순서대로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우키타 히데이에, 도요토미 히데카쓰〔豊臣秀勝〕였다. 그 밖의 중요한 참전자로서는 소 요시토모〔宗義智〕,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오토모 요시무네〔大友吉統〕,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호소카와 다다오키〔細川忠興〕 등

이 있으며, 또 수군의 중심적 인물로서는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도도 다카토리(藤堂高虎),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주요 참전자 중에서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우키타 히데이에, 도요토미 히데카쓰 등 4명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관정가보』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도쿠가와 시대의 임진왜란에 관한 공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로다 나가마사, 소 요시토모, 시마즈 요시히로, 구키 요시타카, 도도 다카토리, 와키자카 야스하루, 가토 요시아키 등의 전기 부분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의 행적이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다.

『관정가보』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의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의 특징은 대부분이 승전 기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군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분로쿠[文祿] 원년 조선의 역 때, 총대장은 우키타 히데이에였고, 육군의 대장은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등이었다. 수군의 대장은 와키자카 야스하루 및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이었다. 4월 12일에 나고야[名護屋]를 출발하여 부산포에 도착, 거기서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 몇 군데의 성을 공략해 격파하고, 얼마 후 각 군이 서울로 쳐들어가 우키타가 진을 쳤다. (그런 도중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수만의 적진을 격파하고 1천여 개의 수급을 얻고 생포한 자가 200명에 이르렀다. …… 게이초[慶長] 2년, 다시 그곳을 정벌하고자 여러 장수들과 함께 바다를 건넜다. …… 唐島 앞에 있는 판옥선이 걸핏하면 우리 군선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방해했다. 우선 이것을 쫓아내려고 웅천에 가서 큰 배를 만들고, 각 군이 일체가 되어 종과 북의 신호에 맞춰 진격하거나 후퇴하며 적을 물리치기로 약속을 한 후, 앞뒤를 다투어 적선을 공격하여 순식간에 적선 수십 척을 빼앗

었다. 나머지 배들도 모두 패배하고 바다 쪽을 향해 도망가는 것을 우리 군이 쫓아가 물리쳤다. 이러한 사정이 나고야에 알려지자 다이코 [太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서한을 보내왔고, 도소구[東照宮, 도쿠가와 이에야스]께서도 공격을 치하하는 서한을 보내셨다.<sup>3</sup>

그 밖에도 명나라 군대가 지키고 있던 사천성을 공격하여 공격을 세운 이야기와 울산에서 농성하던 가토 기요마사군을 구출한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공격만이 기술되어 있고, 이순신이 지휘하던 수군과 싸워서 패배한 이야기 등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와키자카 야스하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승리한 기록, 공로를 세운 기록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불명예스런 기록으로서는 오토모 요시무네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분로쿠 2년 조선의 역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대군을 이끌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키고 있는 평양성을 공격했다. 고니시는 요시무네와 구로다 나카마사 등에게 사람을 보내어 원군을 청했으나, 요시무네는 명나라 군대의 형세에 놀려, 가서 구원하지 않았다. 다이코는 이를 전해 듣고 매우 화를 내면서, 요시무네의 행동은 일본의 치욕이라며 영지를 빼앗아 사타케 요시노부[佐竹義宣]에게 주었다.<sup>4</sup>

요시무네가 이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서 처벌받은 것은 다른

3 『寛政家譜』, 937권, 藤原氏支流 脇坂條.

4 『寛政家譜』, 114권, 清和源氏 大友條.

장수들에 대한 본보기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그의 영지였던 붕고(豊後)를 도요토미의 직할령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sup>5</sup> 어쨌든 『관정가보』 속에서 드물게 불명예스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오토모가 이 처벌을 계기로 몰락하여, 도쿠가와 정권 아래서 존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생각된다. 바꿔 말하면 도쿠가와 시대에 다이묘로서 존속한 가문의 경우, 임진왜란·정유재란에서의 패배나 불명예스런 기록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관정가보』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마즈의 사쓰마번과 모리의 조슈번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 두 번은 임진왜란에 참가한 후 도요토미의 신하로서 도쿠가와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시대에 존속했을 뿐만 아니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메이지유신의 중심세력으로서 근대 일본을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한국 침략을 선도했기 때문이다. ‘정한론’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사쓰마번 출신이며, 초대 한국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와 초대 조선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는 조슈번 출신이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출군하였는데, 『관정가보』에는 그의 공적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108권). 특히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공격한 것과 사천에서 명나라 장수 동일원(董一元)과 싸워 공적을 세운 것이 특기되어 있다. 시마즈의 경우 이뿐만 아니라 『정한론』<sup>6</sup>이라는 서적을 독자적으로 편찬하고 있는데,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의 문서사료도 많이 수록하고 있어 시마즈가 편찬한 공적인 기록이란 성격을 갖고

5 池上裕子(2002), 「織豊政權と江號幕府」, 『日本の歴史』 15, 講談社.

6 島津久通·高柳行文 편, 1671년 간행.

있다. 편자의 한 사람인 시마즈 히사미치(島津久通)가 시마즈의 족신(族臣)이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이 기록은 나름대로 사료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승리한 측면만 기록하고 있다. 이 전쟁이 어떤 목적으로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임진왜란의 교훈을 얻기 위해 조선군의 패배와 내부의 혼란 등도 숨김없이 나와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 대부분이 마치 승리한 전쟁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에 관한 기억이 축적되어 갔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다시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진하려 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이 ‘대륙용비’의 선례로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그것이 뼈아픈 패배였다는 사실은 망각되어 버렸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 속에서 모리의 경우는 약간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관정가보』의 모리 데루모토 부분에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관해 극히 간략한 기술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데루모토가 조선에 건너간 이듬해에 병이 나서 양자인 히데모토(秀元)가 대신 출병한 것, 정유재란 때도 이키(壹岐)까지만 가고 직접 참전하지 않았던 탓이겠지만, 정유재란 때의 울산성 농성전에서 데루모토의 가신들이 다수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임진왜란이 모리에게 쓰라린 경험이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또 모리의 이러한 입장은 어쩌면 임진왜란 때 조선에 건너간 데루모토가 히데요시에게 보낸 보고서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인식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른다.

이 나라의 넓이는 일본보다 넓습니다. 이번에 동원한 사람들로는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말이 통하지 않아 도처에 통역이나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여 매우 어렵습니다. …… 이대로 중국으로 가는 것은 사람이 없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편지를 오사카에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도도 같이 넣습니다.<sup>7</sup>

구라치가 지적하듯이 일본 장수들은 임진왜란을 국내 전투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데루모토는 그곳이 일본 국내와는 전혀 다른 이국땅이라는 것을 서전에서 깨달았던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일본군은 조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국토의 크기나 지리, 인구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채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임진왜란 당시 양국의 인구수는 역사상 가장 근접했던 것으로 보이며, 데루모토의 인식은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데루모토와 같은 견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의 장수들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기만 할 뿐, 개별 전투에서는 대부분 승리를 거두면서도 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다.

#### 4. 아라이 하쿠세키의 인식

다음으로 공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임진왜란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

<sup>7</sup> 「嚴島文書」, 『廣島縣史』 古代中世資料集 3; 朝尾直弘(1993), 「16世紀後半の日本」, 岩波講座 日本 역사 11에서 재인용.

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쿠세키는 유학자로, 도쿠가와 가문을 섬겨 막부의 중심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통신사와의 관계를 고치려고 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도쿠가와 시대 조선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쿠가와와는 직접적으로 임진왜란에 대해 공적인 총정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하쿠세키의 임진왜란관을 통해 도쿠가와 정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쿠세키의 대표적인 역사론으로서 저명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독사여론(讀史余論)』이다. 이 책은 섭관정치의 시작부터 도쿠가와 정권 성립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 역사를 크게 귀족(公家)의 시대와 무가의 시대로 나누고, 귀족의 시대가 아홉 번 변하여 무가의 시대가 되었고, 다시 무가의 시대가 다섯 번 변하여 도쿠가와 정권이 수립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도쿠가와 정권의 입장에서 집필되어 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는 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 비판은 히데요시의 국내정치에 관한 것일 뿐 임진왜란에 관한 비판은 없다.

『독사여론』은 끝부분에서 「히데요시, 천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히데요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필부에서 일어나 천하를 손에 넣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를 칭송한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지 시운에 잘 편승했기 때문일까?”라며 히데요시가 천하를 손에 넣은 것에 대해 냉소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히데요시 정권이 2대라는 단명으로 끝난 원인으로서 다섯 가지 실정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조사를 엄격하게 한 것, 엄벌주의를 채용한 것, 신하를 신용하지 않은 것,

무가의 관위가 높아진 것, 사치를 한 것 등이다. 그리고 도쿠가와 정권에서는 이러한 히데요시의 통치와 반대의 정책을 취한 것을 지적하며 도쿠가와 체제를 옹호하고 있지만, 도요토미 정권의 치명상이 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독사여론』에서는 임진왜란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하쿠세키의 임진왜란관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번한보(蕃翰譜)』이다. 『번한보』는 하쿠세키가 섬겼던 고후(甲府) 번주 도쿠가와 쓰나토요(徳川綱豊)의 명령에 따라 집필된 것으로, 337개 다이묘 가문의 유래와 행적을 기록하고 계보도 수록했다.

『번한보』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사람은 가토 요시아키, 도도 다카토라, 모리 데루모토, 시마즈 요시히로, 나베시마 나오시게, 하치스카 이에마사,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와키자카 야스하루, 소 요시토모, 후쿠시마 마사노리, 가토 기요마사 등이며, 고니시 유키나가, 우키타 히데이에를 제외하고 주요 인물이 거의 모두 망라되어 있다. 문제는 각 인물의 묘사인데, 기본적으로 『관정가보』와 마찬가지로 승전 기록으로 딱 차 있다. 『관정가보』와의 차이점은 개별 전투에 관한 고증 부분에서 사료에 따라 날짜가 틀린 부분에 대해 추론을 더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차이점은 하쿠세키의 유학자로서의 ‘합리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임진왜란 자체에 대한 비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직접 참전하지 않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임진왜란에 결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히데요시가 조선 공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열었던 오숙로(五宿老), 삼소숙로(三小宿老), 오봉행(五奉行)과의 회의에서 오숙로의 필두였던 이에야스 혼자 그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따라서 도쿠가와 정권으로서는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으며, 그런 사정이 하쿠세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

하쿠세키뿐만 아니라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 유학자들은 ‘무(武)’보다 ‘문(文)’이 우위에 서 있다는 유교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도요토미와 도쿠가와 정권을 비판하는 일은 없었다. 일단 ‘무’의 지배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仁政)’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공통된 자세였던 것이다. ‘무’를 통한 전국통일이라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기도된 임진왜란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유학자로서 철저히 못한 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 5. 메이지유신 이후의 전망

막부 말기가 되어 일본이 서구로부터 위협받는 가운데 정한(征韓) 주장이 다시 고조되어, 그것이 메이지유신 정권으로 계승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병합하여 초대 조선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고바야카와, 가토, 고니시가 이 세상에 있었다면 오늘 밤의 달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시를 읊조린 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옹비의 선구자로 소생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임진왜란에 대한 근세의 인식, 즉 임진왜란에 대한 비판의 결여가 초래한 결과였다.

임진왜란에 대한 근세인식과 근대인식의 공통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1924년에 참모본부에서 편찬, 출판된 『일본역사 조선역(日

『本歷史朝鮮役』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경과표, 부표, 부도(附圖)로 이루어진 본권과 문서, 보전으로 되어 있는 보권의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근세에 편찬된 임진왜란에 대해 기록한 각종 서적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대부분이 승전기록이며, 이 전쟁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판단에 의거해 시작된 것인지, 소기의 목적이 왜 달성되지 못했는지 등의 기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보전의 마지막 「조선역의 평(評)」 부분에 몇 가지 사료를 싣고 있지만, 「무가사기(武家事紀)」에서 발췌한 사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히데요시는 만년에 이르러 조선을 정벌하였는데, 그 용맹함이 고금에 비할 바가 없었다. 조선이 우리나라의 속국이며 번屏(藩屏)임은 옛날 진구(神功)황후가 삼한을 정벌한 이래 대대의 기록들에 명백하다. 그 후 우리나라의 王威가 쇠퇴하고, 무가의 교화가 사해에 골고루 미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조선은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다만 친교만 맺고 있었다. 히데요시가 세상을 통치하자 동서남북이 무화(武化)를 흠모하여 복속하지 않는 賊臣이 없었다. 이에 히데요시는 조선을 정벌하려고 하셨다. 조선은 본래 나약한 나라여서 단 한번의 싸움에 패배하여, 국왕은 도망가고 왕자는 생포되었다. 그때 조선을 정벌한 장수들이 뜻을 모아 충의를 다했다더라면,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大明國도 패망에 이르렀겠지만, 의견이 분분하고 장수들이 불화했기 때문에 이국의 계략에 빠졌다. ……

『무가사기』는 아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저술이며, 그의 견해가 참모본부=일본군부의 견해였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다양하게 존재했던 임진왜란에 관한 평가 중에서 『무가사기』의 평가를 일부러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참모본부의 입장을 은근히 나타내는 것이다. 유학자인 야

마가 소코의 임진왜란관도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근대 일본에서도 이러한 아마가와 같은 견해가 큰 영향을 발휘했다.

## 6. 현재의 문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원인에 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여러 견해가 있어서, 현재도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지와 과대망상에서 시작된 극히 무모한 기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근세에서 근대까지의 임진왜란관은 극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센고쿠(戰國)의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국내통일을 달성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에 대한 높은 평가와 임진왜란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종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병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통일을 성취하기 전까지의 히데요시는 아주 좋아하지만, 그 이후의 히데요시는 전혀 평가할 것이 없다는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견해는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무가사기』가 적절하게 말하고 있듯이, 무가에 의한 통일정권의 성립이 곧바로 해외침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통일정권의 성립이 동아시아 전체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메이지유신이라는 변혁이 동아시아 세계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렸다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청말 중국의 ‘아시아’론에서 이어진 ‘역사기억’

– ‘타자’인 일본과 조선을 함께 논함

장칭(章淸, 중국 푸단대)

이 글은 청말(淸末) 중국에서 ‘아시아(亞洲)’를 논한 것에서 이어진 ‘역사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말 중국의 아시아론과 관련한 기왕의 연구성과가 많기는 하지만, 주로 ‘아시아’ 자체, 특히 일본에서 전개된 것을 대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sup>1</sup> 내가 보기에, 청말 ‘아시아’론을 검토하는 것은 당시에 ‘세계’를 인식하는 역사 과정으로서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필경 ‘아시아’ 언설은 ‘천하(天下)’가 ‘만국(萬國)’으로 전환된 과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또한 청말 ‘아시아’의 ‘타자’, 즉 조선과 일본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때, 개별 사상가들의 언론을 초월하여 다른 분야의 텍스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이 분야의 연구로는 葛兆光(2003), 「想像的和實際的：誰認同“亞洲”？—關於晚清至民初日本與中國的“亞洲主義”言說」, 『臺灣大學歷史學報』, 제30기 참고. 최근 연구성과로는 孫江의 「“東洋”的變遷—近代中國語境裡的“東洋”概念」과 黃東蘭의 「“亞洲”的誕生—近代中國語境裡的“亞洲”概念」을 참고. 모두 孫江(2008), 『新史學(第二卷)—概念·文本·方法』, 北京中華書局, 3~26, 27~46쪽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역사기억’을 연장해 주는 특수한 매개 형식인 ‘책문(策問)’과 교과서를 빌려 ‘타자’인 조선과 일본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역사의 기억’이 청말에 환기된 데는 나름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만하다. 그 배경에는 “3천 년 동안 전례가 없던 대변국(大變局)”을 맞이하여 ‘기억’의 ‘창고’가 널리 개방되었던 것이 있고, 다음의 두 요인도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그 하나는 ‘반만(反滿, 청나라 만주족에 대한 항거)’을 통해 촉발되어 한족(漢族)을 회복하자는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방되었던 중국 역사에 관련한 기억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탐색한 것은 모두 중국의 역사기억이 이어진 몇몇 방향을 드러내 주는 것이었다.<sup>2</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외부적 요인’을 ‘아시아’ 인식을 촉발한 것으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특수한 매개형식[책문과 교과서]에 주목하여, 청말 중국의 ‘역사기억’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는 새로운 시야를 확보했는가를 살펴보겠다. 이때 핵심은 ‘책문’이든 ‘교과서’이든 모두 특수한 의미를 가졌다는 점이다. ‘책문’은 과거에 응시한 이들의 답안으로, ‘질문[問]’을 설정한 것이든, 그 질문에 응하여 ‘정책[策]’을 제시한 것이든 모두 정부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대체로 고수하였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지를 체현한 산물이다. 이에 근거하여 ‘역사기억’이 이어져서 어떻게 청말 사상변천의 상징을 구성했는가도 드러낼 수 있다. 중요한 것

2 王汎森은 청말 역사기억의 부활과 의복양식 등과 같은 생활전통의 은밀한 부활이 章太炎을 위시한 지식인들이 현실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王汎森(1996. 9), 「清末의歷史記憶與國家建構－以章太炎爲例」, 『思與言』 제34권 제3기, 1~18쪽]. 沈松僑는 청말 지식인들이 구축한 중국의 ‘민족영웅’ 계보를 통해, 역사서사와 國族 상상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沈松僑(2006. 6), 「振大漢之天聲－民族英雄系譜與晚清的國族想像」,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제33기, 77~158쪽].

은 ‘전통’ 혹은 ‘역사’가 어떻게 ‘발명’되고 ‘역사의 기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졌는가이다.<sup>3</sup>

## 1. ‘천하’ : ‘아시아’의 결핍

이 질문은 역시 소위 ‘천하(天下)’에서부터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찍이 맹자(孟子)는 “제후의 세 가지 보물은 곧 토지·인민·정사(諸侯之寶三, 土地·人民·政事)”라고 하였다.<sup>4</sup> 중국의 전통적 유산에서 정치질서에 대한 안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오늘날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곧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이미 서구 정치학에서 토지·인민·주권으로서 ‘국가’의 개념을 설정한 견해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그러나 ‘천하’, ‘중국(中國)’과 ‘사이(四夷)’를 구분한 것 또한 이 담론이 현대사회가 ‘국가’ 개념을 정의하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이는 구연우(顧炎武, 1613~1682)가 ‘망국(亡國)’과 ‘망천

3 Eric Hobsbawm and Terence eds.(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edict Anderson(1991),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revised edition), London : Verso.

4 『孟子·盡心下』에 따르면, “諸侯正其封疆, 不侵鄰國, 鄰國不犯, 寶土地也. 使民以時, 民不離散, 寶人民也. 修其德教, 布其惠政, 寶政事也”라고 하고 있다. 焦循(1987), 『孟子正義』, 北京 : 中華書局, 1001쪽 참고.

5 余英時(1990), 「國家觀念與民族意識」, 『文化評論與中國情懷』, 臺北 : 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 18쪽 참고.

6 葛兆光是 여러 지도를 통합하여, ‘천하’에 대한 상상과 ‘중국’에 대한 인식을 명시했다[葛兆光(1999), 「天下, 中國與四夷—古代中國世界地圖中的思想史」, 『學術集林』 제16권, 上海遠東出版社 참고].

하(亡天下)’를 논한 『일지록(日知錄)』 구절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다. “망국이 있고, 망천하가 있다. 망국과 망천하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역성(易姓)하여 연호를 바꾸면 이를 망국이라 이른다. 인의가 땅에 떨어져 금수를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장차 서로 잡아먹기에 이르면, 이를 망천하라 이른다. …… 그러므로 천하를 보전(保天下)할 줄 알게 된 후에야 그 나라를 보전(保其國)할 줄 알게 된다. 나라를 보전한다는 것은 그 군주와 그 신하가 육식자(肉食者)와 더불어서 그것을 도모하는 것이고, 천하를 보전하는 것은 필부 가운데 천한 자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7</sup> 이 구절은 광범위하게 인용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도(道)가 세(勢)보다 존귀하다”는 이상주의를 강화하였고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중국 문화가 왕조 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체현해 내었다.

천인커(陳寅恪, 1890~1969) 역시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교체기에 온몸으로 부딪친 사인(士人)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사인들의 ‘품행의 고저’와 ‘학문의 갈래’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sup> 이 또한 학자들이 강조한 바인데, 고대 중국에서는 주로 “중국을 일정한 정치적 강역(疆域)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시스템으로 바라보았고”, 과거의 ‘천하’라는 어휘 역시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각각 오늘날 의미의 ‘세계’와

7 顧炎武, 『日知錄』卷十三, “正始”. 이는 黃汝成(1986), 『日知錄集釋』, 長沙岳麓書社, 471쪽에 근거했다.

8 陳寅恪(2001), 「吾國學術之現狀及清華之職責」, 『陳寅恪集·金明館叢稿二編』, 北京三聯書店, 361~363쪽.

‘중국’에 대응한다.<sup>9</sup> 첸무(錢穆, 1895~1990)는 ‘나라(國)’와 ‘천하(天下)’의 의미를 연구한 글에서, 이를 각각 ‘심장으로 아는 것’과 ‘눈과 귀로 아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sup>10</sup>

어떻게 읽어내든 관계없이, ‘천하’는 중국 문화 속에서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고, 또한 사인의 역할 및 신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소위 “천하에 도가 있다(天下有道)”는 것은 바로 사인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자 발언의 주춧돌을 구성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청말의 새로운 언설 환경 속에서 ‘천하’에 대한 논변들을 검토하겠다.

이어서 청말 과거제도 개혁 속에서 강화된 시험 체재인 ‘책문’을 살펴보고,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다. ‘책문’은 예전부터 있었던 시험 체제로, 그 역사는 심지어 과거보다도 앞선다. 역대 장원 전시(殿試)를 보면 ‘천하’를 시제로 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소위 “무기를 보관하고 학문을 닦는다(偃武修文)”라든가 “덕으로 천하를 교화한다(德化天下)”든가 하는 것들은 바로 ‘천하’가 지닌 문화적 함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책문’의 경우 비록 구체적으로 ‘천하’를 논술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더라도, 그것

9 邢義田(1981), 「天下一家—中國人的天下觀」, 劉岱總 主編, 『中國文化新論·根源篇』, 臺北: 聯經出版公司, 425~478쪽; 羅志田(1996. 9), 「先秦的五服制與古代的天下中國觀」, 『學人』 제10집.

10 其言曰: “余幼時備聞國人譴責古人, 謂其閉關自守, 不知有天下, 而妄謂國之外有天下. 但如中國之萬里長城, 固可謂其閉關自守, 然終不得謂中國古人不知長城外之有異民族同居此天下. 唯能於天下內閉關自守, 則乃中國文化之長處, 而非中國文化之短處. 豈西方之帝國主義資本主義所能比. 若謂中國古人不知有西歐, 則此乃耳目之知, 非心胸之知. 當時之西歐人, 又豈知有中國.” 錢穆(1998), 「晚學盲言·國與天下」(上), 『錢賓四先生全集』 第48冊, 臺北: 聯經出版公司, 418쪽 참고.

을 드러내는 방식은 매우 두드러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도대체 무엇을 ‘천하’라 일컫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천하’가 결코 지리적으로 인식되는 것도 아니지만, ‘천하’가 가진 문화 상징적인 의의가 제왕 언설(帝王言說)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소위 전시 책문은 대부분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가 문제를 내리기를[奉天承運, 皇帝制曰]”로 시작하는 것 외에, 왕왕 다음과 같은 대동소이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짐이 대통을 이어받아 만방을 위무하고[朕紹承大統, 撫禦萬邦]”라든지 또는 “짐이 동방의 비기(丕基, 근본)를 밝게 이어서, 천하[寰宇]를 위로하고 편안케 하니[朕寅紹丕基, 撫綏寰宇]” 또는 “짐이 홍서(洪緒, 위대한 질서)를 이어 천하[寰宇]를 통솔하니[朕寅承洪緒, 統馭寰宇]”하는 식이었다. 비록 표현은 약간씩 다를지라도, 하나같이 두 개의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권력의 기원이 통(統)과 서(緒, 근본되는 실마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통치 범위를 강조한다는 점이였다. 이렇게 ‘천하’(또는 ‘寰宇’나 ‘萬邦’과 같은 표현) 역시 일종의 상징이 되었다. 게다가 제왕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러한 흐름 아래, 사인(士人)도 마찬가지로 인식하였다.<sup>11</sup> 그러나 천하에 대한 ‘장원책(狀元策)’의 기술을 통해, ‘천하’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 것은 대부분 일종의 습관적 양상이었음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다. 특수한 시기에 ‘변경 안정(邊靖)’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고, 단지 소위 ‘치도(治道)’에 부합하는 것이였다. 사실 ‘책문’이라고 하더라도 팔고문(八股文)과 다를 것이 없었다. 청말과 거시험도 이 방면의 문제가 상당하다. 광서(光緒) 6년 경진과(庚辰科, 1880)

11 鄧洪波·龔杭雲 編著(2006), 『中國狀元殿試卷大全』 上下冊, 上海教育出版社  
참고.

회시(會試) 답안에서 “흠명사서시제(欽命四書詩題)”의 제2제(題)는 “멀리 있는 자들을 아끼니 곧 사방에서 그에게 귀의하고, 제후를 품으니 곧 천하가 그를 두려워한다[柔遠人，則四方歸之，懷諸侯，則天下畏之]”였다. 이것은 『중용(中庸)』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수록된 왕용니[王詠霓, 1839~1916], 선정즈[沈曾植, 1850~1922] 등의 답안은 팔고문의 형식적 제약 때문에 새로운 맛이라고 없었다.<sup>12</sup>

‘천하’를 담은 구성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에 전통적으로 중국에 다른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다. 물론 『사통·이체편(史通·二體篇)』에서는 『춘추(春秋)』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무릇 춘추는 일(日)과 월(月)을 엮어 차례를 삼고 그 세시(歲時)를 배열하여 이어지게 하였으며, 중국과 외이(外夷)가 함께 시대를 같이 하여 그 일을 갖추어 기록하여 목전에 드러내지 않은 바가 없다”고 하였다. 주변 민족, 나아가 역사와 문화를 기술하는 것도 중국 사서(史書)의 한 전통이라 할 만하다. 실제로 각 왕조의 사서는 대부분 ‘열전(列傳)’이나 ‘지(志)’의 형식으로 다른 민족과 국가의 상황을 소개하였다(주로 주변 국가, 특히 책봉관계에 있는 국가에 편중되었다). 청초에 편찬된 『명사(明史)』의 경우, 서구 국가도 사서에 넣어 기록하였다. 『열전』의 경우, 『토사(土司)』와 『서역(西域)』 외에, 『외국(外國)』 열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중국은 주로 관련 역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계에 관한 인식을 ‘상상’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명사』를 보면, 당시에 이미 “천하에 5대주가 있다[天下有五大洲]”는 지식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를 꼭 신뢰하고 있

12 顧廷龍(1992), 『清代硃卷集成』, 45~50冊, 臺北成文出版社. 이 가운데 왕용니의 답안은 45冊, 201~204쪽에 나온다. 선정즈의 답안은 46冊, 261~264쪽에 실려 있다.

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萬歷 시기에, 그 國人 마테오 리치가 京師에 이르러 『萬國全圖』를 지었다. 그에 따르면 천하에는 5대주가 있으니, 첫째는 아시아주로 100여 나라가 있으며, 중국이 그중 하나이다. 둘째는 구라과주로 70여 나라가 있으며, 이탈리아가 그중 하나이다. 셋째는 아프리카주로 역시 100여 나라가 있다. 넷째는 아메리카주로 땅이 훨씬 크고 남과 북의 두 개 주로 나뉘나 그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모와란자주가 다섯째로, 그 영역 안에서 대지가 끝난다. 그 설이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국인이 중토에 와서 그 땅이 분명 있다고 하니, 낭설일 리는 없으리라.<sup>13</sup>

소위 “그 설이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중국이 세계지리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미 중국 본토에서 관련 역사자료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던 ‘상상’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또한 “그 국인이 중토에 와서 그 땅이 분명 있다고 하니, 낭설일 리는 없으리라”는 부분은 변화가 어떻게 생겼든간에, 어쨌든 중국과 서방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발생했음은 이미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소위 “사방(四方), 상하(上下)의 밖을, 성인(聖人)은 그대로 볼 뿐 말로 따지지 않는다[六合之外, 聖人存而不論]”는 사고는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계지리에 관한 인식 역시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갖가지 ‘상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13 『明史·外國傳』卷326, 929쪽 참고. 출처는 『二十五史·明史』, 上海古籍出版社, 1986, 8703쪽.

중국과 외국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생기자,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일례로 야오잉(姚瑩, 1785~1852)은 “차고로 지리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중국은 상세하게 하고 오랑캐는 소략한다. 『사기(史記)』, 『전한서(前漢書)』, 『후한서(後漢書)』 같은 여러 정사의 외이열전(外夷列傳)조차 대부분 보지도 않는데, 외국 오랑캐의 책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sup>14</sup>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하’관의 주도 아래 ‘아시아’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2. 세계 구성 속의 ‘아시아’

예수회 선교사가 소위 ‘아시아’ 지도를 “서구에서 중국으로 전했다”는 사실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명대(明代) 만력(萬曆) 10년(1582) 중국에 온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는 기독교를 전파한 것 외에, 천문과 산학(算學) 지식을 전파하고 10여 장의 세계지도도 제작하였다. 지도 속에는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세계 오대주(五大洲), 즉 구라파,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아메리카와 모와란자<sup>15</sup>가 그려져 있다. 지도 외에, 알레니(Iules Aleni, 1582~1649)는 명대 천계(天啓) 3년(1623)에 중국어로 작성된 최초의 세계 지리서인 『직방

14 姚瑩의 「華人著外夷地理書」(『康輶紀行』卷9)는 「中復堂全集」, 『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 제6집,臺北文海出版社, 1981, 3309쪽 참고.

15 마테오 리치는 『坤輿萬國地圖』의 주석을 통해 “지리적으로 나누면 5대주가 된다[以地勢分輿地爲五大洲]”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지도는 1602년에 제작되었고, 禹貢學會에서 1936년에 발행하였다. ‘모와란자[墨瓦臘泥加, Mowalanijia]’는 상상의 대륙이다.

외기(職方外紀)』를 완성했다. 이 책은 1권 아시아주, 2권 구라파주, 3권 아프리카주, 4권 아메리카주와 모와란자주, 5권 사해총설(四海總說)로 나누어, 오대주 각국의 풍토, 생활, 기후, 산물 등을 소개하였다. 『아세이총설(亞細亞總說)』에서는 “아세아는 천하에서 가장 큰 대륙으로, 인류가 처음 소리를 낸 곳이고 성현이 가장 먼저 출현한 도읍이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큰 것으로 첫째로 중국을 들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위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그 동남에 자리 잡고 있다. 자고로 제왕이 즉위하고 성현이 연이어 흥했으며, 성명, 문물, 예악, 의관의 아름다움이 그 산천, 토속, 물산, 인민의 풍부함과 맞물려, 먼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서나 모두 받들어 그 최고로서 우러렀다”<sup>16</sup>고 적고 있다. 비록 ‘아시아’에 대한 묘사가 이처럼 찬사 일색이었지만, 2권의 구라파총설과 비교 대조해 보면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천하의 둘째 대륙은 구라파라 부른다. …… 구라파주 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나라가 있고, 국왕부터 서민까지 모두 천주 예수 정교를 받들어, 다른 학설이 끼어드는 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어서 “구라파 제국은 모두 문학을 숭상한다. 국왕은 널리 학교를 세우고 나라마다 지방마다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있고 마을마다 소학교가 있다”고 하며, 또한 “그 제국에서 읽는 서적은 모두 성현이 지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책으로, 천주 성경이 대종을 이룬다. 그 후의 현자들의 책도 반드시 대도(大道)에 맞고 인심에 유익하여야 국내에 널리 전할 것이 허용되었다”<sup>17</sup>고 적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학문과 신앙 측면에서 오히려

16 謝方(1986), 『職方外紀校釋』, 北京：中華書局, 32~33쪽.

17 謝方(1986), 위의 책, 69~70쪽.

구라파주가 뛰어나다고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을 아시아 안에 놓고 보는 것은 중국 사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니었다. 예상가오[葉向高, 1559~1627]는 『직방외기서(職方外紀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태리 알레니군의 『직방외기』를 다시 펴내니, 모두 우리 중국이 예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바이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 곳이다.” 게다가 “그 말이 모두 근거가 있어, 도가의 제천(諸天) 또는 석가의 환하(恒河)나 수미(須彌)처럼 만겁(萬劫) 동안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황당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취스구[瞿式穀] 역시 『직방외기소언(職方外紀小言)』에서 “지도에 따라 계산해 보면, 중국은 아시아의 10분의 1이고 아시아는 다시 천하의 5분의 1이니, 중국[赤縣神州] 바깥에 중국과 같은 것이 다시 아홉 개가 있는 것이다. 겨우 이 한 구석을 가지고서 천하라 하고 나머지는 오랑캐[蠻貉]라 하며 배척했으니, 우물 안의 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하였다.<sup>18</sup> 리즈짜오[李之藻, 1565~1630]도 『각직방외기서(刻職方外紀序)』에서 특히 “땅이 이렇게 크다고 해도 하늘 아래 좁쌀 한 톨일 따름이고, 내 나라 내 고향은 다시 그 좁쌀의 터럭 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9</sup>

여기서 ‘아시아’론이 중국에서 가지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시아’는 ‘천하’를 풀어내는 무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단지 ‘아시아’의 일부인데 어찌 ‘천하’라 하겠는가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은 여전히 일부 사인에게 국한되었을 뿐, 예수회 선교사가 가져온 새로운 지리 지식이 더욱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

18 葉向高의 『職方外紀』序와 瞿式穀의 『職方外紀』小言은 모두 謝方(1986), 앞의 책, 9~10, 13~14쪽을 보라.

19 李之藻(1965), 『刻職方外紀序』는 『天學初函』(三), 臺北: 學生書局, 1269쪽.

었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는 『직방외기』를 소개하면서 비록 그 “기록이 모두 절역(絕域)의 풍토로서 옛 지도에는 실리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대부분 기이하고 고증할 수 없어 많은 부분에서 과장을 면할 수 없으리라”라고 하였다. 마테오 리치의 『곤여도설(坤輿圖說)』에 대한 소개는 더욱 흥미로운데, 그의 기록이 동방취(東方朔)의 『신경이(神經異)』와 줘미(周密)의 『계신잡식(癸辛雜識)』 등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면서, 따라서 “그가 동쪽으로 온 이후에 중국의 고서를 얻어 보고 그 내용을 모방하여 자신의 학설로 바꾸었다면, 모두 실제로 가볼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다”<sup>20</sup>고 보고 있다. 조지 매카트니(George Macartney, 1733~1806) 영국 특사가 중국어 세계에 전달한 메시지 역시 청나라 조정 이 “사해(四海)를 위무하자” 멀리 오랑캐가 “마음을 기울여 중국을 사모하여”, “만국(萬國)에서 찾아왔다”는 식으로 해석되었다.

예수회 선교사의 뒤를 이어 지식 전파를 담당한 주체는 주로 기독교 선교사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는 기독교에 대한 중국 관료와 학자들의 공포심이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럽의 ‘신화’와 ‘신화의 역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최초의 동서 문화 접촉은 사실상 세계의 중심으로 자처하는 중국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가져온 유럽 신화와 만난 것이었다.<sup>21</sup> 이때 서구의 ‘강세(強勢)’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마 선박과

20 『四庫全書總目』 卷71 “史部·地理類四”, 『職方外紀』條, 『坤輿圖說』條, 北京:中華書局, 1983, 上冊, 632~34쪽.

21 陳明生(2001), 「南懷仁來華耶穌會士的地理學著作(1584~1674)」, 魏若望, 『南懷仁—魯汶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123~136쪽.

대포만으로도 서구의 지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당시 아시아에 대한 기술을 보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있었다. 뮤어헤드(William Muirhead, 1822~1900)는 『지리전지(地理全志)』 1권 『지리총지(地理總志)』의 「아시아주전지(亞細亞洲全志)」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시아는 다섯 주(洲) 가운데 으뜸으로, 그 안에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 고원이 광활하며, 인문이 모여들고 물산이 번성하며, 기후가 적당하고 논밭이 비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론(政論)」 부분에서는 ‘학속(學俗)’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주내(洲內) 학속은 우열이 달라, 과거 다섯 주에서 가장 영민하였으나 오늘에는 크게 쇠퇴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구라파주전지(歐羅巴洲全志)」의 「정론(政論)」 부분에서는 ‘학속(學俗)’을 ‘학예(學藝)’로 바꾸고 있으며 ‘[구라파] 주내 학예는 오대주의 으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22</sup> 이 밖에도 에드킨스(Joseph Edkins, 1823~1905)는 자신이 번역한 『서학계몽십육종(西學啓蒙十六種)』에서 『희랍지략(希臘志略)』, 『로마지략(羅馬志略)』, 『유럽지략(歐洲志略)』 등의 역사 서적을 통해, ‘유럽’에 대한 칭송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럽지략』은 주로 유럽이 얼마나 강성한가를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도광(道光) 초년 즈음부터, 유럽 구도에 변화가 일면서 과거보다 더욱 강해졌고, 최근 30년에 이르러 그 변화가 극에 달했다”고 하면서 그 변화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 유럽 지역 각국의 정치는 과거에 비해 적절해졌고, 국민도 모두 점점 자주(自主)를 얻고 있다. 갖가지 기예(技藝)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니 세상에 전례가 없는 것들이며 또한 융성하도다”라고 하였다.<sup>23</sup> 『태서신사람요(泰西新史覽要)』에서

22 慕維廉(1895), 『地理全志』卷一·卷二, 王西清·盧梯青 輯, 『西學大成』, 上海: 醉六堂書坊, 寅編, “地學一”, 1, 2쪽 참고.

23 『歐洲史略』, 總稅務司署印, 1886, 187~188쪽.

나타난 견해를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티모시 리처드(Timothy Richard, 1845~1919)는 번역 서문에서, 중국이 일찍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국으로 우뚝 솟아 그 명성이 흘러넘쳐 멀리 다른 대륙에까지 미쳤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조그만 일본도 대적하지 못하니,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라고 강조하였다.<sup>24</sup>

기독교 선교사들이 창간한 간행물을 살펴보면, 관련된 담론이 어떻게 해서 변화했는가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하이관진(遐邇貫珍, Chinese Serial)』의 경우 중국과 외국을 언급할 때, 중국은 주로 ‘중토(中土)’라 부르고, 외국은 주로 ‘태서(泰西)’, ‘열방(列邦)’, ‘외방(外邦)’, ‘서방(西邦)’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국과 외국을 포괄해서는 ‘천하(天下)’와 ‘영환(靈寶)’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새로운 지리 지식을 전파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련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이관진』 편집자는 무어헤드의 저작인 『지리전지(地理全志)』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으면서, “중국의 지리지(地理志)들을 고찰해 보면 그 숫자는 적지 않으나, 그 가운데 실린 내용이 그다지 상세하거나 명료하지 않고, 기록의 내용도 대부분 중토에 편중되어 있으면서도 그 제목을 천하지여(天下地輿)라 하니, 천하를 작게 보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sup>25</sup> ‘천하만국(天下萬國)’이란 설명은 외국인에 대해 말하자면, 자아가치가 수호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종종 종교의 ‘보세성(普世性)’에 기반하여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심경을 전한 것이 분명하다. 『하이관진』을 보면,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국의 풍속이 달라 각국이 각자의 종교

24 李題摩太 譯, 蔡爾康 述(1895), 「譯本序」, 『泰西新史攬要』, 上海廣學會.

25 『『地理撮要』文後語』, 『遐邇貫珍』 第3卷 第6號(1855. 6), 5쪽.

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동류(同類)라면 종교가 마땅히 같아야 하고 만국(萬國)이 합하여 한 하느님 아버지의 적자(赤子)가 되어야 하며, 또한 본래 두 사람에서 기원하였다면 마땅히 하나의 도를 숭상해야 하는데, 비로소 상제를 받들고 마중하여 모두 하늘에서 안식한다”<sup>26</sup>고 주장하고 있다. 마틴[丁禮良, Wap Martin]이 자신이 번역한 『만국공법(萬國公法)』의 「범례(凡例)」에서 “이 책에서 수록한 조례를 만국공법이라 명명한 것은 한 나라의 사적인 성과가 아니라 각국에서 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만국공법]은 각국의 율례(律例)와 서로 비슷하므로, 만국율례(萬國律例)라고도 부른다”<sup>27</sup>라고 강조한 것처럼, 종교를 초월한 ‘보편성’의 표현이란 점에서, 비로소 ‘만국(萬國)’의 의의가 점차 실현되었다.

요컨대 중국에 온 서양인이 전파한 세계지리에 관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과 청말 중국인이 그에 관한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것에는 서로 호응하는 기초도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이 이러한 지식을 수용하게 된 배경이다. 이 점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면 중국이 처한 곤경과 ‘천하만국(天下萬國)’을 수용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마시니(Federico Masini)는 ‘만국(萬國)’이라는 어휘가 1854년 뤼쑤[羅森]의 『일본유기(日本遊記)』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했지만, 그다지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sup>28</sup> 사실 중국에서 ‘만국’이라는 명칭은 매우 일반적

26 「續地理撮要終」, 『遐邇貫珍』第3卷 第9號(1855. 9), 10쪽.

27 惠頓 著, 丁禮良 譯(2002), 『萬國公法』, 上海書店出版社, 4쪽.

28 馬西尼 著, 黃河清 譯(1997), 「附錄2: 十九世紀文獻中的新詞詞表」, 『現代漢語辭彙的形成 — 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46쪽.

인 표현으로, 『역·건(易·乾)』에 이미 “모두가 만물에서 나오니 만국이 편안하다”고 하고 있으며, 두여우(杜佑)의 『통지총서(通志總序)』에도 “만국의 길이 달라도 반드시 제하(諸夏, 중국)로 통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위 ‘만국’은 중국 고대 문헌에서 ‘만방(萬邦), 천하(天下), 각국(各國)’으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항상 ‘제하(諸夏)’와 대치하여 거론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제하’가 ‘만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틀림없다. 문제의 복잡성은 비록 중국의 사인이 점차 ‘천하만국’을 수용하였다고는 하나, 그 ‘만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sup>29</sup>

비교해 보자면, 이 시기 중국 사대부의 천하관에서 만국은 오히려 ‘천하(天下)의 만국’으로 나타나고 중화(中華)는 여전히 천하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강조됨으로써, 양자는 적절한 대조를 이룬다. 『영환지략(瀛寰志略)』에서 쉬지위(徐繼畲, 1795~1873)는 중국을 종종 ‘중토(中土)’라 일컫고, 이에 상응한 것에 대해서는 대지의 땅을 뜻하는 ‘사토(四土)’라고 칭했는데, 네 대륙(四洲)이란 뜻이다. 류홍아오(劉鴻翱, 1778~1849) 역시 이 책을 위해 쓴 서문에서 ‘만국’을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중국이 천지(天地)의 심장이요, 사이(四夷)는 천지의 사지(四肢)다. 고로 개벽(開闢) 이래 신령(神靈)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 요순(堯舜), 우왕(禹王), 탕왕(湯王), 문왕(文王), 무왕(武王)이 하늘을 대신해 제위에 올랐으니, 천군(天君)의 큰 위엄을 백성이 영(命)을 따르고, 성인이 나타나

29 팡웨이구이[方維規]는 19세기 하반기에 書名에 ‘萬國’이란 두 글자가 들어간 책이 적지 않았다고 이미 지적하였다. 方維規(2002), 「論近代思想史上的“民族”, “Nation”與“中國”」, 『二十一世紀』, 4月號, 33~43쪽 참고.

니 만국이 편안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sup>30</sup> 당시 중국 사대부들이 마틴(WAP Martin, 1827~1916)이 번역한 『만국공법(萬國公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던 것 역시 의미가 있다.

어떤 이는 “오늘 구주(九州) 밖의 나라가 즐비하나 법통을 잊지 않았는데 어찌 나라라 하겠는가. 이것이 마틴 교사가 만국공법을 번역한 이유이다”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간 천하(天下)의 대국(大局)을 보면, 그 선함은 중화(中華)가 으뜸이다. 사해(四海)가 회동(會同)하여 만국(萬國)이 알현하러 오고자 하나 미치지 못할 따름이고, 이 밖의 여러 외국들은 한때의 큰 열국(列國)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sup>31</sup> 중국은 거의 ‘만국’의 외부에 있는 듯하다. 따라서 청말 중국의 세계질서에 대한 표현들은 결코 ‘만국’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가지고서 표지로 삼을 수 없다. ‘만국’ 자체는 아마도 ‘천하’의 ‘만국’일 것이다. 정관잉(鄭觀應, 1842~1922)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함으로써,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만약 우리 중국이 스스로 지구(地球)의 중심이라고 자처한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이적(夷狄, 오랑캐)으로 보는 것이다. 그 동안 강역을 구획지어 스스로 지키면서 멀리 도모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중국은 역시 스스로 만국의 일원이 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무릇 지구는 둥근 것이다. 이미 동서가 없는데 어찌 중심과 바깥이 있겠는가. 함께 하늘을 지고 있으면서 어찌 역지로 하(夏, 중국)와 이(夷, 오랑캐·외국)로 나누어야만 한단 말인가. 중국이 스스로 만국의 일원임을 자처한다면 그들의 공법(公

30 徐繼畬 輯著(1986), 『瀛寰志略』, 臺北：商務印書館, 37~38쪽.

31 董恂, 「序一」; 張斯桂(2002), 「序二」, 『萬國公法』, 上海書店出版社, 1, 2~3쪽.

法) 가운데에도 오로지 중국만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 중화의 범 또한 만국에 시행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sup>32</sup> 따라서 핵심은 ‘천하 만국(天下萬國)’ 개념을 수용했는가가 아니라, 중국이 ‘만국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와 국가 대 국가의 대등한 관계를 확립했는가이다.

### 3. 일본에서 들어온 ‘동양사’

미국 학자 더글라스 R. 레이놀즈(Douglas R. Reynolds)는 “1898년부터 1910년까지 12년간 중국은 사고와 체제의 변화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중국의 모델이자 적극적인 참여자인 일본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결코 일구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3</sup> 청말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담론을 살펴볼 때, 일본이라는 채널을 간과할 수 없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는 1875년에 『文明論概略(文明論概略)』에서 현대문명을 다음과 같이 자리매김하였다. “유럽 각국과 미국이 ‘가장 문명한’ 나라이고, 터키·중국·일본 등은 ‘반개화(半開化)’한 나라이며,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나라들은 ‘야만’ 국가이다.” 그는 또한 야만, 반개화, 문명은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하였다.<sup>34</sup> 특히 그가 1885년에 제기한 ‘탈아론(脫亞論)’은 일본에서 매우

32 鄭觀應(1982), 「易言·論公法」, 夏東元 編, 『鄭觀應集』上册, 上海: 人民出版社, 67쪽.

33 任達 著, 李仲賢 譯(1998), 『新政革命與日本』,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7쪽.

34 福澤諭吉, 北京編譯社 譯(1959), 『文明論概略』, 北京: 商務印書館, 9~10쪽.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탈아입구(脫亞入歐)’는 근대 일본에서 적어도 하나의 기본 명제였다. 후쿠자와의 “나는 마음으로부터 아시아의 나쁜 친구를 사절한다”는 명언(名言)은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근대 일본이 걸어간 길을 규정했던 가장 기본적인 명제 가운데 하나였다.<sup>35</sup>

‘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담론이야 말로 중국의 아시아 의식을 직접적으로 강화시켰으며, 또한 여기에 기반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소위 ‘타자(他者)’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었다. 량치차오[梁啟超, 1873~1929]가 『서학서목표(西學書目表)』 사학부(史學部)에서 첫째로 열거한 『만국사기(萬國史記)』는 주목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은 청말 중국 문인들에게 매우 중시되었다. 당시 문인 가운데 송수[宋恕, 1862~1910]는 친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만국사기』는 “한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문학생들에게도 읽으라고 권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책은 세계 만국 고금의 정교(政教) 원류(源流)를 극히 조리 있게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할 수 없는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6</sup> 그렇다면 『만국사기』는 과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 이 책이 천하와 만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綱, 1827~1910]는 『만국사기서(萬國史記序)』에서 이 책이 “크나큰 우주의 무수한 만국이 각자 자웅을 겨루지만 서로 통일하지 않는”

35 野村浩一, 張學鋒 譯(1999), 『近代日本の中國認識』,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110쪽.

36 宋恕(1895. 7), 「致貴翰香書」, 胡珠生 編(1993), 『宋恕集』上册, 北京: 中華書局, 533~535쪽.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를 청나라(滿清)와 대비시켜 중국은 “처음부터 만국의 역사를 일국의 역사로 삼았다”고 비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매년 중국의 역사를 읽으면서 소위 外國傳, 異域誌 등에 이르면 그 스스로 작음을 웃지 않은 적이 없다. 그는 中土로 자처하면서 엄연하게 이웃 만국에 군림한다. 설령 자신보다 강대하고 우수한 나라 일지라도 夷狄視하지 않으면 藩屬으로 대우하며, 그 정치 得失을 상관하지 않고 國勢의 強弱도 묻지 않는다. 그는 그이고 나는 나일 따름이니,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작은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웨이모선(魏默深, 魏源)이라는 자가 해양방어를 떠들어대어 천하에 통할 수 있었으나 그 책의 제목이 『海國圖志』인 것은 五洲의 諸邦을 海國으로 본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漢土(중국) 또한 海國의 하나일 따름인데, 어찌 크고 작음을 묻겠는가. 설령 그 나라가 크다고 할지라도 길이가 수만 리에 불과하다. 수만 리 안에 몸을 누이고서, 바다물결에 눈길 둔 적 없는데, 外來者들이 모두 범선으로 바다를 누비니, 마침내 海國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중토라 칭하는구나. 어린아이의 식견일 따름이고, 우물 안 개구리일 따름이다. 모선(默深, 魏源)은 식자로 칭하면서도 오히려 좁은 식견에 안주하여 스스로 살피지 못하니, 다른 이들이야 익히 알 만하다.……

『만국사기』 1권인 『아세아총설(亞細亞總說)』은 아시아를 지리상으로 묘사하는 것 외, 다음과 같이 인문 방면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아세아는 인류가 처음으로 탄생한 지역으로, 다른 대륙의 인민들은 모두 이로부터 파생된 무리이다.” “대륙 내 여러 나라들은 학속(學俗)의 우열이 달라, 과거 문물(文物)과 제도(制度)가 오주(五洲)에서 탁월하였지만, 지금

은 구라파의 뒷전으로 물러났다.”<sup>37</sup> 일본 학자가 묘사한 이러한 아시아의 풍경은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는데, 중국은 아시아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다. 다른 저서에서도 중국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나라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일례로 『만국지지(萬國地志)』는 아시아주의 정치구도를 설명할 때 먼저 ‘일본제국(日本帝國)’을 언급하고 다음으로 ‘지나제국(支那帝國)’을 언급했으며, 또한 “일본 이외에는 모두 군주독재국인 반개국(半開國)으로, 지나, 조선, 페르시아, 삼 등이 그 예이다. 그 이하는 독립할 수 없는 것들이다. 비록 그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을지라도 이미 열강에게 점령되어 타인에게 관할되니, 속국(屬國) 또는 보호국(保護國)이라 부른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sup>38</sup>

통상적으로 비교적 일찍부터 중국 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역사책은 “대개 일본 학자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의 『지나통사(支那通史)』와 구와바라 지쓰조[桑原鴎藏]의 『중등동양사(中等東洋史)』의 두 권으로, 특히 전자는 한문으로 쓰인 덕분에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한다.<sup>39</sup> 그러나 아시아론에서는 후자가 더욱 크게 영향을 미쳤다. 나카 미치요는 『중등동양사원서(中等東洋史原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흥망성쇠를 서술하면서 세계사(世界史)와 만국사(萬國史)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편견일 뿐, 통론(通論)이 아니다. 세계문명이 반드시 모두 유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동양(東洋)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

37 岡本監輔(1879), 『萬國史記』, 上海: 申報館出版, 2~3쪽.

38 矢津昌永 著, 樊炳清 譯(1901), 『萬國地志』, 樊炳清 編, 『科學叢書』第1集, 上卷, 教育世界出版所, 12쪽 참고.

39 周子同(1996), 「五十年來中國之新史學」, 朱維鈺 編, 『周子同經學史論著選集』, 上海: 人民出版社, 535쪽 참고.

가 발흥(勃興)하고 풍속이 진화한 것 또한 유럽보다 못하지 않다. 동양 대국(大國)은 너덧 국가로, 과거·현재, 그리고 장래에 이 나라가 다른 나라와 더불어 그 관계가 매우 번성한데, 기왕에 국민이 되어 동양의 역대 흥망성쇠를 잘 알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중학교 역사과에는 국사(國史), 서양사(西洋史) 외에 동양사(東洋史) 과목이 있다. 요즘 사람들이 동양사를 많이 펴냈으나, 모두 중국은 상세히 하면서 해외(塞外)는 소략하고, 동서양의 교섭(交涉)은 중앙아시아만 다룰 뿐 더 큰 부분은 놓치고 있어, 결국 아시아 고금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고자 할 때 한 눈에 알기가 어렵다. 내 항상 이를 한탄하였다. 문학자 구와바라 지쓰조 군이 자신이 지은 『중등동양사』를 나에게 보여주어 읽어 보니, 사료(史料)를 동서(東西)에서 취하고 인용이 광범위하여, 동양 5천 년 역사 흥망성쇠의 요점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책이 세상 밖에 나온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니, 국민(國民)의 애국지심(愛國之心)을 고취하기에 족하다.”<sup>40</sup> 이 책은 특히 중국인들이 ‘아시아’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저우통위(周同愈)는 『중역중등동양사자서(重譯中等東洋史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五洲가 아직 통하기 이전 중국은 스스로 크다고 자처하고 그 옆의 나라들을 모두 작은 오랑캐라고 여겼을 뿐, 그 처한 지역이 동양이 됨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해외에 서양이 있는 것을 알았겠는가. 지금에야 사람들이 동서양이 있음을 알 따름이다. 그러나 동양이 동양과 최근 100년에는 동양과 서양이 국제적으로 나날이 빈번하고 긴밀해졌는데, 우리 중국에는 아무도 그 중대한 사건을 들어서 역사를 지어 세

40 『中等東洋史教科書』는 桑原鷺藏 原著, 上海科學書局藏版, 1쪽.

상에 내놓은 사람이 없으니 부끄러워할 만하다. 구와바라 지쓰조 군의 『중등동양사』는 일본인이 저술한 동양사로,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완벽한 책이다. 이전의 譯者는 관습을 따른 것이라 칭찬할 만한 것이 없고, 또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중요 사건을 일본 紀元으로 시기를 적었다. 구와바라 지쓰조 군은 일본인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니 [일본 기원을 사용한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역자는 중국인인 이상, 여전히 원문을 그대로 두고서 바꾸지 않는다면 애국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를 다시 번역하였다. 문(文)은 그 논리(從)를 구해야 하고, 字는 반드시 그 순전함(順)을 구해야 하니, 한투이즈(韓退之, 韓愈)의 가법에 부합하도록 힘쓰고 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중요 사건을 중국 기원에 따라 조직하였다. 3월에 손씨가 마무리되었다. 내가 매사에 힘써 감히 소홀하지 않으려 하니, 다른 까닭이 아니라 나의 애국심으로써 독자의 애국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sup>41</sup>

청칭넨(陳慶年)은 『중학중국역사교과서(中學中國歷史教科書)』를 편찬하면서 쓴 「후서(後序)」에서 이 책이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녔음을 소개하였다. “구와바라 지쓰조의 동양사는 판빙칭(樊炳清)의 번역본이 동문학사(東文學社)에서 출판되어 크게 알려지면서 동남(東南)의 여러 성(省)에 퍼졌다. 우창(武昌)에서 이미 몇몇 학교는 여러 판본으로 찍어낸 것을 보았고, 을해(己亥)년 이후 4~5년간 이를 교재로 쓰는 곳이 줄을 이었다. 생각건대, 그것은 세계사(世界史)를 쓴 예일뿐이고, 국사(國史)는 상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우 소략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이를 토대로 하여 『중학중국역사교과서』를 편찬했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그

41 桑原鷲藏 著, 周同予 譯(1904), 『中等東洋史』, 上海: 文明書局發行(1904年初版), 2쪽.

상세한 사정을 설명했다. “광서(光緒) 계묘(癸卯)에 양호(兩湖)에 고등학당(高等學堂)을 설립하고 내가 역사과를 맡아 가르치면서, 사건들을 꿰어 따로 본방사(本邦史)를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서 구와바라 지쓰조의 책을 오래도록 읽고 공부하였는데, 그 책은 전체 아시아 국제(國際) 관계에 가장 주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경자(庚子)년의 난을 겪으면서, 몇 년 동안 널리 읽어 세계(世界)를 알고자 하였다. 뜻이 또한 급했으나 마침내 스스로 하지 못하고, 대략 구와바라의 편제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모으고 보충함으로써 편찬해내게 되었다.”<sup>42</sup>

대체적으로 볼 때, ‘아시아(亞洲)’론은 일본 학자들에게 더욱 중시되었고, 청말 사인들은 주로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 ‘아시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물론 이 글에서 더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sup>43</sup> 쓰지 다케오[辻武雄, 1868~1931]의 『지나교육개혁안(支那教育改革案)』을 통해, 일본 학자들이 중국 문제를 사고할 때 종종 아시아에 입각하여 논의함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는 “우리 동영인(東瀛人)은 어려서 성현(聖賢)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동서(東西) 백가(百家)의 이론을 섭렵하면서, 늘 동방(東邦)이 부진(不振)함을 개탄하고 황중(黃種)의 시대가 쇠함을 슬퍼한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역사를 읽으면서 분개하여 덮지 않은 적이 없다. 오늘 인도(西勢東漸)가 먼저 망하고, 미얀마(緬甸), 안남(安南)이 이어서 멸망하니, 아세아주에서 독립국으로 불릴 나라는 겨우 일본, 지나, 조선, 페르시아, 샴의 다섯 나라뿐이다. 그러나 샴과 페르시아는 독립의 명(名)은 있으나 독립의

42 陳慶年 編纂(1909), 『中學中國歷史教科書』, 商務印書館(1909年初版), 1쪽.

43 이에 대해 葛兆光의 앞의 논문에서 이미 일본 아시아론의 기본적인 실마리를 그려내고 있다. 대체로 일본의 아시아주의 사조는 19세기 전반 심지어 18세기 말까지로도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실(實)은 없고, 조선은 국세(國勢)가 미약하여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롭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충분히 패자(覇)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일본과 지나 두 나라뿐이다. 두 나라가 부강하면 동방이 진흥하고, 동방이 진흥하면 황종이 흥한다. 이와 같은 즉 서양세력이 동방으로 들어오더라도 채택할 수 있으니, 이로써 우리 문학을 연구하고 우리의 무비(武備)를 돕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중국 교육개혁 방안 역시 그 주안점은 “지나(支那) 한 나라의 행(幸)이 또한 동아시아 삼국(三國)의 경(慶)이다. 하물며 일본과 지나는 국토가 같은 대륙에 있고 백성이 같은 인종이며 같은 문자를 쓰니, 입과 입술처럼 가까운 이웃이므로, 위급할 때 서로 의지하여 해결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sup>44</sup>는 데에 있었다.

#### 4. ‘아시아’로서의 중국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세계 각 대륙에 대한 지식이 중국에 소개된 시기는 그다지 늦었다고 할 수 없지만, 수용 여부는 다른 문제다. 1901년 리시(李熙)는 샹오용스(蕭庸士)가 집필한 『오주술략(五洲述略)』을 위해 쓴 서문에서, 자신이 ‘촌숙(村塾)’에서 가르칠 당시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오주여도(五洲輿圖)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학생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이름을 듣고서 서로 시끄럽게 떠들고 웃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본디 그 고종조부부터 고향 이웃, 친구, 친지에 이르기까지, 상업에 종사하거나 과거에 응시해 과거에 나

44 辻武雄 著, 「支那教育改革案」, 『教育世界』 권3, 1~3쪽.

가는 것을 막론하고 그 행적이 그 땅[구라파·아시아]을 거친 적이 없고 경(經)이나 책에서 그것을 구하여 그 이름을 익힌 적이 없어서, 필시 없는 것이라고 여겨 선생이 다만 망령되이 전하여 허황된 것을 보여준다고 여겼을 뿐이다.”<sup>45</sup> 중국에서 ‘오주(五洲)’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지식을 광범위하게 흡수했던 지식인들에 이르면 상황은 또 달랐다. 같은 해인 1901년, 량치차오[梁啟超]는 일찍이 중국사를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단계는 ‘황제(黃帝)에서 진(秦)의 통일’에 이르는 ‘상세사(上世史)’로, 이 시기를 ‘중국의 중국[中國之中國]’이라 부르면서, “중국 민족이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경쟁하며 스스로 단결했던 시대”로 보았다. 두 번째 단계는 “진의 통일에서 청(淸)나라 건륭(乾隆) 말년’에 이르는 ‘중세사(中世史)’로, 이 시기를 ‘아시아의 중국[亞洲之中國]’이라 부르면서, “중국 민족과 아시아 각 민족의 교섭이 빈번하고 경쟁이 가장 격렬했던 시대”로 보았다. 세 번째 단계는 “건륭 말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근세사(近世史)’로, 이 시기를 ‘세계의 중국[世界之中國]’이라 부르면서, “중국 민족이 전체 아시아 민족과 함께 서양인과 교섭하고 경쟁하는 시대”로 보았다.<sup>46</sup> 중국 역사에 대한 이러한 시대구분이 꼭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시대구분 방식을 관통하는 개념은 바로 ‘중국 — 아시아 — 세계’였다. 이는 ‘아시아’ 의식을 갖춘 중국 지식인이 이미 이를 빌려 중국의 위치를 새롭게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량치차오가 일본에 망명한 이후에 쓴 것이라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의 아시아론은 아시

45 李熙(1902), 「序」(光緒 辛丑 6月), 蕭庸士, 『五洲述略』, 紫藤書館印, 1쪽.

46 梁啟超(1901, 10), 「國家思想變遷異同論」, 『清議報』, 94, 95책.

아에서 일본이 우두머리가 되어 다른 나라를 이끄는 것을 긍정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계초의 글은 이에 자극받은 중국 지식인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앞서 이미 『만국사기』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책에 대해 칭송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학서목답문(西學書目答問)』의 「정학제일(政學第一)」은 ‘사지학(史志學)’으로, 가장 먼저 『만국사기』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20권으로 전 세계 수십 개국 고급의 사적(事蹟)을 포괄하고 있는데, 상세하지 않고 간략하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중화와 문자가 같은데도 기재(記載)에도 오류가 많고, 게다가 통렬한 비방에余力(餘力)을 아끼지 않으니 더욱 전언(傳言)의 체(體)를 잃고 있다”<sup>47</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국사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일본인이 만국사와 아시아를 서술한 것을 중국 지식인이 수용했는지 여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를 기점으로 아시아에서 이미 아시아의 해석권을 둘러싼 쟁탈전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 지식인이 찾고자 하는 자긍심의 시야에 ‘아시아’도 포착된 것이다. 청말에는 여러 종의 서학(西學) 자료총서가 간행되었는데,<sup>48</sup> ‘아시아’를 토대로 하여 편집된 실례가 많다. 1902년 출판된 『서학삼통(西學三通)』은 ‘서정통전(西政通典)’, ‘서사통지(西史通志)’, ‘서예통고(西藝通考)’로 나뉜다. 타오쥔陶鈞은 「서사통지서(西史通志序)」에서 “대지(大地)는 마치 한 몸과 같고, 오주(五洲)는 다시 오체(五體)와 같다. 체(體)에 귀천이 있듯이 주(洲)에는 선후가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亞洲)는 인류가 비

47 趙惟熙(1901), 『西學書目答問』, “政學第一,” 貴陽學署, 1쪽.

48 章淸(2007), “‘采西學’: 學科次第之論辯及其意義 — 略論晚清對‘西學門徑’的探討,” 『歷史研究』 2007年 第3期.

로소 생겨난 땅이고, 중국은 문명이 처음으로 나온 나라이다. 크고 위대하다. 그 으뜸이여. 그 나머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와 같은 나라는 사지(四支)와 같다. 아시아의 여러 열국은 팔에서 생긴 여러 손가락과 같은데, 나라에 대소가 있는 것은 손가락이 엄지와 검지로 나뉘는 것과 같다”며 강조하고 있다. 이는 “네 대지 가운데 아시아가 가장 크고”, “서아시아가 각 인류 시조(始祖)의 본 고향이니, 도리(道理)와 술법(術法)과 교문(教門)이 모두 아시아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땅으로 여겼다”<sup>49</sup>고 하여 인정한 것이다. 과거의 아시아를 강조하여 존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엿보이는 대목으로, 이러한 서적들이 왜 아시아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찌되었든 대세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동양역사(東洋歷史)』의 총론(總論)에서 자오이넨(趙懿年)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동양사란 오로지 동양 각국(各國)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사, 서양사, 세계사와 구분하여 칭하는 것이

49 『西學三通』에는 “光緒 壬寅年 여름 新書館에서 精本을 마치다”라고 적혀 있으며, 上海文盛堂에서 찍었다. 그중 『西史通志』에는 “古閩龍岩謝若潮纂韓鑒定”, “豐城袁宗濂, 南昌晏志清編輯”이라고 적혀 있다. 인용문은 『西史通志』 卷一, 1~4쪽 참고. 이 가운데 『서사통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太古志 모두 2권, 日本志 모두 14권, 印度志, 모두 7권, 아시아 각국지[亞洲各國志] 모두 2권, 유럽로마지[歐洲羅馬志] 모두 1권, 프랑스지[法志] 모두 8권, 영국지[英志] 모두 7권, 독일지[德志] 모두 2권, 희랍지[希臘志] 모두 2권, 러시아지[俄志] 모두 9권, 유럽 각국지[歐洲各國志] 모두 1권, 아프리카 각국지[非洲各國志] 모두 1권, 美洲志 모두 4권, 美洲各國志 모두 2권, 오세아니아 각국지[澳洲各國志] 모두 2권, 疆域志 모두 28권, 沿革志 모두 12권, 興盛志 모두 4권, 戰伐志 모두 8권, 禮俗志 모두 2권, 圖籍志 모두 1권, 人物志 모두 7권, 編年表 모두 4권.

다. 학자 중에 누가 지구 각국이 모두 우리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갖는 것을 모르겠는가만은, 어찌하여 가장 긴밀한 관계있는 것을 따지자면 특히 같은 대륙 여러 나라만한 것이 없음을 모른단 말인가. 대개 제국은 유사 이래, 우리 중국의 문명(文明)으로 인해 발달하거나 종교, 상무(商務), 전쟁으로 인해 서로 교통(交通)하여, 그 관계가 견고해진 지 이미 수 천 년이다. 오늘에 이르러 설령 성(盛)하거나 쇠(衰)하고, 흥(興)하거나 망(亡)하든 간에, 그 관계는 더욱더 지난날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 각국사를 기술하고자 할 때 먼저 동양 각국사를 기술해야만 하는 것인데, 오로지 동양 제국(諸國)만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를 꿰뚫기가 어렵다.”<sup>50</sup> 친루이제[秦瑞玠]가 편역한 『보통서양역사교과서(普通西洋歷史教科書)』의 총론(總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종(人種)까지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인종을 구분하면 그 땅 위에 일곱이 있으니, 백석인(白哲人), 몽고인(蒙古人), 말레이인, 흑인, 아메리카인디언인, 남아프리카인, 오스트레일리아 흑인이 그것이다. 백석인과 몽고인의 두 종(種)이 대대로 가장 귀하고, 대지(大地)의 문명(文明)은 이 두 인종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기타 다섯 인종은 지금까지 대부분 개화(開化)하지 못하고 문명이 크게 이루어짐에 있어서 아마 서로가 관계가 없는 듯하다. 백석인과 몽고인은 거주하는 부락이 서로 접하지 않고, 역사의 계통 역시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역사를 연구하매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 비교적 편리한 것이다.”<sup>51</sup> 이 책은 “백석과 몽고, 이 두 인종이 대대로 가장 귀하니, 대지의 문명은 이 두 인종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

50 趙懿年 編纂, 『東洋歷史』, 上海: 科學會編譯部 발행, 作新社 인쇄, 3판, 1쪽.

51 秦瑞玠 編譯(1907), 『普通西洋歷史教科書』, 上海: 文明書局, 1~2쪽.

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최신국문교과서(最新國文教科書)』를 보면, 제6책 제1과 「지구대세(地球大勢)」도 오대주의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제2과 「우리나라 강역[我國疆域]」은 “우리나라는 18개의 행성(行省)으로 나뉘는데, 기후가 적절하고 토양이 비옥하다. 황하, 장강, 서강(西江)의 세 강이 토지에 물을 대고 있어, 실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적고 있다.<sup>52</sup> ‘학부심정(學部審定)’을 표명한 『중학중국역사교과서(中學中國歷史教科書)』[원제는 본조사강의(本朝史講義) 서론의 도입부 역시 ‘아시아’에 입각하여 중국의 위치를 자리매김했다. “본조사(本朝史)는 중국사(中國史)의 일부로서, 전사(全史) 가운데 최근 세사(最近世史)이다. 중국이 건국된 것은 멀리 5천 년 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문화는 예로부터 동양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으뜸이었다. 그 강역은 무려 동방(東方) 아시아의 구 할을 덮고, 그 흥망성쇠는 아시아 열국(列國)의 대세(大勢)를 흔들기에 족했으니, 중국사의 범위는 실제로 동양사 전체의 태반(太半)을 점하고 있어, 비유컨대 서양사와 대조를 이룬다.”<sup>53</sup> 쉰우다이쥘(鄧代鈞, 1854~1908)의 『경사대학당본국지리지강의(京師大學堂本國地理志講義)』, 제1과 「강역(疆域)」은 “본국은 아세이주의 동남 지역으로, 아시아 동쪽 고지와 중간 고원을 포괄한다. 국토는 구라파 전체보다 크니 지구상의 대국이다”라며 서두를 열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 “대략 아시아 전체 면적의 4분의 1, 지구의 전체 대륙 면적의 12분의 1을 얻고 있다.

52 蔣維喬·莊俞 編纂, 高鳳謙·張元濟 校訂(1905), 『最新初等小學國文教科書』第6冊, 商務印書館(1905年初版), 1~3쪽.

53 汪榮寶 編纂, 張元濟 校訂, 『中學中國歷史教科書』(本朝史) 一冊, 商務印書館(1909年初版), 1쪽.

구라파의 최대국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영토는 우리보다 두 배 이상 크고, 대영제국의 땅은 다시 러시아보다 크다. 그러나 러시아 영토인 시베리아는 모두 얼어붙은 땅이고, 영국의 식민지는 오대주에 흩어져 있고 게다가 황폐하고 메말랐다. 토양의 비옥함과 기후의 온화함, 그리고 광대한 지역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최고로 꼽아야 마땅할 것이다.”<sup>54</sup>

다른 텍스트 속에서도 이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아시아를 기반으로 중국의 역사와 인물을 재구축하고 있다. 뤼전위(羅振玉, 1866~1940)는 『교육세계(教育世界)』 6권에 게재된 「〈논어〉강의일(論語講義-)」에서 ‘공자(孔子)는 아시아 제일의 교육자’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중화민족은 분파가 극히 많다.……주(周), 진(秦), 한(漢), 당(唐), 송(宋), 명(明)을 거쳐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해져, 동아시아 문화를 말할 때 반드시 중화민족을 꼽는다”라며 고취하였다.<sup>55</sup> 또한 쑤바오쉬안(孫寶瑄, 1874~1924)은 일기에서 량치차오를 칭송하기를, “웅장하고 훌륭한 언론으로 황해(黃海) 안팎과 동아시아 삼국(三國)에 널리 전하니”, “무릇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마음속에 량치차오를 품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하였다.<sup>56</sup> 이는 어느 정도 중국에게 아시아 담론이 중국의 자긍심을 추구하는 또 다른 공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54 鄒代鈞 撰, 『京師大學堂本國地理志講義』, 北京大學圖書館古籍部藏書, 1, 2, 32 쪽.

55 潘武編 編輯, 劉法曾 參訂(1913), 『講習適用歷史教科書』, 中華書局, 2쪽.

56 孫寶瑄(1983), 『忘山廬日記』(1902. 9. 2), 上海古籍出版社, 562쪽.

## 5. ‘타자’로서 일본과 조선

중국 아시아 담론의 부상과 관련해서는 kang유웨이(康有爲,

1858~1927)의 『경사강학회서(京師強學會序)』가 증시할 만하다.

이 글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라는 지리적 개념을 획득한 후에 이를 글 안에서 직접적으로 체현해 낸 것이었다.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내려다보고 있고, 서쪽에서는 영국이 엿보고 있고, 남쪽에서는 프랑스가 다가오고 있으며, 동쪽에서는 일본이 노려보고 있다. 중국이 4개의 열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니 매우 위태롭구나! 하물며 이를 갈고 침을 흘리면서 그 나머지를 나누고자 하는 나라가 또 10여 국이 있다. 변화가 어지러우니 민심이 흉흉하고 일들이 뒤엉켜 끝이 없다. 옛날에 인도는 아시아의 이름난 나라였으나 구습에 얽매어 변화를 꾀하지 않았다. 건륭(乾隆) 때, 영국인이 12만금의 회사로 통상하여 인도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옛날에 터키는 회교권의 대국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에 걸친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구습에 얽매어 변화를 꾀하지 않아, 여섯 개의 나라가 터키의 정치를 집정하고 그 국토를 분할하였으며 그 군주를 폐하였다. 그 밖에 베트남, 미얀마, 고려, 유구열도,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발로치, 그리고 태평양 열도 아프리카에 있던 많은 국가가 현재 빼앗기거나 망했다. 세계적으로 구습에 얽매어 변화를 꾀하지 않는 국가는 대개 이미 온전한 나라가 없다. …… 무릇 중국은 영토가 넓고 神聖이 면면히 이어져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치로써 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다스리니, 그 영토의 광활함은 만국 가운데 세 번째이며, 그 인구의 많음은 첫 번째이다. 위도로는 온대에 속하고 국민은 총명하고 우수하며, 토지는 비옥하다. 아마 만국 가운데 비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단지 풍속이 아직 개화되지 않고, 인재가 모자라고 없어져 앉아

서 능욕을 당하는 것이다.<sup>57</sup>

이 글에서 Kangyuei가 ‘아시아’를 토대로 하여 중국을 새로이 자리매김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자’에 근거한 언설 방식이다. 중국 인식에서 중국을 ‘아시아’에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이 ‘타자’로서 갖는 의미를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따라서 청말 중국의 ‘아시아’ 관련 담론들을 살펴볼 때는 ‘타자’로 간주된 조선과 일본을 결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청말의 아시아 담론은 원래 ‘동아시아 3국’을 핵심으로 한 것이다.

이른바 ‘3천년 만의 비상시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충격을 말한다. 중국 지식인들이 받은 영향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다. 송수(宋恕)는 일찍이 일본에 대해 “일본이 결연하게 수천 년의 의관을 버리고 서양인의 의관을 따르는데, 우리나라는 200년의 의관을 버리고 서양을 따르지 못하니, 도량의 차이가 어찌 많이 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sup>58</sup> 출양학생총감독(出洋學生總監督) 사세푸(夏偕復, 1874~?)는 『학교주의(學校錫議)』에서 “지구에는 많은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연혁이 다르고 국체(國體)도 다르며 학교 주의(主義) 역시 조금씩 지향점이 다르다. 현재 중국이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데, 마땅히 먼저 주의를 세워야 하고, 주의를 세우려면 마땅히 국체가 어떠한지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폐습(弊習)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마땅히 어떤 주의를 사용해서 어려움을 바로잡고 운명을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57 康有爲(1981), 「京師強學會序」, 湯志鈞 편찬, 『康有爲政論集』, 北京中華書局, 上冊, 165~166쪽.

58 宋恕(1895. 7. 25), 앞의 글, 535~36쪽.

해야 교육의 방침에 지향점이 생겨 뒤섞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는 실제로는 ‘방법’적인 면에서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태동(泰東, 아시아)의 국가로 정치와 종교 및 풍토가 일찍이 서양 여러 국가와 같은 비증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 정신을 모방하고 힘써 쫓아 서양의 장점을 배우고, 특히 심혈을 기울여 옛것을 잘 보존하였다. 우리와 일본은 옛부터 정치의 큰틀이 같고, 종교에서 유교와 불교를 함께 중시하는 것이 같으며, 모두 아시아 국가이고 또한 같은 인종으로 교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풍토가 특히 똑같다”고 하였다.<sup>59</sup>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조선 역시 중국 아시아 담론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지 두 나라가 모두 ‘동아시아’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과 조선이 강약이 대비되는 ‘타자’의 범례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샤오용스는 『오주술략(五洲述略)』의 「범례」에서 “이 책은 유럽 대륙의 여러 강국과 아시아의 일본,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을 비교적 상세히 채록하여 그 나라들이 흥성한 이유를 적었으며, 그 밖의 다른 약소국은 유형을 나누었을 뿐이다”라고 하며 전 세계의 나라를 선별해 적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조선과 유럽의 터키의 경우는 약소국이지는 하지만 유형만 나누는 국가로 보지 않고 그 쇠락한 원인을 적었다.” 본문의 첫 편(篇)에서도 역시 조선을 먼저 선택했으며, 그 다음이 일본이었다.<sup>60</sup> 앞에서 이미 언급한 『서학삼통』의 『서사통지』 권91 『연혁지1(沿革志一)』과 『아세아주총설(亞細亞洲總說)』 부

59 夏偕復(1901, 10), 「學校芻議」, 『教育世界』, 권13~15, 인용문은 권13 참조, 1~3쪽.

60 蕭庸士 輯(1902), 『五洲述略』, 紫藤書館印, “凡例” 1쪽, 본문 1쪽.

분에서도 “전 대륙이 모두 112조 11만 1840평방리(平方里)이다. 영국이 1/10, 러시아가 4/10, 각국이 2/10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10은 우리나라 영토이다. 일본이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침략하고 북쪽으로는 영국을 빼앗고 서쪽을 약탈하여 남은 것이 이것이다. 이로써 펼쳐 일어나면 어찌 영국·일본·러시아가 두렵겠는가. 이로써 쇠미한 나라들은 조선, 베트남, 미얀마, 페르시아니, 모두 우리의 거울이다. 다른 나라를 거울로 삼는 것은 같은 대륙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에, 아시아를 가장 첫 편에 놓는다”라고 하였다.<sup>61</sup> 여기에서 “다른 나라를 거울로 삼는 것은 같은 대륙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정말 ‘역사기억’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일본과 조선이 새로운 기억의 원천, 혹은 ‘타자’가 된 것이다. 과거 중국의 역사기억은 분명 중국을 바탕으로 하여 연장되었지만, 아시아 의식의 향상으로 기억의 방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우선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이 1904년에 출판한 『최신국문교과서(最新國文教科書)』(초등소학당 교과서)가 있다. 책의 제5과와 제6과에서 각각 일본과 조선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5과의 일본에 관한 소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동해에 근접하여 섬나라가 있는데, 일본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황인종이다. 국토가 협소하여 쓰촨성(四川省)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황실은 한 혈통이 이어져 2000여 년간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막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여러藩들이 발호한 데다가 구미 각국이 세

61 『西學三通』, 『西史通志』 卷1, 1~4쪽.

력을 믿고 침범하여 위급함이 끝날 날이 없는 형세였다. 메이지 황제가 즉위하여 막부를 전복하고 번을 폐하며 내란을 평정하고는 조서를 내려 국가의 대계를 정해 새로운 정치에 힘썼다. 교육을 진흥하여 인재를 키우고, 입헌하여 국가를 안정시키며, 많은 폐단을 모두 없앴다. 그리하여 40년도 안 되어 국력이 강성해져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이김으로써 동아시아에 군림하게 되었다. 현재 또 강국 러시아를 대패시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곧 變法 덕분이다. 아, 일본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도 흥할 수 있다.<sup>62</sup>

제6과 조선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우리나라 周나라 초기에 箕子를 조선에 봉했다. 그 후 비록 여러 차례 임금이 바뀌기는 했지만 조선의 왕은 대체로 우리 중국인(華人)이다. 秦漢 이후, 속국일 때도 있었고 독립국일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공손히 명을 받들었다.

광서 초년에 조선이 각국과 통상을 하기 시작했으나 우리나라의 속국인 것은 여전하다. 20년, 조선은 내란으로 우리에게 원조를 요청했다. 우리 군대가 도와주었으며, 일본군도 역시 도착했다. 내란이 평정되자 퇴군을 의논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드디어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군대가 패배하고 조선이 마침내 독립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러시아 사람이 조선을 넘보았는데 권력이 나날이 강해졌다. 일본이 다투었으나 얻지 못했다. 전쟁의 발단이 또 일어났고, 일본이 다시 대승을 거뒀다. 마침내 京城에 統監府를 설치하고 여러 내정과 외교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야 말았다.

조선은 반도국으로 비록 영토가 협소하여 일본의 절반 정도이기는 하

62 『最新國文教科書』(初等小學堂課本) 第9冊, 商務印書館(1904), 4~5쪽.

지만 스스로 용기를 내지 않으니 슬프도다.<sup>63</sup>

여기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바로 위 인용문에서 드러난 문제인식 방식이다. 즉 “일본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도 흥할 수 있다”는 말은 아시아에 함께 속해 있는 일본은 중국 진흥의 계시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이 ‘스스로 용기를 내지 않음’을 강조한 것은 같은 아시아에 있는 조선은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방식은 실제로 청말 ‘아시아’ 담론의 핵심이 되기도 했다. ‘역사기억’의 연장 방식을 좀 더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 변화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사상사 연구에서는 엘리트와 경전(經典)적 사상,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와 생활 이 양자 사이에 ‘일반적인 지식과 사상 및 신앙의 세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지식과 사상 및 신앙 세계의 연장 역사 사상의 역사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사상사의 시야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sup>64</sup>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일반적인 지식과 사상 및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 청말의 과거시험은 청말 ‘사상자원(思想資源)’의 판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이었다. 특히 ‘팔고문(八股文)을 폐지하고 책론(策論)으로 바꿔 시험을 본’ 후의 시험 내용인 ‘각국의 정치학’은 중국의 처지와 세계의 일에 대한 상급 관원과 일반 지식인들의 견해를 더욱 잘 드러내 주는 것이었다. 핵심은 ‘책문(策問)’이라는

---

63 『最新國文教科書』(初等小學堂課本) 第9冊, 5쪽.

64 葛兆光(1998·2000), 『中國思想史』(제1권 『7세기 이전 중국의 지식과 사상 및 신앙의 세계』, 제2권 『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중국의 지식과 사상 및 신앙』), 上海:復旦大學出版社.

특수한 체제 형식이 명백하게 유도성을 지녔다는 것인데, ‘문책(問策)’의 구체적인 문제로서 많은 지식인이 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격치서원과예(格致書院課藝)’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대체로 각급 관원이 ‘출제자’ 역할을 하고 응시생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책문’을 통해 청말 상층 관원들이 주로 무엇을 우려했는지 알 수 있는 한편, 청말 과거시험에 참가한 수십만 지식인들이 ‘문책’이 이끄는 바에 따라 응책(應策)한 것은 당시 지식계층의 일반적인 사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정부의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와 응답자 모두 정부 측 이데올로기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청말 개혁의 방향이 드러났으며, 이른바 ‘신지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격치서원과예에서 제시된 관련 문책들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그 중 일본과 조선을 ‘타자’로 보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1900년 『격치서원과예(格致書院課藝)』에서 소송태병비도(蘇松太兵備道) 네 지구이(聶緝規)가 제시한 ‘중국의 속국인 조선을 마땅히 어찌 지킬 것인가’라는 추계 과제는 기존의 천하 질서가 붕괴된 후의 사인(士人)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었다. ‘특등 제일등(超等第一名)’에 오른 중랑(中郎) 저유렌(朱有瀾)은 “무릇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고 또한 우리의 변(藩)이다. 의(義)와 세(勢) 측면에서 모두 다른 나라라고 봐서는 안 된다. 만약 조선이 멸망하는 것을 좌시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영국이 미안마에 한 것처럼 러시아가 반드시 조선을 점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잠시 참고 조선이 절박해지면 구하자고 하는데, 이는 프랑스가 월남에서 한 것과 같으니, 러시아가 반드시 방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조정을 보호하지 않으면 조선은 우리나라의 조정이 아니며, 조선의 조정을 보호하

면 조선은 우리나라의 조정이 된다. 조선은 우리의 조정이니 조선의 국민은 우리의 국민이다. 조선의 토지는 우리의 토지이다. 백성이 왕실에 세금을 내는 것은 곧 우리에게 내는 것이다. 왕실이 소유한 토지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다. 이후의 얻는 것이 지금의 비용을 보상해 줄 것이어서, 300만은 반드시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분명히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65</sup> 문제 자체가 중국의 번속(藩屬)인 조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기는 하지만, 답변에서 중국과 조선을 일체화하여 마치 속국처럼 한 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2등을 한 평선현(奉賢縣) 우품생(優稟生) 텡팅제(程廷傑)가 응책으로 제출한 견해 역시 같은 전제조건에 기반했다. 답안은 전(前) 일본 수행원인 야오원둥(姚文棟)이 제시한 삼책(三策)을 인용하고 여기에 비평을 덧붙였다. “고려의 토지와 국민은 모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다스리고, 이를 참작하여 약간의 세입을 취해 고려왕의 재정에 제공한다. 영국이 인도에서 한 바와 같다. 이것이 상책(上策)이다. 조선은 본디 우리의 속지(屬地)이니 취해도 무해하다. 먼저 오랑캐를 군현으로 삼음으로써 다른 나라가 넘보는 것을 막는 것은 중책(中策)이다. 각국과 통상하게 하여 각국을 빌려 공동으로 보호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이 삼책 가운데 하책은 이미 실행하였다. 중국은 자소(字小, 잔약하고 작은 사람을 어루만짐)를 근본으로 삼았는데, 상책과 중책은 못할 바이다. 그러한 즉 결국 고려를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sup>66</sup>

중국과 조선의 ‘번속’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

65 朱有濂 답안(1898), 『庚寅格致書院課藝』, 上海圖書集成印書局, 31a~41b쪽.

66 程廷傑 답안(1898), 위의 책, 41b~42a쪽.

을 지키자는 주장 역시 주로 ‘자국 보호’라는 기저 위에서 전개되었다. 즉, “조선은 동북 3성의 보호막으로 베트남 등 다른 여러 번(藩)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침상 옆에 다른 사람이 코 골며 자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법인데, 도리어 우리의 이익을 다른 나라가 침범하는 것을 보호할 책략이 없을 수 있는가”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3등을 한 쑹장부(松江府) 학품생(學廩生) 주창딩(朱昌鼎)은 좀 더 명확한 응책을 내었는데, “그것을 잃어도 애석하지 않다. 중국 내륙의 마카오와 홍콩 역시 포르투갈과 영국이 가져갔는데 어찌 유독 조선은 아끼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조선이 “전체 국면의 안위가 미치느바,” “명나라 이전에는 모두 조선을 포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조(本朝, 청)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조선은 북으로는 평성(奉省)과 인접하고 있는데, 겨우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여기를 건너면 바로 백두산의 남쪽으로 조종(祖宗)의 발상지이다. 또 북쪽으로는 선왕의 능침이 있는 배도(陪都, 奉天)와 매우 가까우니 전대의 변경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 조선은 동서남 3면이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산둥(山東)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해상 방위의 외호(外戶)이니, 마카오나 홍콩처럼 전체 국면과 무관한 곳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중국의 우환이었던 러시아가 이곳을 얻으면 곧 호랑이가 날개를 얻은 것과 같으니 그 세력이 회복되지 않아도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 조선을 울타리로 삼지 않으면 특히 동북 3성이 위험해지고 즈리성(直隸省, 허베이성[河北省]의 옛이름) 역시 형세가 위태로워진다”고 강조하였다.<sup>67</sup>

특별히 밝힐 것도 없이, 조선을 ‘속국’으로 보았던 것이고, 소위 ‘지

67 朱昌鼎 답안(1898), 위의 책, 43a~44b쪽.

키는' 방법이라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 위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안에서 이야기한 '주권' 개념은 자연스럽게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 상위 3등의 답안지는 모두 『만국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4등과 5등 답안지는 오히려 이를 어느 정도 언급했던 것이 흥미롭다. 4등을 한 안후이성[安徽省] 여주부학(廬州府學) 우행품선생(優行稟善生) 리징방[李經邦]은 답안지에 당시의 여러 의견을 열거하고, 이 의견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가운데 『만국공법』에 관한 평가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선을 지키는 것이 이왕 이처럼 어려운 바에야, 봉공(封貢)을 그치고 신하로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 더불어 이웃 나라가 되어 독립(自主)을 허락한 후, 『만국공법』에 따라 처리하여 조금의 불공평함도 없으면,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조선을 검병하려 할 때 공법에 따라 힘껏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조선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문제는 “조선이 속국인 것을 모르니 우리가 자주권을 회수하여 우방으로 삼을 수 없어 더욱 처리하기 어렵다. 보잘것없는 만국공법으로 어찌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의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리징방은 당시의 각종 대응책을 비판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즉, 중국이 부강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중국이 부유하고 강하다면 중국의 강함으로써 조선을 강하게 할 수 있다. 무사하면 중국의 덕과 은혜로 실로 충분히 굳게 뭉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의 위력으로 실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이에 조선이 영원히 중국의 속국이 되면 중국은 근심 걱정 없이 편히 잘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여전히 ‘번속’의 미몽(迷夢)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sup>68</sup> 이런 의미에서 5등을 한 후선종구품(侯選從九品) 장제(張玠)의 답안에서도 매

우 흥미로운 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제는 영국과 연합해 러시아를 막을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는 답안에 러시아가 고려를 잠식한 것은 『만국공법』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sup>68</sup>으로, 만일 영국이 중국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친다면 이는 바로 ‘공법의 대권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려는 대대로 중국에 부속되어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를 침략하는 것은 작은 나라를 잠식하는 것이며, 작은 나라를 잠식하는 것은 『만국공법』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영국이 중국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쳐 약한 고려가 존속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공법의 대권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국의 웅대한 계획을 드러내어 천하에 공평한 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만세에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고려인은 덕을 입고, 중국인은 감동하며, 각국이 의논하면 러시아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는 것이다.<sup>69</sup> 그러나 이 역시 문제의 한 측면에 불과할 뿐, “고려가 옛날부터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이 『만국공법』과 부합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조선을 속국으로 보았으며, 그들이 도모한 책략들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익에 치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격치서원과예』에 반영되어 있는 중국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여기에서 명확히 드러난 ‘천하’관의 영향은 『만국공법』이 다져놓은 국제질서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만국공법을 알고 있는 인사들도 이것을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웠음을 설명해 준다. 이로써 ‘자기 보호’는 혹시 가능할지라도,

68 李經邦 답안, 위의 책, 44b~46b쪽.

69 張玠 답안, 위의 책, 47a~49a쪽.

문제가 자신의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모순과 곤혹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어찌면 바로 ‘천하’관이 새로운 국제질서와 대면했을 때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또한 내부에 ‘아시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천하’관이 주도한 세계질서에 ‘아시아’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도 설명해 준다.

『격치서원과예』는 단지 기풍을 먼저 얻는 자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개혁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경우, 책문의 의의는 이미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책문’은 청말 과거를 개혁하는 가운데 그 지위가 현저히 상승했으며, 또한 각종 총집의 출간을 촉진시켰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중외책문대관(中外策問大觀)』의 편집과 출판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것이다.<sup>70</sup>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청말 중국의 ‘아시아’론의 핵심을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5권에 수록된 『흥아책(興亞策)』은 부종권(卜宗俊)이 지은 것인데, “현재 분분히 흥아(興亞)를 이야기하는 것을 의론으로 지어 널리 방책을 세워 책에 싣고 손으로 헤아려보니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게다가 일본이라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흥아’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형세에서 일본이 이미 동방에서 뛰어나게 걸출한데, 오직 중국만이 암담할 따름이다. 중국이 흥하면 일본이 [중국을] 도울 수 있다. 두 나라가 양립하면 그 세력이 장차 유럽 위에 있게 되니 어찌 아시아가 흥하지 않을 것

70 雷瑯 編輯(1903), 『中外策問大觀』, 硯耕山莊 석판 인쇄. 관련 토론은 章淸 (2008, 12), 「“策問”與科舉體制下對“西學”的接引—以〈中外策問大觀〉爲中心」, 『近代史研究所集刊』第58集,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참조.

이라 걱정하겠는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종진도 지적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의 협력 불가능’한 때문으로, “현재 동아시아를 논하자면, 넓기로는 중국보다 큰 것이 없고, 세력의 강성함으로는 일본만한 것이 없다. 영토가 넓으면 장래성이 있고 강하면 특출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아시아의 흥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중국이 크지 않거나 일본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대국이 함께 모여 강국이 되지 못하고, 강국이 함께 모여 대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종진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내가 오늘 아시아의 흥성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몰라도 일단 아시아의 흥성을 말하려면, 먼저 중국의 고질적인 습관을 없애고 이어서 일본의 교만함을 제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유럽 열강의 탐욕을 근절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가 협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시아의 운명을 만회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sup>71</sup>

『중외책문대관』에서 직접 ‘아시아’를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는 권19의 「아시아 각국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問亞洲各國宗教異同]」 등의 문책이 있다. 대체로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중국을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주된 견해다. 이로써 ‘아시아’ 역시 새로운 자긍심을 확립시키는 부호가 되었다. 권24에 수록된 「기기식재책(機器殖財策)」의 필자 뤼강파[羅綱法]는 “중국 영토의 광활함은 아시아에서 으뜸으로 중반구에 위치한다. 또한

71 卜宗俊, 「興亞策」, 雷瑄 編輯(1903), 『中外策問大觀』 卷5, 16쪽.

온대에 속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식물이 매우 번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가 척박해지고 백성이 가난해져 유럽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이는 자원이 없거나 식물이 시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 자원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식물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해 정교한 물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sup>72</sup>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조선 문제는 많이 언급하지 않은 반면, 일본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많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중외책문대관』에 수록된 ‘일본’ 관련 문책을 통해 ‘일본 요소’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그중 ‘서사(西史)권’의 경우, 모두 23개의 ‘책문’이 있으며, 중국의 관심을 외국 역사에 투영시킨 점이 매우 두드러졌다. 부국강병의 원인과 정치법 및 사회안정 등, 당시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를 외국 역사에 투영하였고, 특히 ‘쇠약한 국가가 강건한 국가로 변모’한 예를 중시하였다. 그중 일본을 직접 겨냥한 화제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① 일본의 메이지유신책(策). ② 패잔병이 패업(霸業)을 이루고, 작은 일본이 또한 영웅으로 자처한다. 일황(日皇)이 유신의 도움을 받았는데, 왕은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③ 일본이 가장 먼저 실행한 새로운 정치는 무엇이었고, 무엇이 가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는가. 그 모든 것이 서양의 방법에 따라 바뀌서 식자들은 그것이 지나치지 않음이 없다고 논했다. 그 사이에 숨겨진 것은 어디에 가까운가. 현재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조목조목 상세히 따져보고 적절하면 이야기하여 중국의 참고자료로 삼는다. ④ 유신 이전 일본의 모든 정치적 폐단이 중국과 비슷한 경우를 예를 들어줄 수

72 羅綱法, 「機器殖財策」, 雷瑑 編輯(1903), 『中外策問大觀』 卷24, 1쪽.

있는지 서양 국가에게 물었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은 청말 일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논술 역시 같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일본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 중 제③제목에는 두 가지 대책(對策)이 수록되어 있다. 천 쩡쥘(陳曾榘)의 대책은 특히 일본 변혁의 순서와 그로 인한 폐단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를 빌려 중국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그 순서와 완급의 차례를 보면, 우리 중국의 안내자로 삼을 수 있다. 그 탁월한 효과를 보면, 우리 중국의 지금의 준칙으로 삼을 수 있다. 그 과도하여 나타난 폐단을 보면, 우리 중국의 지금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보완방법을 보면, 우리 중국의 지금의 판례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30년간의 역사는 실로 현재 우리 중국의 본보기이다. 일본의 정치를 고찰하면 역시 참고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류방지(劉邦驥)는 대책의 서두에서 “일본의 새로운 정치에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서양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학문”이라고 하며, 일본 개혁의 선도자가 ‘춘추존왕대의(春秋尊王大義)’를 본받았다고 특별히 지적하였다. 마지막에는 “지금 천하가 다투어 변법을 이야기하니 마땅히 일본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이익을 취하되, 특히 그 폐단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감히 한 마디로 말한다면 ‘폐단 없이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sup>73</sup>

『격치서원과예』와 『중외책문대관』은 청말 이후 중국의 형세를 숙고한 중국 일반 지식인들의 ‘사상적 자원’을 드러내 주었다. 이러한 ‘사상

73 雷瑯 編輯(1903), 앞의 책, 卷28, 6~7쪽.

적 자원'을 심도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책문' 자료의 특수성  
 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과거시험에서 '일본 요소'와 관련  
 된 것이 상술한 '촌탁(村度)'의 글에서만 드러난 것은 아니다. 마지막 과  
 거시험 두 번째 시간 "각국정치예학책(各國政治藝學策)"의 다섯 번째 '책문'  
 제3책(策)은 바로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일본은 변법 초기에 서  
 양 사람을 초빙하여 국가가 나날이 강성해졌다. [그러나] 이집트는 외국인  
 을 천여 명 고용하여 마침내 재정 재판권을 상실하고 국가가 부진(不振)  
 하게 되었다. 그 이해득실을 상세히 이야기해 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것이다. 이 또한 '타자'인 일본과 조선을 결합하여 청말 '아시아'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6. 맺음말

역사와 기억의 상관성은 어떤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이미 매우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인  
 류의 학문을 분류하고자 한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인류 학문(learning)에 대한 가장 좋은 분류는 학문활동의 주요 장소 —  
 이성적 정신(the rational soul) — 가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주요 관능(官能)  
 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역사와 기억, 시와 상  
 상력, 철학과 이성(reason)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도 지적하였다.<sup>74</sup> 20세

74 柳卸林이 *De Augmentis Scientiarum*에서 선별하여 번역. 何兆武 主編  
 (1999), 『歷史理論與史學理論—近現代西方史學著作選』, 北京: 商務印書館,  
 12~21쪽 인용. 인용문은 13쪽 참조.

기에 이르러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도 역사인식에서 인류 역사는 기억을 통해 현재와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역사는 기억이다. 우리는 기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억에 따라 생활한다. 만약 우리가 허무해지지 않고 부분인성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역사가 바로 안정된 기초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속박 당한다”고 하였다.<sup>75</sup> 다만 이러한 글들은 역사와 기억의 상관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기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리스 알바슈(Maurice Halbwachs, 1877~1945)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알바슈는 ‘기억의 사회구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예증을 들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를 설명하였다.<sup>76</sup>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개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 지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집단기억은 본질적으로 현실에 근거하여 과거를 대하는 일종의 이중구조이다. 알바슈야말로 이 점을 최초로 강조한 사회학자이다.”<sup>77</sup>

이로써 청말 중국의 ‘아시아론’을 대조해 보면, 역사에 의거하는 것은 곧 역사를 환기한 기억이기도 한데, 청말에 낯선 외부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말의 역사적 기억이 어떻게 연장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시기 사상·문화 발전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

75 雅斯貝斯, 魏楚雄·俞新天 譯(1989), 『歷史的起源與目標』, 北京: 華夏出版社 참조.

76 莫里斯·哈布瓦赫, 畢然·郭金華 譯(2002), 『論集體記憶(On Collective Memory)』, 上海: 人民出版社, 294쪽.

77 路易斯 科瑟(2002), 『導論—莫里斯 哈布瓦赫』, 莫里斯·哈布瓦赫, 위의 책, 59쪽 참조.

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역사’를 빌려 진행된 합법적인 논증 또한 사회 변혁을 촉진시킨 주요 동력이었다. 그러나 ‘외래 요소’가 보태지자, ‘옛 것에 기탁하는[托古]’ 논술 책략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sup>78</sup> ‘역사기억’의 연장은 종종 중국과 외국의 역사에 ‘통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자아 정체성이 뒤섞이고 있기 때문이다.

알바슈는 ‘기억’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되는지에 천착하여,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억이 나의 기억을 돕고, 나의 기억이 그들의 기억을 돕는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의 환기는 결코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sup>79</sup> 확실히 기억은 종종 ‘타자’의 힘을 빌려 생성된다. 청말 중국의 경우, ‘외래 요소’가 이러한 ‘타자’였음이 분명하다. ‘외래 요소’ 가운데 ‘서양 요소’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었던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청말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담론은 이를 ‘세계’ 인식의 긴 역사적 과정에 놓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말 ‘아시아’에 관한 언설이 ‘천하(天下)’에서 ‘만국(萬國)’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말 중국이 ‘아시아’의 ‘타자’- 조선과 일본도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역사기억’을 연장하는 특수한 매개 형식인 ‘책문’과 교과서에 의지하면 조선과 일본의 ‘타자’로서의 ‘이미지’가 청말 ‘아시아’론의 주요 참조사항이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책

78 ‘옛것에 기탁하는[托古]’ 논술 책략과 그 원인에관해서는 章淸(2002), 「“傳統”系譜的建構與中國自由主義的論述策略」, 劉青峰·岑國良 編, 『自由主義與中國近代傳統』,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51~288쪽 참조.

79 莫里斯·哈布瓦赫, 畢然·郭金華 譯(2002), 앞의 책, 69쪽.

문'이든 '교과서'든 간에 모두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개별 사상가의 견해에 국한되지 않고, 청말 주류 이데올로기의 '아시아'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 안중근과 중국

– 청위의 저서 『안중근』을 중심으로

왕위안저우(王元周, 중국 베이징대)

## 1. 머리말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安重根)은 하얼빈(哈爾濱)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했다. 안중근의 이 의거는 동북아 근대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1</sup> 바로 이 때문에 당시 중국에 있던 박은식(朴殷植)과 김택영(金澤榮) 등이 안중근 전기를 저술했고, 이는 중국에서 널리 읽히기도 했다. 중국인들 역시 유사한 전기를 출판하였으며,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안중근의 의거를 널리 알렸다. 하지만 안중근의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실질적인 인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1 王元周(2005, 12), 「近代中國人的韓國認識：徑路與特征」, 『東方學誌』 제132집 참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안중근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외세침략에 대한 민중의 저항 의지를 복돋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5·4 운동을 전후하여 “안으로 매국노를 처단하고, 밖으로 열강에 항거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해석방식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안중근만으로는 (조선)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외세에 대한 저항보다 내부의 매국노 처단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청위[程滄]<sup>2</sup>가 펴낸 『안중근(安重根)』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바로 이러한 해석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청위가 편찬한 『안중근』은 비록 분량은 많지 않아 겨우 40여 쪽에 불과하며, 수많은 사회 명사의 시문을 헌사로 수록하였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명사들 자신의 문집에도 실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례로 수록된 헌사 가운데 차이위안페이[蔡元培]의 시는 중국차이위안페이연구회[中國蔡元培研究會]에서 편하고 1997년 저장교육출판사[浙江教育出版社]에서 출판한 『차이위안페이 전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이 책이 오랫동안

---

2 청위[程滄, 1870~1940]의 자는 白菡이고 호는 菴深居士로, 장쑤[江蘇] 양후[陽湖, 지금은 武進縣] 사람이다. 젊어서 영국 선교사인 리처드 티모시(Richard Timothy)의 중국어 비서로 일한 적이 있으며 1900년 선중리[沈仲力]가 산시[山西]에서 洋務運動을 전개할 때 티모시와 함께 이에 합세한 청위는 산시보국[山西報局] 總辦을 맡아 『晉報』와 『山西白話報』를 창간하였다. 서화를 즐겨 수집하였던 청위는 스스로도 서예에 조예가 깊었으며, 刻印에도 능하여 『程滄印存』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시를 즐겨 지었던 그는 자오시[趙熙]·이순딩[易順鼎] 등과 함께 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만년에 孔教(19세기 말 유교 개혁운동—역자주)에 심취한 청위는 1933년 5월 『歷代尊孔記孔教外論合刻』을 편집하여 상하이도덕회[上海道德會]에서 출판하였다. 1934년 청위는 『讀經救國論』 상권을 출판하고, 이어 1935년 중권과 하권까지 펴낸 후 각급 학교에서 최우선 과목으로 삼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40년 청위는 상하이[上海]에서 병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동안 중국 학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일찍이 한국에 전해졌다. 한시준(韓詩俊)의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푸단대학(復旦大學) 사학과의 쑤커즈(孫科誌)가 상하이도서관(上海圖書館)에서 발견한 이후, 윤병석(尹炳奭)에게 소개하면서 한국 학자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였다.<sup>3</sup> 윤병석 교수는 이 책을 자신이 펴낸 『안중근전기전집』<sup>4</sup>에 수록했다. 해제와 주석에서 윤병석 교수는 이 책이 창사(長沙)의 정위안(鄭元)이 편찬했고, 1920년 전후로 상하이에서 간행되었는데, 책 속의 『안중근전』은 청위가 저자이고, 『안중근약사』는 정위안이 펴낸 것이라고 하면서, 청위의 『안중근전』과 『약사』의 저작연도에 대해서는 단지 의거 이후라고만 설명하고 있다.<sup>5</sup> 한국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에서도 이 책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 책의 편저자를 정위안이라고 쓰고 있다.<sup>6</sup> 한국 학자 한시준과 중국 학자 김춘선(金春善) 등의 사람들도

3 사실 이 책은 상하이도서관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國家圖書館과 베이징대학 도서관 등에서도 소장하고 있었다. 韓詩俊(2000), 「중국인이 본 안중근-박은식과 정원의 ‘安重根’을 중심으로」, 『忠北史學』, 제11·12집 합본.

4 尹炳奭 편(1999),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5 윤병석 편(1999), 「해제」, 위의 책, 35, 529쪽.

6 정위안(鄭元), 자는 叔進, 호는 翫叟. 후난[湖南] 창사[長沙] 사람으로, 청나라 말기 후난 지역의 명사. 정위안의 집안은 대대로 名醫와 학자를 배출하였다. 光緒 20년(1894) 進士가 되어 翰林院編修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장원은 張謇, 2등은 인명쇼우[尹銘綬]였다. 1903년 쓰촨학정[四川學政]에 임했다.辛亥革命 당시 南書房 翰林을 맡고 있었다. 신해혁명 후에는 총통부비서를 지냈다. 후에는 상하이에 은거하며 책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愛儷園에 살면서 책 읽는 것을 소일 삼아 여성을 보내다가 1940년대에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위안은 의학을 깊이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를 잘 짓고, 서예에 능했으며 특히 탁본과 법서 고증에 뛰어나 『獨笑齋金石題跋記』가 세상에 전해진다. 서태후가 그의 글씨를 좋아하여 頤和園 窓絹의 글씨와 그림이 모두 정위안의 작품이다.

논문에서 이 책에 대해 분석한 바 있으나, 이 책의 편저자와 형성 배경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고증을 하지 않았다. 한시준의 논문 「중국인(中國人)이 본 안중근(安重根) - 박은식(朴殷植)과 정위안(鄭偉元)의 『안중근』을 중심으로」<sup>7)</sup>에서는 이 책을 정위안이 모아서 출판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의 중편에 있는 안중근 「약사(略史)」와 하편에 있는 「한인매국노 살해의 역사」 등도 정위안이 쓴 것이라고 하면서 안중근 「약사」를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춘선 역시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에서 이 책의 편저자를 정위안으로 보고 있다.<sup>8)</sup> 그러나 책의 내용에서 보았을 때 정위안이 이 책의 편저자라는 증거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으며, 표지의 서명과 인장으로 보았을 때도 그는 단지 책의 제목을 써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과 해외 학자들의 이 책에 대한 해석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이 책의 편저자와 출판 상황에 대해 약간의 고증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청위(1870~1940)가 『안중근』을 펴낸 취지는 조선 망국이라는 사건을 통해 중국인에게 국내의 매국노를 보다 급진적인 방법으로 처단하는 것이 외국 침략자에 대한 저항보다 낫다고 충고하는 것이었다. 청위의 이러한 인식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았다. 청위 등의 이러한 인식도 그들의 발자취와 이 책을 펴내던 시기를 전후한 중국 내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해 간략하게나마 분석할 필요가 있다.

7 韓詩俊(2000), 「중국인이 본 안중근」, 『慶北史學』, 제11·12 합본.

8 金春善(2005),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韓國近現代史研究』, 夏季號(제33집).

## 2. 편찬자와 출판연도

먼저 『안중근』을 편찬한 이가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 이는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술한 많은 학자가 정위엔을 편저자로 잘못 알고 있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을 조금 더 하고자 한다.

청위는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내가 안중근 사략을 모아 전기의 머리말로 삼고 동인들과 시를 지어 그 일을 읊어 한 권의 책으로 모아 발간하고자 하는데, 또한 국내외의 신문·잡지에서 안중근의 아우 정근이 쓴 ‘혈루어(血淚語)’를 발견하였다.”<sup>9</sup> 모든 작업을 그가 했으며 서적의 인쇄 또한 그가 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중근』의 상편의 「서문」과 「안중근전(安重根傳)」 및 「후기」에 모두 ‘청위’라고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그의 작품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상편에 실린 전문가들의 헌사 역시 상술한 인용문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청위와 관계된 사람들의 작품이고, 단지 일부가 그렇지 않을 뿐이다.

이 책은 모두 24명의 헌사를 수록하고 있는데, 곧 왕서우난(王樹柟),<sup>10</sup>

9 程滄, 「後序」, 『安重根』上篇, 4쪽.

10 왕서우난(王樹柟)(1851~1936), 자는 晉卿, 호는 陶廬老人, 허베이[河北] 신칭[新城] 사람이다. 광서 丙戌科 進士에 올라 戶部 主事に 제수되고, 나중에 쓰촨[四川] 청선현[靑神縣] 知縣, 쓰촨 學政을 지냈으며 관직이 신장[新疆] 布政使에 이르렀다. 신해혁명 이후에는 베이징에 은거하다가, 자오얼쑤[趙爾巽]의 초빙으로 淸史館 總纂을 지냈다. 1936년 2월 베이징 시즈문[西直門] 안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수많은 저술이 있으며, 『畿輔通誌』, 『淸史稿』 외에도 『文莫室詩集』, 『陶廬文集』, 『陶廬文內集』, 『陶廬詩續集』 등 수십 편의 문집을 펴냈다[王樹柟(1988), 「陶廬老人隨年錄」, 張伯鋒·顧亞主 著, 『近代稗海』 제12

집, 四川人民出版社; 姚漁湘·李滿康, 「王樹相傳略」, 『大陸雜誌』 24권 9기].

**11** 우환치[吳傳綺](1858~1934), 자는季白. 안후이[安徽] 화이닝[懷寧] 사람으로 후에 안칭[安慶]에 살았다. 청나라 광서 12년(1889) 舉人에 올라, 國子監學錄助教, 후난[湖南] 永綏廳 同知, 후난 永寧府 知府 등을 역임하였으나, 후에 발에 병이 나 관직을 사직하고 안칭으로 가서 살았다. 宣統 원년(1909) 안칭 風節井 옆에 안칭여자사범학당을 열고 부설 유아원을 두었으며, 이어 大弓箭巷에 사립도서관을 설립하였다. 화이닝중학당[懷寧中學堂] 監督을 지냈다. 중화민국 8년(1919) 『安徽商報』 주필을 맡았다. 중화민국 12년(1923) 겨울 안후이성립도서관[安徽省立圖書館] 관장을 맡고, 通俗教育館을 처음으로 설립하였으며, 중화민국 17년(1928) 이임하였다. 1934년 병으로 난징[南京]에서 사망하였으며, 저서로는 『說文偶義』 수십 권이 있다.

**12** 이순딩[易順鼎](1858~1920), 자는 實甫 또는 石甫·中實·實父·中碩·碩甫·仲碩·易碩 등이 있다. 스스로 懋綺齋라 하였고, 또한 스스로 眉伽로 호를 삼았으며, 만년에 哭庵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一庵으로 고쳤으며, 이 밖에 眉伽·龍陽才子·懋綺齋主人·湘南漢壽龍陽人·碧湖秋夢詞人 등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易五라 불렀다. 후난 룡양[龍陽, 漢壽縣] 청관진[城關鎮] 사람이다. 부친 이페이선[易佩紳]은 구이저우[貴州] 按察使를 지낸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이다. 다섯 살부터 신동으로 이름을 날린 저명한 시인이다. 광서 원년(1875) 과거에 급제하고, 1888년 이후 三省 河圖 總辦 등을 역임하였다. 청일전쟁 당시 화친에 반대하고 계속 싸울 것을 주장하여 이름을 떨쳤으며, 劉坤의 휘하에 들어가 「討日本檄文」을 지었다. 청일전쟁 이후 울분에 차 루산[廬山]에 칩거한 그는 淸江[三峽]에 琴誌樓를 짓고 은거하였다. 兩湖總督 장즈둥[張之洞]이 그를 초빙하여 兩湖書院 分敎를 맡아 보았다. 광서 26년(1900)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침략하자, 江陽 江防 督辦을 맡았다가 산시[陝西]로 이임되었으며, 광서 28년 廣西 右江道로 이임하였다. 광서 34년 雲南 臨安 開廣道를 맡았다가 廣東 欽廉道로 전임하였다. 이듬해 가을 광둥 肇羅道에 제수되었다가 후에 高雷 陽道로 이임하였다. 신해혁명 이후 베이징에 한거하다가, 1915년 9월 한때 후난의 관료 및 입헌파 인사 61명과 함께 參事院에 제정 회복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따라 1916년 2월 印鑄局 대리국장 및 局長이 되었다. 위안스카이의 제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실의에 빠진 이순딩은 이후 베이징을 떠돌며 가무와 여색에 탐닉하였다. 1920년 베이징의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저서로는 시집 『丁戌之間行卷』, 『四魂集』 등 20여 권이 있으며, 대부분 『琴誌樓叢書』에 수록되어 있다[賈逸君 편(1937), 『中華民國名人

[陶鏞],<sup>13</sup> 탕구이[唐桂], 차이위안페이, 디위[狄郁],<sup>14</sup> 왕자오[王照],<sup>15</sup> 민얼창[閔爾昌],<sup>16</sup> 장항후[江亢虎],<sup>17</sup> 야오지잉[姚季英], 자스뎬[查士端],<sup>18</sup> 왕양[汪洋],<sup>19</sup> 왕

傳』, 北平文化學社, 제6쪽).

- 13 타오용[陶鏞](1895~1985), 이름은 善鏞. 자는 咏韶. 호는 鏞 또는 宏齋이며 별명은 冷月로 陶淵明의 후손이다. 장쑤[江蘇] 쑤저우[蘇州] 사람이다. 조부 타오치쑤[陶芑孫]과 타오이쑤[陶詒孫]은 모두 유명한 화가였다. 어려서 뤼수민[羅樹敏]에게 그림을 배우고 동서양의 학문을 함께 공부했으며, 나중에 옌원량[顏文梁]과 그림을 논하였고, 눈과 달을 특히 잘 그렸다. 1918년 이후 창사, 난징, 카이펑[開封] 등 대학교수를 역임했다. 차이위안페이는 그를 새로운 中國畫의 선구자로 칭송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중국미술협회 상하이 분회 회원 및 상하이 文史館 직원으로 일했다.
- 14 디위[狄郁], 허난[河南] 지역의 재사로, 중화민국 초기 孔教를 제창하였으며, 저서로는 『孔教評議』가 있다.
- 15 왕자오[王照](1859~1933), 자는 小航. 호는 芦中窮士 또는 水東이라 한다. 허베이[河北] 닝허[寧河, 지금은 天津에 속함] 사람이다. 光緒 20년(1894) 진사에 급제하여 한때 戊戌變法에 참여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간 후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나중에 청나라 조정에 다시 투항하였다. 이후 官話合聲字母를 제창하여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쳤다. 1913년 위안스카이가 그에게 讀音統一會 부의장을 맡겼다. 독음통일회는 그의 관화합성자모를 기반으로 併音 방식을 고안해 내었고, 1917년 北洋 정부가 이를 비준하여 실시하였다.
- 16 민얼창[閔爾昌](1872~1948), 자는 葆之로 청말 위안스카이의 막료였으며, 중화민국 초기 北洋政府 總統府 비서를 지냈다. 1927년 이후 輔仁大學 교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雲海樓詩存』, 『雷塘詞』 등이 있으며, 10년 동안 고생한 끝에 『碑傳集補』 60권을 편찬하였다[金毓黻(1967), 「閔爾昌傳」, 『國史館館刊』, 2권 1기].
- 17 장항후[江亢虎](1883~1954), 이름은 紹銓, 별호는 無文·抗斧·康瓠, 별명으로 無我廬·素憲堂이 있다. 장시[江西] 이양[弋陽] 사람으로, 南社 회원이었다. 청나라 말기 編譯局 總辦, 北洋官報 總纂, 刑部 主事, 京師大學堂 教習, 法部 員外郎 등을 지냈다. 1901년부터 여러 차례 일본과 유럽에서 유학하면서 떠돌았다.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자 중 하나이다. 1910년 무종교·무국가·무가정의 三無主義를 제창하였다. 1911년 상하이에서 사회주의 연구회를 조직하고, 잡지 『社會星』을 창간하였다. 1911년 11월 중국 社會黨을 조직하였다. 1913년 중국 사회당이 해산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1921년 소비에트 러시아로 갔다. 1922년 9월 장항후는 상하이에 난팡대학[南方大學]을 설립하

고 스스로 교장을 맡았다. 1924년 다시 중국 사회당을 조직하고 1925년 중국 신사회민주당으로 개명하였으며 1926년 해산하였다. 1927년 여름, 캐나다대학 중국문학원장 겸 漢學 주임교수를 맡았다. 1939년 왕징웨이의 괴뢰 정권에 참여하여, 1946년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저서로는 『無我廬文存』, 『無我廬詩存』, 『江亢虎文存初編』 등이 있다.

18 자스뉘[查士端](1877~1961), 자충리[查忠禮]를 가리킨다. 저장[浙江] 하이닝[海寧] 위안화진[袁花鎮] 사람이다. 12세부터 난징의 고모집에 맡겨 길러졌으며, 고모가 그를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켰다. 신해년에 혁명에 호응하여 학생군을 조직하였다. 1926년 방향을 전환하여 언론계로 투신하면서 상하이에서 『小日報』를 간행하였다[查良安(2001), 「愿世界永遠和平—父亲查忠禮逝世四十年祭」, 『蘇州雜誌』, 제6기].

19 왕양[汪洋](1878~1921), 자는 子實, 별호는 影廬·影生·破園·石皮·听歌人. 안후이 징더[旌德]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양저우[揚州]에 살았다. 한때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언론계에 투신하였으며, 그 전에 평톈[奉天, 지금의 沈陽]에서 『東三省日報』를 간행하여 反清 혁명을 고취하였다. 1911년 상하이로 건너가 『中華民報』의 편집장을 맡아 보았다. 신해혁명 이후 國民黨에 가입하였다. 1913년 3월 송자린[宋教仁] 사건이 일어나자 위안스카이 토벌을 주장하면서 격렬한 논조의 연설을 발표하곤 하였다. 2차 혁명이 실패한 후에 의탁할 곳이 없어진 그는 쉬스잉[許世英](1872~1964)의 요청으로 북상하였으며, 얼마 후 그를 따라 푸젠[福建]으로 가 教育科 과장을 맡았다. 나중에 쉬스잉 제정에 반대해야 한다고 왕양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단치루이[段祺瑞] 내각이 조직된 이후 쉬스잉이 總交通으로 들어가자, 왕양은 상하이로 가 電政局 監督을 맡았다. 쉬스잉이 퇴임하자 왕양 역시 같이 물러났다. 그는 시문을 즐겨 南社의 회원이었다. 또한 여행을 좋아하여 한때 시베리아까지 가서 바이칼호를 거쳐 우랄산맥을 넘어 페테르부르크까지 여행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타이완과 일본에도 갔었다. 1921년 병이 들었는데 돌팔이를 찾아가는 바람에 4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저서로는 『息影枝談』, 『影生雜記』, 『臺灣』 등이 있다[鄭逸梅의 『南社叢談』 가운데 「南社社友事略·汪洋」, 上海人民出版社(1981년 판), 151~152쪽; 邵迎武(1994), 『南社人物吟評』,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06쪽; 沃丘仲子(1926), 『當代名人小傳』, 「汪洋」, 崇文書局, 148~149쪽 참고].

20 뤼자링[羅伽陵](1864~1932), 성이 뤼스[羅詩]였으나 나중에 뤼[羅]로 줄여 부르게 되었다. 본명은 儷穗이며 儷蕤라고도 한다. 호는 伽陵. 상하이에서 태어

났으며, 부친 루이는 프랑스 사람이고, 모친은 푸젠 민현[閩縣] 사람이다. 어려서 부친이 프랑스로 돌아가고 모친도 병사하자 외숙부 등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였다. 1886년 상하이의 영국 국적 유대인 거부인 하둔(Silas Aaron Hardoon)과 결혼하고, 옛날 상하이에서 유명했던 하둔 가든, 즉 愛園에서 생활하였다. 뤼자링은 글을 알지 못했지만 남에게 대필을 시켜 글을 발표하였다.

- 21** 천위안춘[陳鶯春], 同盟會 회원이다. 1911년 7월 31일, 동맹회 중부 총회가 상하이 베이쓰촨로[北四川路] 湖州會館에서 출범하였다. 공개 활동의 편의를 위해 진원춘은 주사오빙[朱少屏]·마상보[馬相伯]·천치메이[陳其美] 등과 같이 영국 조계인 한자우로[漢口路]의 鄭孃里에서 中國國民總會를 조직하고,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模範體操團'을 조직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尙武精神을 제창하면서 무장봉기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 22** 예저우[葉舟], 1914년 상하이대동편집국이 출판한 『安重根傳』에서 일주(一舟)라고 서명하였다. 본명은 예통평[葉桐封], 호가 일주이다. 저장[浙江] 닝하이현[寧海縣] 청관[城關] 사람이다. 청대 宣統 己酉(1908)년 발공에 급제하여 直隸州 通判을 지냈다. 저서로 『一周詩草』가 있다.
- 23** 청위(程洵)는 저서에서 청산즈[程善之]가 여성이라고 명기했지만, 오류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시가 청위의 『안중근전』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청위가 청산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러한 착오가 생겨났을 가능성도 있다. 남사(南社) 회원 가운데 이름이 청산즈[程善之]인 자가 있으나 남자이며, 그 약력은 다음과 같다. 청산즈[程善之, 1880~1942], 이름은 慶余, 호는 小齋, 별칭은 一粟, 齋名은 滙和室. 조상 본적은 안후이[安徽] 歙縣이고, 임시로 거주한 곳은 장쑤[江蘇] 양저우[揚州]이며 南社 회원이다. 부친 청환성[程桓生]은 한때 두 차례 兩淮 鹽運使를 지냈고, 형인 청진우[程錦武]는 진사에 합격하여 翰林院 編修에 제수되었고, 글과 서예로 당시 이름 높았다. 청산즈는 어려서 부친의 밑에서 경서가 아니면 읽지 못했으며, 사책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 못했다. 후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스승의 집에 기숙하면 서부터 몰래 「홍루몽」·「화월혼」 등의 책을 보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허구에 심취한 그는 몰래 소설가들을 모방하여 「駢枝余話」, 「倦雲憶語」, 「清代割地談」, 「女革命吳淑卿」 등을 지었다. 1896년 博士弟子員 후보가 된 후 과거에 뜻을 접고 당시 정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그는 널리 동인을 모아 결사하여 강학하면서 역대 정치변혁을 연구하였다. 1908년부터 1912년까지 揚州府 中學堂에서 가르쳤다. 이때 同盟會에 가입하여, 신해혁명 당시 『中華民報』를 집필하고, 2차 혁명 당시 쑨중산[孫中山]에 가담하여, 문서와 관련된 일을 하

면서 공헌한 바가 많았다. 2차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 양주에 은거하여 두 문분출하면서 바깥일에 관심을 끊었다. 30세 이후 참선의 즐거움에 빠져 교언영색을 경계하며 글쓰기를 삼가하였으며, 후푸안[胡朴安]과 토론을 즐겼다. 1928년 바오밍수[包明叔]가 진장[鎮江]에서 『新江蘇報』를 창간하면서 그를 편집장으로 초빙하였다. 1932년 國難會議 회원으로 초빙되었다. 1935년 천한광[陳含光]·천시칭[陳賜卿] 등과 같이 장타이화[蔣太華]가 설립한 양저우국학전문학교의 교수를 지냈다. 1937년 진장[鎮江]이 함락되자, 그는 『신강소보』사와 함께 타이저우[泰州]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강을 건너 상하이로 피신하였다. ‘신강소보’에서 일하는 동안 항전을 위한 선전에 적극 나서, 1938년 우진[武進]에서 일본 괴뢰의 소위 淸鄉 검색을 겪고 크게 자극을 받았다. 1942년 4월 12일 상하이에서 이싱[宜興] 장주[張耒]로 옮겼다가, 장저우[常州]로 가는 길에 뇌일혈로 사망하였다. 저서로는 『滬和室文存』, 『滬和室詩存』, 『印度宗教史論略』, 『四十年間見錄』 등이 있다[鄭逸梅, 『南社叢談』 가운데 「南社社友事略·程善之」, 上海人民出版社(1981년판), 255~256쪽; 邵迎武(1994), 『南社人物吟評』,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80~281쪽; 肖維琪·顧一平(1991), 『南社中的揚州人』, 15~18쪽 참고]. 청위의 『安重根』 뿐 아니라 1914년 상하이다동편집국이 출판한 『安重根傳』 「선록」에도 청산즈의 현사가 실려 있다.

- 24 페이수웨이[費樹蔚](1883~1935), 자는 仲深, 호는 韋齋. 西門豹가 성격이 급하여 무도질 가죽을 허리에 차고 다닌 뜻에서 이름하였다. 또한 명나라 黃梨洲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 호를 愿梨라 하였다. 다른 호로 左梨·左癖·迂瑣 등이 있다. 장쑤[江蘇] 우장[吳江] 통리진[同里鎮] 사람으로, 류야쯔[柳亞子]의 외숙부이며, 19세에 수재로 급제하였다. 우다청[吳大澂]은 그의 재주를 보고 딸인 우변징[吳本靜]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중화민국 4년(1915) 7월, 페이수웨이는 베이징 정부 肅政史로 들어갔다. 위안스카이의 큰아들 커딩[克定]도 우다청의 사위였으므로 큰 신임을 받았다. 위안스카이가 황제를 참칭하자, 수웨이는 직언으로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월 관직을 벗고 귀향하여 쑤저우[蘇州]에 은거하면서, 장타이엔[章太炎]·진송천[金松岑]·장중런[張仲仁] 등과 시문으로 교류하였고, 장중런과 함께 ‘소주이중[蘇州二仲]’으로 불렸다. 중화민국 16년 5월 8일 국민당 군경이 비밀리에 류야쯔를 체포하려다 그 매부인 링충이[凌誦益]를 잘못 알고 잡아가자, 페이수웨이가 힘을 써 구출하였다. 한때 信孚銀行 이사장과 吳江 적십자사 회장을 지냈다. 1951년 류야쯔가 제안하여 펴낸 『費韋齋集』에는 3000여 수의 페이수웨이의 시가 수록되었다[張仲仁(1935. 5), 「費君仲深家傳」, 『制言』, 『心太平室集』 卷四에 수록; 傅增湘(1948), 「吳江費君墓誌銘」, 『國史館館刊』, 1권 3기].

超 등의 것이다.<sup>25</sup>

그중 자스단, 왕양, 왕타오, 천위안춘, 예저우, 청산즈, 청메이즈와 량치차오의 시문은 청위가 이 책을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것들은 모두 1914년 상하이대통편집국(上海大同編輯局)에서 출판한 『안중근전(安重根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몇몇 글자들이 변경되었고, 어떤 것들은 원 문장 중 일부를 발췌했을 뿐이다. 1914년 상하이대동편집국에서 출판한 『안중근전(安重根傳)』은 ‘동서양위인총사(東西洋偉人叢史)’에 수록된 창해노방실(倉海老紡室)의 원고 『안중근의사전(安重根義士傳)』의 기초 위에 해외 유명인들의 관련 작품들을 보태어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동서양 위인총사를 증간하는바, 이 안중근의사전은 창해로방실의 원고로, 본국에서 원본을 찾아낸 것이고, 여기에 국내외 명사들의 걸작을 그러모아 한편으로 합쳐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한다.”<sup>26</sup> 자스단, 왕양, 왕타오, 천위안춘, 예저우, 청산즈, 청메이즈 등의 헌시는 대부분 이때 수록된 것이다. 고증에 따르면 창해로방실은 박은식의 필명으로, 박은식의 『안중근전(安重根傳)』은 1912년에 탈고된 것이다.<sup>27</sup> 그렇다면 자스단, 왕양, 왕타오, 천위안춘, 예저우, 청산즈, 청메이즈 등의 헌시는 분명 1912년에서 1914년 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량치차오의 「추풍단등곡(秋風斷藤曲)」이 출현한 것은 훨씬 이른데, 경술년(1910)에 지어져 일찍이 상하이상사(上海醒

25 『안중근전』(표지의 제목은 ‘안중근’으로 되어 있고 판권 페이지의 서명으로는 ‘안중근전’이라고 되어 있다), 상하이대통편집국, 1914년판; 윤병석 편(1999), 『안중근전기전집』, 국가보훈처(1999년판), 204~261쪽에 수록.

26 창해로방실(박은식)(1914), 『안중근전』, 상하이대통편집국(1914년판); 윤병석 편(1999), 앞의 책, 204쪽.

27 윤병석 편(1999), 앞의 책, 203쪽.

社에서 출판한 『조선멸망사(朝鮮滅亡史)』에 수록되었다.<sup>28</sup>

그 외 왕서우난, 이순딩 등의 헌사는 청위의 『안중근전(安重根傳)』을 위해 지은 것임을 글의 일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왕서우난이 지은 헌사의 제목은 「제백가거사한의사안중근전후사십운(題自菴居士韓義士安重根傳後四十韵)」이고, 우환치가 지은 헌사의 제목은 「협열행백가거사소작(烈行自菴居士屬作)」으로, 모두 청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순딩의 헌사는 「제안중근전후(題安重根傳後)」를 제목으로 삼고 있고, 소릉승(昭陵僧)의 헌사 역시 「차운일창거사제안중근전후(次韵一庵居士題安重根傳後)」가 제목이며, 탕구이는 「백가거사소작안중근전인형경류후고사, 기실이인역인결야, 우부이절(自菴居士所作安重根傳引荆卿留侯故事, 其實二人亦人杰也, 又賦二絕)」을 제목으로 시 두 수를 지었다. 모두 제목에 청위가 지은 「안중근전」이 들어가 있다. 탕구이는 시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청위는 지금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 어젯밤에 나에게 책 한 묶음을 보여주면서 한국 대장부인 안중근의 전기라고 하지 않는가.”<sup>29</sup>

이 밖에도 자연푸 역시 “청위의 이 전기에 뜻이 있으니, 세인에게 알려 일으키고자 하나 대답이 없네”라는 구절이 있고, 타오용의 헌사 중에는 “아아 자객 안중근이여, 청위가 안중근전을 마친 후에 의기가 북받쳐서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으며, 페이수웨이의 헌사 중에는 “이것을 특히 청후작에게 묻노니 청후작은 혹여 나의 뜻을 알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그들의 헌사가 오로지 청위의 『안중근전』

28 량치차오, 「秋風斷藤曲」, 『朝鮮滅亡史』에 실린 것, 上海: 醒社, 출판년 미상, 3~5쪽.

29 程涓, 『安重根』上篇, 8쪽, 탕구이[唐桂]의 헌시.

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일부 시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위가 주장했던 외적을 죽이는 것이 내부의 적을 죽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뜻에 에둘러서 공명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급할 것이다.

이 책의 중편에 수록된 것은 안중근의 발자취, 의거, 희생 등의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인데, 「후서」 중의 “내가 안중근의 사략을 모아 전기의 머리말로 삼고”라고 진술한 것에 근거한다면 분명 청위가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다. 「서」에서도 또한 “내가 국내외의 잡지를 두루 수집하고 순서를 배열하여 전기로 꾸몄다”<sup>30</sup>고 한 것도 이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하편 부록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가 수집한 것이다. 「후서」에서는 안중근의 「혈루어」를 청위가 ‘전기의 후기로 수록한 것’<sup>31</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편찬자가 청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고 출판했으며, 그 자신이 직접 출자하여 인쇄했을 가능성이 큰데, 출판사 등의 항목이 분명히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위는 1933년 『역대존공기공교외론합각(歷代尊孔記孔教外論合刻)』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상하이도덕회(上海道德會)의 명의로 출판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여러 방면의 인사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인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위안은 단지 이 책의 제목을 써 준 사람으로, 그 외에는 이 책과 어떤 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정위안은 상하이에 은거하면서 서예작품을 팔아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위는 젊었을 적부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하여 이름난 작가들의 서화

---

30 程滄, 「序」, 『安重根』上篇, 1쪽.

31 程滄, 「後序」, 『安重根』上篇, 5쪽.

작품들을 소장하고 많은 서화 명인과 사귀었다. 후에는 또한 리처드 티모시의 증문 비서가 되었는데, 리처드 티모시는 중국의 권세 있는 자들과 널리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청위의 교제도 자연스레 더욱 넓어져 정위안과는 일찍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다. 이때 또한 상하이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청위가 그에게 서명을 적어주길 청한 것도 도리에 어긋날 것 없는 일이었다. 이 책 표지의 ‘안중근’ 석 자의 서체나, ‘장자정원(長沙鄭沅)’ 아래쪽에 찍힌 도장 등으로 보았을 때 정위안이 기념으로 글자를 쓴 것 또한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청위가 이 책을 편찬한 배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출판 시기 파악이 매우 결정적일 것이다. 이 책은 출판사와 출판시기를 밝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실마리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출판시기를 한시준은 192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신한청년(新韓靑年)』 창간호의 출판시기를 근거로 추정한 것인데, 『안중근』과 『신한청년』에 실었던 안정근의 글이 수록되어 있고, 주해에서 그 글이 『신한청년』 창간호에 최초로 실렸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청년』 창간호는 모두 두 종이 출판되었다. 한 종은 1919년 12월 1일 상하이에서 출판된 것이고, 다른 한 종은 1920년 3월 1일 상하이에서 출판된 것이다. 1919년 출판된 『신한청년』 창간호에는 안정근의 글이 없으며, 1920년 3월 1일 출판된 『신한청년』 창간호에는 안정근의 「여지래화후감상(余之來華後感想)」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단지 몇 글자만 다를 뿐 「혈루어(血淚語)」와 일치한다. 따라서 『안중근』의 출판시기를 1920년 3월 1일 이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sup>32</sup>

32 韓詩俊(2000), 앞의 글.

한시준의 설명에는 근거가 명확한 편이지만, 김춘선은 『신한청년』 창간호가 1920년 3월 1일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단지 안정근의 글에서 “게다가 전년(前年) 조선인이 지린성(吉林省) 연지현(延吉縣)에서 질서정연하게 독립만세를 외쳤을 뿐 결코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중국 군대가 출동하여 이들에게 총을 쏘아 현장에서 즉사한 자가 19명이었다”라는 구절을 보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을 1919년 3월 13일 중국 군경이 용정 조선인 시위를 진압한 일로 보고, 이 책의 출판을 1920년을 넘긴 시기, 즉 1920년대 초로 추정한 것이다.<sup>33</sup> 다시 말해 김춘선이 추정하는 출판시기는 한시준의 추정보다 최소한 1년 이후인 것이다. 하지만 김춘선의 결론은 ‘전년(前年, 중국어로는 재작년의 뜻-역자주)’이라는 단어 하나를 근거로 삼고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국어에서 ‘전년’은 ‘그 전 해’, 즉 ‘작년’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작년’으로 해석한다면, 안정근의 글이 1920년 초부터 3월 1일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셈이다. 게다가 안정근은 이 글에서 “그때부터 10년 후(안중근 사후 10년 후-필자), 나는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바, 중국에 대한 감상의 표출을 금할 수 없어 이 정성스러운 진심을 그대로 알리는 바이다”<sup>34</sup>라고 말하고 있으니, 글자 그대로 해석해 1920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안중근』의 출판시기를 1920년 3월 1일 이후로 추정할 수 있을 뿐, 1921년 3월 1일 이후로는 볼 수 없다.

이 밖에도 이 책에 수록한 여러 명사들의 헌사에 이 책의 내용이 작

33 金春善(2005), 앞의 글.

34 安定根, 「血淚語」, 程清, 『安重根』 下篇, 부록二, 11쪽.

성된 시기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앞에서 인용한 「후기」에서 “발간하고자 하는데, 또한 국내외의 신문·잡지에서 안중근의 아우 정근이 쓴 ‘혈루어’를 발견하였다”는 부분을 통해 우리는 이 책에 수록된 나머지 내용은 1920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작성되었다고 대체로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런데 앞선 논술에서 밝혔듯이, 양치차오의 「추풍단등곡」은 경술년(1910)에 지어졌고, 자스완, 왕양, 왕다오, 천위안춘, 예저우, 청산즈, 청메이즈 등의 헌사는 1914년 혹은 그 이전에 지어졌다. 따라서 이것들은 이 책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청위의 『안중근전』만을 위해 지어진 헌사들의 제작연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왕서우난(1851~1936)의 「제백가거사한의사안중근전후사십운(題白菟居士韓義士安重根傳後四十韻)」은 「제정백가한의사안중근전후사십운(題程伯菟韓義士安重根傳後四十韻)」라고도 하는데, 그의 『도려시속집(陶廬詩續集)』 권10 「사가화시집(斜街花市集)」(陶廬叢刻二十, 丁巳년二月간행)에도 수록되어 있다. 「사가화시집」은 왕서우난이 ‘무오년(1918)에서 기미년(1919)’의 2년간 지은 것으로, 안중근에 대한 헌사는 무오년, 즉 1918년에 지어졌다. 앞서 인용한, 청위가 「후서」에서 설명한 것에 따르면 안중근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안중근전』과 「서」를 지은 것은 여러 작가들의 글을 요청하기 전이라고 하니 대체로 그는 1918년 이러한 작업을 했던 것 같다.

이 밖에도 페이수웨이(1883~1935)의 헌사 가운데 “이 일이 올해로 10년이다”라는 구절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10년이라는 것으로, 대략 그의 헌사가 1919년쯤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리가 맞는다면 청위가 동인들에게 『안중근전』을 위해

헌사를 요청한 것은 1918년에서 1919년 사이가 될 것이다.

### 3. 주지와 주장

순수하게 역사적인 각도에서만 보자면 청위의 『안중근전』은 박은식의 『안중근전』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지은 비슷한 종류의 작품들 중에서도 좋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청위는 신문·잡지상의 자료들에 주로 의거하고 있는데, 그 각 신문들의 보도내용은 일치하지 않아서 몇 가지 정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중근의 출생지에 대해 「안중근전」에서는 한국 평안도(平安道) 진남포(鎭南浦) 사람이라고 했다가, 중편의 안중근 「약사(略史)」에서는 다시 안중근과 그의 부친이 모두 평안도(海-필자)주(平安道州)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중화(中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도 있는데,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부근 일대에서 태어났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35</sup>고 적고 있다. 안중근은 스스로 자신이 평안도 해주(海州)의 수양산(首陽山)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sup>36</sup>

이 밖에도 청위의 「안중근전」에는 오류가 많은 편이다. 청위는 「안중근전」에서 안중근의 부친의 이름인 태훈(泰助)을 태혼(泰混)으로 적고 있다. 청위는 안태훈이 “천주교를 믿었고, 한때 경상남도 진해(鎭海) 군수(郡守)를 지냈으나 대원군의 일로 가장 먼저 배일(排日)을 주장하다가 하옥

35 程滄, 『安重根』 中篇, 略史, 刺客之家世, 1쪽.

36 안중근, 「安應七歷史」, 윤병석 편, 앞의 책, 64쪽.

되어 죽었다”<sup>37</sup>고 적고 있다. 하지만 사실 안태훈은 유생으로 진사가 되었으나 군수를 지낸 적은 없고, 조부인 안인수(安人壽)가 진해 현감(縣監)을 지냈다. 안태훈이 천주교를 믿게 된 것도 1895년 이후의 일이다. 1894년 조선에 동학당(東學黨) 기의가 일어나자, 당시 안태훈은 향용(鄉勇)을 조직하여 고향을 지켰고, 안중근 역시 이 일에 참여하여 붉은 옷을 입고 용감하게 싸워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 불렸다.<sup>38</sup> 이후 어떤 재상(宰相)이 군량미를 사사로이 착복하였다는 죄로 안태훈을 소환하려 하자 어쩔 수 없이 프랑스인의 천주교당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안중근도 이때 천주교에 귀의하게 되었다.<sup>39</sup> 이 일은 대원군과 관계가 없으며 그 때문에 죽은 것은 더욱 아니다.

안태훈이 사형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청위는 「안중근전」에서 부친 사후 “중근은 홀로 괴롭고 의탁할 곳이 없어 평양 농가에 숨어 들었다”<sup>40</sup>고 표현하고 있으며, 증편의 「약사·자객지가세(略史·刺客之家世)」에서는 “안씨 가문이 화를 당한 후 빈곤하게 자랐고, 어려서 부모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극히 고생을 하였다. 그렇게 비할 바 없이 고생이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미리 환란을 우려하는 마음을 깊게 했을 것이다”<sup>41</sup>라고 하나 이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중근의 집안은 본래 가산이 풍부하고 식구들도 많았으나, 단지 1895년 이후 안중근이 가산 관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상무(尙武) 정신 진작에만 전념하여, 가

37 程滄, 『安重根』上篇, 安重根傳, 1~2쪽.

38 朴殷植, 「安重根傳」, 『朴殷植全書』中, 569쪽.

39 朴殷植, 위의 글, 569쪽.

40 程滄, 「安重根傳」, 『安重根』上篇, 2쪽.

41 程滄, 『安重根』中篇, 略史, 刺客之家世, 1쪽.

산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고향 청년들을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하고, 또 각지를 돌면서 뜻이 맞는 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만들고 비용을 대다 보니 가산을 탕진하기에 이르러 생계가 점차 막막해졌을 뿐이다.<sup>42</sup>

또 청위는 “김옥균(金玉均), 우범선(禹范善), 박용화(朴鏞和), 이완용(李完用) 피습에 안중근이 모두 관여하였다”<sup>43</sup>고 하였으나, 사실 김옥균은 청일 전쟁 이전에 조선 조정에서 보낸 홍종우(洪鍾宇)에게 피습당했을 뿐 안중근과는 무관하다. 비교해 보면 사실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1917년 양난춘(楊南曄)이 편찬한 『세계망국비사(世界亡國裨史)』<sup>44</sup> 가운데 「한국의사소전(韓國義士小傳)」의 안중근전 부분에도 못 미친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위는 아마도 당시 이미 출판된 박은식의 『안중근전』이나 다른 중국인의 관련 저술을 그다지 참고하지 않은 듯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위가 편찬한 『안중근』은 안중근을 연구한 사료로서 가치는 크지 않다. 사실 청위의 편찬 취지는 안중근의 업적이나 사상 연구에 있지 않았으며, 수록한 자료를 제외하면 청위가 쓴 「안중근전」은 채 1,000자도 되지 않아 겨우 한 페이지를 약간 넘을 뿐이다. 그가 이 책을 편찬한 취지는 대략 안중근의 의거를 빌려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 명사들의 헌사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그 내용은 한국과 안중근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또는 5·4운동을 전후한 시기 시국에 대한 중국 문인들의 인식과

---

42 朴殷植, 「安重根傳」, 『朴殷植全書』 중, 571쪽.

43 程涓, 『安重根』上篇, 安重根傳, 2쪽.

44 上海交通圖書館, 1917년 초판, 1928년 상하이 進益學社는 이 책을 『亡國痛史』로 이름을 바꾸어 재판하였다.

주장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sup>45</sup>

안중근 사건의 의의에 대해 1914년 상하이다통편집국은 『안중근』을 재출판했을 때 그 의미가 “근세기의 영웅 호걸들과 국민 심리를 연구하는 데 실로 좋은 재료가 되는 데 있다”고 하고, “근년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세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 책을 통해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적고 있다.<sup>46</sup> 그런데 청위가 편찬한 『안중근』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이 책의 속표지에 특별히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이 책은 조선의 안중근이 아직 망국에 이르지 않았던 시기에 이완용과 이용구(李容九) 등의 매국노를 처단하였더라면 조선이 멸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나라 안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의 죄는 매국노와 마찬가지로), 망국 이후에야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것은 이미 때늦은 일로서 오히려 조선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맹자가 일찍이 이르기를 나라는 스스로 무너진 이후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하는 법[國必自伐, 然後人伐之]이라고 하였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취했는데 이토 히로부미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대장 부라면 하루 속히 이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에 실린 명사들의 발문과 헌사를 통해서 우리는 청위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타오이(陶毅)는 「서안중근전후(書安重根傳後)」에서 청위가 펴낸 「안중근전」에 대해 “특히

---

45 상술한 金春善의 논문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5·4운동 이후의 결과물로 보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편차를 피할 수 없었다.

46 창해로방실(박은식)(1914), 앞의 책 ; 윤병석 편, 앞의 책(1999), 204쪽.

기쁜 것은 그 발단과 말투가 나와 약속한 듯 일치한 것이다”<sup>47</sup>라고 밝히고 있다. 그 역시 안중근의 업적이 진시황을 격살하려 했던 형가(荊軻)를 넘어서나, 그 식견만은 진회(秦檜)를 격살하려 했던 시전(施全)에 못 미친다고 여겼다. 시전은 “이 한 몸 바쳐 외적을 죽인다면, 무수한 외적을 다 섬멸할 수 없다. 차라리 몸을 버려 매국노를 죽인다면 그들에게 빌붙거나 나중에 그 뒤를 좇아 나라를 팔아먹을 적들이나 나라를 팔고 적에게 아첨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까지 동시에 경계하고 두렵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감히 나라를 팔지 못하게 만들 것이니 효과가 크다. 또한 전국의 민심을 불러 일으켜 함께 힘을 합쳐 외적에 대항한다면 망국의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sup>48</sup>고 하였다. 안중근에 대해서도 같은 이치로 “이토 히로부미 하나를 죽여 울분은 풀었으나 나라를 구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조선의 망국을 재촉하였으니, 형가가 진시황 격살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燕)의 망국을 재촉한 것과 비교하여 과연 누가 더 낫단 말인가?”<sup>49</sup> 따라서 타오이는 안중근과 같은 열사가 “외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원수로 삼은” 시전처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심지어 “안중근에게 시전의 식견을 주어 그의 편리한 기계와 명증하는 솜씨로 먼저 이완용·이용구와 같은 간신배들을 처단하였다면 충의(忠義)를 부르짖게 하고, 민중을 분발시키며 폐단을 일소하여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일본 총감을 격살하여 생명도 잃고 나라도 잃는 것보다 어찌 낫지 않겠는가!”라

47 陶毅, 「書安重根傳後」, 程涓『安重根』上篇, 4쪽.

48 陶毅, 위의 글, 3쪽. 방점은 원문에서 넣은 것으로(이하 동일), 타오이나 청이가 의식적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49 陶毅, 위의 글, 3쪽.

고까지 가정하고 있다.

우환치 역시 「협열행백가거사속작(俠烈行白叢居士屬作)」에서 청위의 견해에 대해서 “청 선생의 위대한 이론에 하나의 해석을 더하자니 감개무량하여 가슴이 뒹다”<sup>50</sup>고 평가하고 있다. 그도 “안중근에게 큰 뜻이 있었다면 자강하여 외세에 대응해야 함을 일찍이 상소했어야 했다. 암살은 단지 대내적으로 하여 간신배 무리를 일소하고 위기를 면했어야 한다”고 하고, 이용구나 이완용 같은 일부 매국노에 대해서는 만약 “망국 이전에 일격할 수 있다면, 실로 번개로 힘찬 천둥 소리를 울리는 격이다. 조선의 모든 인심을 진동하게 하였다면, 힘이 없더라도 분발하여 치행했을 것이다. 지금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도 적에는 손실이 없으니, 헛된 죽음은 마치 경충을 잃은 듯 하도다”<sup>51</sup>라고 말하고 있다.

자언푸(賈恩馱) 역시 시구에서 매국노로 인한 화가 외적보다 크다고 강조하고 있어, 청위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탄식하면서 “안타깝게도 안중근의 계획이 너무 졸렬하니, 당시 만약 내환(內患)을 먼저 제거했다면 많은 희생이 없었을 것이다. 나라를 팔아 몸을 일으킨들 목숨이 위태롭다면, 매국노들도 크게 놀라서 앞다투어 마음을 바꾸었을 것이다. 호랑이에 빌붙는 창귀(佞鬼)가 없어지고 새에 붙는 새어리가 없는 격이니, 금수강산을 어찌 보전하지 못하겠는가! 안타깝게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것만 알았으니 집안의 도적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이다”<sup>52</sup>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탕구이, 야오지잉, 천시치 역시 청위의 주장에 동의하고

50 吳傳綺, 「俠烈行白叢居士屬作」, 程涓『安重根』上篇, 6쪽.

51 吳傳綺, 위의 글, 6쪽.

52 程涓, 『安重根』上篇, 7쪽.

있다. 탕구이는 “호랑이에 빌붙는 창귀를 모두 제거했다면, 강력한 이  
 웃이 욕심을 내었어도 얻지 못했을 것”<sup>53</sup>이라고 말했다. 야오지잉도 시  
 구를 통해 “드높은 뜻으로 고귀한 생명을 바쳤으나 슬프도다, 이미 양  
 을 잃고나서 우리를 고치는 것은 필시 늦은 것을”이라고 했다. 천시  
 치 역시 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간신배 무리들이 기세 등등히 높  
 은 자리를 차지하고 충의가 사라진 협열(俠烈)의 세월, 36명이 모두 장  
 사였으나 일찍이 피로 맹세하고 탐욕의 근원을 씻었어야 했거늘.”<sup>54</sup> 차  
 이위안페이 역시 시를 통해 나라는 스스로 무너진 이후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하는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중근의 의거가 결국 조선  
 을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는 없었다고 탄식하여, 청위의 견해에 동의하  
 는 듯이 보인다. 그는 당권을 잡았던 매국노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  
 다. “통분스럽게도 정권을 잡은 그들 모두가 간사함에 기대었다. 정치  
 와 교육이 이미 사라지고 나라의 기율이 끊기니, 이익과 손해가 처음에  
 는 작아도 나중에는 천지차이이다. 혹은 자멸하거나 권력을 다투며 서  
 로 당긴다. 마치 물건이 부패하면 혼란스레 몰려드는 개미들 같구나.”  
 안중근의 의거에 대해서도 “슬픔으로 침묵하고, 상심하여 이를 악물었  
 다. 홀로 분연히 나섰으나 결국 사직을 연장하지 못했으니, 아아, 열사  
 여!”<sup>55</sup>라고 탄식하고 있다.

타오용은 원칙적으로는 매국노를 처단해야 한다는 청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시에서는 매국노 처단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 이 말을 듣고 긴 한숨을 쉬네, 역발산의 기개로도

53 程滄, 위의 책, 9쪽.

54 程滄, 앞의 책, 12쪽.

55 程滄, 앞의 책, 10쪽.

간적을 없애기가 실로 어렵구나.”<sup>56</sup> 디위는 “한국이 결국 멸망한 것을 호자는 그의 탓을 하나, 그 말은 궤변일 뿐 나는 아니라고 적는다”고 하여, 안중근의 이토 이로부터 암살로 조선의 멸망이 가속화되었다는 주장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청위가 “이르기를 당시 예봉을 내부의 간신배에게 돌렸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구절에는 바람과 서리가 있어 의가 가득하다. 백세에 진작시켜 그리는 마음을 다 하니, 영웅의 감화력을 능히 점칠 수 있었다”<sup>57</sup>고 격찬하였다. 페이수 웨이만이 청위와 다른 견해를 보여, 이완용 등 매국노 처단보다는 이토 히로부미 처단이 나왔다고 본다. 왜냐하면 매국노 역시 외부의 적의 유혹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즉 “이익과 지위로 유혹하는 데 누가 단념 하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적과 싸울 때는 마땅히 우두머리를 먼저 잡아야 하니, 문제는 여기가 아닌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sup>58</sup> 하지만 페이수웨이 역시 “간사한 무리들을 죽이는 것도 할 만한 일이니, 이웃을 원수로 여기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안씨의 죽음과 가벼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무성한 뽕나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이쪽 이지 저쪽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야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진부한 이야기라며 멸시당하고 있다”<sup>59</sup>고 하고 있다.

청위가 내부의 간신과 매국노를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당시 중국 상황을 겨냥한 말이었다. 그의 이러한 의도는 서언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이 글을 통해 안중근을 칭송하는

56 程澐, 앞의 책, 8쪽.

57 程澐, 앞의 책, 10쪽.

58 程澐, 앞의 책, 13쪽.

59 程澐, 앞의 책, 13쪽.

이유는 “무릇 망국을 견딜 수 없는 자라면 나라를 망치려는 자들에게 먼저 칼을 뽑아 들어야 하고, 감히 스스로 나라를 망치려는 자들은 나라 안에 안중근과 같은 자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면 오호,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임을 천하의 후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sup>60</sup>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위의 「안중근전」에 헌사를 쓴 다른 명사들도 청위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우찬치는 시를 통해 “그 말을 듣고 오래 탄식하였으며, 상대는 말이 없고 마음은 침통함에 취해 있고자 하는구나. 당신께서 크게 외쳐 귀가 어두운 자들을 깨우쳐 물 위의 종과 북이 뚝뚝 울리는 소리 같다. 그렇지만 깊이 미혹되어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외로이 걱정한다”<sup>61</sup>라고 하였다. 자연푸 또한 이렇게 말했다. “청후작의 이 전기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 보며 반응하지 않는다. 내 더욱 천하를 질타하노니, 약자는 권고할 수 있으나 강자는 징벌해야 한다. 이 책이 거듭 널리 읽힌다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흥할 날이 있을 것이다”<sup>62</sup>고 언급하고 있다. 역순정도 청위의 「안중근전」은 결코 그의 의협심을 칭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려 국내의 매국노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청위가 전기를 쓴 뜻은 다른 데 있으니, 결코 협열지사를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곧 그 의거를 빌려 내부의 간신배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춘추 편찬이 난적을 경계하는 데 뜻이 있듯이, 협의

60 程洵, 앞의 책, 序, 1쪽.

61 吳傳綺, 「俠烈行白霞居士屬作」, 程洵, 『安重根』上篇, 6쪽.

62 程洵, 『安重根』上篇, 7~8쪽.

치사 또한 따라야 할 모범을 남긴다”<sup>63</sup>라고 하였다. 자오링썩[昭陵僧]은 「차운일창거사제안중근전후(次韻一庵居士題安重根傳後)」에서 “청위의 뜻은 각 별했는데, 다만 세월이 오래되어 충렬이 문힐까 두려우니, 바람과 서리를 문구에 끼어 간특한 이들에게 경고하고, 만고에 매국노를 꾸짖는다”<sup>64</sup>고 언급하면서, 나아가 중국에도 안중근 같은 열사가 나타나 매국노를 처단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중국의 침몰은 하룻밤 사이의 일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찾고자 하나 얻지는 못하니, 우리로 하여금 오래 탄식하게 만드는 구나”<sup>65</sup>라고 직접 말했다. 탕주이는 심지어 “중원에 여우와 쥐가 실로 많으니, 여우와 쥐를 죽일 손에 도끼가 없도다. 오호라, 손에 도끼가 없으니 어찌하랴! 중원에 여우와 쥐가 실로 많구나!”라고 했으며, 천시치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있다. “한 구절씩 찾아서 한 수를 지으며, 패기가 사라진 구주(九州)를 바라본다. 어떻게 선생 같은 사람들을 수천 수만 얻어 몸을 바쳐 원수를 찢어버리겠는가.”<sup>66</sup>

그렇다면 청위와 타오이가 지적하고 있는 중국 내의 매국노란 과연 어떤 이들인가? 안정근은 「혈루어(血淚語)」에서 중국인이 “만청(滿淸) 배척에는 용감하나 외국인은 겁낸다”고 비난하고, “오늘날 중국에 위인 가운데 일본을 겁내지 않는 자가 드물다”고 하면서 무력으로 일본의 침략에 항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정근은 “오호라, 오늘의 중국을 구하고자 하면, 백성의 뜻을 격동시키고 민기를 불러일으켜 4억 명의 뜨거운 피로 섬나라 민족에 대항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수많은

63 易順鼎, 「題安重根傳後」, 程洵, 『安重根』 上篇, 7쪽.

64 昭陵僧, 「次韻一庵居士題安重根傳後」, 程洵, 『安重根』 上篇, 7쪽.

65 程洵, 『安重根』 上篇, 9쪽.

66 程洵, 위의 책, 12쪽.

은 정책이 모두 헛되고 공허하며 쓸모가 없으니, 결국은 자멸의 길로 빠질 것이다. 소위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흐르는 피로 말해야 할 것이다”<sup>67</sup>라고 소리 높여 질타하고 있다. 안정근의 이러한 글에 대해 청위는 「후서」에서 이 글은 “읽으면 처절함을 느끼게 만든다. 진정 뜨겁게 끓는 피눈물이 시문 사이에 비치는 듯하다”<sup>68</sup>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글을 “구절구절 금과옥조이고 한 글자 한 글자 피눈물이니, 읽으면 진정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기에 충분하다”<sup>69</sup>고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혈루어를 보며 조선인에게만 권함이 있는 바가 아니고, 강함에 빌붙어 약자를 짓밟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도리임을 중국인에게도 간곡히 경계하는 것이다. 우리 중국이 어찌 안중근과 같은 지사의 길을 함께할 사람이 없겠는가, 의분에 찬 동포가 없단 말인가? 만약 있다면 이 풍문을 듣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 조정 어른들은 혼란한 강역을 두고도 강한 이웃 나라를 두려워하여 빌붙고자 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쥐와 여우의 꼴이구나. 백성을 못살게 굴면서 서로 뒤질세라 기름진 배를 불리고 있으니, 뼈만 앙상하도록 피를 빨린 우리 백성들은 물이 말라버린 연못의 물고기 꼴이구나. 안으로는 내분이 끊이지 않고 밖으로는 이를 틈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온 나라가 위기를 걱정하는데도, 영욕을 위해 망국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권력만을 지키려 하니, 조선의 이완용이나 이용구와 같은 매국의 무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관료들도 어쩔 줄을 모르며, 국법조차 방법이 없다. 오로지 애

67 安定根, 「血泪語」, 程洵, 『安重根』下篇, 10~11쪽.

68 程洵, 「後序」, 『安重根』上篇, 4쪽.

69 程洵, 『安重根』下篇, 8쪽.

국의 열혈지사가 있어 서로 함께 다섯 길을 피를 흘리면, 다소 그 흉악하고 완고한 자들을 경계하게 만들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만약 안중근이 우리 중국의 오늘에 태어났다면, 말할 것도 없이 피로써 행하고 틀림없이 의연히 무기를 들고 나섰을 것이다. 그가 무기를 이토 히로부미에게 향하지 않고 먼저 내부에 더 악한 무리인 이완용과 이응구 등을 향했을 것은 역시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sup>70</sup>라고 하고 있다.

1918년에서 1919년을 전후한 중국의 현실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청위가 가리키고 있는 중국의 매국노는 곧 북양군벌(北洋軍閥)과 지방군벌(地方軍閥), 특히 그들 가운데 친일파이다. 1918년 5월 베이징 정부는 일본과 ‘중일육군공동방어협정’과 ‘중일해군공동방어협정’을 맺음으로써 중국을 침략하려는 일본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는 중국 민중의 항거를 불러일으켜, 재일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접고 귀국하는 사태를 초래하는 등 5·4운동의 전주곡이 되었다. 5·4운동이 일어난 후 차오루린(曹汝霖), 루종위(陸宗輿), 장종상(章宗祥) 등 친일파는 매국노로 손가락질받게 되었고, 당시 중국의 국내 여론은 대부분 이들 매국노를 성토했다. 당시 보수적인 문인에 속

70 程滄, 「後序」, 『安重根』 上篇, 4~5쪽.

71 일례로 베이징대학 학생이 베이징 시민을 대상으로 ‘이완용과 조선[李完用與朝鮮]’이라는 강연을 하였다(『五四愛國運動』 부록, 선언, 베이징학생계선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322쪽). 1919년 5월 6일 『晨報』는 「고려와 중국의 비교[高麗與中國的比較]」라는 글을 통해, 매국노들이 망국의 원흉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매국노들을 성토했을 때 조선이 생각에 닿으면 자연스럽게 안중근도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다. 5·4운동 당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공연한 연극으로 ‘안중근’, ‘고려 망국사’, ‘조선 망국의 한’ 등이 있었다(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1979), 『五四運動回憶錄』 下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783~785쪽).

했던 청위는 1918년 친일 매국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하여 많은 문인의 호응을 받았다. 이는 당시 중국의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행동, 특별한 수단으로 북양군벌에 항거하기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5·4운동 당시 시위 학생들이 조가루(趙家樓, 당시 친일파 관료 차오루린의 집-역자주)에 불을 지르고 장종상에게 못매를 가한 행위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대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반인들이 중국의 정치 전망을 기뻐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수 문인이었던 청위는 국민혁명과 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했고, 따라서 협의지사(俠義之士)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왕서우난은 헌사에서 “청위는 기꺼이 협의지사를 믿었다”<sup>72</sup>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청위는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협의지사로 보았던 안중근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청위가 「안중근전」을 지은 동기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점에 있었다.

청위만이 협의를 숭상했던 것이 아니라 청위의 「안중근전」에 헌사를 지은 이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도 의협심에 찬 이들이 많았다. 이 순딩은 “문인과 무인이 예로부터 함께했으며, 문인이 무인만 못한 것은 어느 하루만의 일은 아니다”<sup>73</sup>라고 했는데, 그 자신도 의협심이 강했다. 청일전쟁 당시 그는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도쿄를 평정한 뒤 타이완으로 가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를 희망했다. 그는 일찍이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평생 20여 년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72 王樹枏, 「題白菝居士韓義士安重根傳後四十韻」, 程滄, 『安重根』上篇, 5쪽.

73 易順鼎, 「題安重根傳後」, 程滄, 『安重根』上篇, 6~7쪽.

신동으로 재자(才子)가 되었다가, 다시 술꾼과 떠돌이 무사가 되었다. 어려서 명사(名士), 유생, 학자, 귀관(貴官)이었으나 결국 은사(隱士)가 되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벼슬자리에 있다가도 칩거하기도 하니, 스승과 벗들이 농하여 부르기를 ‘신룡(神龍)’이라 했다. 그 행적에 정함이 없고 유가 같기도 묵가 같기도 하고, 백이(伯夷) 같기도 류하혜(柳下惠) 같기도 했으니 한마디로 부를 수가 없었다”<sup>74</sup>고 했다. 청산즈 역시 「춘일잡감시(春日雜感詩)」에서 스스로 과거의 경력을 진술하면서 “태어나 배움을 시작하며 만리행을 생각했네. 부귀에 연연하지 않고 공명을 바라지도 않았네. 10세에 서사를 배우니 글로 읊기를 부끄러워 하네. 14세에 무공을 배우고 16세에 능히 병법을 논했네. 20세에 굳은 절개를 짊어지고 세상 사람은 안중에 없었네. 최근 10년 여는 머뭇거리다 결국 아무 성과가 없으니, 재능도 힘도 날로 미약해지며 의기로 헛되이 종횡하네. 유량을 끝마친 늘그막에 다행히 처자의 정이 있네. 살아 다섯 술에 먹지 못하니, 죽어 다섯 술에 삼기지 않으리. 명경 속에 탄식하니, 격정으로 머리를 긁어 슬프게 하네.”<sup>75</sup> 이를 통해 이순딩과 청산즈가 소년 시절 의협심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의 항전 당시 민얼창은 베이징에 은거하여 몇 년 동안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 그는 공원에 나가는 것조차 절개를 잃는 것이라 여겼다. 그는 미국 비행기가 폭격하러 날아온다면 자신이 그 폭탄에 죽어도 애석하지 않다고 상상하여, 높은

74 易順鼎(2003), 「哭庵傳」, 王文濡 편찬, 程大琥·馬美著 주해, 『續古文觀止』, 岳麓書社, 319쪽.

75 肖維琪·顧一平(1991), 「南社中的揚州人」, 112쪽; 鄭逸梅(1981), 『南社叢談』, 上海人民出版社, 255쪽.

민족적 기개를 표현하였다.<sup>76</sup>

차이위안페이는 일찍이 암살에 보다 열중하여, 혁명은 폭동과 암살의 두 가지 길만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암살에는 여성이 더 적절하니, 애국 여학생은 암살의 씨앗을 준비하라”<sup>77</sup>고 하였다. 1904년 여름에서 가을 즈음 차이위안페이는 스스로 암살단에 참가하여 비밀리에 폭탄제작을 시도하였다.<sup>78</sup> 실제로 5·4운동의 발발은 차이위안페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그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애국 열정을 표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sup>79</sup>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청위 등의 인물이 당시 처한 시대적 배경에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의 의협지사에 대한 호소는 5·4운동 전후부터 대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현실에 불만을 가졌으나 정치적 활로를 찾지 못한 평범한 문인들이 생각해 낼 수 있었던 투쟁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바이사[易白沙]<sup>80</sup>는 1921년 혈혈단신으로 베

76 鄭振鐸(1998), 「吳佩孚的生與死」, 『鄭振鐸全集』 제2권, 蟄居散記, 補遺, 五, 花山文藝出版社, 487쪽.

77 蔡元培(1979), 「我在教育界的經驗」, 『蔡元培全集』 제8권, 浙江教育出版社, 507쪽.

78 周天度(1984), 『蔡元培傳』, 人民出版社, 30~34쪽.

79 허쓰위안[何思源]의 기억에 따르면, 1919년 5월 2일 차이위안페이가 교장이 학생 반장과 대표 백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어 파리강화조약이 중국에 불리하다고 설명하고, 지금이 국가 존망이 달린 결정적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모두 일어나 나라를 구하자고 호소하였다[何思源(1979), 「五四運動回憶」, 北京市政協, 『文史資料選編』 제4집, 北京出版社, 67쪽]. 예징신[葉景莘]·량징춘[梁敬鎔]·정톈팅[鄭天挺]·탕웨이[唐偉] 등의 기억에 따르면, 북양 정부가陸征祥 등 전권대사에게 훈령을 내려 서명하였다고 차이위안페이가 베이징대학 학생들에게 알려, 이로 인해 5·4운동이 일어났다[高平叔(1996), 『蔡元培年譜長編』 중, 人民教育出版社, 196~197쪽 참고].

80 이바이사[易白沙, 1886~1921], 본명은 名坤, 자는 越村, 후난 창사 사람이다

이징에 가서 북양군벌의 수뇌를 저격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가 바로 청위 등이 출현을 기대했던 협의지사라고 할 수 있다.

#### 4. 맺음말

안중근의 의거는 중국인들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청위와 그의 저서 『안중근』을 위해 헌사를 쓴 20여 명은 모두 안중근의 의협심을 칭송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형가나 장량(張良)에 비견하여, “안중근의 이름은 형가와 유후(留侯, 장량을 가리킴-역자 주)보다 더욱 빛난다”<sup>81</sup>고 하였다. 안중근의 의거는 또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인상을 바꾸어 놓았다. 우한치는 시 속에서 “안중근의 이름이 만세에 전하니, 조선에 이러한 협의지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조선은 비록 멸망했어도 영광스럽도다”<sup>82</sup>라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인의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켜, 중국에도 안중근과 같은 열사가 출현하기를 모두 희망하였

다. 한때 우찬치의 요청에 따라 안후이[安徽]에서 懷寧中學을 열고, 이어 師範學堂, 旅皖湖南中學堂 교장을 맡아 보았다. 신해혁명 이후 청년군 조직에 참여하였고, 2차 혁명 실패 이후 일본에 망명하여, 장스자오[章士釗]와 함께 『甲寅』 잡지를 창간하여 위안스카이를 공격하였다. 1915년부터 『新青年』에 글을 발표하여 민주와 과학을 주장하였다. 나중에 난카이[南開]·푸단[復旦] 등의 대학교수를 지냈다. 군벌의 혼란상에 불만을 느껴 1919년 호남으로 돌아가 루산(麓山)에 홀로 은거하며 침울하게 지냈다. 1921년 손중산이 편지로 함께 일을 도모하자고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나중에 홀로 베이징으로 가서 북양군벌의 수뇌를 습격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성과가 없자, 그해 단오절에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81 程滄, 「序」, 「安重根傳」上篇, 1쪽.

82 吳傳綺, 「俠烈行白叟居士屬作」, 程滄, 『安重根』上篇, 6쪽.

다. 왕자오는 “가련하게도 우리 중원은 암담하니, 형가의 혼이 돌아오기를 읍소한다”<sup>83</sup>고 한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당시 상황과 결부시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의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대다수는 내부의 적 처단이 외부의 적 암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 중국에서는 열사가 나타나 매국노를 처단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것이 민족을 멸망에서 구하기 위한 급선무라고 보았다. 이들의 경력과 사상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범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무장투쟁주의(鐵血主義)에 대한 그들의 호소는 5·4운동을 전후한 중국 국내의 정치적인 분위기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새로운 대혁명이 곧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

83 程消, 『安重根』上篇, 10쪽.

# 중일전쟁 직후 식민지 조선인의 만주와 중국에 관한 인식

– 최남선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류시현(고려대)

## 1. 머리말

국제 여행기는 이국(異國)이라는 타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안의 하나이다. 특히 증기기관을 이용한 근대적 교통수단의 발달 이후 외국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외국에 관한 여행기가 발간되었다. 현지를 실제로 목격하면서, 과거와 같은 ‘상상된’ 공간의 모습이 없어졌지만, 관찰자의 시선 속에서 ‘외국’은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논의하듯이, 서구인의 여행기는 여행 대상지인 ‘동양’에 관해 정형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서양과의 차이를 고착화함으로써 서양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했다.<sup>1</sup> 반면 근대에 들어와 ‘동양’의 서양에 관한 기행문 혹은 식민지에서 제국주의 국가로의 여행기는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방문지의 ‘근대 경험’을 모델로 해서 국민국가를 건설하

1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1991),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1~58쪽.

고자 한 민족주의적 관심과 긴밀히 결합되었다.<sup>2</sup> 그렇다면 동일한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식민지와 식민지 사이의 여행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제국주의 국가들은, 비록 구체적인 식민지 정책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각각의 식민지에 관해 다양한 위상을 부여했고, 이러한 정책은 식민지들 사이에 ‘서열화’로 연결되었다.<sup>3</sup> 이 글에서는 중일전쟁 직후 식민지 지식인 최남선의 만주(滿洲)기행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당시 제국주의 일본인이 만주지역을 방문한 것과 비교해서 좀 더 복잡한 시선과 논의가 내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행자의 민족 소속의식과 이해관계에 따라 만주는 각각 상이한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일제는 자원 확보와 상품판매 시장 확대를 위해 1931년 9월에 만주를 침략하고,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일제의 점령지가 만주를 넘어서 중국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 지역은 한말부터 조선인이 많이 이주한 곳이며, 식민지 시기가 되면서 본격적인 민족운동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일제의 영토가 만주·중국으로 확장되면서, 공간적으로 한반도는 중국 동북지역-조선-일본을 연결하는 중간적인 존재가 되었고, 일본제국 안에서의 ‘조선인’의

- 
- 2 한말 일제시대 서구와 일본에 관한 기행문에서 주목된 것은 그들의 근대 문명과 문화였다. 광복 후에도 서구를 포함한 세계 지리교육은 학생들에게 국민정신 함양과 국가·민족발달을 목표로 제시되었다. 임종명(2008, 2), 「탈식민지 시기(1945~1950) 남한의 지리교육과 국토표상」, 『한국사학보』 30, 12쪽.
- 3 프랑스의 ‘분리통치’ 정책이 실시되던 인도차이나반도의 경우, 프랑스인들에게 ‘정력적이고 지적인’ 베트남인은 ‘어린애 같은’ 크메르와 라오스인들과 대비되었고, 베트남인 역시 프랑스의 입장을 반영했다. 베네딕트 앤더슨, 윤흥숙 역(2003),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162~171쪽.

위상에 변화가 생겨났다. 1930년대 중후반 이후 일제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웠고, 대륙과 조선 사이의 관계에서는 ‘만선일여(滿鮮一如)’를 강조했다. 나아가 조선인에게 ‘만주’를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의 조차지인 관동주(關東州)는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조선인을 포함해서 일제의 피지배 민족(인종, 종족)의 외연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일제의 강점 아래 있던 만주와 중국 지역은 여러 민족이 공존 혹은 각축을 벌이던 공간이 되었다.

최남선은 출판인이자 역사가이면서 동시에 1920년대 『금강예찬』(1926), 『백두산근참기』(1927) 등의 민족주의적 입장을 강조한 여행기를 남긴 인물이다. 최남선의 기행문에 관해서는 1920년대 기행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백두산근참기』를 중심으로 여행이 개인과 민족의 ‘심상공간(心象空間)’으로 이해되었음에 주목했고, 최남선의 묘향산과 금강산 기행이 식민지와 제국주의 사이의 관계에서 또는 이광수의 기행문과의 비교 속에서 검토되었다.<sup>4</sup> 한편 최남선은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9~10월 사이에 중국 동북지역과 관동주를 기행하고, 『송막연운록』이란 기행문을 남겼다. 이전시기 여행기가 국토(國土)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여행기는 중일전쟁 이후 ‘이국(異國)’과 그곳에 거주한 조선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1937년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남

4 우미영(2004), 「시각장의 변화와 근대적 심상공간」, 『어문연구』 32-4 ; 서영채(2004),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24 ; 우미영(2006), 「근대 여행의 의미 변이와 식민지/제국의 자기 구성 논리」, 『동방학지』 133 ; 류시현(2007), 「여행과 기행문을 통한 민족·민족사의 재인식」, 『사충』 64, 역사학연구회 참조.

선의 여행기를 살펴보는 것은 일제에 협력하는 최남선의 논리 변화를 고찰함과 함께 당대 만주에 관한 조선 지식인의 복합적인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최남선의 기행문을 통해 만주에서 조선인의 활동에 관한 '기대'가 일제의 침략전쟁의 진행이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굴절되는지 여부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이 한민족(韓民族)의 고대사(古代史)의 공간으로 볼 때, 이 지역에 관한 과거와 식민지 시기의 논의 속에서 '민족사' 인식의 연속과 단절이란 물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중일전쟁과 식민지 조선인의 '국경' 넘기

여행기의 경우 어느 시점에 쓰였고, 어느 언론매체에 발표했는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송막연운록」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중국 동북지역에 관한 여행기이다. 따라서 최남선의 이 글은 이전시기 국내 여행기인 『금강예찬』, 『백두산근참기』 등과 달리 전쟁과 확장된 공간의 문제가 깊숙이 개입되었다. 아울러 여행기가 발표되면 독자와의 교감이 전제된 작업이라고 할 때, 「송막연운록」은 『매일신보』에 한글로 게재되었으며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기라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중후반 최남선의 저술활동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집중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최남선의 글 쓰기 가운데 1937년 말부터 1938년 초까지 『매일신보』에 게재된 「송막연운록」이 위치한다.

〈표 1〉 1930년대 중후반 『매일신보』에 연재된 최남선의 글

연도	기사 목차와 게재 기간
1934	「甲戌史眞」, 1934. 1. 3~2. 18 ; 「이순신과 넬슨」, 1934. 4. 21~5. 1 ; 「龜船은 이조초부터」, 1934. 5. 3~5. 5 ; 「禁火에 관한 제도」, 1934. 5. 13~5. 16 ; 「興福寺·원각사로부터 파고다 공원까지」, 1934. 5. 19~6. 15 ; 「울어러 뵈는 大圓光」, 1934. 5. 20~6. 2 ; 「5월 5일 天中節」, 1934. 6. 16~6. 21.
1935	「故事千字」, 1935. 6. 29~12. 31
1936	「赤鼠五百年」, 1936. 1. 1~1. 3 ; 「日日是好日」, 1936. 1. 26 ; 「조선의 신화」, 1936. 2. 16~3. 13.
1937	「元日을 의의있게 하자」, 1937. 1. 4 ; 「신화·전설상의 牛」, 1937. 1. 9~1. 29 ; 「朝鮮文化當面の課題」, 1937. 2. 9~11 ; 「三重苦의 聖女 헬렌 켈러」, 1937. 5. 25~5. 29 ; 「조선상식 推候篇」, 1937. 9. 11~9. 22 ; 「북지나의 역사적 특수성」, 1937. 10. 3~10. 10 ; 「괴담」, 1937. 10. 13~10. 22 ; 「제주도의 문화사관」, 1937. 9. 16~10. 2 ; 「松漠燕雲錄」, 1937. 10~1938. 4.
1938	「보은감사의 생활」, 1938. 1. 3~1. 4 ; 「奇談소설」, 1938. 1. 11~1. 26 ; 「동물괴담」, 1938. 4. 5~4. 13 ; 「변화괴담」, 1938. 4. 14~5. 2 ; 「人妖談」, 1938. 5. 3~5. 26 ; 「異物世界說話」, 1938. 5. 27~6. 16 ; 「動物故鄉說話」, 1938. 6. 20~6. 30 ; 「조선의 민담·동화」, 1938. 7. 1~7. 21 ; 「조선의 가정문학」, 1938. 7. 22~8. 2 ; 「삼도고적순례」, 1938. 9. 1~9. 15 ; 「고적 애호에 대하여」, 1938. 9. 9~9. 11 ; 「만주풍경」, 1938. 10. 4~18 ; 「로서아의 동방침략」, 1938. 10. 27~11. 2 ; 「寶盆 설화」, 1938. 11. 3~11. 16 ; 「因鬼致富설화」, 1938. 11. 17~11. 29 ; 「仙鏡설화」, 1938. 11. 30~12. 15 ; 「여의주설화」, 1938. 12. 16~28.
1939	「露國 東侵연대기」, 1939. 1. 1~1. 19 ; 「異人설화」, 1939. 1. 23~2. 3 ; 「조선의 신화」, 1939. 2. 16~3. 13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30년대 중후반 최남선의 글쓰기는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집중되었다. 최남선은 1933년 10월부터 이상협이 권유로 『매일신보』에 본격적으로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sup>5</sup> 이 시기는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만주국이 건립된 이후이

5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1973), 「연보」, 『육당최남선전집(이하 『전집』)』 15, 현암사, 280쪽.

다. 최남선은 1934년 12월에서 1935년 1월 사이에 일본의 신사(神社)를 답사한 기간을 제외하고,<sup>6</sup> 1939년 4월 만주 건국대학 교수로 옮기는 시점까지, 거의 연속적으로 『매일신보』에 다양한 주제의 글을 연재했다. 『매일신보』에 게재한 글을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넬슨·이순신·헬렌 켈러 등의 인물을 소개한 글을 개제했고, 둘째, 연도별 간지(干支)를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 1936년에는 쥐와 1937년에는 소에 관한 일화를 소개했으며, 셋째, ‘괴담’·‘설화’ 등의 주제로 글이 썼고, 넷째, 조선의 문화와 역사 및 ‘동방문화권’에 관한 글, 그리고 다섯째, 중일전쟁 이후에는 만주와 러시아에 관한 기행문이나 평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학’과 관련해서 다방면에 업적을 낸 최남선은 193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여행기의 작가로서 주목된다. 「송막연운록」은 네 번째 분야에 포함된 글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에 관한 글 「북지나의 역사적 특수성», 「삼도고적순례(三都古蹟巡禮)」, 「만주풍경」, 「노서아(露西亞)의 동방침략」, 「노국 동침(露國 東侵)연대기」 사이에 위치한 여행기가 된다. 최남선은 중국 동북지역 여행의 동기에 관해 “별로 시절의 풍운에 충동된 것은 아니지만, 오래 경륜하여 오던 만지유관(滿支遊觀)을 다시 더 늦추지 못할 듯한 생각이 간절할 때에, 선만척식(鮮滿拓殖)으로부터 만주에 있는 이른바 안전농촌의 구경을 종용하여 옴에 응하여 아무렇게나 나서 보겠다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sup>7</sup> 최남선이 오래 전부터 만주와 중국 지역을 보고자 한 기대감을 피력해서 중일전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

6 최남선(1935. 3), 「日本の信仰文化と朝鮮」, 『文教の朝鮮』 115, 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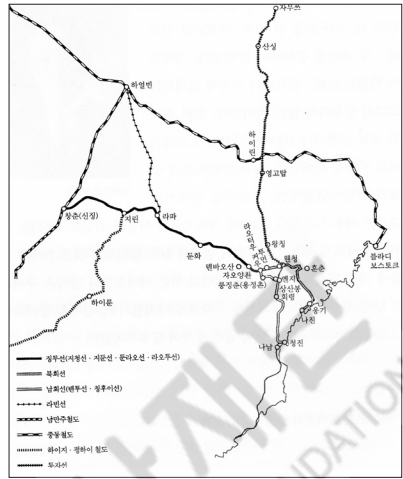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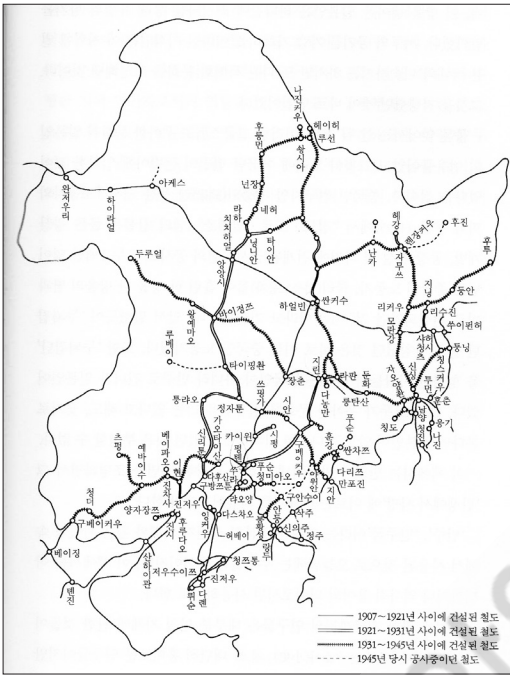
7 최남선(1937. 10. 28), 「松漠燕雲錄」, 『每一申報』, 4쪽.

했지만, 주된 여행의 동기는 국책기업의 도움으로 조선인의 ‘안전농촌’을 살펴보는 데 있었다. 선만척식주식회사(鮮滿拓植株式會社)는 1936년 9월에 만선척식주식회사와 함께 조선인의 이주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에 따라 경성(京城)과 신경(新京)에 각각 설립되었다.<sup>8</sup> 그리고 선만척식은 조선인 농민 18만 호, 100만 명을 15년 계획으로 만주로 이주시키려고 했다.<sup>9</sup> 즉 「송막연운록」은 선만척식의 주선으로 일제의 대륙 지배정책 아래 놓여 있던 조선 농민과 ‘안전농촌’을 방문한다는 목적이 중심이었다.

「송막연운록」은 1937년 10월 28일부터 1938년 4월 1일까지 『매일신보』에 84회 연재되었다. 최남선은 「송막연운록」이란 제목에 관해 송(松)은 만주(滿洲), 막(漢)은 몽고(蒙古), 연(燕)은 북경(北京), 운(雲)은 산서(山西)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의 여행은 1937년 9월 26일 경성을 출발하면서 시작했으며, 정확한 귀국 날짜는 확인되지 않지만, 여순과 대련(大連)에 머문 시점이 그해 10월 15일이었다. 즉 이 글은 중국 동북지역과 여순과 대련에 이르는 지역을 20일 정도 체류하면서, 그 지역 상황과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행기이다.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경성을 출발해서, 청진과 회령을 거쳐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용정촌(龍井村)·연길(延吉)·도문(圖們)·훈춘(琿春)·동경성(東京城), 하얼빈 등을, 하얼빈을 출발해서 만주국 지역에서는 신경(新京, 長春)·길림(吉林), 봉천(奉天) 등을, 그리고 봉천을 출발해서 영구(營口)·개평(開平)을 거

8 滿鮮拓植株式會社(1941), 『大陸の開拓と半島』, 大海堂, 73~76쪽.

9 『조선중앙일보』, 1936. 4. 13. 일제의 만주 이민정책에 관해서는 김기훈(2002),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정책 연구 시론」, 『아세아 문화연구』 18, 한림대학교 참조.



〈그림 1〉 만철노선도(1945년 현재, 왼쪽)와 길림성 주변의 철도선(오른쪽)

처 관동주에서는 대련을 방문했다. 최남선 여행의 주요 운송수단은 기차였는데, 최남선의 주요 여행경로와 방문지를 기차노선에 따라 확인하면 〈그림 1〉과 같다.<sup>10</sup>

최남선의 1910~1920년대 여행기와 「송막연운록」의 차이는 공간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에 있었다. 조선에서 만주국으로 가는 길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했다. 일본에 가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경찰 허가와 함께 부산~시모노세키 사이에 경찰의 시선

10 〈그림 1〉은 고바야시 히데오, 임성모 옮김(2004), 『滿鐵』, 산치림, 17·98쪽에서 재인용.

이 요소요소에 배치된 여행이었다. 하지만 최남선에게 조선과 중국 사이의 국경은 “간도 방면으로 향하는 이는 상삼봉(上三峰)에서 조개선(朝開線)이란 것을 갈아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 순로가 된다. …… 상삼봉역에는 만주국의 세관이 출장하여 있어 휴대물의 검사를 행하며 열른 보기에 군인과 같다가 자세히 보면 복장이 좀 이상스러운 만주 순경의 오락가락함이다. 국경색(國境色)으로 볼 것이었다”라고 보았다.<sup>11</sup> 즉 조선에서 중국 동북지역으로 가는 경로 가운데 하나인 청진에서 두만강을 철도로 건너는 ‘국경넘기’는 이국적인 정서가 있지만 세관 검사만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국경넘기’는 최남선에게 민족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국경을 넘을 때, “연전(年前)의 백두산 근참행(觀參行)의 정회가 부활함을 금할 수 없다. 백두산이 조악(祖岳)이라 해서 특이한 감흥에 끌렸던 것인즉, 조강(祖疆)이라 할 만주의 지(地)를 왕생(往省)하는 시방에 마찬가지로의 심경을 봄이 진실로 당연하다 할는지”라고 밝혔다.<sup>12</sup> 백두산은 ‘조악’이며 만주는 ‘조강’으로 대비되었다.<sup>13</sup> 시간적 연속성·계승성을 강조한 ‘조(祖)’라는 호명을 통해, 만주는 조선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공간이 되었다. 나아가 최남선에게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간도 지역으로 가는 풍경은 거의 조선적 향토색의 연장으로 인식되었다.

11 최남선(1937. 10. 29), 「송막연운록」, 『매일신보』.

12 최남선(1937. 10. 28), 위의 글.

13 만주는 ‘조강’ 외에도 조선인의 ‘故土’로 사용되었다. 李瑄根은 “만주를 떠나서 종교이전의 조선문화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선근(1942), 「만주와 조선」,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滿鮮學海社, 94쪽.

沿路의 驛名은 開山屯이니, 八道河子니 하여 미상불 漢文的 색채를 띠었으나, 눈에 들어오는 붉은 고추 엮은 草屋과 白衣 두르고 다니는 남녀들이 하나도 조선 내지 그대로 아닌 것이 없다. 말하자면 기차 내에는 약간 異國 情調가 있을 법해도 車外の 세계는 의연히 조선의 연속일 뿐이다.<sup>14</sup>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도 조선에서 만주로 갈 때의 여행은 좁은 한반도에서 넓은 대륙으로 간다는 정서가 일반적이었다. 만주는 일본의 3.5배이며, 조선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이었다. ‘땅이 좁은 반도’와 넓은 ‘만주 별관’이란 대비는 당시 만주 지역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일본인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한반도를 경유해서 ‘만주’로 가는 여행도 대륙으로 간다는 정서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대륙’이라는 공간에 압도되기보다는 식민지배자의 시선 속에서 이 지역을 이해했다. 조선과 만주를 시찰한 1930년의 한 시찰보고서에서는 조선에서는 식민지 점령 25년이 된 상황에서 조선의 산업·경제·교육·교통의 ‘발전’을 확인하고, 만주 지역에서는 만주국의 ‘약진’을 확인하고자 했다.<sup>15</sup> 일본인이 만주에서 일제에 의한 당대의 ‘발전된’ 모습에 주목했다면, 최남선은 중국 동북지역이란 공간적인 넓음을 시간적으로 화려했던 조선의 고대사에 투영했다.

최남선은 옛날 한민족의 활동지인 요동 지역을 통과할 때 “요동은 실로 고조선(古朝鮮)의 서강(西疆)으로서 이 결과(秦開의 공격으로 인해-인용자)로 조선은 마침내 압록 이남에 퇴축(退縮)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회고했다.

14 최남선(1937. 10. 30), 앞의 글.

15 京都府教育會 夫田郡部會 滿鮮視察團, 「滿鮮視察報告」, 1936, 「序文」.

조선 민족과 만주 지역(요동)은 고대사의 민족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연결되었다.<sup>16</sup> 이 지역에 관한 최남선의 역사인식은 고구려로 확장된다.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차지한 것에 관해 ‘고구려인의 광복적 서진(光復的西進)’이라고 표현했고, 이는 “다만 고구려인뿐 아니라 실로 전 동방 민족의 영광일 것”이라고 평가했다.<sup>17</sup> 아울러 이러한 ‘화려한 과거’의 강조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국토가 ‘퇴축’되었다는 인식이 함께 연관되었다. 또한 조선 민족사의 공간이 한반도로 줄어들었다는 인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관한 역사상에도 반영되었다.

고려·이조 1천년간에 國步가 鴨東에 倭遲하여 跼天躋地에 호흡이 얼른하면 질색하려 하는 萎縮朝鮮의 有心인이 죽히 한번 遼潘의 境에 미치면 문득 俯仰 感慨에 舊業思變의 心이 油然而 흥기함을 自抑치 못하기도 하였다.<sup>18</sup>

중국 동북지역이란 공간과 한국의 고대사와 연결시킴으로써, 최남선은 이 지역을 조선인의 시선에서 살펴보았다. 이렇듯 최남선에게 만주는 ‘이국’이지만 동시에 ‘조강(祖疆)’으로 간주되는 조선인 본위의 사고가 그의 여행기의 한 중심축이었다.<sup>19</sup> 하지만 여행기 「송막연운록」의 대상 공간은 한국 고대사의 흔적이 있는 동시에 당시 이주 조선인의 현

16 최남선(1938, 2, 11), 앞의 글.

17 최남선(1938, 2, 11), 앞의 글.

18 최남선(1938, 3, 12), 앞의 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최남선은 조선을 ‘생남朝鮮’으로 표현했다[최남선(1938, 3, 11), 앞의 글].

19 최남선은 만주에 관해 ‘祖疆이라 할 滿洲’라고 표현했다[최남선(1937, 10, 28), 앞의 글].

실적인 삶의 현장이기도 했다. 1931년 만주사변 발발과 1932년 만주국 수립으로 조선인 이주자는 193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대하여 1935년에는 8만 7,000여 명이 증가했다.<sup>20</sup> 최남선에게 만주가 조선인의 ‘조강’이 되기 위해서는 고대사(古代史)의 경험과 함께 당대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인의 역할 속에서 찾아야 했다. 최남선은 조선인의 간도 지역 거주가 역사적 ‘사명’인 것처럼 강조했다.

여러분의 재주로 오늘날 여기까지를 싸워 나온 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털미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여기로 오게 한 것이니라.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우리로 하여금 조상의 땅을 찾게 하는 뜻이다. 만주는 조선 및 조선인의 고향이요, 또 옛날 옛적부터 卍卍로 물려 가지던 우리의 세간이다.<sup>21</sup>

만주를 조선과 조선인의 ‘고향’이라고 했지만, ‘조상의 땅’이란 표현에서 보이듯이, 이는 과거의 일이었다. 최남선이 중국 동북지역을 여행했던 시점은 일제가 만주를 지배했던 시기였다. 일제는 1935~1936년 치안 확립에 따라 만주국의 ‘제2기 건설’을 주장하며 종래의 치안공작 제일주의를 탈피하고 대중조직화운동을 전개했고, 만주국협화회(滿洲國協和會)에서는 조선인 조직화에 주력했다.<sup>22</sup> 비록 과거 민족사의 영역에서 ‘주인의식’을 지닐 수 있지만 당대 현실 속에서, 최남선이 중국 동북

20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지음(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4쪽.

21 최남선(1937. 11. 20), 앞의 글.

22 任城模(1997), 『滿洲國協和會의 總力戰體制 構想 研究』,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41~42쪽.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치외법권이 없어진, 만주국의 국민으로 포함된 조선인이 존재했다. 따라서 1930년대 현실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개척’을 주관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였고, 그들의 기획 아래에서 조선인의 역할이 규정되었다.

### 3.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의 식민지 조선(인)의 위상 설정

국제관계에서 대립의 전형적인 형태가 전쟁이었고, 전쟁의 원인에 관해 전쟁 당사국 사이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37년의 중일전쟁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음은 물론인데, 최남선은 일본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이해했다. 그는 한말부터 중국을 ‘노대국(老大國)’으로 표현했는데, “지나(支那)는 세계에서 비류(比類)가 없는 노대국인 동시에 4억이 넘는다는 그 국민은 그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기에 완명집요(頑冥執拗)하여 심상(尋常)한 방법으로는 그네를 근대생활의 피안(此岸)으로 제도(濟度)해 낸다는 수가 없게 생긴 군상(群像)이다”라고 해서 1930년대에도 근대 물질문명의 파고 속에서도 변화 없는 국가란 그의 중국관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나아가 그는 신해혁명 등의 격변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쇠한’ 중국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23 최남선(1939. 7), 「전쟁과 교육」, 『삼천리』, 58쪽.

辛亥革命으로써 중원이 漢民族의 손으로 돌아간 지가 이제 26년입니다. 혁명이라 하고, 民國이라 하고, 訓政期라 하고, 新生活運動이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나 거죽 허울은 좋습니다마는, 이래 4반세기의 동안에 支那의 민중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복리를 받았으나 하면, 軍閥의 暴虐과 黨部の 專制 이외에 진실로 이렇다 할 아무 광명에 목욕하지 못한 것은 천하의耳目이 다 함께 보아 오는 바입니다.<sup>24</sup>

이러한 인식에 입각했을 때, 중국은 일본이 ‘제도(濟度)’해야 할 대상이었다. 중일전쟁에서 일본제국의 역할을 표현하면서 “일이 이미 그릇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의 채찍을 든 바에는 오늘부터 이후의 우리 일은 그네의 미몽(迷夢)을 깨치고 그네의 오신(謾言)을 바로잡기에 족(足)한 철저적 응징을 수행함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음이 진실로 무론입니다”라고 표현했다.<sup>25</sup> 이 부분에서 ‘그네’는 중국인을 의미하고, ‘우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포함한 용어였다. 최남선은 중국에 관해 ‘채찍질’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문명된 존재로서 ‘야만’된 존재를 계몽시킬 때 사용하는 상투적 표현이었다. 최남선은 일본과 조선(인)의 역할을 중국인의 ‘미몽’과 ‘오신’을 바로잡는 ‘응징’에 있음을 밝히고 있어, 뒷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자세를 취했다.<sup>26</sup>

중일전쟁 이후 최남선의 시선에 주목된 것은 문명화 혹은 근대화된 중국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하얼빈에서 중국인 거주지역에 관한 최남

24 최남선(1937. 10), 「북支那의 역사적 특수성」, 『전집』 10, 286쪽.

25 최남선(1937. 10), 위의 글, 10, 274쪽.

26 최남선은 다른 글에서도 일본의 역할에 관해 “채찍은 정면으로 붙잡고 나선 일본의 교훈은 무론이어나와 이번 사변(중일전쟁-인용자)의 교육적 의미는 日支 직접의 사이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 支那의 근대화에 귀중한 자극을 부여하고 있음을 본다”라고 표현했다[최남선(1939. 7), 앞의 글, 59쪽].

선의 인상은 “지나인(支那人)에 대한 새 인식으로부터 하얼빈 지나인의 시가(市街)의 구경은 일종의 감흥을 자아내게 되었다”라고 했으며, “지나인 시가라 하면 기성관념에 붙잡힌 이는 혹시 난잡하고 취예(奧穢)하고 또 유혼(幽昏)한 어느 지구를 연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독자들에게 요구했다.<sup>27</sup>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에 관해서는 ‘건축의 장웅(壯雄)함이 신도시의 특색’이라고 주장했다.<sup>28</sup> 물론 중국과 만주국의 도시를 이렇게 바꿔 문명화시킨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였다. 최남선은 관동주(關東州)에 관해 “산이 취장(翠蒼)에 싸이고 대소도로의 정연함이 시방까지의 황란(荒亂)한 광경과 같지 아니하여 누구에게든지 문명향(文明嚮)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일본에 의해 ‘문명향’이 되었다고 보았다.<sup>29</sup> 산이 울창해지고, 도시가 발전했다는 평가는 조선을 강점한 후 일제가 조선에 대해 사용한 수사법이였다. 이러한 이해는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사업에도 반영된다. 일제의 주도로 완성된 청조의 실록을 ‘학계에 일대 광명’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sup>30</sup> 즉 중일전쟁의 진행과정에서 최남선은 일본이 중국을 문명적으로 ‘계도’하고, 나아가 문화적으로 중국인을 지도하는 사업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중국 동북지역은 한말 러일전쟁 때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했던 공간이었고, 또한 만주사변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대립이 예상되는 공간이었다. 일본인들은 만주의 중국 동북지역 시찰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적지 답사가 위주가 되었다. 봉천 지역에서는 러일전쟁

27 최남선(1937. 12. 11), 「송막연운록」.

28 최남선(1937. 12. 21), 위의 글.

29 최남선(1938. 3. 29), 앞의 글.

30 최남선(1938. 2. 1), 앞의 글.

당시 ‘봉천회전(奉天會戰)’의 전사자에 대한 충령탑(忠靈塔)을, 여순(旅順)에서는 표충탑(表忠塔)과 전리품진열관(戰利品陳列館)을 방문하는 여행이었다.<sup>31</sup> 러일전쟁 이후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의 해외관광은 군부(軍部)의 주도 아래 애국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임성모에 따르면, “만주를 대상지로 한 단체관광의 탄생은 제국의식의 배양을 위한 순례 공간의 탄생”을 의미했다.<sup>32</sup> 최남선의 경우, 러시아를 ①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상대자로서의 제정 러시아, ② 황인종 대 백인종의 인종대립의 한쪽 주체인 러시아, ③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러시아 등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러일전쟁에 관한 인식은 전쟁의 전적지인 대련(大連)을 방문했을 때 더욱 강조되었는데, 최남선은 러일전쟁을 ‘동서대항사’라고 규정하고, 이 전쟁의 결과에 관해 또한 대련에 있는 일본의 승전탑(勝戰塔)은 “황백인종의 진퇴와 남북세력의 소장전선에 있어서 최초의 반발을 나타냄이 자 영원한 자신을 부여한 동양인의 전승 기념탑이다”라고 소개했다.<sup>33</sup> 즉 일본이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에 대항하여 동양을 지켰다는 관점을 견지했다. 그리고 러일전쟁의 결과로 인해 “1904~1905 양년 간 일본과의 사이에서 동양 평화를 위하는 대장(對仗)이 일어나서, 일본의 무력에 노서아가 구축되고 인하여 일본이 만주에 특수 권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았다.<sup>34</sup> 이렇듯 황백의 인종 사이의 대립에서 일본이 ‘동양

31 京都府教育會夫田郡部會 滿鮮視察團(1936), 앞의 책, 14·25쪽.

32 임성모(2008),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행』 1, 산치림, 199쪽.

33 최남선(1938. 3. 31), 「송막연운록」.

34 최남선(1943), 「滿洲略史」,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143쪽.

인'을 대표해서 백인종을 물리친 사건을 러일전쟁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중일전쟁 직후 『매일신보』에 게재된 글에서 최남선은 중일전쟁을 '비상시국'이라고 표현했고, 이 전쟁이 '정당한 일중관계(日中關係)'를 위한 것이며, 당대 동북아 국제정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일본의 존재와 발흥은 □아시아의 기운이요 東方의 빛이요 그래서 유색인종이 기쁨을 외치고 일어나서 그들-일본을 맹주로 하여 일대 대동단결을 □드러서 白色人種에 대하여 우리 東洋의 역사와 생활과 영광을 확보할 좋은 기회임이 毋論입니다.<sup>35</sup>

당시 최남선은 동북아 정세를 일본을 중심으로 백인종과 황인종이 대립하는 인종문제로 이해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유색인종을 동방과 동양이란 하나의 단위로 인식했고,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서 유색인종과 백색인종을 대비시켰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방' 혹은 '동아'라는 지역적 공간과 대비되어 '배제'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최남선은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를 역사 속에서 찾고,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을 민족이 아닌 인종주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여행기 직후 최남선이 쓴 「노서아의 동방침략」에서 “북방의 ‘소비에트’ - 곧 노서아의 침략적 협위(脅威)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고 전제하고서 그들의 ‘동방침략’을 서술했다.<sup>36</sup> 러시아를 영토확장을 위한 ‘침략적 나라’라고 보는 인식은 한말 시기의 대러시아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동방 침략이 “시베리아로써 만족하였나 하면 그런

35 최남선(1937. 8. 15), 「시국인식의 근본점 來日の 신광명 약속」, 『매일신보』.

36 최남선(1938. 10. 27), 「노서아의 동방침략」, 『매일신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만주 또 그 다음 조선반도로 그 징그러운 검정 손길을 뻗고 뻗어 그칠 줄을 모르던 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영토적 야심이 큰 나라라고 보았다.<sup>37</sup> 즉 ‘동양인’의 타자(他者)로 설정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동방침략’을 했던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나아가 백인종의 ‘백화(白禍)’와 영토에 대한 욕심을 지녔다고 평가한 러시아에 대한 인상은 반공의 입장에서 ‘적화(赤禍)’의 중심지인 소비에트 러시아를 대상으로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꾸준하여 쉬지 않는 露西亞人の 침략성이 언제든지, 작게는 이웃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크게는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버릇이 있음을 익히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의 露西亞는 다만 영토적野心에 인한 침략자로도 주위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큰 脅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소비에트 聯邦이라 하는 露西亞는 그 위에 또 한 겹 思想的 凶計를 덧 짐쳐 가진 侵略者로, 전 세계 公同의 敵이 되어 있습니다.<sup>38</sup>

최남선에게 러시아는 백인종의 ‘백화’와 공산주의 국가인 ‘적화’의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의 적’이라고 인식되었다. 당대 최남선은 백인종에 대비해서 ‘황인종’을 범주화할 때,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북방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대러시아 관계가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북방민족’ 전체의 사안으로 확대되어 이해되었다.<sup>39</sup> 그렇다면

37 최남선(1938. 10. 27), 위의 글.

38 최남선(1938. 11. 2), 「송막연운론」.

39 러시아는 “동방 평화에 대한 절대의 凶賊인 赤蘇의 魔手”라고 표현되었다[최

최남선에게 문화적으로 ‘북방민족’으로 규정된 일본인과 조선인, 그리고 만주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1930년대 중반 최남선은 중국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북방민족을 설정했고, 문화적·역사적으로 ‘동방문화’란 개념 속에서 아시아 북방민족의 공통성을 강조했다. 동북아 문화권의 강조는 중국과의 역사적 대비 속에서 이루어진다. 최남선은 ‘북방민족’과 중국민족 사이의 대립을 논의했다. 이 지역에서 ‘북방민족’의 역할을 강조할수록, 중국의 역사적·문화적 활동을 낮게 평가하거나 심지어 중국이 지속된 것은 북방민족의 역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支那에는 국가란 관념도 없고, 국경이란 사실이 없다. …… 支那 민족의 철저한 포용력과 중원 문화의 무서운 동화력이, 얼른하면 우리 북방적 특징을 銷却하기 쉬움이다. …… 동양에 최고한 역사를 가진 支那 민족이 오히려 老衰殘廢하지 않고 즐곤 생존 繁衍을 계속하여 감은 실로 시대 시대마다 주위에 있는 신흥민족의 청신한 혈액이 주입하여 대신 正화의 작용을 줌에 말미암는 것이다.<sup>40</sup>

‘북방민족’이란 범주 속에는 다양한 민족 혹은 인종을 포함한 용어가 된다. 이 경우, 이 공간 속에서 일본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 최남선은 장춘을 방문했을 때 신경신사(新京神社)를 참배했다.<sup>41</sup> 최남선의 여행기에서는 신사를 방문한 것에 관해 별다른 설명을 달고 있지 않다. 행적을 서술하되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그 행위를 ‘일상성’의

남선(1937. 8. 15), 「시국인식의 근본점 來日の 신평명 약속」, 『매일신보』.

40 최남선(1938. 1. 24), 「송막연운록」.

41 최남선(1937. 12. 22), 앞의 글.

로 간주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1930년대 중후반 최남선이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했는가를 1930년대 중반 일본 고문화와 신사에 관한 최남선의 입장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최남선이 신경(新京)에 있는 일본의 신사를 방문한 것은 현실권력으로 일본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문화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을 역사적 원을 지닌 ‘맹주’로 인식했음에 기반한다.

일본제국이 먼저 조선을 併呑하고, 다음 滿洲가 독립되고 …… 만주국은 捲土重來의 의미로, 조선인은 고구려 이래로 발길을 중원에 들어놓을 뻔 못들여 놓던 이상 실현의 기회로, 또 豊臣秀吉의 ‘一超直入大明國’ 하려던 卍圖가 半島에서 挫折한 遺恨을 가진 일본은 一來는 민족전통의 경륜을 성취하고, 一來는 亞細亞의 맹주적 지위를 확보하는 필요로 중원을 무대로 하는 오늘날 支那事變이 생겼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북방세력은 이때까지 중원에서의 활동 역사를 가지지 않았으며 언제고 한 번은 중원으로 들어오야 말리라 하던 亞細亞 最東方의 마지막 남아 있던 민족들이 대동단결을 하여 무대에 올라선 점에서 일층의 注意를 끔니다. 그리고 이것은 홀로 민족 투쟁이나 중원 쟁탈과 같은 야심적의 일이 아니라, 전 동양의 문화와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위하는 대의명분의 十字軍인 점으로 절대한 意義를 가집니다.<sup>42</sup>

최남선은 1930년대 들어와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문명과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했다. 1920년대 그가 「불함문화론」에서 조선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1930년대 중후반 ‘동방민족’ 안에서의 지도적 역할이 일본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당대 소비에트 러시아의 ‘적

42 최남선(1937. 10), 「北支那의 역사적 특수성」, 『전집』 10, 286~287쪽.

회' 의도에서 동북아 지역을 방어한다고 인식할 때, 최남선에게 일본은 동방의 맹주의 지위를 지녔다. 또한 그는 만주국에 관해 “왕도낙토(王道樂土)의 실험장으로 출현한 것”으로 평가했으며,<sup>43</sup> 일제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침략을 영토적 욕심이 아닌 ‘도의주의(道義主義), 해방주의(解放主義)’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문명적 역할’을 강조함에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최남선은 문화의 보편성을 전제한 민족 상호간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제국의 논리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서구의 근대를 대신한 ‘동양적’ 가치관을 통해 ‘근대의 초극(超克)’을 주장했던 일제의 논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sup>44</sup>

43 최남선(1938. 1. 14), 「송막연운록」, 4면. 최남선의 ‘만몽문화’ 인식과 건국대학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곽은희(2005), 「만몽문화의 친일적 해석과 제국 국민의 창출」,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강해수(2006), 「최남선의 ‘만몽’ 인식과 제국의 욕망」, 『역사비평』 76; 전성곤(2008), 『근대 ‘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제이앤시 참조.

44 ‘근대의 초극’ 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이념, 소련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경제조직과 혁명이념을 모두 ‘초극’하는 새로운 체제이자 이념이며, 이를 즉 ‘오족협화’, ‘협동주의 철학’ 등에서 찾고자 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말의 ‘근대의 초극’ 논의에 관해서는 히로마스 와타루[廣松涉], 김항울 김(1989), 『근대초극론』, 민음사 참조.

## 4. 만주와 중국 동북지역 거주 조선인의 활동에 관한 인식

최남선은 조선인의 개척적 능력으로 인해 ‘만주는 우리 것,’<sup>45</sup> 혹은 만주는 ‘신조선(新朝鮮)’이며, 그곳에서의 조선인의 활동은 “조선인의 만주 발전은 일면으로 복고(復古)인 동시에 일면으로 신생명 개척”이라고 강변하였다.<sup>46</sup> 중일전쟁 이후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해명해야 할 문제는 ① 조선인의 만주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을 때 일본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② 조선인을 만주국 내의 민족 간의 서열화 속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선두에 위치할 때, 다른 민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염두에 둘 것인지, ③ 조선인 역할을 강조할 때 이것이 중국 등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여부가 될 수 있다.

만주국의 성립에 관해 당시 만주국 명예영사였던 김연수는 “만주국의 성장 발전은 동아 신질서(新秩序) 건설의 거점의 배양(培養)”이라고 주장했다.<sup>47</sup> 일제가 선전한 ‘신질서’란 기존의 국제정세를 구미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체제이며, 이러한 ‘구질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동아(東亞)’지역에 다양한 민족구성원 사이에 협동적 체계를 새롭게 구상한다는 것이다.<sup>48</sup> 최남선 역시 “만주와 일본 사이에 근본 문화상 일치가 있

45 최남선(1938. 3. 7), 「송막연운록」.

46 최남선(1938. 3. 8), 앞의 글.

47 金季洙(1943), 「재만 조선인의 장래」, 『반도사회와 낙토만주』, 만선학해사, 41쪽.

48 고야스 노부쿠니, 이승연 옮김(2003), 『동아·대동아·동아시아』, 역사비평

다 하면, 그 중간에 반도가 빠지지 못할 것은 무론 자명한 일”이라고 하여,<sup>49</sup> 만주와 일본 사이에 있는 조선과 조선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만주국 설립과정은 ‘신성한 운동’이며 이 운동의 “심핵분자는 일본인과 조선인”이라고 보았다.<sup>50</sup> 나아가 “일본인과 조선인의 완전한 결합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sup>51</sup> 즉 재만 조선인과 조선인 사이의 ‘동반자’적 역할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1937년 10월 11일 봉천(奉天)에서 있었던 조선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주목된다. 이 봉천 협화회가 주관한 이 강연회의 내용은 『재만조선인통신』에 게재되었다.<sup>52</sup>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역사적으로 북방민족이 남방민족이 ‘진출’해 왔는데, 북방민족 중 아직까지도 중원의 무대를 밟아 보지 못하고 남아 있으면서 또한 그 남방민족의 강렬한 동화력에서 避하여 온 민족은 해양에 있던 大和民族과 반도에 있는 朝鮮民族이올시다. …… 현재 이 최후로 남아 있던 일본민족이 대륙을 향하여 진출하는 그 형식내용은 前日の 北方諸民族의 그것과 달리 침략 정벌이 주제가 아니라 아세아민족의 전체적 번영이 主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본민족을 선두로 한 동방민족의 증원 진출이야말로 동양사상에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支那民族을 정화할 피는 조선족과 아울러 일본족이 아니면

사, 87쪽.

49 최남선(1937, 11, 8), 「송막연운록」.

50 최남선(1938, 1, 24), 앞의 글.

51 최남선(1938, 1, 24), 앞의 글.

52 『재만조선인통신』은 봉천 지역 특무기관이 주동이 되어 조직된 흥아협회가 1936년 4월부터 발간하였다. 황민호(2006), 「만주지역 친일언론 ‘재만조선인통신’의 발행과 사상통제의 경향」, 『한일민족문제연구』 10, 한일민족문제학회, 4쪽.

안 된다고 사고합니다.<sup>53</sup>

이 강연의 특징은 최남선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과거 역사인식을 근거로 일본과 조선 민족의 역할을 강조한 점에 있다. 나아가 조선과 일본의 역할이 중국을 ‘정화’하거나 ‘진보’시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sup>54</sup> 이러한 인식은 중일전쟁을 지지하는 다른 글에서도 “동양 안정의 책임자, 동양 평화의 수호자인 일본제국의 대방침은 단정코 이것이 있을 뿐임을 확신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보담도 북지사변(北支事變)을 도덕적으로 인식하여 충심으로부터 국민으로의 당연한 책무를 극구(極口)히 다하기를 다 한 가지 기약할 것입니다”라고 해서,<sup>55</sup>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송막연운록」의 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함께 의미했으며, 조선인의 발전을 일본의 발전과 연동시켰다. 하지만 역사적·문화적 실체로서의 조선인과 일본 국민인 조선인이란 이중적 존재감이 최남선의 시선에 공존했다.

한편 「송막연운록」에는 ‘조선인’, ‘백의민족’ 등 조선 본위의 표현이 등장한다. 최남선은 만주 지역 조선인의 역할에 관해 “만주는 이제 왕도(王道)의 지표하에서 역사의 건설이 재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제국의 지도력이 아무러한 저해도 느끼지 아니할 것은 진실로 무론이다. 그리고 지리, 역사, 종족관계, 생활조건 무엇으로나 이 공작상의 가장

---

53 최남선(1937. 10), 「동방민족의 중원 진출과 역사상으로 본 아세아제민족의 동향」, 『재만조선인통신』 38, 6~7쪽

54 최남선(1937. 11), 「北支の歴史的特別性」 상·하, 『재만조선인통신』 39·40.

55 최남선(1937. 8. 15), 「시국인식의 근본점 來日의 신광명 약속」, 『매일신보』.

중요한 분자는 조선인이 곧 그 일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표현했다.<sup>56</sup> 즉 그는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에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인이 많이 거주한 용정 지역에서 특히 그러했다.

龍井은 조선인의 잠재적 발전력을 구현한 자연 생성의 국외 도시인 동시에 …… 의도적으로 특수한 산업기능을 開顯시킨 飛躍地로 영구한 명예를 가진 곳이다. 대개 조선인의 만주 발전은 水田이라는 독특한 생산수단으로써 모든 곤란을 극복한 결과인데 만주 토양의 수전적 가치 전환은 실로 이 용정에서 발단하였기 때문이다. …… 용정은 실로 만주에 있는 이 산업혁명의 발화점이다.<sup>57</sup>

최남선에게 중국 동북지역에서 조선인은 ‘발전’의 주체였고, 이들의 활동은 ‘산업혁명’으로 평가되었다. 수전(水田)의 강조는 방문지마다 강조되었는데, 최남선은 “황폐 불고(不顧)하던 땅을 손에 넣어서 적은 듯 양전 옥토(良田 沃土)를 화성(化成)한 우리 이주민의 용감과 근면을 생각하면 느껴온 눈물이 눈시울을 따뜻하게 한다. …… 조선인의 개척적 능력도 놀랍지 아니한가. 이만하면 만주가 우리의 것이겠다는 신념이 뜨끔하게 뇌근(腦筋)을 찌른다”라고 해서,<sup>58</sup> 조선인의 활동에 자신이 감정을 이입했고, 아울러 ‘개척정신’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개척정신 혹은 모험정신은 서구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용어였다. 최남선은 한말 시기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여행기』 등을 번역해서 서구의 ‘개척’ 혹은 모험

56 최남선(1937. 11), 「만주가 우리에게 있다」, 『재만조선인통신』 39, 1쪽.

57 최남선(1937. 10. 31), 「송막연운록」.

58 최남선(1938. 3. 7), 앞의 글.

정신을 배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말 국민국가 수립과 연결시킨 이러한 희망을 1930년대 들어와서 만주 지역 조선인에게 재적용했다. 최남선이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의 개척정신을 강조한 것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강조했던 문명담론과 닮았다. 조선인의 활동은 만주인과 중국인의 활동과 대비됨으로써 더욱 부각되었다.

만주족은 …… 아직도 不農不商하여 양반의 심리를 품고 지내고 …… 淸國이 覆滅함과 함께 그네의 양반적 특권은 이미 依據를 잃어버렸을 지라도 …… 갖가지로 궁박한 사정이 유일한 生資인 토지 그것까지를 매각하여 더 僻地 더 深處로 退入하는 것이 그네 금일의 운명이다. 마치 수십 년 전에 우리가 經歷한 어느 계단을 그네가 시방 직면하였는데, 우리의 전일보다 더 딱한 雄勢이다.<sup>59</sup>

중인 출신인 최남선에게 ‘양반’은 부정적인 존재였다. 「송막연운록」에서 최남선은 ‘양반’과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를 만주인에게 적용했고, 중일전쟁 직후의 만주국 상황을 수십 년 전 조선 상황과 대비시켰다.<sup>60</sup> 개평참(蓋平站)을 방문해서 최남선은 “이 일대의 수전만은 조선인의 모범과 만철농사시험소의 지도에 의하여 지나인(支那人)네의 자작(自作)하는 바로서 걸인이라도 버선을 벗지 아니하는 만주어늘, 이 근처에서만은 부녀까지도 눈에 들어서서 이양도 하고 제초(除草)도 함이 도리어 일 기관(一奇觀)이라고 일컫는다”라고 강조했다.<sup>61</sup> 즉 당대 만주는 조선을 다시

59 최남선(1937. 11. 8), 앞의 글.

60 최남선은 농사도 짓지 않고, 상업에도 종사하지 않는 것을 ‘양반의 심리’라고 보았다. 최남선(1937. 11. 8), 「송막연운록」.

61 최남선(1938. 3. 26), 앞의 글.

살펴보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다. 일본이 조선에서 ‘문명’을 이식한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중국 동북지역에서 조선인은 문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30년대 중반 최남선은 ‘고신도(古神道)’를 통해 일본과 조선 사이에 문화적 동원관계를 주장했고, 조선인의 만주와 중국에 대한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문명’을 강조했다.

만주는 당대는 물론 가까운 과거에도 조선인에게 민족운동의 근거지였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가깝거나 당대에도 진행되고 있는 민족운동이란 민감한 주제에 관해 최남선은 어떻게 언급했을까? 최남선은 1937년 9월 28일 남양역을 출발해서 도가선(圖佳線)을 갈아타고 가는 도중 삼도구 봉의동(三道溝 鳳儀洞)를 지나면서 “당년에 흥범도 일파의 점거 활동하는 데”라고 보았고, 같은 해 10월 2일 빈수선(濱綏線)을 출발해서 해림(海林)이란 참명(站名)에서 “김좌진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에 눈살이 찌푸러지더니”라고 표현했다.<sup>62</sup> 이렇듯 최남선은 1920년대 민족운동의 현장을 차창 밖의 풍경처럼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남선은 「송막연운록」이 “시절의 풍운에 충동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해서 ‘탈정치적’임을 밝혔다. 하지만 선만척식주식회사의 주선으로 일본의 점령지와 만주국이란 공간 속에서 조선인의 거주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분명히 ‘정치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길림 지역에서는 민족운동의 현장을 방문하고서, 이를 ‘아정치운동자(我政治運動者) 소굴시대의 정황(情況)’이라고 표현했다.

62 최남선(1937. 11. 4), 앞의 글 ; 최남선(1937. 11. 18), 앞의 글.

여기는 某名士의 寓居, 여기는 某團體의 舊基, 여기는 某事業의 發生處라고 지적함이 일일이 감개 깊은 것뿐이다. 그 중의 피비린내 나는 대문은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기도 하지마는, 돌이켜서 이러한 풍상이 길림을 가져다가 조선인의 만주 발전상 一楔子이게 하였다고 보면, 그것도 결코 무의미하지 아니함을 깨닫겠다.<sup>63</sup>

최남선은 이전시기의 민족운동을 ‘정치운동’이라고 표현해서, 과거의 사실로 단정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활동이 더 이상 ‘정치’적이지 않음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이와 아울러 1930년대 중반의 시국은 이제 조선인의 ‘정치’활동이 요구되지 않은 과거의 현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표현은 ‘탈정치화’가 아니라, 민족운동을 과거의 사건으로 침묵 혹은 폐기하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길림 지역의 민족운동의 현장을 언급한 부분에서, 그가 만약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이제 조선인들은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무모한’ 과거의 정치운동에서 벗어나라고 언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남선은 민족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조선인의 만주 발전’에서 하나의 ‘문설주(楔子)’였다고 해서, 당대 조선인의 ‘발전’에 연관된 사실로 포함시키고자 했다.

조선인에 관한 기대감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연설회를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방천으로 가는 길에 철령농촌(鐵嶺農村)이란 안전농촌을 방문해서 “조선 내지(內地)의 소작인 실정에 비하여 당신네들의 환경이 매우 아름답고 전도가 희망스러움을 생각하여 더욱 용맹하고 더욱 정성(精誠)함으

---

63 최남선(1937. 12. 28), 앞의 글.

로써 만주에 있는 모범농촌되는 동시에 은연히 역사적 사명을 온전히 하기를' 당부했다.<sup>64</sup> 아울러 목단강(牧丹江) 지역을 방문해서는 “재류(在留)의 동포가 농가 분위가 아니라 시세에 눈 밝은 국내의 지식층 내지 자본벌(資本閥)의 신진출”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제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선인 농민뿐만 아니라 자본가·기업가의 진출에서 ‘조선 단위’의 발전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고향을 떠나 만주라는 공간 속에서 ‘고생’하는 조선인 농민들에게 환경이 훌륭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에 최남선이 적용한 논리는 ‘숙명’이었다.

민족주의 논리는 민족 구성원을 하나의 공통체로 구성하기 위해 혈통과 역사를 주로 활용했다. 과거의 ‘화려함’과 혈통의 ‘유구성’이 논리 전개的主要 구성요소가 된다. 최남선은 간도 지역을 방문해서는 “간도의 조선인 분위성이 갈수록 농도를 더함은 거의 숙명적 약속”이라고 보았고, 만주로 조선 농민이 오게 된 ‘숙명’은 “우리로 하여금 조상의 땅을 찾게 하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보았다.<sup>65</sup>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현실과 이상 사이에 균열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전개 방식이 ‘비약’이다. 최남선은 조선인이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발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하느님의 명(命)이시며, 조령(祖靈)의 도우심”이라고 보았다.<sup>66</sup>

한편 당대 조선인의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활동을 ‘발전’과 ‘문명’의

64 최남선(1938. 1. 17), 앞의 글.

65 최남선(1937. 11. 1), 앞의 글.

66 최남선은 “만주는 조선 及 조선인의 고향이요 또 옛날 옛적부터 卍世로 물려가지던 우리의 세간살이”라고 보았다. 최남선(1937. 11. 20), 앞의 글.

답론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이 지역에 관한 일본의 주도권 또는 현실권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의 그리고 만주국(滿洲國)의 ‘오족협화’ 논리처럼, 최남선은 만주국에 관해 ‘역사적 제민족(諸民族)이 현실적 구성분자’가 된 ‘민족협화’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보았다. 그러나 각 민족 사이의 동등한 결합을 의미하는 ‘오족협화’는 실제로 일본을 정점으로 각 민족별로 서열이 나뉘어 있는 민족적 차별이 존재했다. 최남선도 ‘만선일여(滿鮮一如)’의 슬로건 아래 조선인과 만주인의 거주지역을 구별하여 그 ‘구별의식’이 있음을 시인했고, ‘5족(族)’의 범주 안에서 조선인의 역할과 위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만선일여의 大旆가 펄떡거리는 오늘날이지마는, 유래가 유래이라, 龍井은 어디까지고 조선인 중심의 음악이요, 扇子街 곧 延吉은 어디까지고 만주인 중심의 시가라는 특색이 아직도 전일과 다르지 아니하다. 다만 간도의 조선인 本位性이 갈수록 농도를 더함은 거의 숙명적 약속이요, 또 금후의 사정은 전에 비하여 幾倍의 順便을 가지게 되었은즉 .....<sup>67</sup>

당시 이 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의 활동이 비록 약화되었지만, 지속적인 활동이 있던 시점이었다. 관동군은 1936년 4월부터 1939년 3월까지 「만주국치안숙청계획요강(滿洲國治安肅清計劃要綱)」을 책정하고 안동성(安東省) 및 빈강성(賓江省)의 동북부지역과 삼강성(三江省)에서 활동을 하던 항일유격대에게 공격을 가하였다.<sup>68</sup> 최남선은 1930년대 후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 농민들에게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지

67 최남선(1937. 11. 1), 앞의 글.

68 尹輝鐸(1996), 『日帝의 滿洲國研究』, 一潮閣, 31쪽.

지하거나 협력하기를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일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조선인의 역할과 활동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과 수탈의 첨병으로 보일 수 있었다.

## 5. 맺음말

최남선의 글쓰기는 1930년대 중반부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집중되었다. 아울러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는 중국 동북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최남선은 1938년에 『만선일보』의 고문 역할을 맡았는데, 『만선일보』의 전신은 『만몽일보(滿蒙日報)』였다. 이 신문은 일제가 만주 거주 조선인에게 국책을 선전할 지도기관으로 1933년 8월 25일에新京(新京)에서 창간한 조선어 신문으로, 1937년에 『만선일보』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는 1939년 4월 만주 건국대학(建國大學)에 부임했고, 이 대학의 연구원의 민족연구반과 역사연구반에 소속되었다. 만주 건국대학은 ‘오족협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1938년 5월 만주국新京에서 설립되었다. 특히 이 대학의 연구원은 ‘동방문화 융성’과 ‘국가정신 진흥’이란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최남선은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통해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논설활동을 했으며, 특히 「송막연운록」은 일제의 중일전쟁을 지지하고, 조선인 농민층의 만주 ‘이민정책’에 호응한 여행기였다.

최남선은 1930년대 들어와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문명과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했다. 그는 만주국에 관해 “왕도낙토(王道樂土)의 실현

장으로 출현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역사적 제 민족이 현실적 구성분자”가 된 ‘민족협화’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보았다. 또한 일제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침략을 영토적 욕심이 아닌 ‘도의주의(道義主義), 해방주의(解放主義)’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문명적 역할’을 부각함에 있었다. 아울러 백인종인 러시아 공산주의의 방과제로서 일본의 역할과 아시아 인종(민족) 상호간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제국의 논리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동북아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강조한 것은, 1940년대 태평양전쟁을 ‘성전(聖戰)’으로 강변하며, 그가 1943년경 조선 청년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학병 지원’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활동과 연결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최남선에게 중국 동북지역은 일본의 ‘발전’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다.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면서 최남선의 기행문에는 ‘조선(인) 단위’의 고민이 공존했다고 볼 수 있다. 최남선에게 간도는 현실에서 ‘이국’이지만, ‘실제의 간도’를 강조했듯이, 조선인의 역할에 관한 지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조선에서 국경을 넘어 넓은 만주를 접하면서, 화려한 과거에서 반도지역으로 조선인의 활동공간이 축소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조선이 비록 ‘위축’되었지만, 만주라는 공간에서 다시금 화려한 과거를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만선일여’란 슬로건 속에서도 조선인을 구별했고, 조선인 본위를 강조했다. 즉 만주라는 공간에서 민족 각각의 시선에서 차이가 존재하듯이, 1930년대 중반 최남선 내부에서도 일본제국의 일원인 조선의 입장과 독자적인 조선인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 등이 복합적인 정서가 그의 여행기에 반영되었다.

# 식민지 역사경험 속의 ‘개인기억’과 ‘집단기억’

– 전후 타이완 「역사기억」의 구축과 변화

리청지(李承機, 타이완 청공대)

## 1. 「해각칠호」가 불러일으킨 ‘기억’

2008년 8월 말 개봉한 타이완 영화 「해각칠호(海角七號)」(한국에서는 「제7봉」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다-역자주)는, 상영 첫날부터 10월 말까지 박스오피스 4억 5,000만 타이완달러(한화 약 198억 원-역자주)를 기록했다. 그동안의 타이완 영화는 물론 타이완에서 상영된 거의 모든 헐리우드 영화의 흥행기록까지 깨면서, 1990년 이후 역대 관객동원 기록 2위를 차지했다(1위는 1997년의 「타이타닉」). 영화 「해각칠호」는 두 쌍의 타이완인과 일본인의 국경을 넘은 사랑 이야기를 교차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중 한 쌍은 현재의 타이완을, 다른 한 쌍은 1945년 타이완 내 일본인의 본국 귀환 전후(前後)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았다. 국경을 넘는 두 쌍의 연인들의 사랑을 교차시키는 서사구조는, 마치 영화의 의도가 판이한 두 시대의 대비를 부각시키려는 데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945년 이전 ‘일본시대(日本時代)’로 불리던, 일본 식민지배 하의 타이완의 역사경험(혹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미지’)을 건드리면서 엄청난

홍행 열풍을 일으키자 당시 이를 둘러싼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가장 직접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은 「해각칠호」가 보여주는 ‘일본’ 이미지가 타이완이 일본의 영향을 끊어내지 못한 증거라는 지적이었다. 심지어 타이완의 전후(戰後) 문화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증거라는 시각도 있었다. 이는 1945년 이후의 ‘식민 대 피식민’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타이완의 피식민지 역사 속의 ‘항일(抗日)’ 경험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요컨대, 과거의 식민지배를 탈피한 이후에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포스트식민’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도 그리 이상할 것은 없었지만, ‘포스트식민’ 의식과 비교해 「해각칠호」에서 촉발된 수많은 토론 중 가장 특이한 현상은 식민지 시대 타이완인과 일본인의 개인적 관계가 자주 화제에 올랐다는 점이다. 타이완인과 일본인의 연애담이 인터넷에 퍼졌고 심지어 신문이나 TV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개인의 실제 연애 경험담으로 ‘해각칠호’라는 허구의 스토리와 비교 리스트까지 만들어진, 「해각칠호판 인생스토리(海角七號眞實人生版)」라는 기사였다.<sup>1</sup>

이 기사가 전국 규모의 신문에 실리게 된 데는, 영화 ‘해각칠호’로 인한 사회현상 가운데 식민지 시대 개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기억(個人記憶)’과 타이완 사회의 ‘집단기억(集體記憶)’이 서로 연결되어 ‘역사기억’에 투사되면서, 식민지 당시 타이완의 역사경험과 상호작용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전후 타이완인의 ‘개인기억’과 타이완 사회의 ‘집단기억’이 1945년 이전의 식민지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탐색하려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역사기억’이 전후에 변화하는 과정에 착안하여,

‘개인기억’과 ‘역사기억’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호 충돌하는 미묘한 관계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의 관계에 대해, 이 글은 모리스 알바슈(M. Halbwachs)의 사회심리학 이론을 참고한다. 이에 따라 개인경험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개인의 기억은 ‘개인기억’이라고 부르고, 어떤 집단이나 단체(群體)의 성원들 사이에서 공통된 생각과 사회관계를 통해 유지된 감정과 시각을 기반으로 공유되는 기억은 ‘집단기억’이라 부른다. 그러나 본래 개인의 기억과 타인의 기억은 완전히 똑같을 수 없기에, 수많은 ‘개인기억’의 집합체로서의 ‘집단기억’과 개별 ‘개인기억’ 사이에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개인의 기억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반복적(反覆的)인 확인을 받아야만 하더라도, ‘개인기억’은 확인받음과 동시에 일종의 ‘재구성’ 과정으로 변질되기도 한다.<sup>2</sup> 이러한 ‘재구성’에서

1

海角七號 vs. 島崎義行之台日戀	
 <b>日籍教師</b> (中孝介飾演) 隱藏思念長達60年... 日籍教師與剛畢業的小島友子雙面萌生 日本戰敗，相約私奔，男方爽約 返日後結婚生子	 <b>男主角</b> <b>日籍教師</b> (島崎義行/90歲) 尋找初戀情人陳明珠長達63年 <b>背景</b> 島崎義行26歲與小他10歲的學校工友陳明珠互有好感 日本戰敗，倉促返日，2人沒能來得及說再見 <b>被迫分離</b> 返日狀況 返日後結婚
 <b>小島友子 / 學生</b> (梁文音 飾演) 活潑、熱情，不怕權威 與日籍男老師相戀，打算拋下台灣的一切私奔去，卻在港邊苦守候著，一直等到船將離港的瞬間... 結婚生子	 <b>女主角</b> <b>陳明珠 / 工友</b> (當年16歲) 「一隻大眼鑰靈活俏皮，舉動山口百惠」 <b>背景</b> 學校開會時，校長在座，陳明珠總是把泡好的第1杯茶端給島崎。 以台語告訴島崎「我愛你、曉得我愛死」。 <b>在台狀況</b> 查訪中
資料來源：海角七號部落格、陳澤民、嘉早天涯	

蘇孟娟 기자, '90세 일본 국적의 교사가 바다 건너 '여자친구'를 찾아 온 63년(9旬日籍老師 跨海尋「友子」63年). 自由時報電子報, 2008.10.29(<http://www.libertytimes.com.tw/2008/new/oct/29/today-so1.htm>)

2 Maurice Halbwachs 著, 小關藤一郎 譯(1989), 『集合的記憶(La Mémoire

‘개인기억’과 ‘집단기억’ 사이에는 사회환경 속에 뚜렷이 존재하면서 ‘통로’ 역할을 하는 모종의 ‘입구’가 필수적이다. 양자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는 ‘장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sup>3</sup>

알바슈는 ‘개인기억’과 ‘집단기억’ 양자 사이에 ‘외관상 대립’되는 ‘첨예한 대비’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양자를 ‘내부-외부’, ‘개인의 기억-사회의 기억’ 또는 ‘자전적 기억-역사적 기억’으로 구분하더라도, 개별적 개인(個別的個人)은 이 두 가지 기억에 동시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이항대립식으로 확장하고 게다가 직접적으로 ‘집단기억’을 ‘사회적 기억’이나 ‘역사기억’으로 등치시킨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개인이 살아낸 역사가 일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과거를 요약시켜 만든 도식(圖式) 형태로 드러나도록” 만든 다음 다시 ‘개인기억’을 보완하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나 아날학파 제3세대 학자인 르 고프(J. Le Goff)의 역사와 기억에 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차이가 있다. 비록 “기억은 사회적인 기능에 따라 특징을 부여받는다”는 관점에서는 알바슈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르 고프는 “민족이나 국가의 집단기억의 결핍 또는 소멸은 집단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기억은 사회 모든 세력의 권력투쟁시 중요한 무기가 된다. 한 사건을 망각하거나 기억하도록 지배하는 방식은 역사를 지배하는 사회 계급·집단·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sup>5</sup>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르 고프는 ‘역사’와 기

---

Collective)』, 京都：行路社, 7~16쪽.

3 Maurice Halbwachs 著, 小關藤一郎 譯, 위의 책, 37~42쪽.

4 Maurice Halbwachs 著, 小關藤一郎 譯, 앞의 책, 45~48쪽.

5 Jacques Le Goff 著, 立川孝一 譯(1999), 『歴史と記憶(Histoire et Mémoire)』,

역 간에 일종의 숨겨진 조작 구조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이를 참고해 이 글에서는 ‘집단기억’을 그대로 ‘역사기억’으로 등치시키지 않고 단지 ‘개인기억’의 집합체로만 설정하겠다. 역사와 관련된 인식이나 의식으로 조작되거나 또는 전화된 ‘집단기억’만을 일종의 ‘역사기억’으로 보려 한다. 다시 말해,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은 개인과 그가 속한 집단이 쇠락함에 따라 점차 소멸하지만, 국가나 사회와 같은 제도 또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구축된 ‘역사기억’은 세대를 초월해 전승되는 동시에 유사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글은 주로 영화라는 대중매체로 인해 형성되는 대중문화의 발전 궤적을 따라가면서, 1950년대 이후 타이완의 대중문화를 전후(戰後) 타이완 사회의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이 서로 교차되는 ‘통로’ 또는 ‘장소’로 보려 한다. 이 두 종류의 기억과 1945년 이전의 식민지 경험이 맺었던 관계 및 여기에 관련된 정치·사회적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나아가 ‘집단기억’이 어떻게 조작되거나 정치·사회적 의미에서 ‘역사기억’을 형성하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후 타이완 사회에서 관찰되었던 식민지 시대의 ‘역사기억’은, ‘피억압(被抑壓)’의 ‘집단기억’에서 항일의 ‘역사기억’으로, 그리고 전후 양산된 ‘집단기억’에서 여러 주체가 투쟁하는 ‘역사기억’으로, 몇 차례의 전환을 거쳐 오늘날의 매우 다원적면서도 대립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

東京：法政大學出版局，2，93쪽.

## 2. ‘피억압’의 ‘집단기억’에서 항일의 ‘역사기억’으로

식민지 시기 타이완에서는 영화가 일찍부터 상영되었다.

1929년 유성영화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TV가 시청각 매체로 보급되기 이전에는 영화가 가장 ‘대중’적인 매체였다. 미사와 마미에(三澤眞美惠)가 지적했듯이, 영화는 일찍이 1920년대 중반 타이완에서 연극을 대신하여 ‘오락계의 정상’을 차지했다.<sup>6</sup> 그러나 식민통치 시대를 두루 살펴보면, 타이완 본토 자본과 기술로 제작되거나 창작된 영화는 소수였다. 특히 타이완 총독부 관련 홍보영화와 뉴스를 제외하면, 타이완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극소수였다. 본토 자본으로 제작·상영된 상업 영화는 말할 것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 통치하에서 식민지 타이완의 영화시장은 일본 본국 자본이 이윤을 위해 진출하는 시장이자, 할리우드 영화시장의 최말단에 불과했다. 1930년대 말 전쟁시대로 접어든 이후, 일본 본토에서 ‘영화통제(映畫統制)’를 시작하자 타이완 영화시장 또한 국가동원 및 사상통제 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이른바 ‘국책영화’와 기타 인기 있는 일제 오락영화가 영화시장을 거의 독점했다.<sup>7</sup>

전쟁시대 ‘국책영화’든 일제 오락영화든, 시나리오 구조나 코드는

6 三澤眞美惠(2002), 『殖民地下的「銀幕」－臺灣總督府電影政策之研究(1895～1942)』, 臺北：前衛出版社, 286～290쪽.

7 전쟁 당시의 타이완 영화시장에 관한 연구논문은 많지 않지만, 三澤眞美惠의 『殖民地下的「銀幕」』은 일부 참조할 만하다. 전쟁 당시 일본의 ‘영화통제’와 ‘국책영화’의 ‘좌절’ 및 오락영화 유행에 대해서는 古川隆久(2003), 『戰時下の日本映畫一人々は國策映畫を觀たか』(東京：吉川弘文館)를 참조할 수 있다.

타이완 본토와 별 상관성이 없었다. 비록 타이완 총독부의 정책적 협조 아래 약간의 타이완 코드를 포함한 ‘국책영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선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전후(戰後)부터 1950년대 중반기의 타이완 영화시장은 기본적으로 홍콩[香港] 또는 상하이[上海] 영화가 휩쓸었다. 타이완 자체 제작 영화는 소수의 홍보물 정도였고, “은막에서 타이완 영화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가끔 선보인 영화조차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 화제에 오르지도 못했다.” 그런데 1920년대 부흥한 타이완 본토 희극인 가자희(歌仔戲, 희곡극-역자주)는 타이완 민중의 삶에 바탕을 둔 기본구조와 코드를 살린 나름의 공연팀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가자희는 주로 중국이나 한민족(漢民族) 전통의 역사 이야기로, 타이완 민담이나 전설에 뿌리를 둔 것도 있었다. 따라서 1954년 타이완에서 자체 제작되어 돌풍을 일으킨 ‘정통 타이완어 영화’는 이러한 ‘가자희 영화’의 형식을 빌려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sup>8</sup>

야오진핑(葉金鳳)은 타이완어 영화가 가자희에서 영화 문화로 넘어가면서 함의가 변화하고 확장하여 그 관계가 복잡해지게 된 정치·경제·사회적 요소 가운데, 식민지 시기에서 국민당 정부 통치시기로 넘어갔던 것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1955~1972년까지의 타이완어 영화를 일종의 재현 시스템(representation system)으로 보았다. 동시에 그 ‘문화 상상의 함의’는 “다중 기술(記述)의 상호 힘겨루기 가운데 드러나며 또한 역사 정황의 변화를 따라 부유한다. 타이완어 영화의 영화적 실천은 세계 영화문화, 본토 영화문화, 나아가 타이완의 역사경험과 생활문

8 盧非易(1998), 『臺灣電影：政治，經濟，美學 1949~1994』, 臺北：遠流出版, 61~67쪽.

화의 다양한 기술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sup>9</sup> 여기서 그가 지적한 ‘역사상황의 변화’란 물론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말한다. 그리고 ‘타이완의 역사경험’은 1950년대라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연히 1945년 이전의 식민지 시대를 가리키게 된다. 넓게 보면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전후(戰後) 타이완인이 식민지 시대와 전후를 상이한 두 개의 ‘시대’로 나누었으며, 이렇게 둘로 나눌 때 비로소 당시 타이완 사회가 가진 ‘시대감(時代感)’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감’은 전후 타이완인들로 하여금 식민지 시대를 하나의 총체(整體性) 의미를 갖는 ‘시대’로 인식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별적인 ‘개인기억’ 사이에 다소 이질적인 추억이 존재했을지라도, 식민지 시대를 하나의 ‘총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시대감’이 ‘개인기억’을 끊임없이 연결시킨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일종의 완결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을 것이다. 예룡엔(葉龍彦)의 저서 『춘화몽루-정통 타이완어 영화의 흥망기록』(春花夢露-正宗臺語電影興衰錄)에 서문을 쓴 천완이(陳萬益)는 1957년에 출판된 문헌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쟁시대 ‘황민화 운동’과 전후 국민당 정부의 ‘강압 통치’를 거치며 “오랫동안 병어리 노릇을 해야 했던”, 식민지 시대 문화와 문화 운동에 종사했던 전전(戰前) 타이완 지식인들에게 “50년대에 부흥한 정통 타이완어 영화가 그들의 열정과 이상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이를 ‘타이완의 문예부흥 시기’라고 부르기까지 했다.<sup>10</sup> 식민지 시대

9 廖金鳳(2001), 『消逝的影像—臺語片的電影再現與文化認同』, 臺北: 遠流出版, 18~21쪽.

10 陳萬益(1999), 「臺語片的啓示」, 葉龍彦, 『春花夢露』, 臺北: 博揚文化, 3~5쪽. 이 밖에 천완이가 인용한 문헌은 1957년 출판된 『影劇內幕』으로, 여기에

의 타이완 지식인들은 전후(戰後) 1950년대에 ‘정통 타이완어 영화’에 ‘문예부흥’과 같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막상 타이완이 만든 타이완어 영화가 시장을 석권하여 대중문화의 주류가 되는 광경이 펼쳐지자, 식민지 시대 타이완 본토 영화의 ‘황폐함’과 대비되면서 식민지 시대의 기억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천완이가 인용한 왕바이옌(王白淵)의 글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타이완어 사용금지’라는 ‘개인기억’도 언급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타이완어 영화가 부흥한 것은 상대적으로 식민지 시대 경험 가운데 ‘피억압’ 부분이 일종의 기억으로 환기되고, 다시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이 상호 교차하는 ‘정통 타이완어 영화’라는 ‘통로’를 통해 식민지를 겪은 타이완인의 ‘개인기억’이 ‘피지배’ 등 식민지 시대에 대한 ‘집단기억’으로 결집된 증거이다. 예룽옌은 전후 1950년대 중반 부흥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타이완어 영화 열풍의 그 ‘대변혁의 시대적 환경’과 타이완인이 “국민당의 강압통치 속에서 느낀 감정은 일제 식민통치 당시와 유사한 것”인데, 이는 타이완어가 식민지 시대 이후 줄곧 억압당한 상황과 관련 깊다고 지적했다.<sup>11</sup>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살펴볼 문제는 천완이, 야오진핑, 예룽옌과 같은 현대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정통 타이완어 영화’가 부흥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전후 국민당 정부의 ‘강압통치’이다. [전후 국민당 정부의 ‘강압통치’가 어떻게 해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타이완 사회의 ‘집단기억’과 관계를 맺었을까? 1945년 전후(戰後) ‘대일본제국’이 와해됨에 따

---

는 식민지 시기 문단에서 활약했던 王白淵, 張文環, 陳豪 세 사람의 타이완 지식인이 포함되어 있다.

11 葉龍彦(1999), 『春花夢露—正宗台語電影興衰錄』, 臺北: 博揚文化, 43~44쪽.

라 식민지이던 타이완은 해방되어 국민당이 주도하는 중화민국(中華民國) 체제에 곧장 흡수되었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식민지 시대에 대한 타이완 사회의 ‘집단지억’이 ‘역사기억’으로 전화(轉化)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후 타이완을 통치한 국민당 정부는 ‘중국(中國)’ 또는 ‘중화(中華)’의 회복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일본적인 것의 청산(去日本化)’은 곧 정부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여기에 명쾌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분야인 ‘문화’가 포함되었고, 게다가 그 ‘문화’라는 것은 정치권력이 조작하는 대로 이해되었다.<sup>12</sup> 이런 시각으로 식민지 시대 타이완의 문화 발전과정을 인식한다면, 당시 타이완 ‘문화’를 ‘일본적(日本的)인 것 대 비일본적(非日本的)인 것’의 이원대립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1947년의 ‘2·28 사건’과 그 후 ‘백색공포(白色恐怖)’ 및 계엄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원대립적 도식으로 ‘문화’를 해석하는 세력이 국민당 정부를 쥐락펴락하게 되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타이완 ‘문화’ 전반이 ‘일본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면, 사장되거나 소멸될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부 타이완 문화코드를 ‘비일본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중국적’ 또는 ‘중화적’인 것과 연결시키려 한다면, ‘비일본적’인 부분은 남겨질 수도 있다.

물론 앞서 기술한 논리체계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결국 문화 해석권을 둘러싼 도구나 전략에 불과하다. 앞서 다룬 타이완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소위 ‘강압통치’ 역시 이데올로기적인 속박에 불과하다.

---

12 전후 초기 타이완의 정치 상황과 문화에 관한 ‘구분’ 및 ‘차이’로 인해 일어난 대규모 반란사건에 대해서는 何義麟(2003), 『二·二八事件—「臺灣人」形成の 에스ノポリティクス』,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참고.

그러나 당시 ‘정통 타이완어 영화’가 대중문화의 주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국적’ 또는 ‘중화적’인 것과의 접점이 필요했다. 실제로 중일전쟁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타이완어 영화는 “예외 없이 일제강점기 및 항일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긴밀하게 엮이면서 재현되었다.” 야오진핑은 타이완어 영화가 드러내고 있는 민족의식과 역사인식을 고찰하면서 1960년대 중반기 이후 타이완어 영화는 “중국 또는 타이완과 일본의 대립 상태를 뚜렷이 보여주었고” 심지어 “일제강점기(日據時期)의 생활상을 그릴 때조차 중국의 항전 경험을 영화의 스토리 구조에 집어넣어 강조하였다.”<sup>13</sup> 근대 역사 또는 사회적 사건과 관련하여 타이완어 영화는 가자희와는 구별되는 문화적 함의를 새로이 개척했던 것이다. 바로 ‘중국-일본’으로써 ‘중원(中原)-번방(番邦)’을 대체하는 것이었고, ‘충신-역적’ 역시 ‘잔인한 일본인-고통 받는 중국인’으로 바뀌었다.<sup>14</sup>

요컨대 타이완 대중문화의 주류는 식민지 시대 타이완 사회에 익숙했던 희극적 기초구조와 문화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가자희에서, 전후 ‘가자희 영화’로부터 비롯된 ‘정통 타이완어 영화’로 옮겨갔다. 이 과정은 곧 ‘중국의 항전 경험’을 ‘역사 맥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삼든 ‘역사 맥락 변화’에 따라 문화론에 변화가 일어났든 상관 없이, 식민지 시대 타이완인의 ‘피억압’ ‘집단기억’을 중국의 항일전쟁 경험과 연결시킴으로써 식민시대에 대한 타이완 사회의 ‘집단기억’을 다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역사기억’으로 변환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1970년대 초 ‘정통 타이완어 영화’의 열풍이 사라진 이후 영화시장

13 廖金鳳(2001), 앞의 책, 131, 151~153쪽.

14 廖金鳳(2001), 앞의 책, 92쪽.

에서 뒤이어 등장한 중국어 영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러브스토리를 주요 서사구조로 하는 ‘애정영화[文藝愛情片]’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항일전쟁을 소재로 한 ‘애국정치 홍보물[愛國政宣片]’이었다. ‘애정영화’에는 당연히 1970년대 이후 타이완의 도시발전, 경제성장, 사회변천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오락적 요소가 훨씬 컸다. ‘애국정치 홍보물’이 인기를 끈 배경에는 당시 타이완의 국제적 지위가 점차 약화되면서(특히 1971년 ‘타이완과 일본의 국교 단절’의 영향이 컸다) 국민당 정부가 ‘외교적 곤경’에 빠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상황이 작용했다. 이에 대해 루페이이[盧非易]는 이런 유의 영화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1974년 상영된 「영열천추(英烈千秋)」가 흥행에 성공한 후에는 국방부와 기타 정부 홍보기관에서도 ‘관례적으로 협조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이완의 국제적 지위와 이미지가 실추했던 1970년대에 제작되었던 영화들이 하나같이 일본에 맞서 싸운 중국의 경험을 소재로 했던 것은 “과거 역사에서 승리의 기억을 찾아 현실의 좌절을 잊으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애국정치 홍보물’도 위기에 직면한 국민당 정부의 표준 대응 모델처럼 되었던 것이다.<sup>15</sup>

따라서 식민지 시대를 겪은 타이완의 ‘집단기억’이란, 일종의 ‘중국어화’된 항일 ‘역사기억’이 식민지 시대에 대한 ‘집단기억’과 거의 동일시된 것이다. 이는 초기 ‘정통 타이완어 영화’가 이미 중국의 항일투쟁이라는 공통의 ‘역사기억’으로 전화할 기회를 제공했던 것에서부터 ‘애국정치 홍보물’이 인기를 끈 데 이르기까지, “중국어 영화에서 ‘일본적인

15 盧非易(1998), 앞의 책, 181~183, 222쪽.

것의 청산'은 타이완의 식민경험을 지워버리는 것"<sup>16</sup>이었다고 야오진핑이 지적했던 것과 일치한다.

### 3. 전후 양산된 ‘집단기억’에서 다원 대립적 ‘역사기억’으로

1970년대 이후 잇달은 국제적 사건의 충격으로, 1980년대를 전후한 타이완 내 정치·사회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한 이미 지식인 커뮤니티의 ‘본토 성찰운동[本土反思運動]’이 일어났으며, 1977년이 되자 문예사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향토문학 논쟁[鄉土文學論戰]’이 시작되었다.<sup>17</sup> 그 외중에서 여러 복잡한 입장들이 분열과 재구축을 반복(反覆)하며 1983년의 ‘타이완 의식 논쟁’으로 이어진 후야 비로소, ‘중국 의식(中國意識)’과 ‘타이완 의식(臺灣意識)’의 대립이라는 주요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sup>17</sup>

그럼에도 ‘향토문학 논쟁’ 진행과 함께 모종의 ‘향토의식’ 혹은 ‘본토 의식’의 실천이 이미 시작된 문학계 등 다른 문화 영역과 비교할 때, 타이완 영화계는 ‘가장 나중에서야 인식한’ 셈이다. 루페이이는 이를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와 자본가의 손에 장악된” 탓이라고 하면서, 영화의 ‘강력한 상업적 본질’ 때문에 “현상유지에 도전하는 사조가 비켜

16 廖金鳳(2001), 앞의 책, 193쪽.

17 ‘향토문학 논쟁’에 대해 타이완 문화 國族主義 발생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서로는 A-chin Hsiao(蕭阿勤)(2001), *Contemporary Taiwanese Cultural Nationalism*, Routledge를 참고할 수 있다.

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up>18</sup> 1982년에서야 비로소 ‘향토문학’에서 소재를 취한 첫 영화가 나타났다. 1986년에는 ‘타이완 뉴웨이브 영화(臺灣新電影)’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향토주의와 사실주의의 실천’으로 인식된 새로운 경향은, 비록 “자각적인 본토화나 향토 의식적 경향은 없었다” 하더라도, “다수 개인의 성장경험을 주로 반영하면서, 그 성장경험에 타이완 경험을 동반시킴으로써 본토성(本土性)을 드러냈다.”<sup>19</sup>

주로 전후(戰後) 타이완에서 성장하며 겪은 감독의 ‘개인기억’을 드러낸 ‘타이완 뉴웨이브 영화’는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 흥행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전후 타이완 사회가 공동으로 겪은 성장경험이 ‘집단기억’으로 모여드는 ‘통로’를 연 것이다. 대부분 전후 타이완에서 성장한 ‘타이완 뉴웨이브 영화’의 주요 제작진이 식민지 시대의 역사경험을 건드릴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나 일단 전후 타이완에서 자라난 ‘집단기억’이 형성되자, 이는 전후세대의 개인 성장경험을 지속적으로 ‘소환(召喚)’하는 효과를 냈다. 강화된 개별 ‘개인기억’은 다시 계속되어 ‘집단기억’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개인기억’과 ‘집단기억’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 ‘재구성’을 촉진했던 것이다. 즉 1980년대 경제성장과 사회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의 상호 영향을 통해 성장기를 되돌아보게 된 전후세대는 일종의 전후 타이완의 ‘시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이전의 전후 타이완과 1980년대 이후가 자연스럽게 구분되기 시작한 셈이다.

---

18 盧非易(1998), 앞의 책, 227쪽.

19 盧非易(1998), 앞의 책, 277, 280쪽.

대다수 전후세대에게는 식민지 시대 타이완의 역사경험이 유년기의 극히 일시적 ‘개인기억’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전후 성장하면서 경험한 한 ‘시대’를 통해 다시 식민지 경험을 돌아보려면, 식민지를 직접 겪은 세대의 ‘개인기억’에 의존하거나 1970년대 정형화된 항일 ‘역사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후세대의 타이완 식민경험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설명하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들의 ‘본토화 또는 향토의식적 경향’과 항일 ‘역사기억’을 대비시켜 보자. [식민지 시대는] 자신이 성장하며 경험한 ‘시대’까지 포함하여 돌아보면, 현재 살고 있는 1980년대로부터 더욱 요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식민지 ‘시대’를 바라볼 때, 일종의 신비감을 갖거나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미묘한 ‘금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다.

‘타이완 뉴웨이브 영화’ 붐이 일면서, ‘애국정치 홍보물’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동시에 순수한 ‘애정영화’ 역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영화 시장에는 ‘타이완 뉴웨이브 영화’ 외에, 실상 이미 장르도 규정하기 어려운 갖가지 상업영화가 번성하고 있었다. 이 시기를 ‘영화 정치구조의 약화’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당시 민주화의 충격 속에서 국민당 정권이 1986년 계엄해제를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자, 타이완 영화는 기존의 영화 검열제도가 설정한 온갖 금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sup>20</sup> 이 가운데 ‘타이완 뉴웨이브 영화’의 연장선인 1989년작 「비정성시(悲情城市)」는 1947년에 일어난 ‘2·28사건’의 ‘금기’를 다루었다. 이 영화는 TV와 비디오 때문에 날로 위축되어 가던 영화시장에서 놀라운 흥행성적을 기

20 盧非易(1998), 위의 책, 297, 280쪽. 이 밖에도 이러한 기존의 ‘금기’는 윤리 도덕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재와 중국 영화 및 중국 관련 정치소재, 심지어 중국의 풍경 등까지 포함한다.

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지식인 집단에 ‘역사’와 ‘재현’에 관한 일대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1980년대 초, 타이완 사회에 ‘2·28 금기’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민주화 요구와 전술한 ‘중국 의식’과 ‘타이완 의식’의 대립이 있었다. 「비정성시」가 상영되기 1년 전에 공개 출판되었던 『쓰라린 60년—2·28사건 27부대장 중이런 회고록[辛酸六十年—二二八事件二七部隊部隊長鍾逸人回憶錄]』은 사건발생 당시 무장부대를 조직해 국민당 군대와 싸웠던 주요 당사자의 기억을 공개해 ‘금기’를 깨기도 했다. 이 책에 서문을 쓴 문인과 세 명의 학자들은 “함께 역사를 쓰자”, “진상의 회복”, “이 땅의 역사를 소중히 아끼자”, “그 시대를 위한 신증인”<sup>21</sup> 등의 표현으로 역사 해석권 경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1986년 국민당 정부의 계엄해제를 전후로 타이완 곳곳에서 터져 나온 ‘2·28사건’에 대한 ‘개인기억’은, 항일 ‘역사기억’에 도전할 가능성을 이미 안고 있었다.

영화 「비정성시」는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허구 텍스트가 대중문화 영역에 출현했음을 알렸다. “창작자 스스로 역사(혹은 기억하는 과거)에 거리를 두며 바라보는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 꿈의 기억처럼 끊임없이 섬멸하는 어지러운 그림자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훑쳐보는 듯한 자리에 관객들을 초대”<sup>22</sup>하는 순간, ‘2·28사건’이 가진 ‘금기적 성격’은 사라졌다. 영화로 인해 촉발된 ‘2·28사건’에 대한 ‘개인기억’도 한 방

---

21 鍾逸人(1993), 『辛酸六十年 二二八事件二七部隊部隊長鍾逸人回憶錄(上)』, 중보신판(1988년 초판), 「序一」~「序四」, 臺北:前衛出版社. 이 밖에 서문을 쓴 네 명은 각각 李喬, 陳芳明, 張炎憲, 李筱峰이다.

22 盧非易(1998), 앞의 책, 305쪽.

향으로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타이완 사회에 「비정성시」라는 ‘통로’를 통해 ‘2·28사건’과 관련된 ‘집단기억’이 순식간에 형성된 것이다. 이 ‘집단기억’은 이때부터 항일 ‘역사기억’을 전복시키는 에너지를 갖게 되었고, 온갖 ‘다윈·대립’의 ‘역사기억’이 점차 넘쳐나는 출발신호가 되었다.

‘2·28사건’에 관한 ‘집단기억’이 이전의 항일 ‘역사기억’을 순식간에 붕괴시키고 이를 대체하게 된 이유는, 그 ‘집단기억’이 식민지 시대와 전후 타이완을 뚜렷이 나누는 이정표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진상’과 ‘역사’를 따지게 되면서, 식민시대와 전후라는 두 상이한 ‘시대’의 비교 속에서 ‘2·28사건’의 발생원인을 찾게 된 까닭이다. 식민지를 경험한 타이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성장기에 ‘집단기억’을 경험한 전후세대는, 타이완 역사경험 과정에서 ‘본토의식’ 심지어 ‘타이완의식’의 근원을 찾으려 할수록 항일과는 구별되는 ‘역사기억’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는 거의 암흑이나 다름 바 없는 ‘2·28사건’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식민지 ‘시대’를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 또는 ‘2·28사건’ 속에 대체 어떤 ‘본토의식’이나 ‘타이완의식’이 있는가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2·28사건’에서 언급된 식민시대 ‘역사기억’이 필요하다면, 식민지를 겪은 ‘개인기억’ 또한 필요하기 마련이다. 1990년 이후 식민지 경험자가 ‘회고록’을 공개 출판하는 현상이 증가한 사실만 보아도 그 필요성이 계속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타이완 학술계의 최고 권위기관인 중앙연구원조차 그 산하 근대사연구소에서 1991년 초 간행물 『구술역사(口述歷史)』를 ‘2·28사건 특집호’로 편성했을 정도다. 두 회에 걸친 ‘특집호’에서는 1989년 이

후의 인터뷰(인터뷰는 대부분 1991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를 바탕으로 모두 75편의 ‘인터뷰 기록’을 실었다.<sup>23</sup> 여기서 드러난 온갖 ‘개인기억’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2·28사건’ 발생원인을 전후 타이완을 통치한 국민당 정부와 군대의 극심한 부패로 곧장 지목하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식민시대 타이완의 ‘진보성’과 전후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건너온 통치자들의 ‘낙후성’의 대립과 갈등에서 찾는 일종의 문화 ‘판별’ 담론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부터 ‘2·28사건’과 같은 ‘개인기억’이 막혔던 물꼬가 터지듯 흘러넘치면서, 식민시대의 ‘개인기억’ 또한 ‘2·28사건’의 ‘부산물’처럼 수면 위로 떠올랐음이 분명하다. 「비정성시」는 ‘2·28사건’에 대한 ‘개인기억’이 모여들 ‘집단기억’의 ‘장소’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식민시대의 온갖 ‘개인기억’ 또한 이를 통해 식민시대에 대한 ‘집단기억’으로 모였다. 이 두 현상이 쌍둥이처럼 동시에 나타나면서, 식민지 시대와 전후라는 두 ‘시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기억’이 모여 형성된 두 가지 ‘집단기억’은 서로 끊임없이 ‘재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2·28사건’의 ‘집단기억’을 사건 그 자체로부터 분리시켰다. ‘2·28사건’에 대한 ‘역사기억’을 찾으려는 전후세대를 만나면서, 식민시대 ‘역사기억’도 촉발된 것이다. 식민지 시대와 전후라는 두 ‘시대’의 차이는 ‘진보-타이완 대 낙후-중국’을 비교하는 일종의 문화담론이 되었다. 국민당의 정책적 색채가 농후했던 항일의 ‘역사기억’은 자연히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이는 항일

2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口述歷史編輯委員會(1992·1993), 『口述歷史 第3期 二二八事件專號』, 『口述歷史 第4期 二二八事件專號』,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역사기억’이 붕괴에 직면하자, 실제로 중일전쟁의 경험을 가진 ‘개인기억’이 재빨리 다시 모여들면서 ‘집단기억’의 형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만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90년대 이후 타이완에서는, ‘종족[族群]’이라는 어휘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일부 현상들은 종족문제 또는 종족분쟁의 개념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sup>24</sup> 항일 ‘집단기억’으로 항일의 ‘역사기억’을 줄곧 유지시켰던 그룹의 구성원은 대부분 1945년 이전에 중국 본토에서 항전을 경험하고 1949년 이후에 타이완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전후 초기 ‘외성인(外省人)’이라고 불렸고, 이런 식의 종족분류 구조 속에서 ‘외성족(外省族群)’을 형성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식민 ‘집단기억’을 갖고 있으며 1980년대 말 갑자기 나름의 식민 ‘역사기억’을 형성한 그룹은 ‘본성족(本省族群)’으로 분류되었다. 1992년 이후 민주화가 시작되고 언론통제가 풀리면서 대중매체는 고도의 자본주의적 이윤경쟁에 돌입했다. 그러자 상술한 두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 기억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각 종족 집단도 종족을 단위로 한 ‘집단기억’을 갖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들은 각자 처한 정치·경제·사회적인 입장에 따라 대체로 종족의 입장과 관점에서 자기 종족의 ‘역사기억’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타이완에서는 각종 ‘역사기억’이 서로 대립했다가 다시 하나의 ‘역사기억’으로 통합되는 등, 다원적이면서도 다중 대립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

24 王甫昌(2003), 『當代臺灣社會的族群想像』, 臺北: 群學出版, 3쪽.

## 4. 맺음말 – 은유적인 식민지 ‘역사기억’

현대 타이완의 식민지 시기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은 이미 식민지를 경험한 개인과 그 소속그룹이 사라지면서 점차 소멸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부터 지금까지 정치·경제 등 제도나 이데올로기의 조작 또는 전환을 거친 어떤 ‘역사기억’은 세대를 넘어 계속 전승될 것이고, 앞으로도 정치·사회 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짐작된다. 리코르(P. Ricoeur)의 발언처럼, “역사와 허구(fiction)의 교차는 ‘역사의 구체화’에 은유적 지시성을 부여했다. 전화하여 역사가 된 기억의 그 은유적 효과는 수많은 ‘유추’를 낳았다.”<sup>25</sup>

1989년에 상영되어, 전후 타이완의 식민지 ‘역사기억’에 영향을 미쳤던 「비정성시」는 분명 ‘역사와 허구를 교차’시켜 이른바 ‘은유적 지시성’을 지녔기 때문에, 타이완 사회가 식민경험을 깊이 있게 파헤치도록 하는 촉매제 구실을 했다. 그러나 「비정성시」는 식민지 역사경험과 일련의 문화담론 성격을 띤 ‘집단기억’의 관계를 결부시키는 한편, 나아가 은유로서의 ‘역사기억’까지 촉발시켰다. 2008년 상영된 「해각칠호」는 단지 ‘역사와 허구의 교차’에 머무르지 않고, 식민지 ‘역사기억’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유추해 낸 텍스트이다. 이러한 ‘유추’를 통해 식민지 ‘역사기억’에 대한 더 많은 담론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민지 ‘역사기억’의 은유성까지 강화시켰다.

---

25 Paul Ricoeur 著, 久米博 譯(2004), 『時間と物語 第1卷 歴史と物語』, 東京: 新曜社.

「해각칠호」로 인해 촉발된 은유적 ‘역사기억’이 과연 어떤 쪽을 향하는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인 입장 또는 관념에 따라 서로 달리 보는 듯하다. 그러므로 식민 역사경험에서 계속 은유화된 일종의 ‘역사기억’은 이미 식민지 역사경험을 벗어나 변화하면서 온갖 다양한 ‘역사기억’을 스스로 유추해 내고 있다. 「해각칠호」의 흥행은 ‘역사기억’이 은유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감을 상징하는 것이자, 타이완 사회가 이미 식민지경험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대중문화’가 ‘개인기억’과 ‘집단기억’ 사이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다만 영화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능력 부족으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실제로 영화와 더불어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대중매체는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음반을 통해 전파되는 대중가요도 매우 중요하다. 음반으로 기록해 전달되는 ‘육성(肉聲)’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해 내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육성은 ‘시대감’을 뛰어넘어 ‘역사감(歷史感)’까지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으로 비교의 관점을 보완해 서로 다른 식민상황을 연구함으로써 전후 타이완 사회의 ‘역사기억’과 그 변화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참이다.

# 역사대화론

— 한·중·일 공통 역사교재 개발의 성과와  
과제를 사례로

사이토 가즈하루(齋藤一晴, 일본 메이지대)

## 1. 머리말

2005년 이후 한·일, 한·중·일이 공동으로 편집한 공통 역사교재의 간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중·일 공통 역사교재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미래를 여는 역사』(이하 『미래를 여는 역사』라 함)를 예로 들면, 한·중·일 3국에서 이미 25만부 이상이 간행되었으며, 홍콩·대만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공통교재라는 형식 외에도 공동으로 편집하여 각국에서 간행된 학술서와 번역 출판된 일반서 등을 포함하면 최근 한·중·일 3국에서의 학술연구의 긴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중·일 각국 내의 내셔널리즘이 타국의 내셔널리즘과 공진(共振)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관계성과 각국에서의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의 점검·갱신작업이 표리일체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논의가 점점 더 큰 과제로서 국경을 초월해 우리들 앞에 대두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과제에 대해 『미래를 여는 역사』의 작성 과정을 사례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에서의 공통 역사교재 작성의 도달점과 과제이다. 두 번째는 『미래를 여는 역사』 작성이라는 역사대화가 분명하게 제시한 역사연구·역사교육·역사서술의 과제이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공통 역사교재 작성이라고 하는 시도를 동아시아 내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발전시켜가는 것이 요구되는가 하는 논의에 대한 나 나름의 답변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공통 역사교재 편집과 출판, 일본의 전쟁책임을 계승하기 위한 역사화해에 기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연구·실천·서술 방식을 재고하고, 각국에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을 자기점검·자기갱신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역사대화를 통해 동아시아란, 동아시아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말하자면 공통 역사교재 작성에서 역사대화론으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현재의 과제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동아시아에서의 공통 역사교재 작성의 도달점과 과제

1982년의 이른바 역사교과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역사대화가 본격화되었다.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역사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공통 역사교재 작성을 목표로 쌓아 온 10년 이상에 걸친 연구·실천 교류는 한일 공통 역사교재 간행이라는 결실을 맺었을 뿐 아니라, 양국에서 자국사의 재검토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역사대화는 한국과의 관계에 비하면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러나 2002년 이후 해마다 한 번 한중일의 연구자와 교육자, 시민이 참가해서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와 역사인식의 평화포럼’을 보면, 지금까지 개최된 일곱 차례의 심포지엄을 거치는 가운데 중국 측의 보고와 발언내용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02년의 포럼 개최 당시 중국 측의 보고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비판과 전쟁범죄의 추급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교토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중국의 보고자가 한국전쟁 때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해 언급하여, 종래에 중국 국내에서 보여주었던 한국의 무력 북침이라는 역사이해와 다른 내용을 보고하였다. 또 지난 달(2008. 11)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심포지엄에서도 중국 정부의 전후보상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일본 인민과 군국주의자를 구별하는 전후정책이 전쟁피해자 개인의 존엄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등 자국의 역사를 재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져 왔던 한중일의 논의는 현재 서서히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 자국사의 재검토 작업을 어떻게 공유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옮겨 가고 있다. 단순한 일본 비판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쟁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역사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한층 건설적으로 심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혹은 한중일이 편집·출판한 공통 역사교재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이미 5종, 6권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미래를 여는 역사』는 유일하게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편집한 것이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2001년에 발생한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작성을 검토하기 시작해, 2002년부터 3년의 세월과 열 차례의 국제편집회의, 세 차례의 국제심포지엄을 거쳐 출판되었다.

그 특징은 1982년의 교과서 문제 이후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 간에 구축된 역사대화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진전하려고 했던 점, 일본의 전쟁책임·전후책임을 둘러싼 역사 사실의 공유를 목표로 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연구·역사교육·역사서술·과학운동의 4자가 일체가 되어 대응했다는 점, 또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 역사대화를 통해 자국중심적인 역사이해를 극복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검정을 받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와는 달리 민중 차원에서 작성한 공통 역사교재라는 대안을 한중일 3국이 작성, 공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미 출판된 지 3년 정도가 지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비평,<sup>1</sup> 작성과정에서의 논점에 대해 언급한 저작물도 출판되는

등,<sup>2</sup> 그 성과와 과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는 “『미래를 여는 역사』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지금부터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sup>3</sup>

향후 『미래를 여는 역사』는 영어 번역판을 출판할 예정이며, 내용과 형태에 관련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를 여는 역사』의 작성 위원들은 2011년에 상·하권으로 구성된 한중일 공동학술서를 간행하기 위해 이미 일곱 차례에 걸친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역사대화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오늘날 『미래를 여는 역사』의 작성과정과 교재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그 성과와 과제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역사대화의 방식과 그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의 국제 역사교과서 대화가 전공인 곤도 다카히로[近藤孝弘]는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곤도는 이

- 
- 1 『미래를 여는 역사』를 둘러싼 논의로서는, 『미래를 여는 역사』의 전쟁기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林雄介(2005), 「東アジア共通歴史教材を讀んで」(歴史科學協議會『歴史評論』, 3월호)와, 그에 응답한 及川英二郎(2008), 「林雄介(2005), 『東アジア共通歴史教材を讀んで』に苦言を呈する」(歴史科學協議會, 『歴史評論』, 7월호)가 있다.
  - 2 『미래를 여는 역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점과 간행 후의 활용방법,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齋藤一晴(2008), 『中國歴史教科書と東アジア歴史對話』(花傳社)를 참고할 것.
  - 3 成田龍一(2008), 「東アジア史の可能性 日本・中國・韓國=共同編集『未來をひらく歴史』(2005年)をめぐる」, 小森陽一·崔元植·朴裕河·金哲, 『東アジア歴史認識論争のメタヒストリー-韓日, 連帯21の試み』, 青弓社, 129쪽.

에나가(家永) 교과서 소송의 “성과와 한계 양쪽을 모두 확인하고 새로운 노력을 조속히 시작할 필요”에 대해 언급한 다음,<sup>4</sup> 재판을 뒷받침한 논리의 일부가 “국가 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부정하는 것이 정치교육에 장애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유럽에서 역사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사정책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과 동아시아에서 역사대화의 현 상황을 비교하면서 “공권력을 통해 역사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sup>6</sup>라는 제기를 하고, 각국이 역사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역사대화를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7년에 개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해당)에 따라 고교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미 샘플단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사’ 신설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인식 공유의 필요성과 민간 차원의 성과가 토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교육 강화정책이기도 했다”고 정리하고 있다.<sup>7</sup> 이는 ‘동아시아사’ 신설이 한국 정부의 역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近藤孝弘 편저(2008), 『東アジアの歴史政策 日中韓 對話と歴史認識』, 明石書店, 237~238쪽.

5 近藤孝弘 편저(2008), 237쪽.

6 近藤孝弘 편저(2008), 15쪽

7 三橋廣夫 감수·번역(2008) 『高等學校「東アジア史」サンプル單元報告書』, 54쪽.

나아가 중일·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 공동역사연구와 한일 공동역사연구(제2차)의 멤버에는 민간 차원의 공통교재 작성 경험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중일 공동역사연구의 경우, 중국 측 멤버 10명 중에서 최장인 보평(步平)과 영유목(榮維木)이 『미래를 여는 역사』의 편집을 경험했다. 한일 공동역사연구에서도 한국 측 멤버 16명 중에서 4명(신주백·정재정·현명철·하종문)이 민간 차원의 교재 작성에 참여했다. 이는 민간 차원의 역사대화의 경험을 정부 차원에서도 반영하려고 하는 각국의 역사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공동연구를 역사적 사실의 검증보다도 오히려 정치·외교 전략으로 위치시키는 일본 정부가 일본 측 멤버로 민간 차원의 공통교재 작성 경험자를 포함시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역사정책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일본과 중국·한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공통 역사교재의 도달점과 과제는 몇 가지 점에서 현시점에 걸맞게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공통 역사교재 작성의 특수성을 유럽의 경험과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통 역사교재 작성으로 대표되는 역사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역사대화를 축적시켜가는 것인지, 아니면 각국 정부의 역사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들을 바꾸어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의 역사대화가 각국의 역사연구, 역사교육, 역사정책을 재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가 누구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시기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미래를 여는 역사』의 내용과 작성 과정을 역사대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역사대화

『미래를 여는 역사』의 작성과 출판의 성과는 일본의 전쟁 책임·전후책임을 둘러싼 역사 사실을 한중일 3국이 공유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작성과정과 논의과정에서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를 재검토할 필요성과 어려움을 편집위원 전원이 배우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초보적인 성과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에 기술하는 것과 같은 역사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여는 역사』 작성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뜨거웠고 평행선을 달렸던 것은 일본의 가해, 중국과 한국의 피해라는 틀을 어떻게 극복하고, 전쟁피해자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함께 역사를 바라보고 공유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도쿄 대공습과 원폭 피해자, 중경(重慶) 폭격의 희생자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이 바로 하나의 사례이다.

3국의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논의가 자주 감정기억과 희생자 수와 같은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막상 가장 중요

한 도쿄와 중경의 당시 일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하는 점까지를 논의,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피해국이었던 중국도 항일전쟁기 중경의 일상생활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일본 측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더욱더 어려운 과제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즉 앞서 서술한 논의가 미로를 헤맸던 것은 전쟁피해자 개인과 그 생활에 대해 3국의 편집위원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고 있으며, 파괴된 일상과 생활 그 자체를 공유하지 못하고서는 『미래를 여는 역사』의 편집과 출판의 목표였던 전쟁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이 애당초 무리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대화에서 과거의 역사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논의의 토대로서 일상생활을 서로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전쟁피해자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역사대화의 방식 자체를 논의하는 데 이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을 얼마나 개인 차원에서 극명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보장하는 실증적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일상을 묘사하는 행위는 묘사하는 사람의 주체성의 문제와 같은 의미이며, 왜 그렇게 묘사하는지, 어째서 그러한 연구방법을 구사해 당시 일상을 재현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실증적 연구성과와 과제를 3국이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역사대화의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실증 이전’에 각국의 연구상황 속에서, 혹은 각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으로서, 또 역사와 마주하는 한 개인으로서 그 주체성을 묻는 것의 의미를 상호 파악,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해와 피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논의와 역사서술을 극복하고, 복잡하게 중층화된 역사를 풀기 위해서는 역사와 대면하는 자세, 주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나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역사인식의 자기점검과 자기갱신이며, 역사인식의 공유, 동아시아라고 하는 존재와 그 역사가 연대·공유와 자기중심·자국중심적인 역사이해, 역사상(像)의 강요의 두 가지 의미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적인 행위이다.

한·중·일 3국에서 공동편집, 동시 출판된 『미래를 여는 역사』는 과거 전쟁의 역사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기중심·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나 국가사를 뛰어넘어 관계사·지역사로 역사와 지역을 파악하는 틀을 아무리 확대시켜 보아도, 반드시 그 틀의 ‘안’과 ‘밖’에는 선이 그어지며, 거기서 탈락되는 역사,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내는 일상생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통 역사교재를 작성한다는 행위 그 자체 속에 이미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면역원(抗原)에서 만들어 내는 ‘백신’과 같은 것이지, 결코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나 특효약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기중심·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 역사관으로 유도하는 위태로움과 주체적으로 마주하지 못한다면, 공통 역사교재를 잘 못 사용하여 21세기판 아시아주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재림이라고 하는 ‘연대’·‘공유’를 만들어 내는 독약이 되어 버린다.

공통 역사교재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작성과정에서 분명하게 된 가장 큰 성과는 그 자체가 이원론적이 아니라 양의적(兩義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구조를 배울 수 있는 실천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가해와 피해, 지배와 종속, 식민지화와 근대화, 전쟁동원과 전쟁협력 등이 제각기 별개로 존재하면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양의적으로, 다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독자와 학습자 모두 배울 수 있다.

즉 자국중심·자기중심적인 역사인식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자국과 타국에 대한 인식과 자기와 타자에 대한 인식을 자기점검·자기갱신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와 마주하는 개인의 주체성을 묻는 행위인 것이다. 그 점검과 갱신의 이력이야말로 역사인식의 심화, 인간적인 성장으로 배양되어 국경을 초월해 공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를 여는 역사』를 일본의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추궁하고 그 역사 사실을 공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활용 방법과 역사대화 방식을 재고하는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 역사교재의 간행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대화에서 도출된 도달점이며, 또 한계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배우는 자세가 필수 불가결하다.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역사대화가 규명한 것은, 공통 역사교재 작성을 과거 극복에만 기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연구방법), 묘사 방식(역사서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사람의 육성(역사교육)을, 오늘날의 과제, 즉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 학습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점일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사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는 그것에 답하기 위한 순서와 토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합리적이며 고정적인 개념으로 표현되거나 사전에 준비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역사대화란 각국 정부의 역사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사상적 영위며,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는 연구·교육·서술을 통한 교류가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를 여는 역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된 시대구분, 지역개념, 방법론 등은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의 모습을, 국경을 초월해 검토하는 데 피할 수 없는 논점이며, 공통 역사교재 작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공통 역사교재 작성에서 역사대화론으로

공통 역사교재 작성은 각자의 역사인식에 대한 자기점검과 자기갱신의 이력을 공유하는 장이며 역사대화 방식에 대해 국경을 뛰어넘어 고민을 해 나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거기서 요구되는 것은 각국에서 자국사의 재검토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야와, 동아시아·동아시아사를 모색·구축하기 위한 세계사상(像)의 주체적인 형성을 수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역사인식문제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과거의 전쟁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하는 전쟁학습과 세계사상의 주체적 형성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적인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의 검토와 전쟁학습, 세계사상의 주체적 형성은 일견 무관해 보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대화라고 하는 커다란 틀의 일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일본의 전쟁의 역사와 마주하기 어려운 이

유 중 하나로 자국의 역사인식과 전쟁관을 점검하고 갱신할 수 있을 만큼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동아시아사상과 세계사상의 주체적 형성을 동반하지 않는 전쟁학습은 역사대화론에 이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해 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태평양전쟁’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전쟁’이란 역사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다. 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이란 용어는, ‘태평양전쟁’이라고 기술했을 경우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이 추가 되고, 동시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의 지배와 저항전쟁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역사연구와 역사교육 쪽에서 제기해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 교과서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전장이 된 태평양에 관한 기술은 모든 교과서에서 대항해 시대의 식민지화, 그리고 그 후 열강 각국에 의한 재분할 부분으로 내용이 국한되어 있으며, 분량도 몇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기술이 구체화된 것은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祿)에 의해 지역세계가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구조 전체, 동태 전체로서 제기된 13개 지역구분론에 입각한 『고교세계사』(實教出版)가 1978년에 출판된 이후였다. 거기서는 전통적인 항해술과 식생활, 문화와 전설의 계승, 고도의 문명을 세운 고대 유적에 대한 소개 등 태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역사서술에 반영했으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세계사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는 몇몇 교과서에 일부 남아 있을 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사수정주의의 대두와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점점 강화, 그리고 교과서 회사의 자주규제 등에 따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전쟁에 대한 기술이 크게 후퇴했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전쟁기술과 전쟁학을 뒷받침하는 세계사상과 동아시아상의 주체적인 형성을 촉진하는 내용이, 역사연구가 진전되고 역사교육의 교육실천이 축적되었음에도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아무리 공부해 봐야, 과거의 전쟁과 일상생활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재와 연결해 자신들의 과제로 보면서 주체적으로 문제의식을 키우는 것은 어려우며, 더욱이 동아시아상과 세계사상의 주체적인 형성을 동반한 역사대화에 임하는 것은 바랄 수도 없다는 것이 그 실상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원인은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된 것처럼 일본의 역사연구, 역사교육, 역사서술에서의 유럽중심사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온 일본사·서양사·동양사의 3구분 연구체제와 일본사·세계사로 나누는 이분교수법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는 역사연구의 성과와 역사교육에서의 실천의 축적, 그리고 그것들을 반영한 역사서술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의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일본의 전후 직후에 구성된 세계사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사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이 교과서의 원형은 1949년에 출판된 도쿄대학 문학부 사학회편 『세계사개설』이다. 그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학습지도요령의 변화와 역사연구의 연구성과가 반영되는 등 영향을 받았음에도, 장 구성에서 특별한 변화는 볼 수 없다. 그중에서도 세계의 일체화를 근대 유럽의 성

립에서 구하는 점, 각 지역의 역사를 묘사한 후 그것들을 연결해 가는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점, 세계의 일체화 이후의 내용이 유럽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 유럽중심사관이 관철되어 있다는 사실은 반세기 이상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일본의 젊은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전쟁에 관한 사실을 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인식으로 심화시키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진보된 유럽과 뒤쳐진 지역 및 그 역사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역사 이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근대화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의식과 그러한 지역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모순되지 않는 하나의 역사인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세계사상의 주체적인 형성을 동반하지 않는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경우,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각국은 전쟁 전과 후를 막론하고 약하고 뒤쳐진 존재이며,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 전시 중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같은 근대화 모델을 오늘날까지 지향하고 있다는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에 빠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전장의 여러 모습과 점령·식민지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시야가 결여되어 있으며, 진보한 강자가 역사를 만들고 뒤쳐진 약자는 이를 따른다는 구도가 존재한다. 또한 양자 간에 전쟁과 같은 모순이 발생해도 그 구조가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쳐진 약자 쪽에서 강화하려는 역사가 있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 즉 전쟁학습과 세계사상의 주체적인 형성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와 역사교육에 존재하는 유럽중심사관, 바꾸어 말해 이원론적인 역사인식을

뿌리부터 뒤바꿀 장치와 구체적인 방법이 학습자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일본의 전쟁범죄를 가르쳐 봐야 아시아와의 역사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인식을 형성하기는 어렵다.

이는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관계성을 고려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전쟁범죄연구는 1980년대 이후 교과서 문제와 전쟁피해자 본인의 증언 등을 계기로 크게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연구의 성과가 세계사상의 주체적인 형성과 충분히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역사교육에서도 전쟁학습을 통해 전쟁을 아는 것과 아시아에 대한 시야를 키우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방법과 시야로 세계사상을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쟁범죄연구의 과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최근 일본의 역사연구에서는 제국주의식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세계사상과 세계관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이며 역사연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동반하지 않으면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모색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 기술한 여러 과제를 각자의 점검과 갱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을 국경을 초월해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공통 역사교재의 작성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공통 역사교재 작성은 역사화해라는 목표를 두면서도 각국의 연구·실천·서술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동아시아·동아시아사를 논의하는 데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의 공통 역사교재의 도달점과 과제, 그리고 작성과정에서의 논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미래를 여는 역사』를 사례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를 통해 보이는 것은, 공통 역사교재 작성과 간행을 역사화해와 역사대화의 구체적 사례로 분석함과 동시에, 각국의 역사연구·역사교육·역사서술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실마리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연구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패전으로부터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의 침략전쟁, 점령, 식민지 지배 역사를 둘러싼 역사인식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시아와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일본 인구의 4분의 3 이상은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이다. 그것은 아시아 각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이미 전쟁을 모르는 세대임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러한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본의 전쟁책임·전후책임을 둘러싼 역사인식 문제를 어떻게 대화, 극복, 계승해 가야 하는지를 고려했을 때, 일본의 침략전쟁이라는 역사 사실에 대해 국경을 초월해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까지 시야에 넣은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 서로 다른 역사인식과 전후사 경험을 감안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대화의 토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대화의 토대를 일본과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자와 교육자, 그리고 각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할 수 있을까? 현재 아시아와 마주하는 자세, 역사인식을 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역사대화가 문제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작성된 공통 역사교재는 구체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역사대화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성과정에서 자국중심적인 역사연구·역사교육·역사서술을 자기점점·자기갱신함으로써 아시아,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마주하는 자세를 고민해 나가는 것이 이질적인 타자와 마주하여 자신의 역사인식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대화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똑같이 국가 차원의 역사정책으로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은 역사대화의 형태를 고려하는 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나의 생각이다. 이 역사대화에서 역사정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필요해질 것이다.

역사대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역사연구·역사교육·역사서술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며, 각각의 존재의의와, 역사와 마주하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묻는 것이다. 이러한 영위 전체를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역사대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연구 분야로 구축할 것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것을 이 글에서는 공통 역사교재 작성에서 역사대화론이라고 표현했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초판 1쇄 인쇄 2009년 10월 28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11월 5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43-3-9390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